

2019 평생 교육 백서

발간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래사회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미래 예측과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움은 삶의 전 영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고용과 복지를 이끄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기 위해 ‘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K-MOOC 강좌 개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시대를 앞당겼으며, 성인 문해교육 확대를 통해 숨어있는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용기를 불어넣는 등 모든 국민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19년 평생교육백서」는 그간 추진한 평생교육 정책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낸 종합 정보자료집이자 안내서입니다.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연구자, 현장 전문가, 국민 여러분들이



널리 활용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9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이 단절되지 않는 미래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모두에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인사말

국가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 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국민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자신의 직업생활을 설계해 나갑니다. 어떤 국민은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더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또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가꾸어 가고자 교육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육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각자의 관심이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평생교육백서는 국가가 한 해 동안 노력한 평생교육 관련 내용과 성과를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에서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살피게 됩니다. 평생교육백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생교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작동과 그 성과를 정리합니다. 둘째, 문해 및 학력보완·직업능력 향상·인문교양·시민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셋째,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평생교육이 모든 지역에서 조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전국 17개 시도의 평생교육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가 고루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다문화인구, 학부모, 장애인, 여성, 노인 및 중장년, 농·어업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사회고도화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노력을 점검합니다. 여섯째,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살핍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계좌제, K-MOOC, 한국형나노디그리에 해당하는 매치업,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의 운영 내용과 성과를 정리합니다. 일곱째, 앞으로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평생학습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노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평생교육을 조명함으로써 평생교육백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가꾸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줄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등 국제기구조차 비교적 최근에만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의 체계화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여년 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보는 독자는 사회의 필요에 비추어 미진한 사항이 종종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빈구석은 앞으로 우리가 더 채워가야 할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밀한 분석과 성찰이 중요합니다. 부디 평생교육백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 평생교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위원, 집필위원, 정책관계자, 기획 실무위원들께 마음 깊이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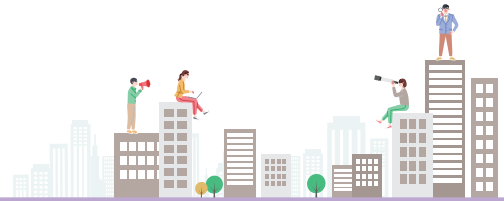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윤여각



한눈에 보는 평생교육 역사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평생교육법	▶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명문화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공포	▶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 교육부 장관에게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할 의무 명시 ▶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교육부 행정조직	▶ 문교부	
평생교육 전담기구	▶ 1983년 사회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 ▶ 1986년 사회국제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1996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평생교육 진흥계획		▶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독학학위제 업무) 설치 ▶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개시(한국교육개발원)
주요 특징 및 역점 사업	▶ 평생교육진흥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규정 ▶ 평생교육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성인 고등교육 참여 확대 추진(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 대학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 설치 ▶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교육 확대 ▶ 언론사 및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 등 민간 평생교육 확대 ▶ 사내대학 설치	▶ 1990년 독학학위제 운영 개시 ▶ 1997년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 ▶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개시



2000년~2007년

-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
- ▶ 2001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4년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명칭 변경
- ▶ 2005년 평생학습국으로 명칭 변경
- ▶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 설치
- ▶ 2000년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 ▶ 2002~2006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제1,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중앙 및 지역단위 평생교육지원체제 기반 마련
-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
- ▶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문화 관련사업 시작
- ▶ 2000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제도 시행
- ▶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작
- ▶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개최
- ▶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상 개최
- ▶ 200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

2008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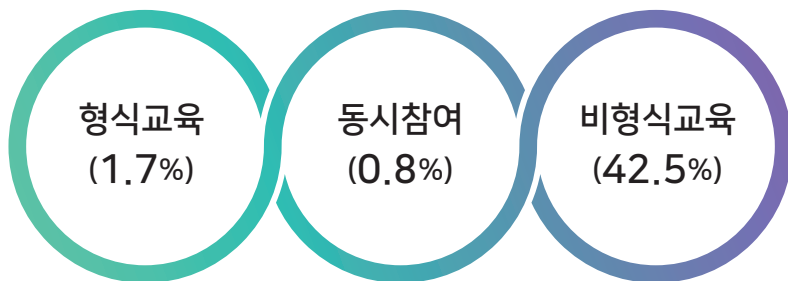
- ▶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09년~현재)
 - 2009년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마련
 - 2013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일원화
 - 2014년 문해교육 개념 확장·지원 근거 /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2015년 지자체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2016년 문해교육 지원체제 및 문해교육센터 설치 근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설립 근거 마련
-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 ▶ 2013년 교육부로 개편
- ▶ 2014년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 ▶ 2008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18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 2011~2016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부산, 대전, 충북, 경기, 울산, 제주, 충남, 인천,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전남, 경남, 서울, 세종, 전북)
- ▶ 2008~2012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13~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2018~2022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임무 부여
- ▶ 중앙-광역-기초 지역단위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 ▶ 대학평생교육활성화 및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 ▶ 2008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시작
- ▶ 2010년 평생학습계좌제 시행
- ▶ 2011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시작
- ▶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 2014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비스 개통
- ▶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통
- ▶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
- ▶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시작
- ▶ 2018년 매치업(Match業) 사업 시작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이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9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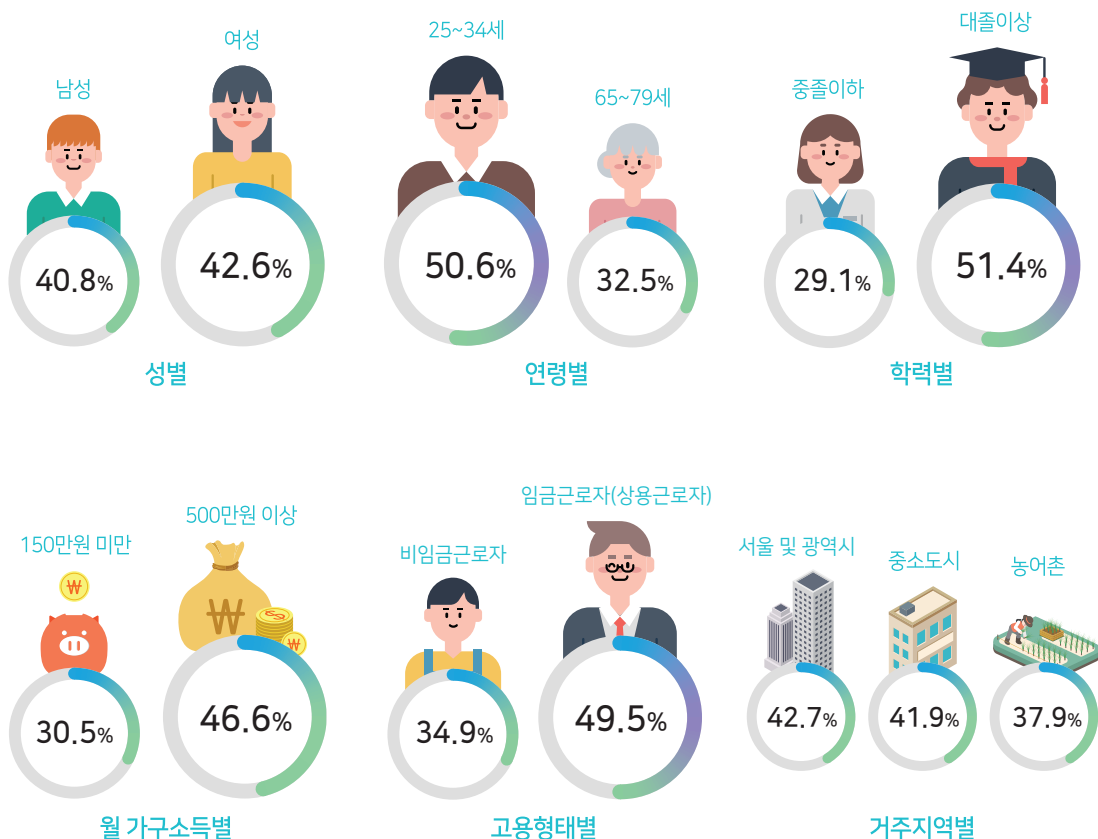


2019년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¹⁾은

43.4%

1) 평생학습 참여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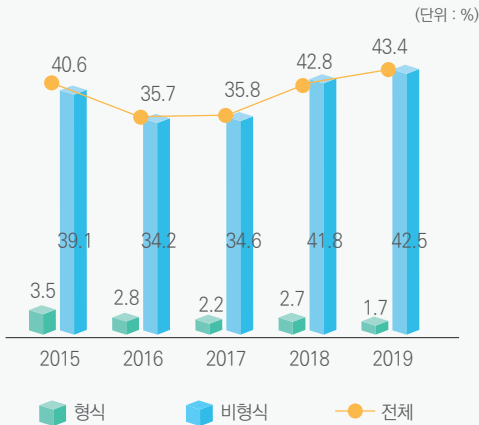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율

$$\frac{\text{형식교육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참여자} - \text{동시참여자}}{\text{한국의 성인 인구}} \times 100$$


💡 평생학습 참여 현황(연도별)

주: 평생학습 참여현황은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만 25~64세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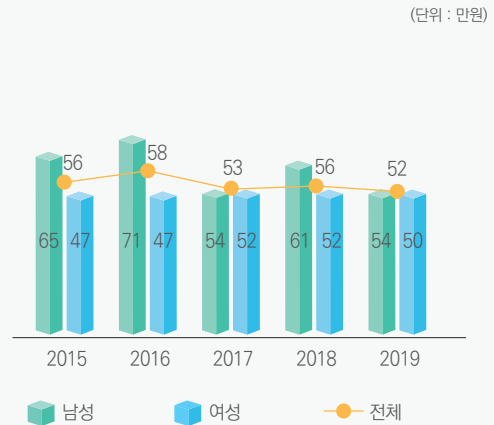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율

$$\text{평생학습 참여율(\%)} = \frac{\text{형식교육참여자} + \text{비형식교육참여자} - \text{동시참여자}}{\text{한국의 성인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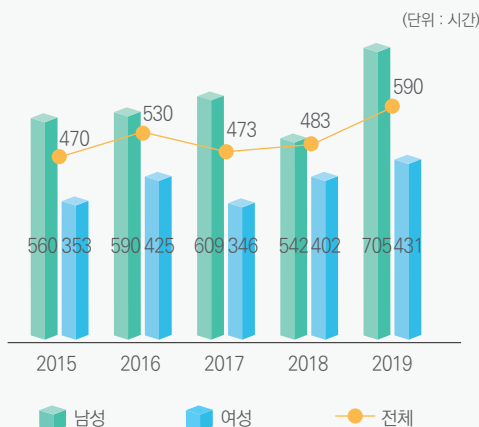
1인당 연간 평생학습 자기부담학습비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투자한 자기부담학습비

$$\text{자기부담 학습비(만원)} = \frac{\text{형식교육 지출액} + \text{비형식교육 지출액}}{\text{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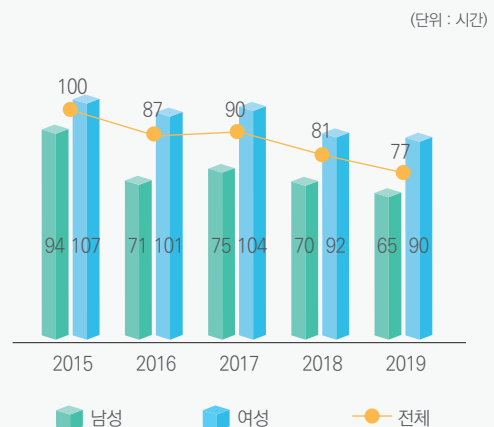
형식교육 참여시간



지난 1년간 형식교육 참여자들의 연평균 교육 참여시간

$$\text{형식교육 참여시간} = \frac{\text{지난 1년간 형식교육 참여자의 교육 참여 시간}}{\text{형식교육 참여자 수}}$$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지난 1년간 비형식교육 참여자들의 연평균 교육 참여시간

$$\text{비형식교육 참여시간} = \frac{\text{지난 1년간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교육 참여 시간}}{\text{비형식교육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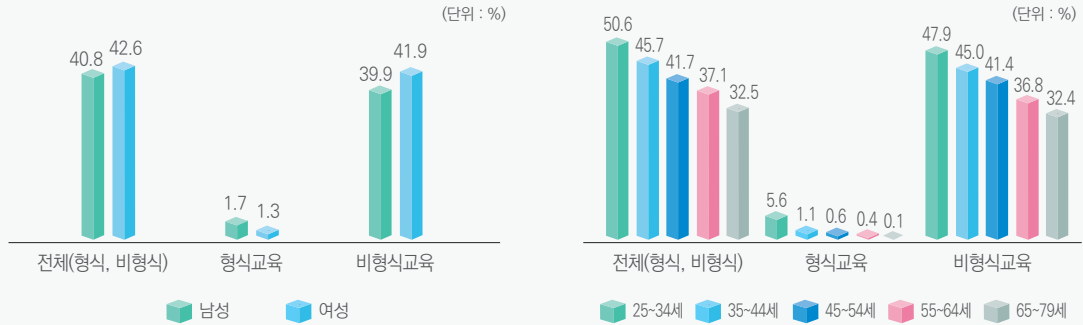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 현황(배경변인별)

주 : 2019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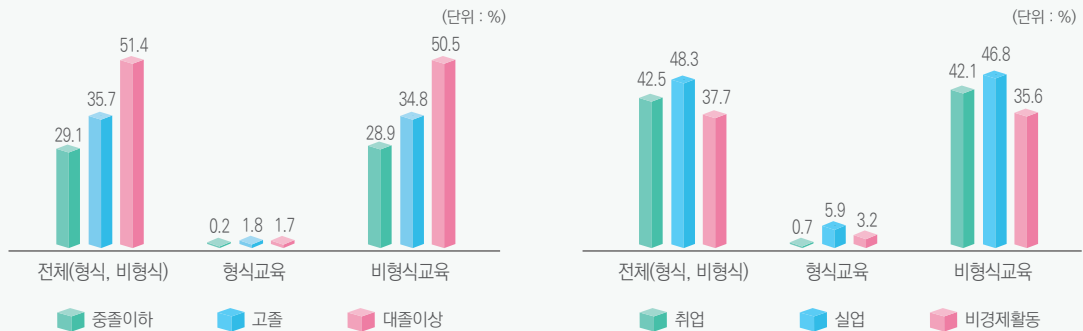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남성보다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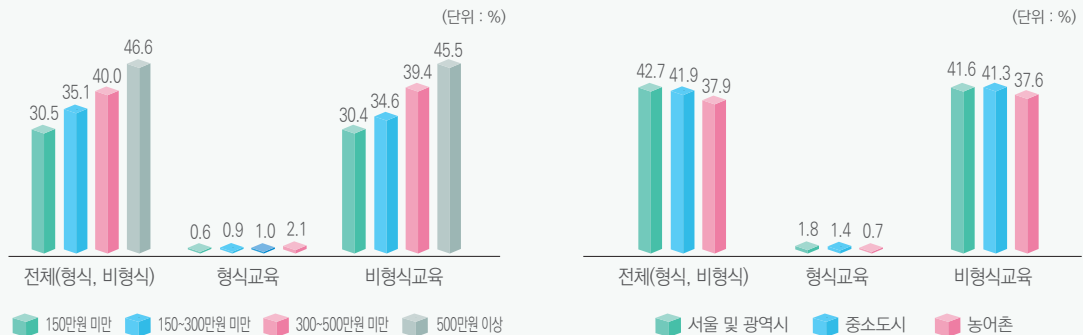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고,
실업자의 평생학습 참여가 가장 활발"



월 가구소득별,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
지역에 따른 참여율 차이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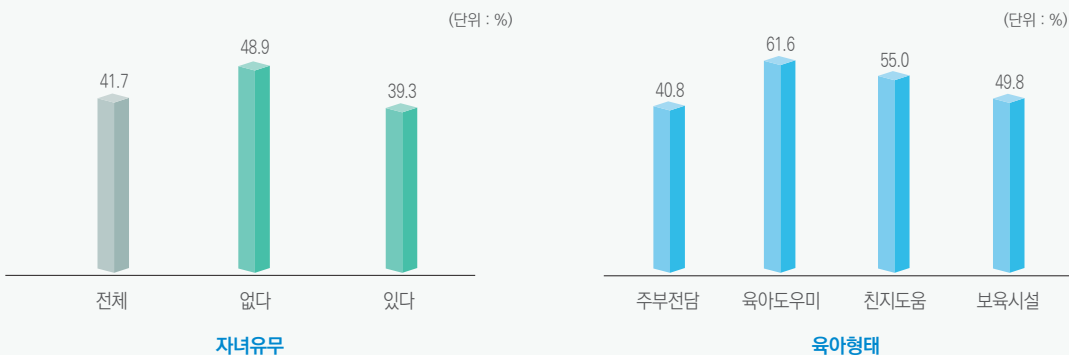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취업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2.5%이며, 상용근로자의 참여율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높음



자녀의 유무와 육아형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자녀의 유무에 따라, 육아형태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있음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참여 프로그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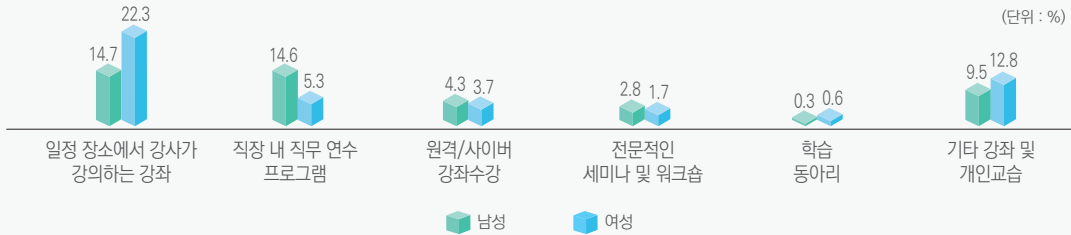
주: 2019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에 대한 현황임

비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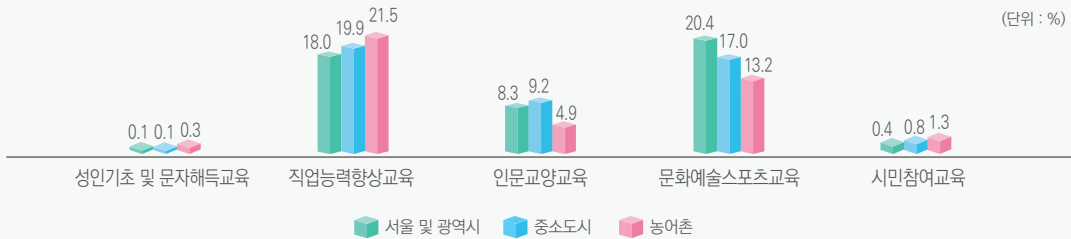
비형식교육 참여형태별 참여율

"비형식교육 참여형태별 참여율은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가 가장 높음"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은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인문교양교육' 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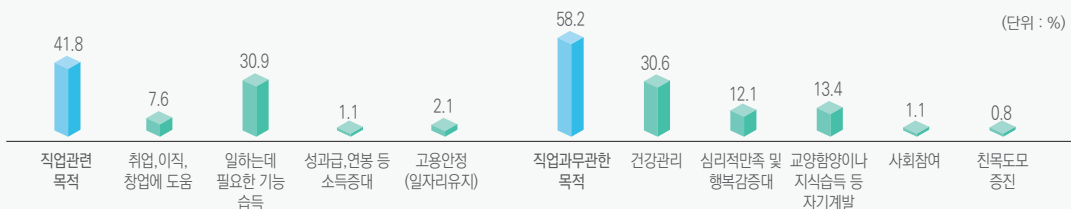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 '스포츠강좌', '음악강좌', '건강 및 의료강좌' 순"



주: 한 사람의 응답자가 '5'가지 비형식교육 영역별'로 최근 참여한 프로그램을 3개까지 응답 가능(최대 15개 프로그램)하며, 1인당 1.3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비형식교육 참여목적

"비형식교육 참여목적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순"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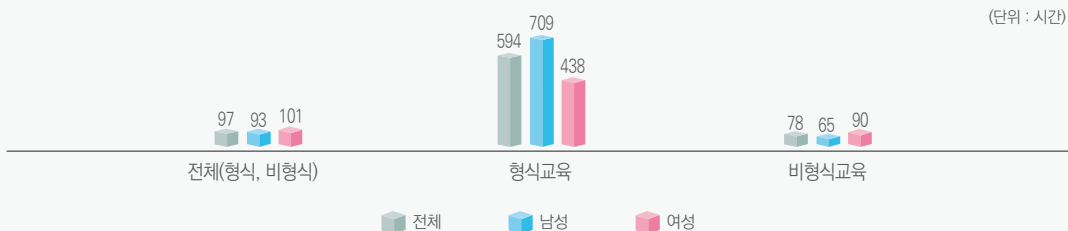
주: 2019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평생학습 참여시간이란?

지난 1년간, 만 25~79세 한국 성인 중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연평균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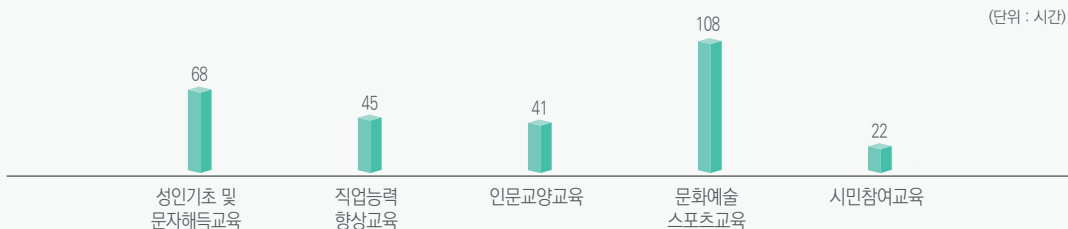
평생학습 연평균 참여시간

"평생학습 연평균 참여시간은 97시간으로 형식교육 594시간, 비형식교육 78시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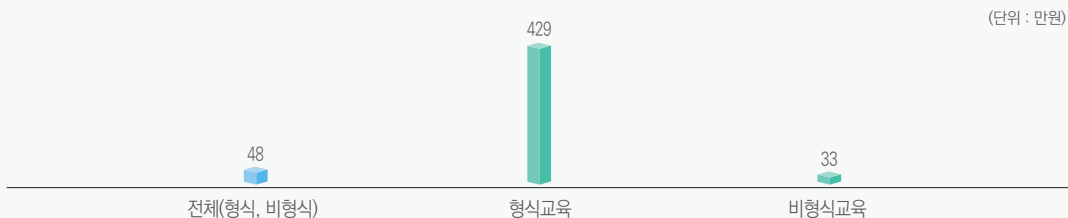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시간

"비형식교육의 영역별 참여시간은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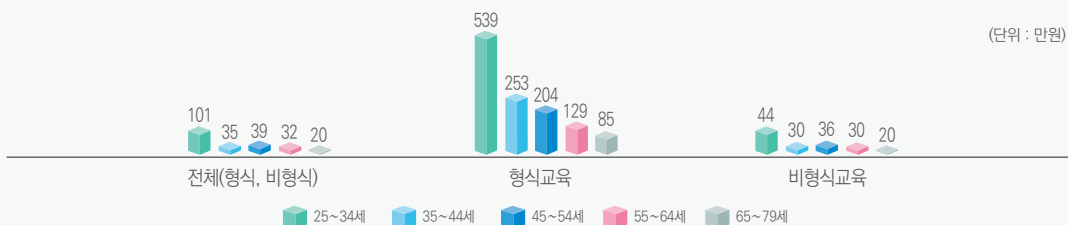
평생학습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

"1인당 연평균 평생학습 자기부담학습비 48만원"



평생학습 연평균 자기부담학습비(연령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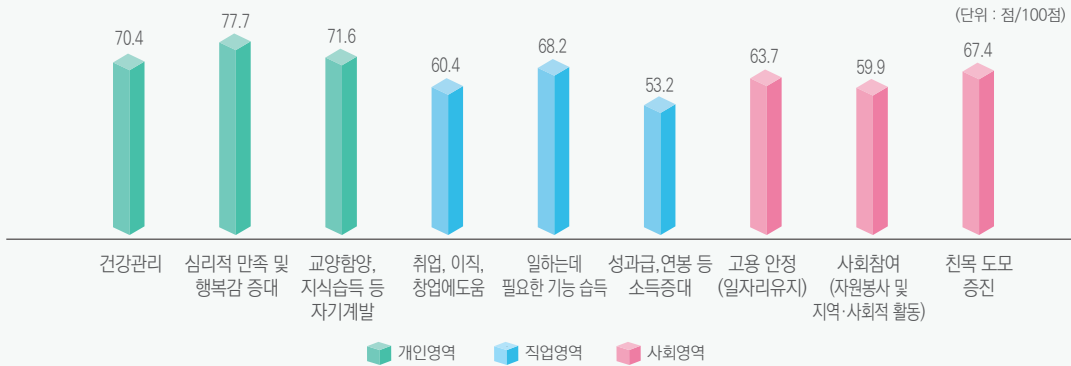


평생학습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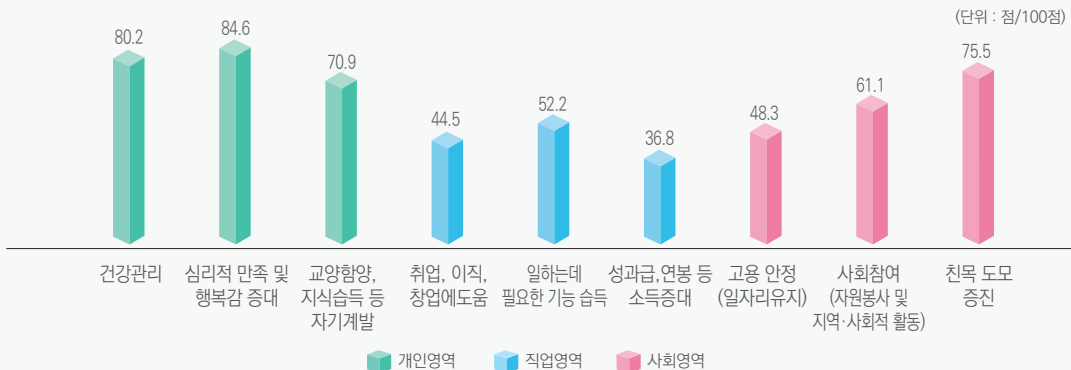
주: 2019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평생학습 성과(개인, 직업, 사회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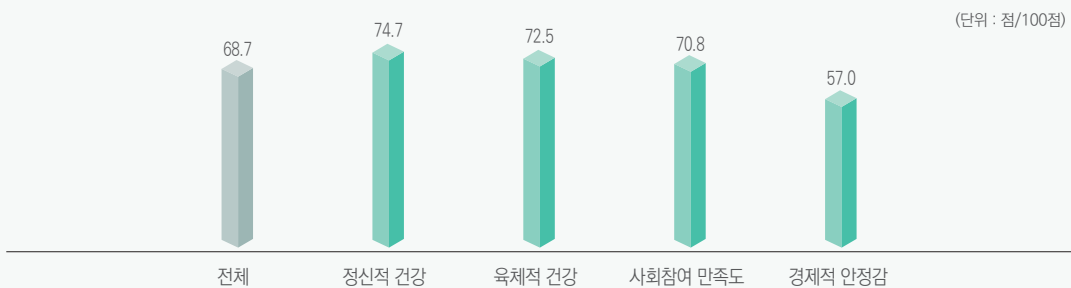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함양,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만 65~79세)의 평생학습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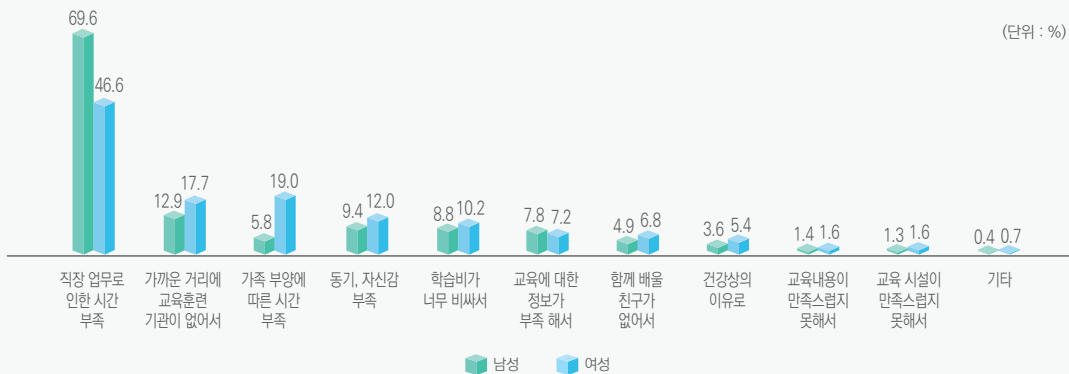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가 미치는 삶의 질 향상 정도



평생학습 참여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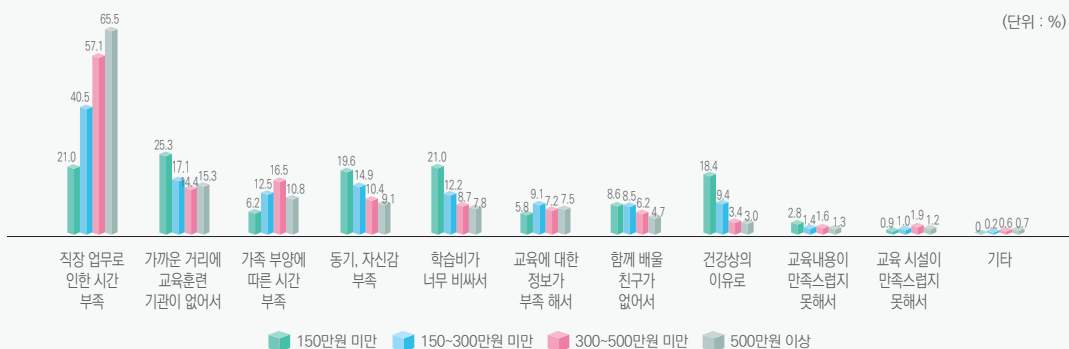
평생학습 불참요인(성별)

*남녀 모두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한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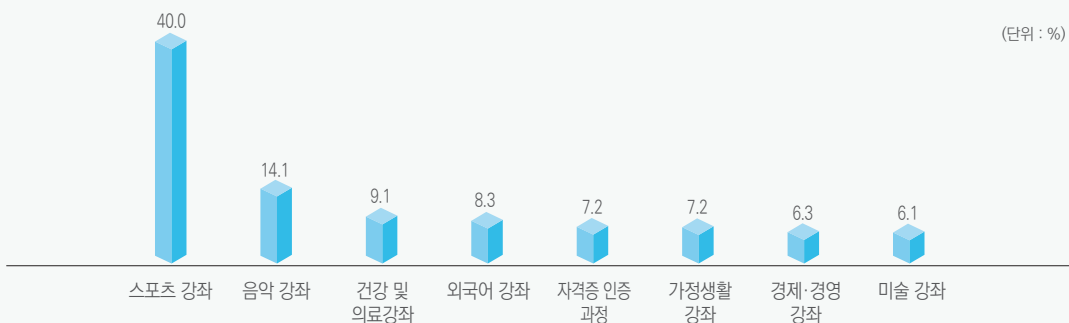
평생학습 불참요인(월가구소득별)

*'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동기·자신감 부족', '건강상 이유', '학습비가 비싸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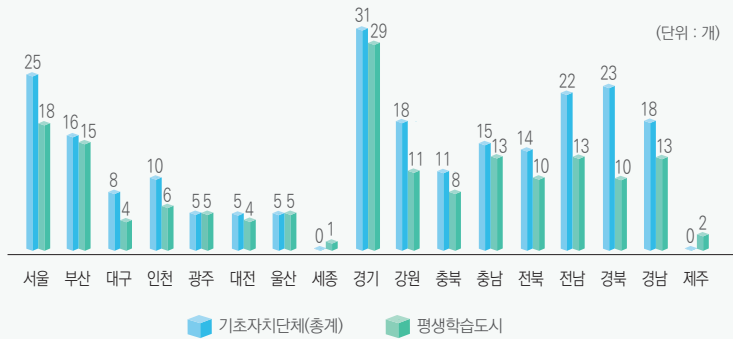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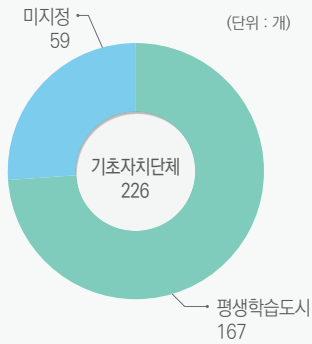
앞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상위 8위)

*"스포츠 강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 강좌', '건강 및 의료강좌', '외국어 강좌' 등의 순



평생학습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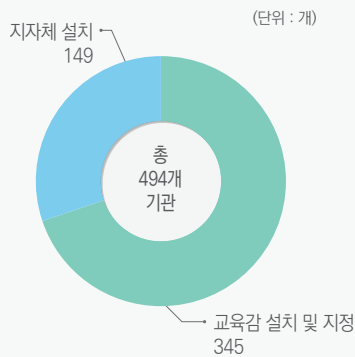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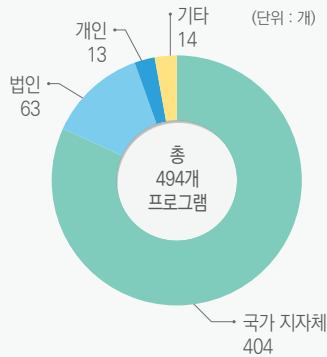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평생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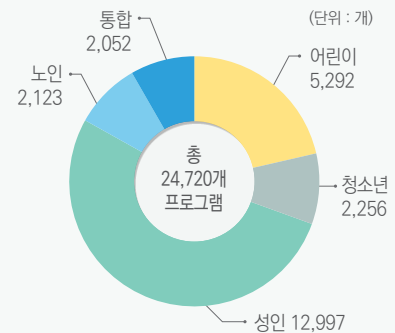
설치유형별



설립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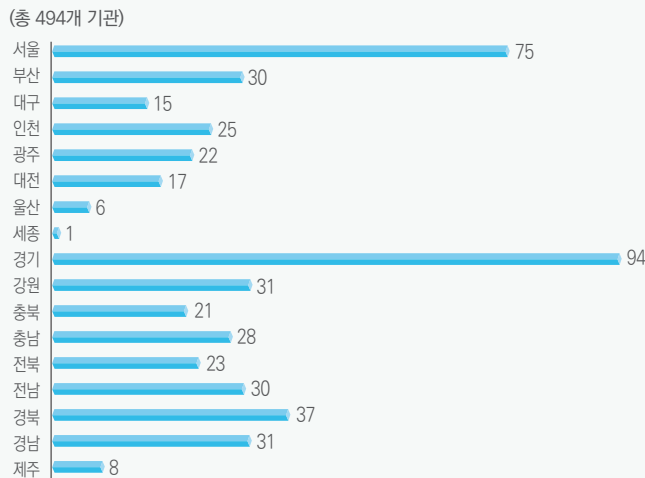


프로그램 현황(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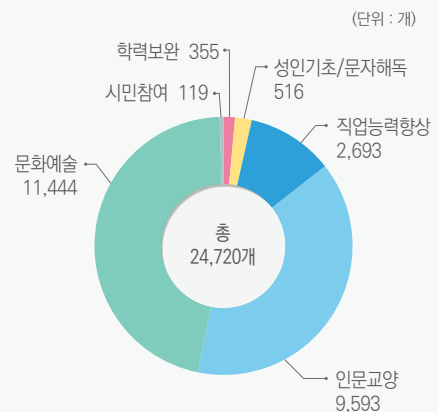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교육통계분석자료집.

지역별 평생학습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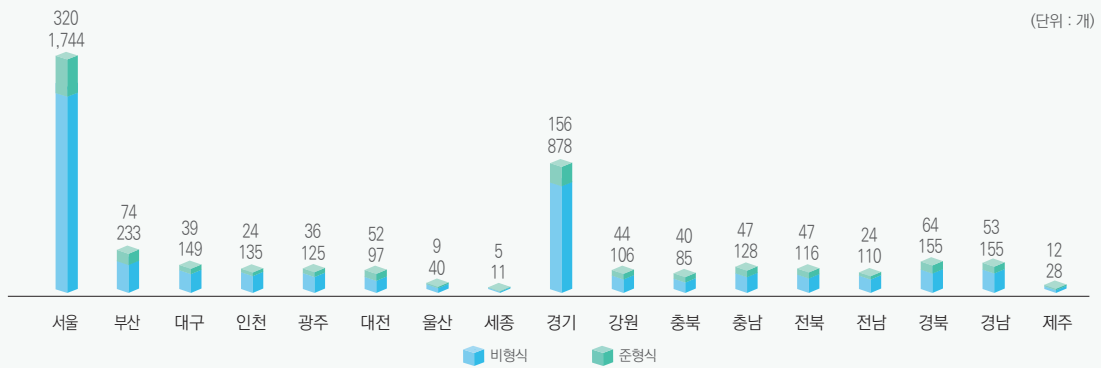
프로그램 현황(주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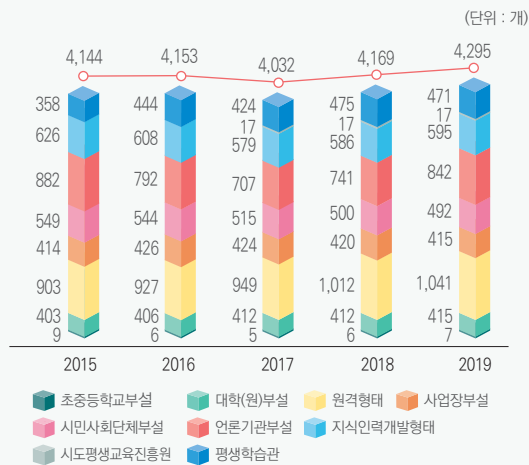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평생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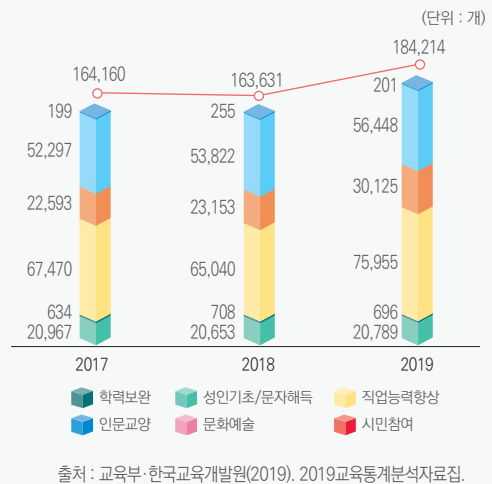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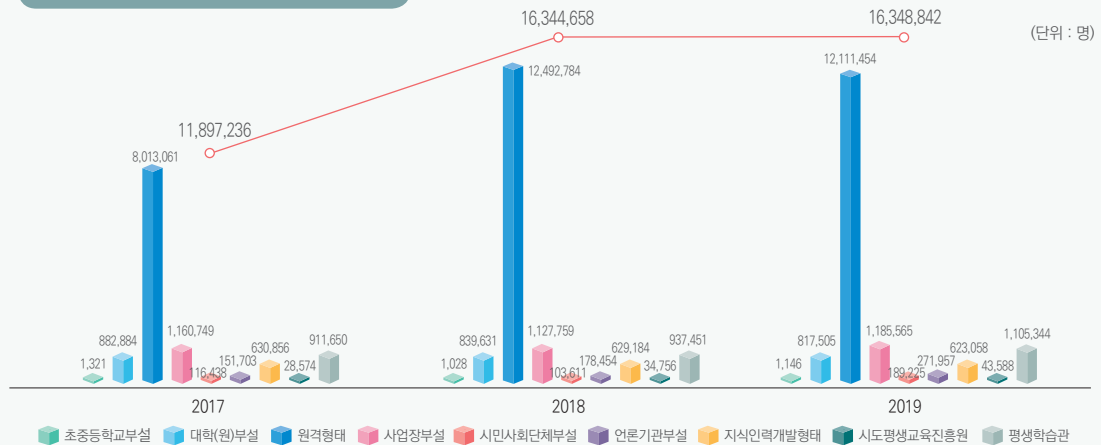
연도별 기관유형별 비형식평생교육기관 수



연도별 주제구분별 비형식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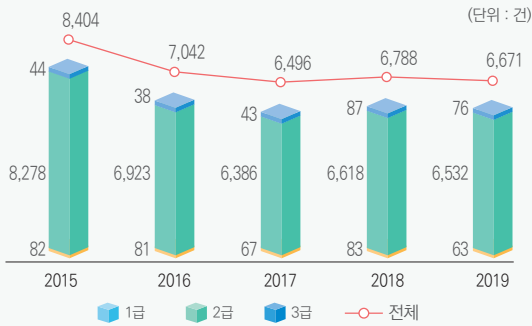


연도별 비형식평생교육 학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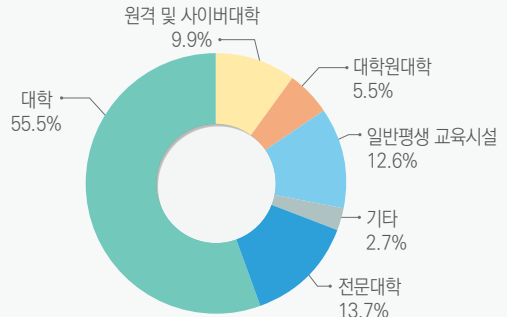


평생교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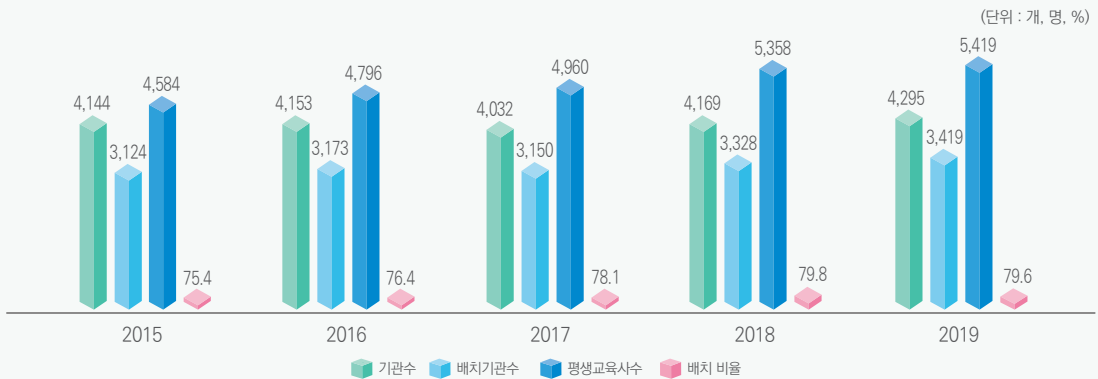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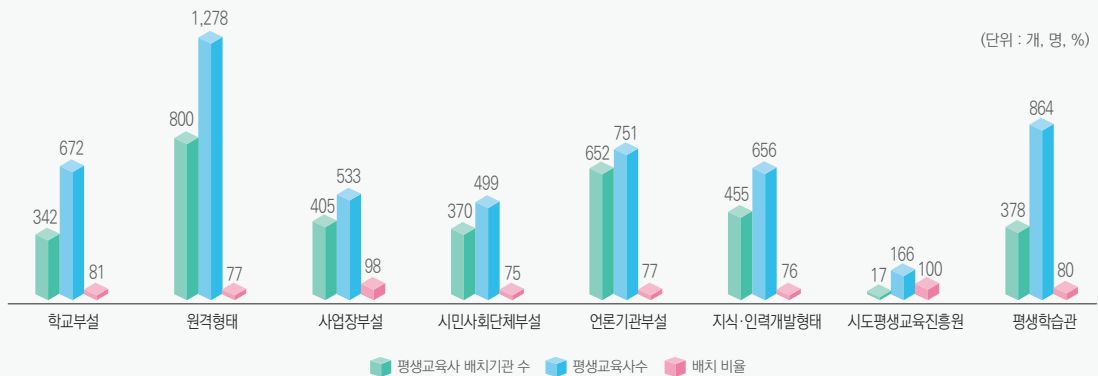
기관유형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연도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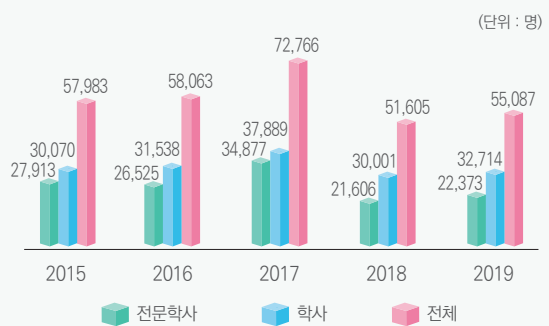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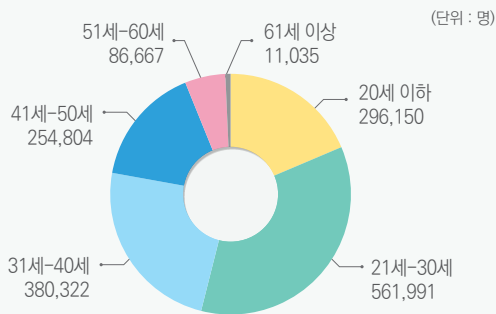


학위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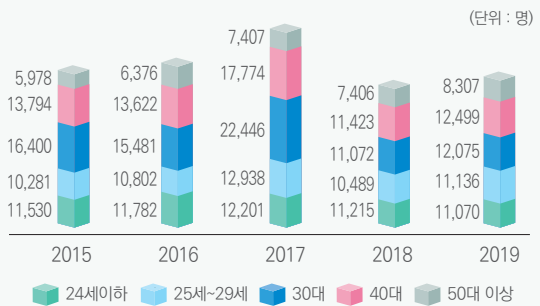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연령별 학점은행제 등록자 수(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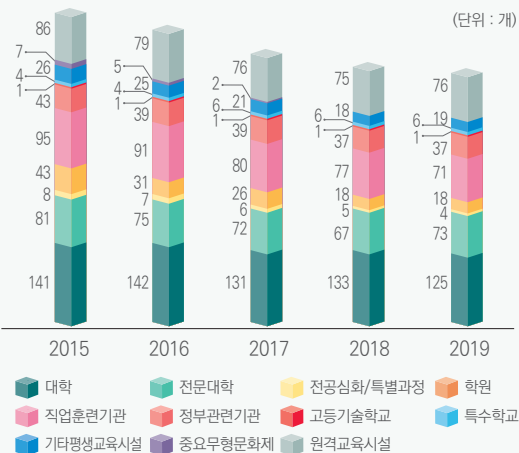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교육통계분석자료집.

연령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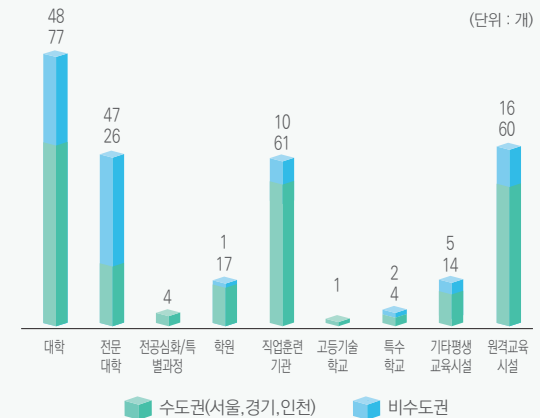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연도별 기관유형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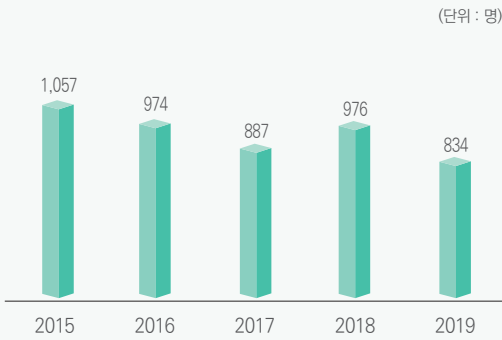
지역별 기관유형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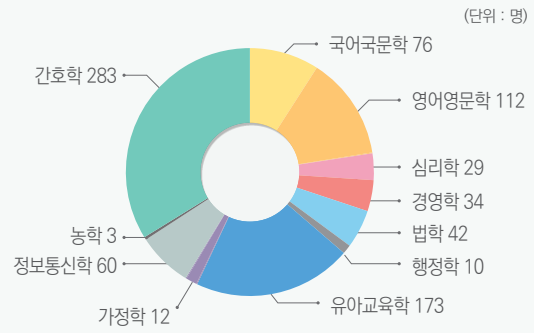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교육통계분석자료집

독학학위제

독학학위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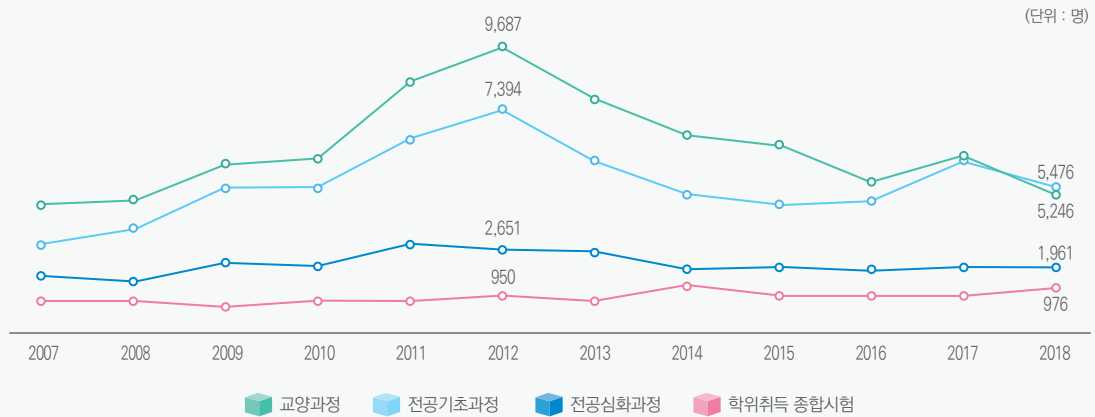


전공별 독학학위 취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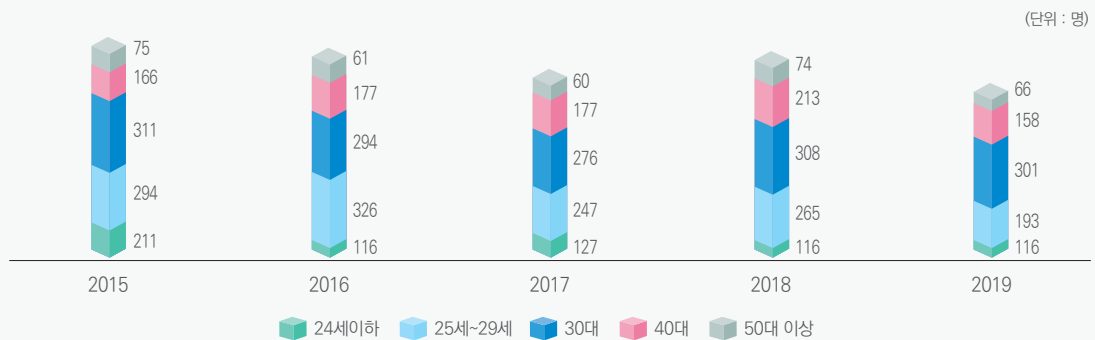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연도별 단계별 독학학위제 합격자 수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교육통계분석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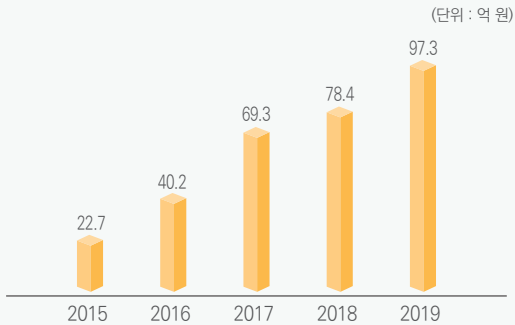
독학학위 취득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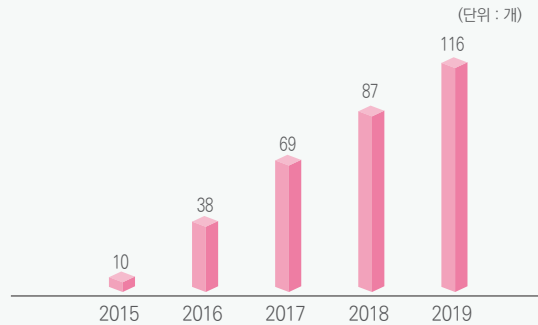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K-MOOC 연도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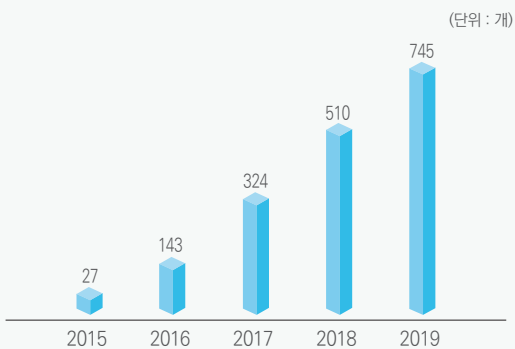


K-MOOC 연도별 참여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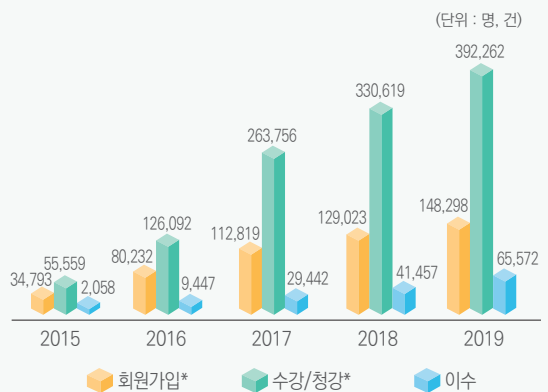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K-MOOC 연도별 제공강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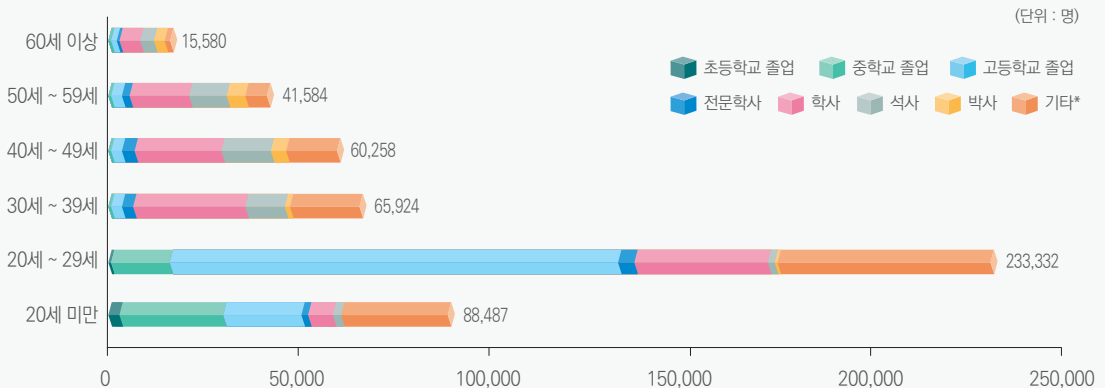


K-MOOC 연도별 회원가입 및 수강자 수



* 해당연도 신규 발생건수에서 해당연도 회원탈퇴/수강취소건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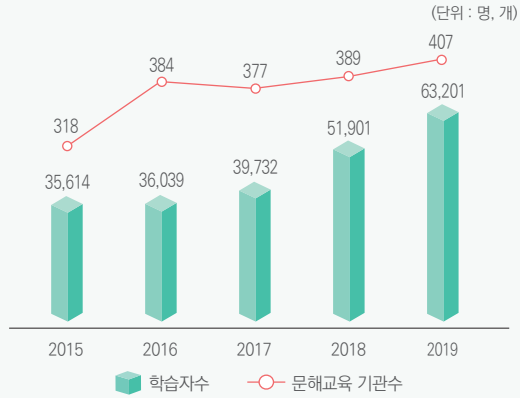
* 학력-기타는 '기타 형태의 교육을 받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음' 등을 선택하거나 미응답한 회원가입자 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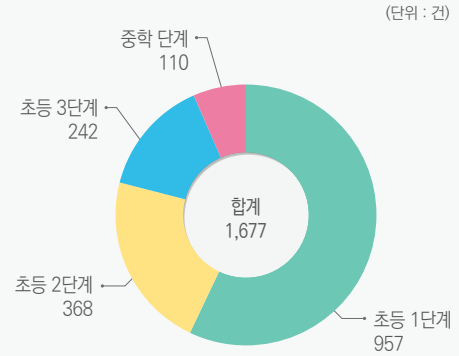


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참여기관 및 학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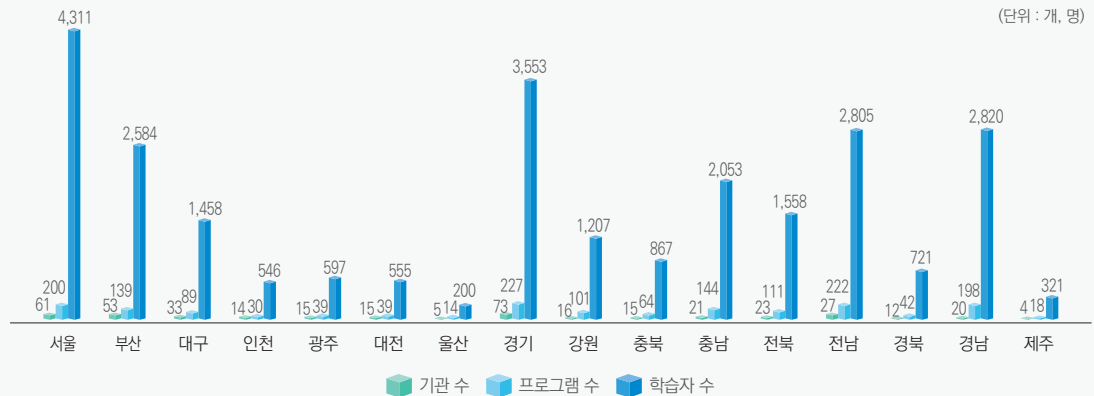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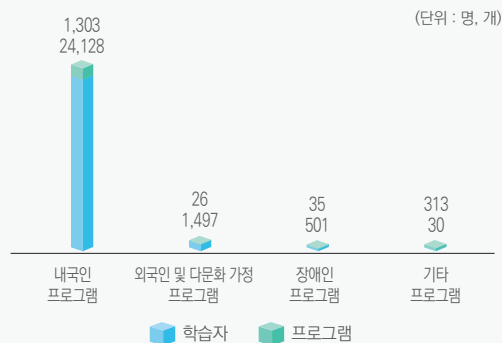
지역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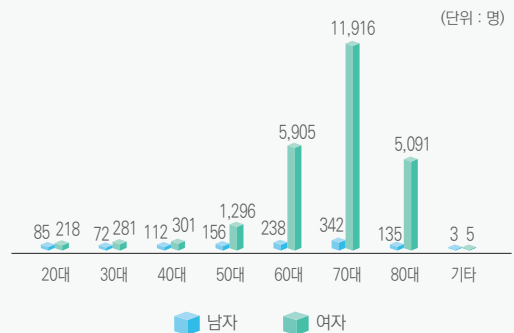
주) 충북 수강자 포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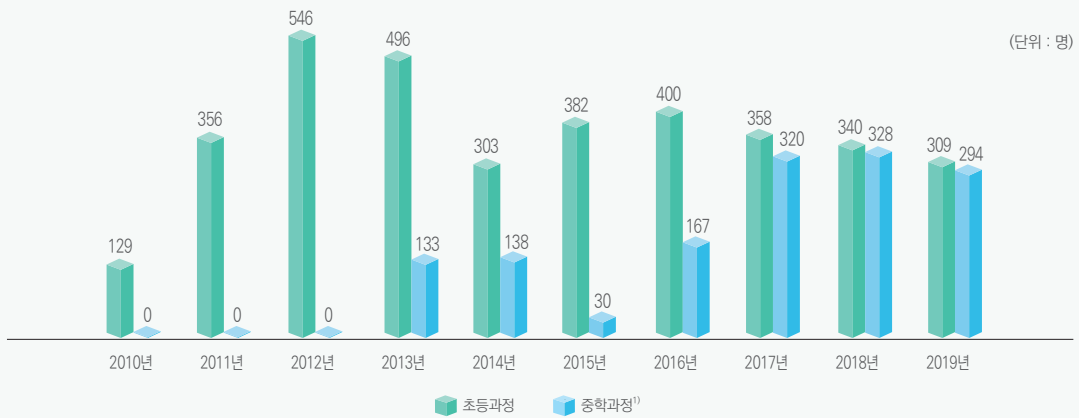
성인문해교육 성별 연령별 학습자 현황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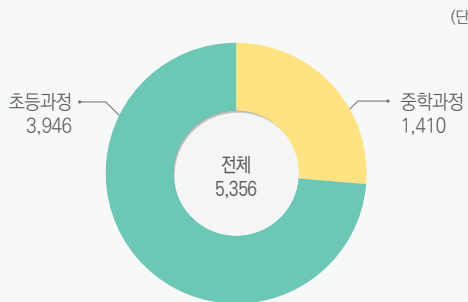
☀️ 성인문해교육

문해교원 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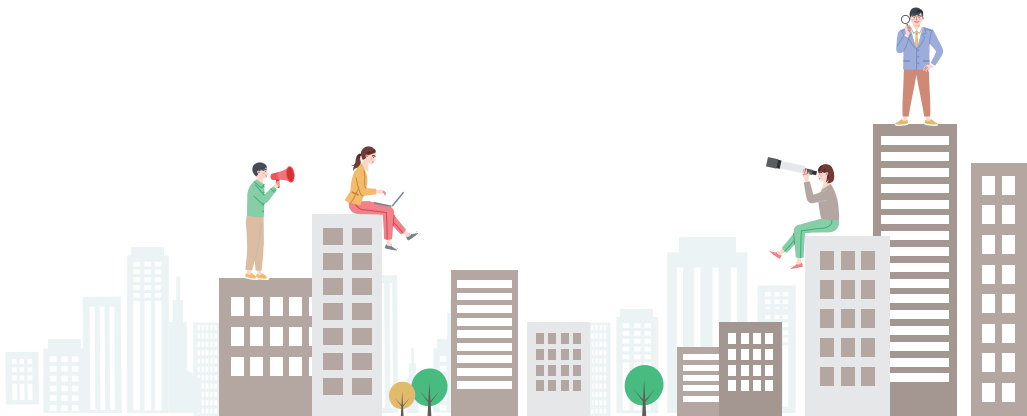


주1) 중학과정은 2013년부터 개설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문해교원 양성 인원수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CONTENTS



총론	1
2019 평생교육백서 총론	3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	19
제1절 평생교육 법령 체계	21
제2절 평생교육 법령 변화	25
제3절 평생교육 전달체제	35
제4절 소결	51

제2장 2019년 평생교육 개요	53
제1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55
제2절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67
제3절 평생교육기관	81
제4절 평생교육 전문인력	92
Ⅰ. 평생교육사	92
Ⅱ.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교원	105
제5절 평생교육 예산	115
제6절 평생교육 국제교류	122
제7절 소결	133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137
제1절 학력보완교육	139
Ⅰ. 초·중·고등학교	139
Ⅱ.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51
Ⅲ. 독학학위제	162
Ⅳ. 학점은행제	169
제2절 성인문해교육	182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195

목차

제4절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206
제5절 시민참여교육	215
제6절 소결	222
제2장 지역별 평생교육	225
제1절 국가-시도 평생교육네트워크	227
제2절 시도진흥원 평생교육	232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점사업 및 활동	247
제3절 평생학습도시 조성	320
제4절 지역학습동아리 활동	335
제5절 소결	342
제3장 대상별 평생교육	345
제1절 다문화 평생교육	347
제2절 학부모 평생교육	362
제3절 장애인 평생교육	369
제4절 기타 평생교육	380
Ⅰ. 여성 평생교육	380
Ⅱ. 노인 및 중장년 평생교육	388
Ⅲ. 농어업인 평생교육	400
Ⅳ. 군 평생교육	408
Ⅴ.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416
제5절 소결	423
제4장 대학 평생교육	425
제1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평생교육	427
제2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436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46
제4절 소결	456

CONTENTS



제3부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활동

제1장 평생학습 지원 체제

461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463
제2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480
제3절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487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494
제5절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501
제6절 소결	511

제2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515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517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525
제3절 대한민국 문해의 달	532
제4절 소결	539



제4부

평생교육 전망

평생교육 전망

543

한국 평생학습 2020 전망	545
-----------------	-----

표 목차

〈표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2
〈표 1-2〉 다른 법률의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또는 시설의 운영	23
〈표 1-3〉 평생교육 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24
〈표 1-4〉 2019년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	25
〈표 1-5〉 2019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26
〈표 1-6〉 2019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26
〈표 1-7〉 2019년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 개정 사항	27
〈표 1-8〉 2019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 개정 사항	29
〈표 1-9〉 2019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주요 안건	36
〈표 1-10〉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관련 조례 및 설립 시기	37
〈표 1-11〉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 현황	38
〈표 1-12〉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활동 현황	39
〈표 1-13〉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활동 현황	40
〈표 1-14〉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41
〈표 1-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와 정원	43
〈표 1-16〉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45
〈표 1-17〉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47
〈표 1-18〉 평생교육기관 분류	47
〈표 1-19〉 2019년도 조사 문항 구성 및 분류	56
〈표 1-20〉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07~2019년)	58
〈표 1-21〉 만 65세~79세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17~2019년)와 참여 관련 요인	59
〈표 1-22〉 만 25~64세 성인의 영역별 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율(2010~2019년)	60
〈표 1-23〉 비형식 교육 영역별 과거 수강 경험 여부(2018~2019)	62
〈표 1-24〉 평생교육 참여 성과 및 고령자 집단과의 비교(2017~2019)	63
〈표 1-25〉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0~2019년)	68
〈표 1-26〉 시도별 평생교육 학습자 수(2010~2019년)	69
〈표 1-27〉 만 25~64세 한국 성인의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수(2010~2019년)	71
〈표 1-28〉 평생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73
〈표 1-29〉 주제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74
〈표 1-30〉 재정지원 주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76
〈표 1-31〉 주제 영역별·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5~2019년)	77

CONTENTS

〈표 Ⅰ-32〉 수요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78
〈표 Ⅰ-33〉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81
〈표 Ⅰ-34〉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개황	84
〈표 Ⅰ-3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85
〈표 Ⅰ-3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86
〈표 Ⅰ-37〉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87
〈표 Ⅰ-38〉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87
〈표 Ⅰ-39〉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88
〈표 Ⅰ-40〉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88
〈표 Ⅰ-4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89
〈표 Ⅰ-4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	94
〈표 Ⅰ-43〉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95
〈표 Ⅰ-44〉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96
〈표 Ⅰ-45〉 양성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5~2018년)	97
〈표 Ⅰ-46〉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98
〈표 Ⅰ-47〉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현황	98
〈표 Ⅰ-48〉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자격 등급별)	99
〈표 Ⅰ-49〉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 내용	100
〈표 Ⅰ-50〉 2019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	101
〈표 Ⅰ-51〉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현황	101
〈표 Ⅰ-52〉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별 교육 내용	102
〈표 Ⅰ-53〉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관계자 직무 연수 운영 현황	102
〈표 Ⅰ-54〉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성별 교강사 수	107
〈표 Ⅰ-5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108
〈표 Ⅰ-5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109
〈표 Ⅰ-57〉 연도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09
〈표 Ⅰ-58〉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10
〈표 Ⅰ-59〉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111
〈표 Ⅰ-60〉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111
〈표 Ⅰ-61〉 2015~2019년 교육 분야 예산 및 정부 총예산 현황	115
〈표 Ⅰ-62〉 2015년~2019년 교육 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116

〈표 I -63〉 2019년 교육 분야별 세부 예산 현황	117
〈표 I -64〉 2019년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의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	119
〈표 I -65〉 2019~2023년 교육 분야 투자 계획	120
〈표 I -66〉 HLPF 목표별 검토 현황	123
〈표 I -67〉 2019년 SDG 4.6 워킹 그룹 운영 현황	124
〈표 I -68〉 SDG 4.6 세부 목표와 지표	124
〈표 I -69〉 2019년 해외 주요 기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현황	125
〈표 I -70〉 2019년 국제 평생교육 콘퍼런스 참가 현황	126
〈표 I -71〉 2019년 평생교육동향 발간 현황	127
〈표 I -72〉 2019년 SDG 4.6 글로벌 이행 매커니즘	130
〈표 II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별 현황	140
〈표 II -2〉 연도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141
〈표 II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141
〈표 II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143
〈표 II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수	143
〈표 II -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의 기준 면적	145
〈표 II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46
〈표 II -8〉 2020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147
〈표 II -9〉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서울특별시)	148
〈표 II -10〉 방송중 운영 현황(2013~2019년)	153
〈표 II -11〉 방송중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9년)	154
〈표 II -12〉 방송중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2015~2019년)	154
〈표 II -13〉 방송고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9년)	156
〈표 II -14〉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2015~2019년)	156
〈표 II -15〉 독학학위제 주요 추진 경과	163
〈표 II -16〉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163
〈표 II -17〉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	165
〈표 II -18〉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현황	165
〈표 II -19〉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66
〈표 II -20〉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170
〈표 II -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171

CONTENTS

〈표 II-22〉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172
〈표 II-23〉 최근 5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173
〈표 II-24〉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174
〈표 II-25〉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74
〈표 II-26〉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175
〈표 II-27〉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176
〈표 II-28〉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경과	177
〈표 II-2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체제	184
〈표 II-30〉 2006~2019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85
〈표 II-31〉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역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185
〈표 II-32〉 2019년 성인문해교육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186
〈표 II-33〉 2019년 성인문해교육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186
〈표 II-34〉 2019년 성인문해교육 성별·연령별 참여 학습자	187
〈표 II-35〉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추진체제	188
〈표 II-36〉 2019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설치·지정 현황	189
〈표 II-37〉 2011~2019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189
〈표 II-38〉 성인문해교과서 무상지원 현황	190
〈표 II-39〉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191
〈표 II-40〉 노동시장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	196
〈표 II-4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추이	198
〈표 II-42〉 기업 규모별 재직자 훈련비 지원 실적	199
〈표 II-43〉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 현황	200
〈표 II-44〉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200
〈표 II-45〉 일학습병행 유형	201
〈표 II-46〉 일학습병행 현황	202
〈표 II-47〉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	207
〈표 II-48〉 2019년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	208
〈표 II-49〉 연도별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2015~2019년)	210
〈표 II-50〉 2019년 부처별 인문교양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211
〈표 II-51〉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212
〈표 II-52〉 시민참여교육의 유형	216

〈표 II-53〉 평생교육시설별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증감 현황	217
〈표 II-54〉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추이	218
〈표 II-55〉 사회단체 참여율 추이	218
〈표 II-56〉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219
〈표 II-57〉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현황	219
〈표 II-58〉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 내용 및 규모	229
〈표 II-5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233
〈표 II-6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예산 현황	235
〈표 II-6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 구성 및 종사자 현황	236
〈표 II-6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위원회 운영 현황	237
〈표 II-63〉 비전 선포 결의문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238
〈표 II-64〉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주요 연혁	241
〈표 II-65〉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	242
〈표 II-66〉 부산평생학습주간 운영 현황	255
〈표 II-67〉 BB21플러스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257
〈표 II-68〉 2019년도 BB21플러스 사업 운영 성과	257
〈표 II-69〉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 운영현황	265
〈표 II-70〉 최근 3년간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추진 현황	265
〈표 II-71〉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268
〈표 II-7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시민인식 교육 운영 성과	270
〈표 II-73〉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메이커 교육 운영 성과	270
〈표 II-74〉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273
〈표 II-75〉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규모	276
〈표 II-76〉 2019년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현황	281
〈표 II-77〉 최근 3년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성과	282
〈표 II-7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마을배움터 운영 성과	284
〈표 II-79〉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추진 현황(2017~2019년)	286
〈표 II-80〉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추진 실적(2017~2019년)	287
〈표 II-81〉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회공헌 활동 내용(2017~2019년)	287
〈표 II-82〉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현황	290
〈표 II-83〉 충남 평생학습 포털 구축 추진 경과	297

CONTENTS

〈표 II-84〉 2019년 동네방네 배움툼 지정 현황	306
〈표 II-85〉 201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 현황	317
〈표 II-86〉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과	320
〈표 II-87〉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323
〈표 II-88〉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	324
〈표 II-89〉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학습형 일자리 창출	325
〈표 II-90〉 평생학습도시 세부 사업별 사회환원활동(자원봉사) 비교	325
〈표 II-9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326
〈표 II-92〉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327
〈표 II-93〉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평가지표(안)	328
〈표 II-94〉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 참여 현황	329
〈표 II-95〉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 운영 과정	329
〈표 II-96〉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국제협력(GNLC) 국내 회원 도시 명단	332
〈표 II-97〉 학습동아리 활동 목적	337
〈표 II-98〉 학습동아리 활동 성과	337
〈표 II-99〉 지역사회 참여활동 시 어려운 점	338
〈표 II-100〉 학습동아리 지원 필요 사항	338
〈표 II-101〉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지원 관련 사업 현황	339
〈표 II-102〉 2019년 시도별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현황	348
〈표 II-10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2017~2019년)	363
〈표 II-104〉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	364
〈표 II-105〉 학부모On누리 이용(누적) 현황(2017~2019년)	366
〈표 II-106〉 2019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추진 실적	371
〈표 II-10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375
〈표 II-108〉 기관유형에 따른 주제별 프로그램 수	375
〈표 II-109〉 시범 사업 운영 모델	377
〈표 II-110〉 장애인 평생교육 홈페이지 '평생배움세상' 구성	378
〈표 II-111〉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과정별 대상	382
〈표 II-112〉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384
〈표 II-113〉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현황	385
〈표 II-1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추진 실적	385

〈표 II-115〉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율	390
〈표 II-116〉 노인복지관 현황	394
〈표 II-117〉 노인교실 현황	397
〈표 II-118〉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및 역할	402
〈표 II-119〉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404
〈표 II-120〉 농업인 대학 운영 실적	406
〈표 II-121〉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추진	409
〈표 II-122〉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주요 성과지표	410
〈표 II-123〉 군특성화고 운영 현황	411
〈표 II-124〉 e-MU 대학 현황	412
〈표 II-125〉 청년장병 취업지원정책 추진 방향	413
〈표 II-126〉 사립대학 교육지원금 지급 현황	419
〈표 II-127〉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419
〈표 II-128〉 하나센터 초기 집중교육 현황	420
〈표 II-12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현황	420
〈표 II-130〉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 현황	421
〈표 II-131〉 남한 생활 만족도 현황	421
〈표 II-132〉 대학 중심의 후학습 경로 현황	429
〈표 II-133〉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 규모 추이	431
〈표 II-134〉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규모 추이	431
〈표 II-13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 규모 추이	433
〈표 II-136〉 사이버대학 운영 규모 추이	433
〈표 II-13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경과	438
〈표 II-138〉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주요 특징	440
〈표 II-13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현황	441
〈표 II-14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사업 주요 성과(2016~2019년)	444
〈표 II-141〉 방송대 재학생의 최종 학력별 분포 비율(2015~2019년)	449
〈표 II-142〉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학생 수 추이(2015~2019년)	450
〈표 III-1〉 연도별 학습계좌 개설 현황	467
〈표 III-2〉 연도별 학습이력 등록 현황	468
〈표 III-3〉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 요건	470

CONTENTS

〈표 Ⅲ-4〉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록 현황	470
〈표 Ⅲ-5〉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가능 정보	471
〈표 Ⅲ-6〉 회원별 서비스 유형	472
〈표 Ⅲ-7〉 평생학습계좌제 협약 기관 및 제도(사업) 연계 현황	473
〈표 Ⅲ-8〉 연도별 K-MOOC 사업 현황	481
〈표 Ⅲ-9〉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 가입자 수	482
〈표 Ⅲ-10〉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	484
〈표 Ⅲ-11〉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495
〈표 Ⅲ-12〉 평생교육바우처 추진 절차	495
〈표 Ⅲ-13〉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497
〈표 Ⅲ-14〉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497
〈표 Ⅲ-15〉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현황	498
〈표 Ⅲ-16〉 늘배움 주요 추진 경과	503
〈표 Ⅲ-17〉 평생교육정보 연계 기관 현황	505
〈표 Ⅲ-18〉 늘배움 주요 이용 현황	506
〈표 Ⅲ-19〉 2019년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 운영 현황	519
〈표 Ⅲ-20〉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내용	520
〈표 Ⅲ-21〉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521
〈표 Ⅲ-22〉 2019년 평생학습박람회 사업 주요 추진 성과	522
〈표 Ⅲ-2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523
〈표 Ⅲ-24〉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현황(2016~2019)	526
〈표 Ⅲ-25〉 개인 부문 접수 현황(연령별)	527
〈표 Ⅲ-26〉 사업 부문 접수 현황(유형별)	527
〈표 Ⅲ-27〉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 지표	528
〈표 Ⅲ-28〉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부문별 수상 현황(2019)	529
〈표 Ⅲ-29〉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결과(2012~2019년)	534
〈표 Ⅲ-30〉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프로그램	535
〈표 Ⅲ-31〉 민-관-기업 연계 생활문해교육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535
〈표 Ⅲ-32〉 2012~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결과	537
〈표 Ⅲ-33〉 2012~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 전시 및 전국 동시 시화전 개최 결과	537

그림 목차

[그림 I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42
[그림 I -2]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07~2019년)	58
[그림 I -3] 비형식 평생학습 상위 3대 영역의 참여율 변화(2010~2019년)	61
[그림 I -4] 65~75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성과(2017~2019년)	64
[그림 I -5] 평생교육사 이수 과정	93
[그림 II -1] 방송중·고의 비전 및 목표	152
[그림 II -2] 방송중·고 설치·운영 추진 체계	152
[그림 II -3]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의 과정	164
[그림 II -4] 학점은행제 학점원	171
[그림 II -5]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이트(cb.kmooc.kr)	178
[그림 II -6]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197
[그림 II -7]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198
[그림 II -8]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변경 내용	204
[그림 II -9]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지역별)	209
[그림 II -10] 주제구분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209
[그림 II -11]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운영 구조	228
[그림 II -12]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비전체계도	242
[그림 II -13]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운영 성과	244
[그림 II -14]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내용 구성	249
[그림 II -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학부모 마스터 양성과정 운영 절차	271
[그림 II -16] 사업의 단계별 추진도	273
[그림 II -1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생활권 마을배움터 지원사업 추진 체계	283
[그림 II -18] 2019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 운영기관 현황	286
[그림 II -19]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체계 및 업무 분담	293
[그림 II -20]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만족도	294
[그림 II -21]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 구조도	297
[그림 II -22] OPEN-API 활용 강좌 정보 연계 구조도	298
[그림 II -23] 반응형 웹 구축 및 모바일 APP 개발로 정보 제공 환경 개선	299
[그림 II -24] 전라남도 동네방네 배움툼 추진 목적	305
[그림 II -25] 경상북도 문해교육의 비전 및 목표	309
[그림 II -26] 60+교육센터 운영 단계	311

CONTENTS

[그림 II-2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비전과 목표	330
[그림 II-28]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	347
[그림 II-29]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도	350
[그림 II-30]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370
[그림 II-31]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전략체계도	372
[그림 II-32] 장애인 평생교육 비전 및 목표	373
[그림 II-3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후 기대되는 모습	374
[그림 II-34]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사업 추진체계	381
[그림 II-3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	384
[그림 II-36]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이	388
[그림 II-37]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390
[그림 II-38] 수요 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	391
[그림 II-39] 수요 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수	391
[그림 II-40]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추진 체계	401
[그림 II-41]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교육의 단계별 교육 대상, 교육 방향	402
[그림 II-42]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운영체계	403
[그림 II-43]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추세	417
[그림 II-44]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정규교육과정)	418
[그림 II-45]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 경로	428
[그림 II-46]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운영 규모 추이	432
[그림 II-4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438
[그림 II-48] 방송대 연도별 재적생 수(2009~2019년)	448
[그림 II-49] 방송대 1학기 재학생의 연령대별 분포(2011~2019년)	448
[그림 II-50] 방송대 단과대학별 지원자 추이(2013~2019년)	449
[그림 II-51] 방송대학TV 홈페이지(https://oun.knou.ac.kr) 화면	452
[그림 II-52]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학TV 유튜브 공식 화면	453
[그림 III-1] 평생학습계좌제 개념도	465
[그림 III-2] 평생학습계좌제 이용자 연령별·직업별 현황	468
[그림 III-3] 2019년 유형별 학습이력 등록 현황	469
[그림 III-4] 평생학습계좌제 활용 방법	474
[그림 III-5] K-MOOC 참여 기관 선정 절차	483

[그림 Ⅲ-6] K-MOOC 시스템 구성도	484
[그림 Ⅲ-7] 매치업 사업 개요	488
[그림 Ⅲ-8] 매치업 추진 체계	489
[그림 Ⅲ-9] 매치업 운영 흐름도	490
[그림 Ⅲ-10] 분야별 매치업 운영 현황	491
[그림 Ⅲ-11] 매치업 학점인정 체계	492
[그림 Ⅲ-12]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운영 추진체계	504
[그림 Ⅲ-13] 늘배움 주요 이용 현황	507
[그림 Ⅲ-14] 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절차	533
[그림 Ⅲ-15] 2019년 제8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작품	533
[그림 Ⅲ-16]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현장	534
[그림 Ⅲ-17] 민-관-기업 연계 생활문해교육 홍보 및 체험 부스 현장	536



2019 평생교육백서

총론



2019 평생교육백서 총론

1. 전반기 평생교육 분야 성과와 과제

2019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019년도에는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자료가 정부의 안팎에서 많이 발표되었다. 2019년도 평생교육백서는 2019년도의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성격을 바탕으로 지난 전반기 자체 중간 점검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2019년 말 반환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본다. 여기에서는 2019년도에 이루어진 주요 평생교육 정책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백서의 성격에 충실하되, 평생교육백서의 총론으로서 지나온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개괄해본다.

2017년 5월 10일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 취임사의 꽃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 취임사이다. 체제 모형에 입각할 때 기회의 평등은 투입 단계를, 과정의 공정은 말 그대로 과정 단계를, 결과의 정의는 산출 단계를 가리킨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을 천명하였다. 교육정책의 추가 수월성(excellence)에서 형평성(equity)으로 옮겨갈 것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진보정부는 교육의 수월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한다. 평생교육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형평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평생교육계에서는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는 취임사가 반갑게 들렸다.

대통령의 취임사와 함께 중요한 문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자칭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정운영의 평가기준’이다. 백서는 국민이 위임한 정책을 정부가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정책성과의 보고 형태이다. 정책성과의 기준선이 되는 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평가기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반환점에서 국정운영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의 성과를 되돌아보기에 앞서 국정운영의 평가기준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잠시 되짚어 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5대 국정목표에 따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대 국정전략을 주축으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의 실천과제를 상정하였다. 평생교육 관련 국정과제의 위계를 추적하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전략의 국정과제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으로 나타난다. 100대 국정과제 차원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양대 신규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바우처’와 ‘매치업’이다.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2년 반 성과는 2019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교육정책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합니다.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 회의”를 초기 화면에 게재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한 교육부 자체 성과 분석 자료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기준’이다. 교육부의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자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점검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위계적 순서대로 복기해본다. 교육부의 당초 취지대로 국민과 함께 교육부의 교육정책 성과 점검의 길을 떠난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관련 국정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관련 국정전략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국정과제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언급하였다. 시장보다는 국가의 기능을 강조한다. 국가 귀환 시대이다. 이중 평생교육 관련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만 다음과 같이 추려본다.

교육부의 문건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과제와 관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지원 강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제도(학습경험 인정제 실시, 원격수업기준 마련 등)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과제와 관련하여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K-MOOC 대폭 확대(2017년 324개에서 2019년 650개), 매치업(나노디그리) 운영(2017년 10개에서 2018년 20개 누적),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2019년 30개교)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신규 평생교육 사업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성과가 교육사다리 복원과 평생·직업교육의 혁신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2019년도에는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실현'이란 초미의 공교육 관심사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묻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전반기(2017년 5월 10일~2019년 10월 27일)의 언론과 SNS 빅데이터의 교육관련 키워드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 수능, 고교 무상교육, 자립형 사립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입시특혜의혹'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론에 거론될 만큼 이슈가 되지 못했다. 다른 말로는 평생교육에는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문제될 게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본 교육정책 이슈에서 현 정부가 평생·직업교육 정책 관련하여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생애단계별 면에서 생애는 평생(lifelong)과 연관되지만, 학교교육 단계의 학생 진로교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향후 추진방향으로 교육부는 '공정, 미래, 국가책임'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국가책임 관련하여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속 확대,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 대학 등록금 지속경감”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정책은 국정과제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서인지 후반기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향후 추진방향에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평생교육정책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가 정립한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과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후반기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이 임하기를 소망해본다.

2. 2019년 교육부 업무 계획 및 평생교육 시행계획

대통령은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의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8년 12월 11일,

2019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발표하였다. 2018년 추진 성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대학혁신 기반 마련, 국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학사 비리 등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도 저하,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 부족’이 제시되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교육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보장하고, ‘신뢰’, ‘포용’,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토대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비전으로 ‘미래와 신뢰’라는 두 차원에서 주요 업무를 제시하였다. 먼저 미래 차원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의 포용 전략으로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혁신 차원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과 대학지식창출·지역성장 역량강화를 제시하였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신뢰 차원에서는 교육부 혁신, 비리 엄정 대응 및 근절, 교육현장 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인 ‘평등한 출발선 보장, 고졸 취업 활성화,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혁신,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에서 보듯이 평생교육은 담기지 않았다. 학교교육 중심의 추진 계획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에서 ‘먼저 취업하고, 쉽게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란에 어디에서나 손쉽게 받는 교육을 위한 K-MOOC 확대와 방송대 모바일 학습 콘텐츠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직자 역량개발 활성화를 위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전문대학까지 확대)를 제시하였다.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양대 평생교육정책으로는 먼저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계획(2019년 5천명)이 수록되었다. 다음으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직자의 역량개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년도로 변경하였다. 교육부의 「2019 교육부 업무보고」를 기초로 하여 2019년 평생교육 시행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고 나서 기타 계획에 담긴 평생교육을 분석해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생교육 정책성과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과 함께 2018년부터 시행계획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도로 수립·시행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2018년 2월에 수립·발표하였다.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이행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부서)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추진 경과를 보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상정·발표(2018. 2. 23.), 「2018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2018. 6. 22.),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018. 12. 28.),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심의, 2019. 2~5월),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초안 수립(~2019. 6월), 부내, 관계부처 회람(2019. 7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상정·심의(2019.7월),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계획(안) 수립·심의(2019.하), 2019년 시행계획 점검(2020.1~2월), 2020년 시행계획수립·심의(2020.상) 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서 2019년 8월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의 4대 과제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 주관부처로는 교육부 외에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도 포함되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에서 보듯이 관련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만 시행계획의 주무부처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시행계획의 주무부처(부서)면에서 관계부처합동이

란 이름이 어울리게 확장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내부적으로는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를 주무과로 하여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미래교육기획과, 이러닝과, 전문대학정책과, 학술진흥과 등 다양하다. 바람직한 일이다. 평생교육은 수직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평적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기회와 형식을 포괄한다. 평생교육은 어느 특정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조직 원리에 가깝다. 교육부를 넘어서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관계되는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정책의 ‘우산개념, 상위개념(umbrella & master concept)’이라고 부른다. 시행과제는 기본계획의 4대과제인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제시되었다. 과제별 세부 시행 주관부처와 과제와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의 ‘유급휴가 훈련 확산’,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의 ‘인생 전환기 진로설계 컨설팅 지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성인의 학습능력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고졸 취업자 후진학, 경력개발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의 ‘경력단절여성 재도약 지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문해교육지원 확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의 ‘학습자 특성을 감안한 방송통신중고 교육의 질 개선’, 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의 ‘방송통신대 활용,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지원 및 특성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의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을 세부 과제로 제안하였다. 재직자,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등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지속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문해학력 보완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교재, 교구를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는 과제도 포함되었다. 문해교육 관련하여 2019년에는 165개 지자체, 407개 문해교육기관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6만여명이 문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층 성인 7천여명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고시한 점도 주요 성과라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은 주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충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의 ‘직업교육 MOOC 구축 및 직업교육 혁신 기제로 활용’과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개발 및 제공 확대’, 교육부 이러닝과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의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교육부 이러닝과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의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모델 구축’과 ‘매치업(Match業)을 직업교육 혁신 모델로서 안착 지원’,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관 추진체계 마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 ‘유연한 학사운영을 통한 성인친화적 대학 운영’, ‘학점은행제를 통한 양질의 산업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과 ‘전문대학의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대학본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일자리를 위한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외에 미래교육기획과, 이러닝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등이 주무 부서로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선하고 2019년 12월 현재 총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 사업으로서 산업계 인력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맞춤 단기직무 인증과정(매치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6개 분야 산업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고, 다년도 사업(2+2)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체질 개선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를 통한 특성화 지원’, ‘읍면동평생학습센터 확대 등 주민의 접근성 제고’, ‘지역 평생학습의 핵심기관으로 평생학습 기관 질 제고’, ‘지역 평생교육 전문인재로서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시민역량 강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와 교육부 학술진흥과의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 육성’, 교육부 학술진흥과의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확대’, 교육부 평생

학습정책과의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및 우수학습 모임 성장 지원’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대부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가 주무부서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와 학술진흥과의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 육성’ 과제가 돋보인다.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교육부는 2019년에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등 7개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 누적 167개로서 전체 지자체 중 73.9%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및 기관평가인증 도입방안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운영,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관련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통계 정비’,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평생교육분야 국제협력 확대 및 특수 외국어 교육 확산’,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안 마련’, ‘중앙·지방정부 평생교육 재원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평생교육 기반 관련 사업으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을 위하여 교육부는 「평생교육법」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고, 국가-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 조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였다.

3.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만의 일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계획에 평생교육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주요 계획에 담긴 평생교육을 살펴본다.

첫째, 2019년 2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나타난 평생교육이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지만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작이기도 하다. 발표 당일 대통령께서 현장에 참석하셔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힘을 실어준 중요한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부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

지고 주요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대국민 보고(2019.2.19.)를 통해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라는 5대 생애주기에 따른 5대 영역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본 따서 그 후 ‘ㄷ’을 받침으로 하여 ‘돌봄, 배움, 쉼’이란 생애주기별 기획이 유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 수립의 특징인 양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애주기’와 ‘생활기반’으로 기획하였다. ‘미래’와 ‘신뢰’ 차원으로 나누어서 기획한 2019년 교육부 업무 계획의 연장선이다. 기본방향으로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구체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지도, 국민의 달라지는 삶을 체감도 있게 제시’가 설정되었다.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해당 관점에서 사회정책은 내수 촉진,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국가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8년 발표된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수요자 중심인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국민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일상을 ‘삶의 영역(돌봄, 배움, 일, 쉼, 노후)’과 ‘생활 기반(소득, 안전·환경, 건강,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와 ‘생활기반’의 절묘한 조합이다.

이중 ‘배움’ 영역에서 정책목표로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먼저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기초학력 보장 강화,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수립하였다. 평생교육과 직결되는 정책 목표 3인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요 과제로 학점은 행제,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제시하였다. 2022년의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2018년 평생학습 참여율 35.8%에서 2022년 OECD 평균인 42.8%로의 향상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담긴 평생교육정책이다. ‘사람투자’는 인적자본 형성의 기본 전제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4월 10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필요성으로 제시한 “인적자본 축적은 미래사회의 파고를 넘을 돌파구”라는 데에서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포용사회의 핵심과제로 보았다. “사람투자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인재 양성” 비전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를 위하여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2020~2022년 140만명 발급),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온라인 공개강좌(K-MOOC):~2022년 1,200 강좌 운영),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교육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제고와 성인의 학습수요 충족을 위한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AI, SW, 에너지산업, 바이오 등 미래산업 선도 인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주력사업 핵심인재, 그 밖에 중소기업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할 것을 계획하였다. 끝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모두가 일터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확대 도입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장인재를 양성하는 현장형 민간중도 직업훈련, 그리고 재직자 신기술 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재훈련 과제를 제안하였다.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교육부의 주요 추진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록에 제시된 부처별 인력양성대책 발표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계획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결되는 것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사회관계장관회의, 2018.2월)」으로서 관련 주요 추진 과제로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유급학습휴가제, 학습능력진단도구 개발,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일자리연계 평생교육(K-MOOC 개선, 매치업 시범운영, (전문)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학점은행제 개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도입 등)를 예시로 들고 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활동과 성과이다. 2018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2019년은 포용과 혁신의 정책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하였다. 2017년도 총 8차, 21개의 안건, 2018년도 총 11차, 31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반면 2019년도에는 총 17차에 걸쳐 40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를 통해 단독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고, 정부 공동으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2019년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안건은 청주시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차, 14차,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중앙-지자체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9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40개의 안건 중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안)」,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안)」 등은 평생교육 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으로서 눈여겨볼만 하다. 특히 일자리위원회의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후속으로서 사람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위원 외에 산업부·중기부 장관과 일자리 수석 등이 함께 참석하여 사람투자 전략 과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도 계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넷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이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13일(금)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청주시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논의하였다. 활성화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020년 처음으로 5개 지정,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019년 677개에서 2022년 1,130개 목표, 장애인 평생교육 범부처 중앙상설협의체 및 국가-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같이 굵직한 내용이 포함되어

평생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다른 무엇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환경 구축 과제와 지원내용으로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은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며, 목표는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이다. 4대 추진과제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이다.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편의 제공 지원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관계기관 전문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과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은 2018년 12월에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비전은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목표는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교육-복지-고용이 연계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 촉진”이다. 3대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활성화, 현황조사 및 시설 표준화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강화, 둘째,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확대,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 방송통신 중고 재학 장애인 지원 강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강화이다. 이러한 2019년 시행 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이 마련되었다. 2019년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과 계획이 마련된 해이다.

다섯째, 국가교육회의의 평생교육 활동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되어 2018년 12월 18일 제2기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다. 제2

기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 내용에 따라 심의조정 및 자문을 추진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마련하고자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4개의 전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2030 평생·직업교육체제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생학습,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노동계, 산업계 등에 속한 위원들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분과, 직업교육분과, 마을교육공동체분과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뒀다. 2019년 한 해 동안 18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회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체들 및 각계각층의 협의와 소통채널을 활성화 하였다.

끝으로 2019년 평생교육백서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총 4부, 8장, 41절로 구성하였다. 2019년 백서의 목차 구성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편집위원회와 집필진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용의 타당성, 시의성, 객관적 자료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추천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집필진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평생교육백서가 객관적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이면에 자리 잡은 평생교육 동향을 포착하면서 백서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제1부는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와 2019년 평생교육 개요를, 제2부는 영역별, 지역별, 대상별 평생교육 일반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활동을, 끝으로 제4부에서는 평생교육 전망에 대하여 기술한다. 각 장별 절의 내용은 개요, 주요 현황 및 성과, 향후 과제의 틀에서 통일성 있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각 장 마지막에 소결을 추가하여 장별 내용을 종합·정리하였다.



2019 평생교육백서

제1부

평생교육 개요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

제1절

평생교육 법령 체계



1. 평생교육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제1항)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제5항), 그리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제6항)를 천명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 헌법 조문에 근거한다. 「평생교육법」의 전신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육 관련 법제를 「교육기본법」과 하위법으로 체계화할 때 「평생교육법」이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병렬 관계에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이다.

「평생교육법」은 2007년에 전부 개정되었는데, 「사회교육법」과 1999년의 「평생교육법」과 비교하여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선언하였으나 추진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1999년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유지하면서, 전담 조직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또 평생교육사 자격을 도입하고, 학습휴가 및 학습지 지원 규정도 신설하였다. 2007년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달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총괄 기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혹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여기에는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학력인정제도와 평생학습계좌제의 법적 근거도 포함되었다.

2. 현행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현행 「평생교육법」은 8장 46조와 부칙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6장 78조와 부칙으로,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은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1〉 참조).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평생학습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출연금 요구, 지급, 평생학습 지원제도의 운영방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또는 인가 절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등록(변경) 절차, 변경신고,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등급, 배치기준, 그리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은 평생교육 실무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1〉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8장 46조, 부칙	6장 78조, 부칙	25조, 부칙
구성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 평생교육결과의 관리·인정	총칙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평생교육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시설 등록(변경) 문해교육이수자 학력인정
주요 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평생학습관 • 읍면동평생학습센터	• 출연금 요구, 지급, 관리 • 결산서 제출 등 •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 지원제도의 운영방법 등	•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학력·학위취득 기회확대 • 초중고 학력인정시설 • 전문대학 학력인정시설 •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 시설의 지정 또는 인가 기준 및 절차 • 폐쇄인가 또는 신고절차	• 문해교육이수자 학력 인정절차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 학교(학교부설)의 평생교육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 시설의 설치 신고·등록 • 시설의 변경신고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변경 신고 절차
	다양한 평생학습지원제도 • 유급 또는 무급학습휴가제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교육사 •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등급, 배치 기준 등 • 학습계좌제 운영, 평가인정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 지정 및 지원 기준	• 전문인력정보은행 운영 • 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사자격증 교부 • 문해교육이수자의 학력인정 또는 학습과정인정절차

3.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관련법의 관계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그 지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통해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한계를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현재는 사문화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직업전문학교를 관할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직업전문학교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제 중심인 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지원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권두승, 2017).

<표 1-2> 다른 법률의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또는 시설의 운영

법률	목적 및 내용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지원 • 청소년의 학습권·참여 강화	•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 • 청소년시설(제17조) 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 보호법 제35조) 2)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3)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단체(제28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제23조)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 국민의 포괄적 진로개발지원에 대한 구체적·포괄적 규정	• 고용정책심의회(제10조) • 직업안전기관(제11조) • 한국고용정보원(제18조) • 한국잡월드(제1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공공직업훈련시설(제19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 전체 국민대상 영리추구형 직업기술교육 기회 제공	• 평생직업교육학원(제2조의2)

법률	목적 및 내용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및 시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제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제2조) 1) 공공직업훈련시설(제27조) 2) 지정직업훈련시설(제28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22조의2) - 직업능력개발단체(제2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제32조) - 기능대학(제39조) - 기술교육대학(제52조의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자기계발 지원·활용 - 국민의 인적자본형성·개발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제7조)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제12조)

출처: 권두승(2017).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pp. 11-12

둘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규정하는 법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들에서는 각각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전담시설의 운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과 「청소년기본법」은 각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한다.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는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 교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3〉 평생교육 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구분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소관 부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자격 제도	평생교육사 1, 2급 (법 제24조)	사회복지사 1, 2, 3급 (법 제11조)	청소년지도사 1, 2, 3급 (법 제21조)	문화예술교육사 1, 2급 (법 제27조의2)
주요 시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1~38조)	사회복지관 (법 제34조의5)	청소년시설 (법 제17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법 제10조제6항)
전담 공무원 제도	없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법 제14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	없음

제2절

평생교육 법령 변화



1. 평생교육법의 변화

가. 「평생교육법」 개정

국회는 2019년 「평생교육법」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 협조체계 구축 및 종사자 교육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였고,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악용을 막기 위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고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1-4> 2019년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

날짜	개정 종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2019. 4. 23.	일부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등의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및 제3항 신설 - 제19조의2제2항제4호 개정 - 제19조의3 신설 -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2019. 12. 3.	일부 개정	평생교육사 자격증 악용 방지 및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제24조제1항 개정,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 제5항 신설 - 제24조의2제2호 개정, 제4호 신설 - 제29조의2 신설 - 제45조의3 신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약칭: 독학학위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학점인정법) 등의 법률은 2019년에 개정 사항이 없었다.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2019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두 차례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한 차례는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따른 것이었다.

<표 1-5> 2019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날짜	개정 종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2019. 6. 11.	일부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에서 따른 사내교원 관련 규정 개정	• 본문 내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로 변경 (제41조제2항제1호 개정)
2019. 7. 2.	일부 개정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서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조문 개정	• 본문 내 '병용할'을 '함께 쓸'로 용어 변경 (제27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본문 내 '화상강의'를 '영상강의'로 용어 변경 (제48조 및 제58조제1항 개정)
2019. 10. 22.	일부 개정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 교육에 대한 법적 절차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조항 신설 (제11조의3 신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에서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표 1-6> 2019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날짜	개정 종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2019. 12. 3.	일부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을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한 개정	•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온라인 강좌 규정 신설 (제3조제10호의2 신설) • 위 변경 사항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제11호 및 제5조제3항 개정)

2.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령 변화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공대학이 포함되었다.

나. 「수의사법」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의 자격(제16조의2)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동물보호사의 자격 조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21년 8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4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법인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 회원이 될 수 있다.

3. 조례 변화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2019년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례 개정은 총 17개 시도 중에서 8곳(강원,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남)에서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7> 2019년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 개정 사항

조례	날짜	내용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7. 26.	- 진흥원 지정 시 필요서류 중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제외 -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2019. 11. 8.	- 본문 내 띄어쓰기 수정 - 제3조제3항제3호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8. 6.	- 조례 내 용어 정의 수정 및 삭제 - 제2조제1호 개정, 제2호다목 전문개정, 같은 조 제4호 삭제, 제5호 및 제6호 전문개정 - 평생교육진흥사업 조항 수정 - 제6조제2호 및 제3호 개정, 제8호를 제11호로 변경 후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 신설 -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기능 조항 수정

조례	날짜	내용
		- 제9조 제4호 삭제, 제5호 개정 • 협의회 회의 조항 수정 - 제13조제1항 전문 개정, 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4항 및 제5항 개정 • 학습비 조항 신설 - 제18조의2제4항 신설 • 공무원 파견 조항 삭제 - 제23조 삭제 • 영어마을 관련 조항들 삭제 및 기타 관련 조항 개정 - 제25조부터 제27조 삭제 - 제28조부터 제30조 개정 • 본문 내 용어 및 표현, 띄어쓰기 등 일부 수정 -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개정 - 제11호제3항 개정 -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개정 - 제19조제4호 개정
	2019. 10. 1.	•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조항 신설 -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변경 후 제8호 신설 - 제1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변경 후 제9호 신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12. 12.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 제9조제3항 개정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4. 10.	•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설립에 따른 조항 수정 - 제2조제2호 개정 - 제3장 개정 - 제10조 전문 개정 - 제11조제1항 개정, 같은 항 제1호 개정,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변경, 제2항 신설 -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전문 개정 - 제18조 개정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6. 28.	• 조례 전부개정 - 기존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정리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7. 10.	• 부산광역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 - 제2조제4호 개정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9. 26.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에 따른 조항 수정 - 제2조제3호 개정 - 제8조제4호 개정 - 제3장 제목개정 - 제17조, 제18조, 제21조 삭제 - 제24조 개정 • 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 수정 - 제20조제1항 개정 -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9. 5. 30.	• 소외계층에 대한 설명 부연 - 제15조제5호 전문 개정 • 평생교육진흥원의 임원 성비 관련 문구 추가 - 제17조제1항 개정 • 진흥원 이사장 부재 시의 직무대행자 변경 - 제19조제3항 개정

나. 기초자치단체 조례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93개였다. 이 중에서 17개의 기초자치단체는 한 해 동안 조례를 2번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3번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른 수강료 감면 관련 조문 개정 등이었다.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수강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다.

<표 1-8> 2019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조례 개정 사항

구분	개정된 조례 및 날짜
강원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월 13일)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12월 20일)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5월 10일)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12월 18일)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9월 10일)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0월 14일)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9월 20일)
경기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8월 2일 / 12월 20일)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7월 26일 / 12월 31일)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8월 14일)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7월 15일)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7월 5일)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12월 24일)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10월 28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9월 23일)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12월 26일)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3월 4일)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3월 6일 / 10월 10일)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5월 31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3월 12일)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1월 1일)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12월 27일)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6월 28일 / 12월 20일)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5월 24일 / 11월 15일)

구분	개정된 조례 및 날짜
경남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11월 18일)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1월 1일 / 11월 11일)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6월 18일)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9월 18일)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3월 27일)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1월 6일)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7월 1일)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7월 19일)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6월 21일)
경북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 (5월 13일)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4월 30일 / 12월 20일)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6월 25일)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10월 10일 / 12월 10일)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5월 15일 / 7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3월 12일 / 6월 28일)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7월 11일)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10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7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6월 14일)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5월 10일 / 7월 1일 / 7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5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5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7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5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7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7월 5일 / 7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11월 14일)

구분	개정된 조례 및 날짜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2월 28일 / 10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9월 19일)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9월 27일)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4월 19일 / 6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9월 23일 / 11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2월 18일 / 9월 30일)
전남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월 30일)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4월 15일)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4월 8일)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10월 14일)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4월 11일)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월 15일)
	화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2월 11일)
전북	고창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3월 25일)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12월 11일)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2월 16일)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3월 27일)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1월 3일)
충남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11월 11일)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4월 1일 / 6월 28일)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4월 30일)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2월 15일)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8월 20일)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10월 10일)
	서천군 평생학습 조례 (10월 21일)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6월 5일)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7월 11일)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1월 30일)
충북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6월 28일 / 12월 13일)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3월 15일)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2월 28일)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12월 31일)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2월 26일)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5월 17일)

4. 2019년 「평생교육법」 개정 의안

2019년 국회에서는 「평생교육법」 관련 개정 의안이 총 8건 발의되었다.

가. 2019. 3. 18. 의안 (김병기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2019년 12월 3일 개정 「평생교육법」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나. 2019. 4. 8. 의안 (원혜영 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국가의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어야 하며, 5년, 10년, 20년 등의 기간에 대한 계획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안이다.

다. 2019. 4. 10. 의안 (이찬열 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평생교육기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라. 2019. 4. 11. 의안 (이상헌 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설치인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운영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지만 학생 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을 신설할 것을 발의하였다.

마. 2019. 4. 29. 의안 (박경미 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사회적 신분, 학력, 출신 학교 등에 따른 평가와 차별이 사회풍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바. 2019. 10. 23. 의안 (조승래 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가 필요하기에 그에 맞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음 내용을 다루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
- ②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도입
- ③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 마련
- ④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사용 근거 마련
- ⑤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 마련
- ⑥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⑦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추가·조정 등
- ⑧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
- ⑨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지원
- ⑩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 ⑪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 ⑫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 ⑬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 ⑭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 ⑮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 ⑯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사. 2019. 12. 4. 의안 (김종희 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그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아. 2019. 12. 18. 의안 (신경민 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명확한 실태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안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절

평생교육 전달체제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중앙정부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 그리고 민간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년)에서는 (1)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2) 평생교육기관 질 제고, (3)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을 목표로 하여 전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

교육부(2018)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안의 하나였던 현재 20명 이내인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은 2019년 10월 발의된 조승래 국회의원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개선안에 포함되었던 주요 내용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사업 기본계획,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시도별 중장기 발전방안 등과 같이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은 2019년 한 차례 열린 위원회에서 실질화되었다.

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1) 구성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심의 대상이다.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맡으며,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과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진흥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라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2) 활동 현황

진흥위원회는 2008년 12월에 1기가 조직되었고, 2011년 3월에 2기, 2018년 5월 1일자로 3기가 조직되었다. 진흥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현재 3기 위원은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흥위원회의 2019년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 1-9> 2019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주요 안건

번호	주요 안건 내용	비고
1	2018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 실적	심의
2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심의
3	시도별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보고

출처: 교육부(2019). 내부 자료.

나.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협의회

1)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조례 및 설립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시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10〉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관련 조례 및 설립 시기

광역 자치단체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조례		설립 시기
	조례명	최초 제정 일자	
강원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2009. 9. 25.	2010. 2. 1.
경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4. 21.	2009. 9. 4.
경남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 12. 31.	2009. 8. 24.
경북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09. 3. 9.	2009. 5. 1.
광주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 폐지)	2008. 7. 1.	2009. 12. 10.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0. 10. 1.	
대구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5. 11.	2012. 4. 3.
대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2008. 12. 26.	2011. 2. 8.
부산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4.	2009. 5. 28.
서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009. 3. 18.	2009. 5. 1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2012. 7. 2.	2015. 1. 1.
울산	울산평생교육진흥조례	2008. 10. 16.	2009. 1. 1.
인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10. 12.	2010. 1. 26.
전남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5.	2014. 1. 17.
전북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11. 12. 09.	2014. 4. 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09. 3. 08.	2011. 1. 1.
충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08. 10. 30.	2011. 3. 1.
충북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2011. 2. 11.	2011. 5. 2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평생교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도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시도지사가 맡으며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이 맡는다. 현재 각 시도협의회에서는 적게는 14명, 많게는 20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20인 이내의 구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협의회 위원은 총 286명으로 당연직 68명, 위촉직 2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협의회 위원 구성은 진흥위원회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비율이 동일한 것과 달리 위촉직이 전체적으로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의장과 부의장이 맡는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위촉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6곳(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이다. 이에 비해 부산과 경기도는 당연직과 위촉직 인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표 1-11>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 현황

(단위: 명)

광역자치단체	현재 구성 위원 수		
	당연직	위촉직	위원 총수
강원	5	11	16
경기	5	9	14
경남	4	13	17
경북	6	12	18
광주	2	13	15
대구	2	13	15
대전	4	10	14
부산	8	9	17
서울	5	11	16
세종	2	18	20
울산	2	14	16
인천	6	12	18
전남	5	12	17
전북	3	15	18
제주	5	15	20
충남	2	13	15
충북	2	18	20
계	68	218	28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 자료.

3)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활동

「평생교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협의회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때문에 시도협의회 주요 안건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룬다.

2019년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협의회는 1회 이상의 심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2019년에만 2회 개최하였다.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시도협의회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주요 심의 안건 중 대부분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외에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상 4곳은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혹은 재지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이상 3곳은 특별히 장애인평생교육진흥에 관해서도 심의하였다.

<표 1-12>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활동 현황

(단위: 차)

광역 자치단체	협의회 활동 현황			
	협의회 구성 연도(최초)	2018년 개최 횟수	2019년 개최 횟수	2019년 주요 심의 안건
강원	2010	0	1	• 강원연구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재지정(안)
경기	2009	1	1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경남	2009	0	1	• 2019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안)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안)
경북	2009	2	1	•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광주	2009	1	1	• 2019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대구	2012	2	1	• 대구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
대전	2011	1	1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
부산	2009	1	1	•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안)
서울	2009	1	0	-
세종	2015	1	1	• 2019년 세종시 평생교육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안)
울산	2009	1	1	• 2019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인천	2010	1	1	• 2019년 인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
전남	2014	1	1	•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전북	2014	2	2	• 2019년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 •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계획(안)
제주	2011	1	2	• 2019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평생교육 발전방안 협의 등
충남	2011	1	1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
충북	2011	2	1	• 2020년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안)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 자료.

다.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를 둔다.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맡는다.

시군구협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경기도 부천시다. 2003년 4월에 관련 조례가 제

정되면서 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가장 먼저 시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새로 구성한 곳은 강원도 강릉시, 양구군, 원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안동시, 영천시, 부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등 이상 12곳이다. 이중 경상북도 안동시는 2019년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협의회를 재구성하였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평생학습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이상 3곳은 2019년에 시군구협의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아래는 2019년까지 조사된 시군구협의회를 광역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

〈표 1-13〉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활동 현황

(단위: 개)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활동 현황	
	협의회 수	해당 시군구
강원	14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경기	27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남	14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경북	19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	5	광산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6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	15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	24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울산	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	7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10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제주	-	-
충남	7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충북	8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계	18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 자료.

2. 중앙정부 전달체제

가. 교육부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한 학습권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생미래교육 국 산하에 4개의 과(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업무 내용은 (1)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 성인문해교육, (3) 평생교육바우처, (4) 대학 평생교육체제, (5)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업무, (6) 국가역량체계(KQF), 민간자격, NCS 등의 체계 구축, (7)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8) 성인문해교육 등이다. 이 외에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부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4>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분류	업무 내용	관련 법령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제9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제16조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	제17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2조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육성	제3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8조
기관 설립 및 구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제15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	제1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협조	제19조의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 관리	제24조, 제24조의2, 제43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제25조, 제44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
문해교육	문해교육 진흥, 운영 및 지원	제39조
	문해교육센터 설치	제39조의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제40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40조의2
그 외 사업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공개	제18조,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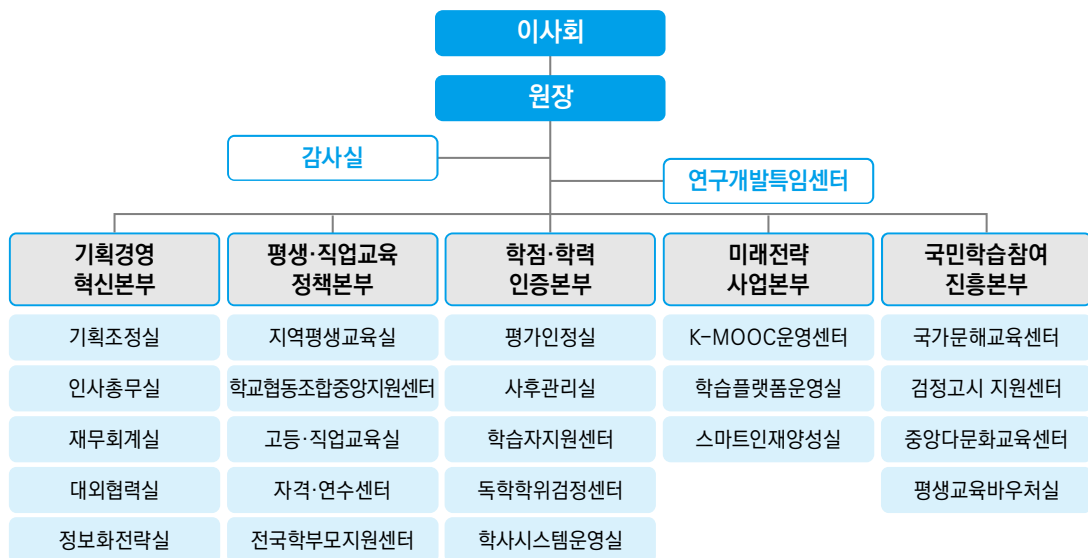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7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08년에 개원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국민 전(全) 생애, 학습을 통해 국가의 포용적 혁신 성장에 기여’라는 미션과 ‘학습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및 구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5본부 1센터 1실 체제를 갖추었다.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조직으로 5개의 부서와 하부조직으로 22개의 실/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실 내의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와 국가문해교육센터 내에 검정고시지원센터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 조직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와 정원

(단위: 명)

직급	직종별 인원			비고(직명)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상임임원 (기관장)	1			원장
1	1			[1급, 2급] 수석전문위원
2	4			[3급] 전문위원
3	12			[4급] 선임전문원
4	17			[5급] 전문원, 사무원
5	46			[6급] 전문원, 사무원, 기능원
6	10			
별도 정원	1			
계	9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전문직은 수석전문위원(1급, 2급), 전문위원(3급), 선임전문위원(4급), 전문위원(5급, 6급)으로 구성된다. 사무직은 사무원(5급, 6급)이 있으며 기능직은 기능원(6급)으로 구분한다.

3) 11대 기능 및 주요 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11대 기능은 ①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②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④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⑤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⑥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⑦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⑨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⑩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⑪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②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③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④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⑥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⑦ 평생학습계좌제, ⑧ 학점은행제, ⑨ 독학학위제, 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⑪ 성인문해교육 지원, ⑫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⑬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⑭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⑮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⑯ 학교협동조합 중앙

지원센터 등이다.

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1) 설치 근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2018년 5월 28일에 국립특수교육원 산하로 개소하였다. 이 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목표로 운영된다.

2) 조직 및 구성

2019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센터장(직위: 장학관) 1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4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www.nise.go.kr/lifelong> 2020. 3. 22.).

3) 10대 기능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10대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②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③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④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⑥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⑦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⑧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⑨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⑩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3. 지방자치단체 전달체제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담당하고 있다. 다음 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담당 부서를 비교한 것이다.

〈표 1-16〉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 현황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강원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교육지원팀 소속	행정국 노사법무과 평생학습팀
경기	행정1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미래교육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경남	통합교육추진단 평생교육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급식과 평생교육팀
경북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광주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소속	교육국 중등교육과 평생교육팀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평생교육팀	행정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전	공동체지원국 교육청소년과 교육복지팀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평생교육팀
부산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서울	행정1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세종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팀
울산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인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전남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소속	행정국 행정과 평생교육팀
전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미래인재과 평생교육팀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충남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기획국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충북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협력팀 소속	행정국 재무과 사학학운위팀 소속

출처: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광역자치단체 중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국 단위로 있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로 2곳이다. 과 단위로 존재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1곳이며, 팀 수준으로 존재하는 곳은 10곳(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남)이다. 4곳(강원, 광주, 전남, 충북)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가 특정한 과나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외에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을 따로 운영하며, 전문위원 2명과

주무관 5명을 배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교육복지팀이라는 부서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중 평생교육 업무가 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유일하며, 과 단위는 3곳(경기, 경남, 인천), 12곳(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에서는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은 팀 단위로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평생교육 업무는 북부청사에서 담당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주 업무 팀 이외에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에 평생교육사 3명이 배치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모두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국 단위로 편성한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고, 과 단위로 편성한 곳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팀 단위로 편성한 곳은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전남, 충남 등 7곳이며, 충북은 행정 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팀 단위 이상으로는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 이 외의 8곳(강원, 경기, 경남, 광주, 울산, 인천, 전남, 제주)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 부서 단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초자치단체 수준

1)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행정체제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자치단체 일반자치 측면과 교육 지원청의 교육자치 측면으로 나뉜다. 평생교육 업무는 행정과 교육지원청 모두 주로 과 혹은 팀 수준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는 시군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67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 2020. 3. 22). 또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 223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20. 3. 22).

2)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지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더불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에 494개의 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이다. 다음 <표 1-17>은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을 보여준다.

이 외에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총 832개의 읍면동평생학습센터가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표 1-17>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설립 주체				운영 형태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직영	위탁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45	255	62	15	13	285	60
지자체 설치	149	149	-	-	-	140	9
계	494 <23>	404 <1>	62 <13>	15 <3>	13 <6>	425 <22>	69 <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9-2.기관운영 현황'의 표를 편집하여 인용함.

주: < >는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총계에 포함됨.

4. 민간 전달체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다. 셋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8> 평생교육기관 분류

	관계법	시설 구분	유형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제20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각종학교, 기술학교 등
	제21조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제22조		원격대학형태
	제22조 시행령 제46조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관계법		시설 구분	유형
	제2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제2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 300인 이상 시민단체를 지칭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제26조 시행령 제4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제2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제2조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학원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중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국립중앙도서관 등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중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국립중앙박물관 등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여성 관련 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시설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아동보호시설
	직업 훈련 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전수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국악원 등

출처: 최돈민 외(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p. 21

현재 교육부 중심의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평생학습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들과 연계 협력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의 상황이나 운영 프로그램 관련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문헌

- 권두승(2017).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 구축.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정책 개선 국회공청회, 11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
- 김주영(2018).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개선.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 협의회, 6월 20일.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중강당.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브로슈어.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최돈민·윤여각·노기호·강대중(20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2020. 3. 2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2020. 3. 22.)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www.nise.go.kr/lifelong>(2020. 3. 21.)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2020. 3. 10.)
- 시도청 홈페이지
 - 1)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2020. 3. 22.)
 - 2)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2020. 3. 22.)
 - 3)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2020. 3. 22.)
 - 4)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2020. 3. 22.)
 - 5)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2020. 3. 22.)
 - 6)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2020. 3. 22.)
 - 7)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2020. 3. 22.)
 - 8)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2020. 3. 22.)
 - 9)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2020. 3. 22.)
 - 10)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2020. 3. 22.)
 - 11)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2020. 3. 22.)
 - 12)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2020. 3. 22.)
 - 13)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2020. 3. 22.)
 - 14)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2020. 3. 22.)
 - 15)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2020. 3. 22.)
 - 16)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2020. 3. 22.)
 - 17)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buk.go.kr>(2020. 3. 22.)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1)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2020. 3. 22.)
- 2)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2020. 3. 22.)
- 3)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2020. 3. 22.)
- 4)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2020. 3. 22.)
- 5)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2020. 3. 22.)
- 6)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2020. 3. 22.)
- 7)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2020. 3. 22.)
- 8)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2020. 3. 22.)
- 9)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sen.go.kr>(2020. 3. 22.)
-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2020. 3. 22.)
- 11)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2020. 3. 22.)
- 12)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2020. 3. 22.)
- 13)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ne.go.kr>(2020. 3. 22.)
- 14)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2020. 3. 22.)
- 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2020. 3. 22.)
- 16) 충청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ne.go.kr>(2020. 3. 22.)
- 17)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2020. 3. 22.)

제4절

소결



내용면에서 제1부는 평생교육 개요라는 이름아래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와 제2장 평생교육 실태를 알려주는 2019년 평생교육 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에서는 평생교육 법령 체계, 평생교육 법령 변화, 평생교육 전달체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평생교육 법령 체계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요, 현행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관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법령 변화에서는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변화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수의사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조례 변화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그리고 평생교육법 개정 의안 관련하여 2019년 국회에서 발의한 8건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한 학습권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생미래교육국 산하에 평생학습정책과를 두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9년에는 총 1회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시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 담당 부서는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국, 과, 팀 단위에서 담당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시도평생교육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이상의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에 평생교육 행정체제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자치 측면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 측면으로 나뉘며 과 혹은 팀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494개의 평생학습관과 832개의 읍면동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8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끝으로 평생교육법,령,조례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체제가 수준별, 기능별로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시도 및 시군구 평생교육 행정조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교육청 평생학습관 포함)·읍면동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집행조직,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시도 및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교육청 평생교육협의회 포함)의 협의조직이 확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평생교육의 파트너십 정신과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살려서 교육청과 시도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각종 생애 단계별 기능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촘촘한 학습망으로 생태계를 구성하여 유기체처럼 운영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된 지 10년도 넘었고,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여전히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 개정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 유관 법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제3차 전부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손봐야 할 것이다.



제2장

2019년 평생교육 개요

제1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1. 개요

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조사 개발 과정 및 개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공포된 1999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당시 평생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 단계의 교육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평생교육 기관과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해 왔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우리나라 성인 대상 평생학습 참여 현황을 조사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일반통계/조사통계, 334009호, 2007. 8. 23.). 이에 따라 선정된 전문 조사 기관은 매년 1회 전국 25세에서 7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과 불참 요인, 학습 패턴 등을 조사한다. 첫 조사는 2007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본조사는 매년 7월과 8월 두 달간 개별 가구 방문 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의 기준이 되는 조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이다. 표본추출을 위해 1차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한 후 [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하며, 2차로 각 조사구에서 실제 조사 대상 [가구]를 계통추출한다. 2019년 13차 조사에서는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활용했으며, 총 5,095가구에서 9,973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나. 조사 문항 및 문항 변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문항들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실태 및 발전 단계를 가늠하기 위해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OECD의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ALL(Adult Literacy and Lifeskills) Survey, Eurostat의 AES(Adult Education Survey) 등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조사 문항은 5개 대(大)영역(참여 실태, 학습 환경, 학습 활동, 사회 참여 및 인식,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관련된 참여실태 영역의 질문 비중이 가장 높다.

<표 1-19> 2019년도 조사 문항 구성 및 분류

대영역	중영역	조사 세부 항목
I. 참여 실태	A. 형식 교육	1. 참여 여부(1-1. 참여교육과정, 1-2. 참여 당시 사회적 신분), 2. 참여 목적, 3. 연간 참여 시간, 4. 자기 부담 학습비 및 외부 지원, 5. 교육 성과
	B. 비형식 교육	1. 참여 여부, 2. 참여 프로그램 수, 3-(1). 프로그램 유형, 3-(2). 과거 수강 경험 여부, 3-(3). 프로그램 형태, 3-(4). 기관 유형, 3-(5). 기관명, 3-(6). 참여 목적, 3-(7). 중도 포기 여부, 3-(8). 중도 포기 이유, 3-(9). 연간 참여 시간, 3-(10). 자기 부담 학습비, 3-(11). 학습비 외부 지원 여부, 3-(12). 학습비 지원기관, 3-(13).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3-(14). 프로그램 만족도, 3-(15). 프로그램 불만족 요인, 4. 교육 성과
	C. 무형식 학습	1. 참여 여부
II. 학습 환경	D. 학습 수요	1. 참여 희망 프로그램, 2. 참여 못 한 프로그램 유무 (2-1. 프로그램 불참 요인)
	E. 접근성	1. 정보 접근 여부 (1-1. 정보 접근 경로, 1-2. 정보 활용 프로그램 참여 여부)
III. 학습 활동	F. 학습 역량	1. 외국어 학습 경험 및 수준, 2. 외국어 사용 빈도, 3. 인터넷 활용 빈도
	G. 학습 패턴	1. 학습 패턴
	H. 학습 태도	1. 학습에 대한 태도
IV. 사회 참여 및 인식	I. 사회 참여	1. 사회 참여 여부 및 빈도
	J. 사회 인식	1. 전반적 생활 만족도, 2. 평생학습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V.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DQ. 응답자 통계적 배경 질문	1. 최종 학력, 2. 자녀 유무 및 막내 자녀 연령(교육) 구분 (2-1. 미취학 막내 자녀 육아 형태), 3. 동거가족 유무 및 수, 4. 부양가족 유무, 5. 취학 전 손자·손녀 유무 (5-1. 취학 전 손자·손녀 보육 경험), 6. 건강에 대한 인식, 7. 주된 소득 원천, 8. 수입 목적 일자리 유무 (8-1. 구직 여부, 8-2. (무직자) 현재 상태 구분, 8-3. (은퇴자) 은퇴 전 직업), 9. 고용 형태 (9-1. 종사상 지위, 9-2. 근로시간 형태), 10. 현재 직업, 11. 직장 규모, 12. 직장 근무 기간, 13. 월평균 소득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매년 조사 시작 전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수요·의견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여기서 제안된 각 문항의 추가/수정/삭제 요구는 선별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 조사 문항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변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학력보완교육’의 재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고등학

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비형식 교육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를 다시 형식 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조사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 주장의 수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 참여 과정을 다룬 B2~B3의 문항에서 ‘학력보완교육’ 범주를 삭제하였다. 대신 A1-1 [형식 교육 참여 과정]의 선택 범주에 고등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주로 응답 범주의 세분화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A1-1의 형식 교육 참여 과정 문항에서 기존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범주를 학교급별로 세분화하여 초, 중, 고 3개의 개별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대학원(석사, 박사)’ 범주 역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따로 구분하였다. 이는 [한국표준교육분류]의 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따를 것을 권고한 통계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통계적 배경(DQ)에서 [최종 학력] 범주에 ‘휴학’과 ‘수료’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 통계청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 인식 (J)영역에서 [삶의 질 향상 정도](=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이 다음 항목인 [평생학습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삶의 질 향상 정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2. 2019년 주요 조사 결과

가.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수집되는 항목 중에서는 각종 논문이나 자료집에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 <표 I-20>과 [그림 I-2]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평생학습,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의 참여율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79세까지의 고령자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 비교 가능성을 위해 전체 응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과는 별도로 만 25세~64세 연령대 참여율만을 따로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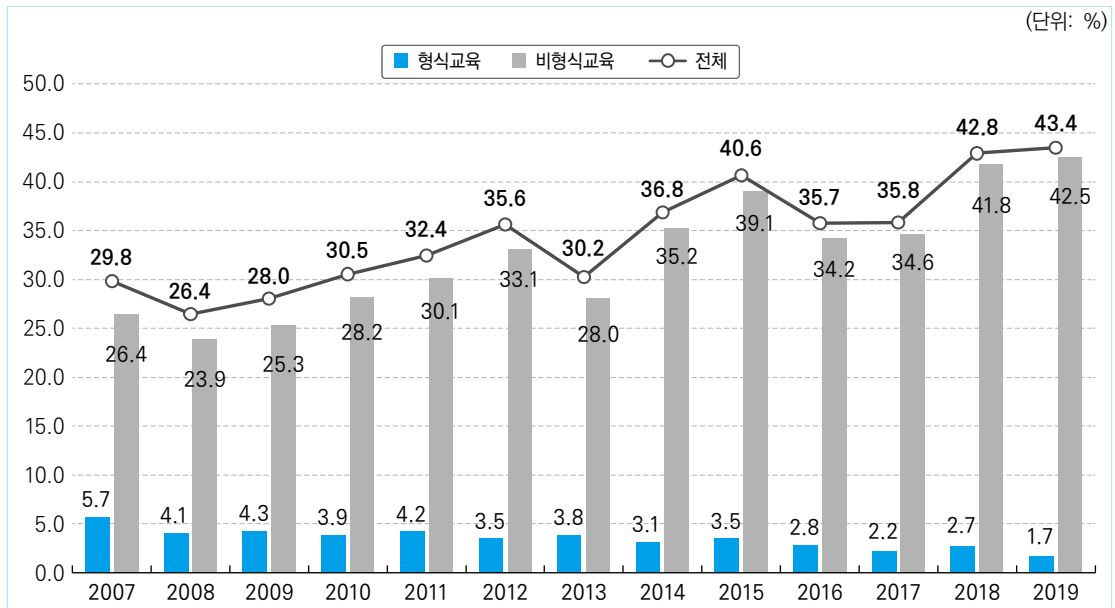
<표 1-20>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07~2019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9.8	26.4	28.0	30.5	32.4	35.6	30.2	36.8	40.6	35.7	35.8	42.8	43.4
형식 교육	5.7	4.1	4.3	3.9	4.2	3.5	3.8	3.1	3.5	2.8	2.2	2.7	1.7
비형식 교육	26.4	23.9	25.3	28.2	30.1	33.1	28.0	35.2	39.1	34.2	34.6	41.8	42.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 28

주)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 형식 교육 참여율 + 비형식 교육 참여율 - 평생학습 동시 참여자 비율.



[그림 1-2] 만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07~2019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2019년도 만 25세에서 64세 성인의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로 전년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비형식 교육 참여율도 약 0.7%p 증가하였다.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15년 40%대를 넘어섰지만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4.9%p나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참여율은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폭(7.0%p)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따라서 2019년 조사에서는 2015-2016년도와 같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40% 중반 대에 안정적으로 상승 진입함으로써 그러한 염려는 불식되었다.

비형식 교육 참여율도 2017년부터는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과 약 1%p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만 형식 교육 참여율은 전년도 대비 1%p 정도 하락하였는데,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조사부터는 학력보완교육이 형식 교육으로 재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교육 참여율이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인 만 25세~79세의 성인의 경우 2019년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41.7%, 형식 교육 참여율은 1.5%, 비형식 교육 참여율은 40.9%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 수치(전체 참여율: 41.2%, 형식 교육 참여율: 2.3%, 비형식 교육 참여율: 40.4%)와 비교했을 때 형식 교육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지만, 만 25세~64세의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는 증가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연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며, 특히 아래 <표 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에 만 65세~79세 연령대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2017년부터 조사된 만 65세~79세 고령자의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8년에 큰 폭(5.7%p)으로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는 소폭(0.2%p) 하락하였다. <표 I-21>에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요인을 선택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중 평생학습 참여 여부를 가장 극명하게 구분하는 요인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보다 항상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2019년에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40.1%나 평생학습에 참여하였고, 자신이 없는 고령자의 참여율은 그 절반 수준인 21.8%에 그쳤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는 다른 어떤 요인에서 나타나는 격차보다 컸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21> 만 65세~79세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2017~2019년)와 참여 관련 요인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만 65~79세 전체	26.9			32.6			32.4		
구분	없음	있음	편차	없음	있음	편차	없음	있음	편차
자녀 유무	19.2	27.2	-8.0	36.0	32.5	3.5	25.9	32.6	-6.7
동거가족 유무	27.9	26.7	1.2	35.8	32.1	3.7	37.6	31.6	6.0
부양가족 유무	31.5	21.2	10.3	36.8	28.5	8.3	33.7	31.2	2.5
취학 전 손자·손녀 유무	24.7	30.3	-5.6	32.1	33.4	-1.3	32.6	32.1	0.5
건강에 대한 자신감 유무	20.6	33.2	-12.6	23.3	39.6	-16.3	21.8	40.1	-18.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2019). 연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요인으로는 ‘부양가족의 유무’가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자가 보다 자유롭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는 2017년에 10.3%로 매우 큰 편이었지만, 2019년에는 2.5% 수준으로 축소되어 평생학습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부양가족 유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동거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양가족’ 유무의 조건과는 반대로 점점 더 집단 간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취학 전 손자·손녀 유무의 경우 2017년에는 ‘있다’고 대답한 집단의 참여율이 더 컸지만 이후 그 편차가 줄어들어 2019년에는 오히려 ‘없다’고 대답한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 비형식 학습 영역별 참여율 변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원래 비형식 교육을 「평생교육법」에 언급된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부터는 학력보완교육이 형식 교육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섯 개 영역으로 감소하였다. <표 I-22>는 최근 10년간 이들 다섯 개 영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I-3]은 이들 영역 중에서 참여율이 매우 낮은 두 영역(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영역의 참여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I-22> 만 25~64세 성인의 영역별 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율(2010~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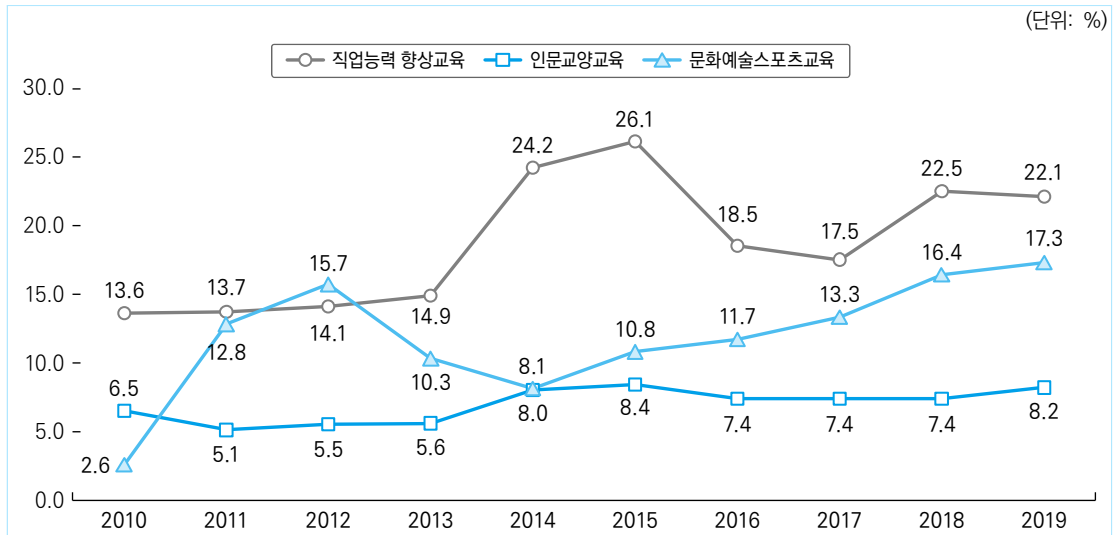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0.3	0.2	0.1	0.3	0.3	0.1	0.1	0.1	0 ¹⁾	0.1
직업능력향상교육	13.6	13.7	14.1	14.9	24.2	26.1	18.5	17.5	22.5	22.1
인문교양교육	6.5	5.1	5.5	5.6	8	8.4	7.4	7.4	7.4	8.2
문화예술스포츠교육	2.6	12.8	15.7	10.3	8.1	10.8	11.7	13.3	16.4	17.3
시민참여교육	0.7	0.5	1.1	0.9	1.2	1.4	1	0.7	0.7	0.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주1)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참여율이 0%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0.1% 미만임을 의미함.

우선 구분된 다섯 개의 비형식 학습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2019년 조사에서 22.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이 17.3%, 인문교양교육이 8.2%를 기록했다. 나머지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은 각각 0.1%와 0.7%

수준을 보여 상위 3개 세부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형식 학습 세부 영역의 참여율 순위는 최근 수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상위 3개 영역의 참여율 수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난 변화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비형식 평생학습 상위 3대 영역의 참여율 변화(2010~2019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9~2018). 연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우선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 2015년에는 26.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몇 년 동안은 $20 \pm 2.5\%$ 의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경우 2012년 15.7%를 기록했을 때만 하더라도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참여율을 능가했지만, 이후 참여율이 크게 감소해 2014년에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의 3분의 1 수준인 8.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의 변화만을 고려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지난 10년간 참여율의 급격한 등락 없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8.4%)과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1년(5.1%)의 격차가 불과 3.3%p에 불과할 정도로 일정한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라. 비형식 교육 영역별 과거 수강 경험

‘과거 수강 경험’ 문항에서는 올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비형식 학습의

세부 프로그램 19개 중, 응답자가 참여했다고 언급한 특정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 기간 1년 이전에도 참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조사의 경우,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첫 번째 프로그램 유형인 외국어 자격증 강좌(토익, 토플 등)를 조사 대상 기간인 2018년 7월에서 2019년 6월 사이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을 경우, 그보다 1년 전인 2017년 7월과 2018년 6월 사이에도 동일한 범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는지를 묻는 형식이다. 이러한 문항은 특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속 참여율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표 I-23〉은 과거 수강 경험에 대한 2018년도 조사와 2019년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속 참여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변화율의 폭이 급변할 수 있는 문자해득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영역만을 놓고 본다면, 연속 수강 경험은 2018년도에 비해 2019년에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문교양교육이나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경우 4~5%p 폭의 의미 있는 수준의 증가가 있었는데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령자보다는 청년층이, 농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과거 수강 경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대별 증가율의 편차가 거의 없었으며, 농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23〉 비형식 교육 영역별 과거 수강 경험 여부(2018~2019)

(단위: %)

구분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전체		54.3	72.8	54.3	55.9	43.6	49.0	47.0	51.1	47.7	41.4
성별	남성	- ¹⁾	100	55.5	58.8	45.7	46.6	47.9	51.9	47.7	44.4
	여성	59.4	65.4	52.2	50.5	42.4	50.8	46.6	50.7	44.8	38.6
연령	25~34세	100	48.3	48.8	48.0	45.5	50.5	45.6	48.0	20.3	13.9
	65~79세	46.8	78.7	63.8	60.9	43.9	43.2	51.2	53.2	64.3	74.2
지역	서울/광역시	- ¹⁾	60.6	53.7	57.7	43.8	50.4	46.2	49.1	54.6	41.6
	농어촌	56.4	54.9	59.8	55.5	44.2	43.8	52.3	52.3	44.9	54.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2019). 연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주1) 위 표에서 - 표시는 수치가 매우 작아 0.1%에도 못 미치는 경우이며 0%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마. 평생교육 참여 성과

〈표 I-24〉는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개인, 직업, 사회영역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섯 단계(전혀 도움이

안 됨[1점] ~ 매우 도움이 됨[5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평균을 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9개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평균과 만 65세~79세 고령자 집단의 평균을 동시에 대비하였다.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성과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리 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 9개 영역 중에서 거의 모든 항목이 2018년 조사와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교양 함양,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적 활동)]에서는 각각 3.5점과 4.9점이 떨어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만 2018년과 비교해서 소폭(0.8점)의 점수 상승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전체 응답자의 참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고령자(만 65~79세) 집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개인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령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의 경우 전체 응답자 그룹과 비교해서 약 10점가량 더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의 경우에도 약 7점가량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회 영역’의 [친목 도모 증진] 항목에서도 고령자 집단이 전체 집단과 비교해서 8점가량 참여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둘째, ‘직업 영역’에 해당하는 4개 항목에서는 모두 고령자 집단의 평가가 전체 응답자 집단의 평가보다 부정적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서 4개 영역 모두 15점 또는 그 이상의 큰 격차로 고령자 집단의 참여 성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 연령대를 벗어난 은퇴자들이 많은 집단의 특성상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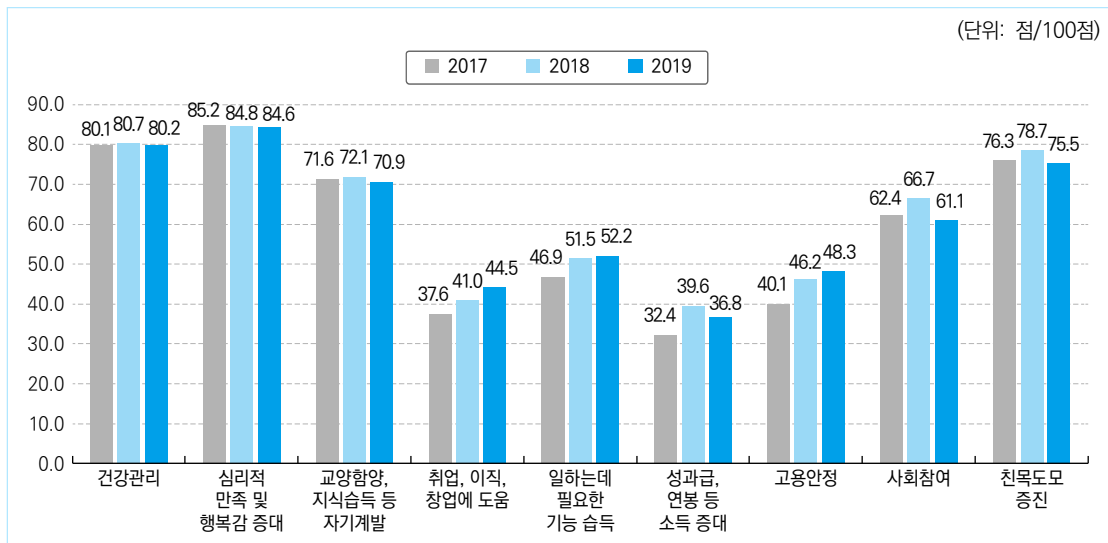
<표 1-24> 평생교육 참여 성과 및 고령자 집단과의 비교(2017~2019)

(단위: 점/100점)

구분	개인 영역						직업 영역								사회 영역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 함양,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사회 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적 활동)		친목 도모 증진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5~79세	65~79세
2017	67.8	80.1	78.7	85.2	75.5	71.6	58.7	37.6	68.8	46.9	51.8	32.4	60.6	40.1	59.6	62.4	67.2	76.3
2018	70.6	80.7	78.9	84.8	75.1	72.1	59.6	41.0	69.2	51.5	54.6	39.6	64.2	46.2	64.8	66.7	69.9	78.7
2019	70.4	80.2	77.7	84.6	71.6	70.9	60.4	44.5	68.2	52.2	53.2	36.8	63.7	48.3	59.9	61.1	67.4	75.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2019). 연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그림 1-4]는 만 65세~75세 고령자 집단의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참여 성과에 대한 평가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집단의 평가 점수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의 성과 점수는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회 참여’ 영역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영역’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집단의 평가 점수 변화와는 달리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상승하였다. 원래 ‘직업 영역’에서의 평생학습 참여 성과는 전체 참여자나 고령자 집단 모두 ‘개인 영역’의 문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이 영역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평가한 성과 점수는 감소한 반면 고령자 집단의 성과 점수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두 집단의 점수 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4] 65~75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성과(2017~2019년)

3. 향후 과제

앞으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조사 정확성 및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의 현재 표본 수(1만 명 내외)는 개별 항목의 조사 안정성 및 17개 시도 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다. 최근 수행된 정책연구(박근영 외, 2018)에서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표본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실제 표본 수는 2018년 11,747명에서 2019년에는 오히려 9,973으로 약 1,800여 명이 감소하였다. 물론 조사의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수요에 따라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의 부담이나 여타의 다른 협력 방안을 협의해서라도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합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비형식 교육으로 분류되던 학력보완교육이 형식 교육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 내 조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평생교육 전체 범주를 생각한다면, 관련 학계에서 보다 명확한 평생학습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와 합의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비형식 교육을 넘어 자기 주도의 온라인 개인학습이나 학습동아리 형태 등의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생학습 전체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적절히 담아낼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0년 조사를 위한 「국가평생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수요조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 전환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문항에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되기도 하였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며, 때로는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을 창출하기도 한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문항들의 시계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조사 문항을 반복·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평생학습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개발과 항목 추가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중서·김신일·한승희·강대중(2015). 평생교육개론. 경기:교육과학사.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한승희·정민승(2007). 평생학습 개인조사체제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근영·김진희·오요섭·이재준(2018). 2주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최운실·백은순·변종임·최지희·김기홍·김득영·권재현·이현석(2002).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 기초통계자료 확보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돈민·변종임·이지혜·최지희(2003). 평생교육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제2절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1. 개요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용어는 학습자의 체험 및 교육 내용을 강조하는 커리큘럼(curriculum)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정해진 순서와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project)나 활동 계획(plan of action)과도 분명 다른 개념이다. 평생교육학자들이 ‘교육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의 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학습활동을 포괄하는 평생교육만의 고유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이다(김진화, 2001). 오늘날 학습자들은 개인, 혹은 그가 소속된 집단이나 지역사회가 설정한 유의미한 변화를 얻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이향란, 2016), 개인 특화된 학습 참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령기 이후에 새로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으며, 이는 그만큼 평생교육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지도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도 있는 조사인 「평생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그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최근에는 그러한 특성과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일반통계, 통계청 승인 334006호)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7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해 온 평생교육 관련 정기조사이며 기관 개황, 교강사 현황, 사무직원 현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 조사는 「평생교육법」 제5장에 제시된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학교부설,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기관, 그리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2019년에는 총 4,295개 기관을 조사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a). 특히 프로그램 및 학습자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개설된 프로그램 수나 학습 참여자의 규모 이외에도 강의 방식, 교육 개설 기관, 수강료 액수, 재정지원 여부와 운영 형태 등 프로그램 개설 목적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b).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및 학습자 참여 현황

가. 전체 프로그램과 학습자 규모

한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규모를 가늠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개설된 프로그램 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라고 할 수 있다. <표 I-25>와 <표 I-26>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참여 학습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기준일(5월 1일) 1년 전 기간(2018년 5월 2일~2019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총수는 184,214개였다.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우선 평생교육기관이 개설한 프로그램이 1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단기 프로그램인 동시에 수업시수가 8시간 미만이면 프로그램 개설 수만을 조사하고 있다(2019년에는 이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 60,207개가 조사되었다). 반대로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이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8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가진 경우 강의 방식이나 재정지원 여부와 같은 상세 자료를 수집한다. 앞서 언급된 184,214개의 프로그램은 모두 상세 조사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본 절의 나머지 표에서 언급된 모든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25>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0~2019년)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63,728 (50.38)	76,714 (53.73)	62,678 (48.42)	62,487 (46.69)	78,226 (49.92)	80,030 (51.08)	82,019 (50.70)	85,121 (51.85)	85,694 (52.37)	102,226 (55.49)
부산	5,946 (4.70)	6,424 (4.50)	6,614 (5.11)	7,027 (5.25)	7,443 (4.75)	7,028 (4.49)	7,855 (4.86)	7,600 (4.63)	8,146 (4.98)	8,080 (4.39)
대구	6,194 (4.90)	6,630 (4.64)	6,509 (5.03)	6,245 (4.67)	6,461 (4.12)	5,923 (3.78)	4,878 (3.02)	5,188 (3.16)	5,182 (3.17)	4,820 (2.62)
인천	3,303 (2.61)	3,827 (2.68)	3,427 (2.65)	3,647 (2.72)	4,247 (2.71)	4,143 (2.64)	4,284 (2.65)	4,390 (2.67)	4,290 (2.62)	4,242 (2.30)
광주	2,716 (2.15)	2,481 (1.74)	2,550 (1.97)	2,704 (2.02)	2,912 (1.86)	2,920 (1.86)	2,829 (1.75)	2,679 (1.63)	2,674 (1.63)	2,765 (1.50)
대전	3,078 (2.43)	3,088 (2.16)	3,229 (2.49)	3,059 (2.29)	3,460 (2.21)	3,112 (1.99)	3,249 (2.01)	3,662 (2.23)	3,524 (2.15)	3,913 (2.12)
울산	2,628 (2.08)	2,485 (1.74)	2,354 (1.82)	2,484 (1.86)	3,005 (1.92)	2,865 (1.83)	2,946 (1.82)	2,756 (1.68)	2,563 (1.57)	2,401 (1.30)
세종	-	-	-	106 (0.08)	219 (0.14)	584 (0.37)	535 (0.33)	656 (0.40)	648 (0.40)	658 (0.36)
경기	17,951 (14.19)	18,785 (13.16)	18,674 (14.43)	21,421 (16.00)	24,658 (15.74)	25,189 (16.08)	27,361 (16.91)	26,750 (16.30)	25,060 (15.31)	28,406 (15.42)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원	1,852 (1.46)	2,202 (1.54)	2,207 (1.70)	2,381 (1.78)	2,534 (1.62)	2,473 (1.58)	2,796 (1.73)	2,805 (1.71)	2,701 (1.65)	3,009 (1.63)
충북	1,440 (1.14)	1,598 (1.12)	1,608 (1.24)	2,093 (1.56)	2,233 (1.43)	2,792 (1.78)	2,255 (1.39)	2,074 (1.26)	2,039 (1.25)	1,980 (1.07)
충남	3,805 (3.01)	3,909 (2.74)	4,738 (3.66)	5,232 (3.91)	5,276 (3.37)	5,025 (3.21)	5,517 (3.41)	4,913 (2.99)	5,035 (3.08)	5,458 (2.96)
전북	2,504 (1.98)	2,656 (1.86)	2,731 (2.11)	2,820 (2.11)	2,918 (1.86)	2,684 (1.71)	2,871 (1.77)	3,262 (1.99)	3,020 (1.85)	3,323 (1.80)
전남	2,542 (2.01)	2,558 (1.79)	2,675 (2.07)	2,581 (1.93)	2,794 (1.78)	2,915 (1.86)	2,862 (1.77)	2,924 (1.78)	3,131 (1.91)	3,000 (1.63)
경북	3,003 (2.37)	3,016 (2.11)	3,202 (2.47)	3,364 (2.51)	3,601 (2.30)	3,380 (2.16)	3,695 (2.28)	3,627 (2.21)	3,831 (2.34)	4,035 (2.19)
경남	5,139 (4.06)	5,787 (4.05)	5,728 (4.43)	5,631 (4.21)	6,040 (3.85)	4,794 (3.06)	4,976 (3.08)	5,007 (3.05)	5,388 (3.29)	5,198 (2.82)
제주	677 (0.54)	616 (0.43)	519 (0.40)	562 (0.42)	663 (0.42)	808 (0.52)	860 (0.53)	746 (0.45)	705 (0.43)	700 (0.38)
계	126,506 (100.00)	142,776 (100.00)	129,443 (100.00)	133,844 (100.00)	156,690 (100.00)	156,665 (100.00)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184,214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표 I-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는 2010년대 초반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12.6%(= 20,583개)나 크게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았을 때 2010년 이래로 서울이 전체의 50% 내외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특히 2019년에는 그 비중이 55.49%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지역은 경기도로 2010년 이후 15% 내외의 프로그램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경기도와 서울의 규모를 합하면 전국 70% 이상의 프로그램이 이 두 지역에서 개설되어 대단히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많은 부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시도 지역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의 비중은 각각 3% 미만에 불과했다.

〈표 I-26〉 시도별 평생교육 학습자 수(2010~2019년)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22,988,185 (85.06)	24,758,756 (85.61)	13,606,180 (77.23)	13,468,227 (73.76)	9,002,192 (69.68)	8,234,170 (68.72)	7,580,578 (66.87)	7,905,563 (66.45)	11,840,275 (72.44)	10,834,610 (66.27)
부산	405,656 (1.50)	458,557 (1.59)	575,970 (3.27)	704,636 (3.86)	522,225 (4.04)	440,877 (3.68)	422,542 (3.73)	500,316 (4.21)	549,471 (3.36)	720,906 (4.41)
대구	1,006,810 (3.73)	837,422 (2.90)	683,718 (3.88)	1,048,535 (5.74)	346,139 (2.68)	380,354 (3.17)	248,787 (2.19)	273,076 (2.30)	270,613 (1.66)	256,042 (1.57)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	145,303 (0.54)	330,035 (1.14)	276,255 (1.57)	174,153 (0.95)	177,626 (1.37)	188,203 (1.57)	181,198 (1.60)	177,580 (1.49)	171,674 (1.05)	229,373 (1.40)
광주	192,261 (0.71)	120,546 (0.42)	165,241 (0.94)	194,379 (1.06)	158,882 (1.23)	173,523 (1.45)	196,990 (1.74)	148,234 (1.25)	143,638 (0.88)	214,671 (1.31)
대전	109,565 (0.41)	126,069 (0.44)	131,285 (0.75)	138,542 (0.76)	118,730 (0.92)	105,387 (0.88)	119,205 (1.05)	131,959 (1.11)	171,450 (1.05)	226,174 (1.38)
울산	107,845 (0.40)	161,214 (0.56)	127,618 (0.72)	146,897 (0.80)	170,275 (1.32)	145,820 (1.22)	137,081 (1.21)	121,132 (1.02)	113,238 (0.69)	98,898 (0.60)
세종	-	-	-	2,235 (0.01)	3,802 (0.03)	8,783 (0.07)	29,746 (0.26)	18,248 (0.15)	27,256 (0.17)	34,177 (0.21)
경기	1,005,331 (3.72)	1,071,488 (3.70)	998,925 (5.67)	1,330,094 (7.28)	1,323,621 (10.24)	1,244,805 (10.39)	1,352,502 (11.93)	1,499,963 (12.61)	1,861,760 (11.39)	2,522,806 (15.43)
강원	64,972 (0.24)	72,342 (0.25)	73,270 (0.42)	82,982 (0.45)	71,250 (0.55)	93,591 (0.78)	94,877 (0.84)	83,967 (0.71)	84,732 (0.52)	104,237 (0.64)
충북	88,839 (0.33)	106,094 (0.37)	128,698 (0.73)	121,191 (0.66)	136,878 (1.06)	169,936 (1.42)	95,070 (0.84)	74,922 (0.63)	60,736 (0.37)	68,478 (0.42)
충남	168,332 (0.62)	152,610 (0.53)	157,019 (0.89)	177,905 (0.97)	174,862 (1.35)	191,502 (1.60)	221,704 (1.96)	213,601 (1.80)	219,652 (1.34)	251,764 (1.54)
전북	88,726 (0.33)	99,255 (0.34)	100,381 (0.57)	146,014 (0.80)	147,096 (1.14)	107,141 (0.89)	131,523 (1.16)	190,617 (1.60)	192,654 (1.18)	186,460 (1.14)
전남	111,311 (0.41)	111,830 (0.39)	142,294 (0.81)	108,867 (0.60)	113,156 (0.88)	101,962 (0.85)	94,642 (0.83)	92,269 (0.78)	105,152 (0.64)	98,735 (0.60)
경북	249,382 (0.92)	220,717 (0.76)	156,228 (0.89)	145,703 (0.80)	169,565 (1.31)	146,358 (1.22)	159,700 (1.41)	153,299 (1.29)	184,141 (1.13)	189,472 (1.16)
경남	247,011 (0.91)	244,370 (0.84)	250,888 (1.42)	235,478 (1.29)	249,235 (1.93)	211,055 (1.76)	239,156 (2.11)	274,040 (2.30)	312,970 (1.91)	273,699 (1.67)
제주	46,513 (0.17)	49,475 (0.17)	44,525 (0.25)	34,463 (0.19)	34,302 (0.27)	39,187 (0.33)	31,263 (0.28)	38,450 (0.32)	35,246 (0.22)	38,340 (0.23)
계	27,026,042 (100.00)	28,920,780 (100.00)	17,618,495 (100.00)	18,260,301 (100.00)	12,919,836 (100.00)	11,982,654 (100.00)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16,348,842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표 I-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전국의 평생교육 학습자 수는 16,348,842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최근 10년 동안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1년 2천9백만 명에 육박했던 학습자 규모는 2012년에 1천7백6십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2014년에도 1천3백만 명 밑으로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진 바 있다. 2012년에는 〈표 I-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폭으로 프로그램 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했는데, 이는 실제로 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큰 규모의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학원으로 전

환·폐원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습자 수에서는 대규모 감소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원격형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개설한 대규모 프로그램 중 일부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친 이후 학습자 수는 1천1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습자 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단연 두드러진다. 2019년 서울의 학습자 수는 10,834,6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백만 명 감소하였고, 전체에서의 비율도 전년 대비 약 6%p 감소한 66.2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 수에서는 서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비율 55.49%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많은 학습자 수를 기록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2,522,806명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나머지 지역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큰 비중(전국 15.43%)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전국 1~2% 미만의 저조한 학습자 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조사하는 학습자 수의 경우, 개별 학습 참여자를 조사하여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조사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수를 더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중복이 발생한다. 즉 2019년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약 1천6백만 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개설된 전체 프로그램 184,214개에 참여한 학습자의 총인원이 약 1천6백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1년 동안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학습자 중심의 조사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만 25세~79세의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1.7%였으며, 이들 학습자들이 평균적으로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는 1.27개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c).

<표 1-27> 만 25~64세 한국 성인의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수(2010~2019년)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로그램 참여 수	1.27	1.15	1.23	1.41	1.65	1.68	1.35	1.31	1.28	1.2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 35

둘째, 다음 <표 I-28>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격형태’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 44.5%에 해당하는 81,878개의 프로그램이 원격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의해 개설·운영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수도 12,111,454명으로 전체 학습자 수의 74%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전체 원격형태 기관 프로그램의 87.6%(71,747개)가 서울 지역에서 개설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7,993개(9.8%)가 개설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에서 원격형태의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는데, 원격형태 기관의 절대 다수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가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프로그램을 개설·관리하는 기관의 지역으로 학습자를 분류하는데, 그 경우 학습자의 실거주 지역은 조사에서 학습자가 분류된 지역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집중 현상은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집계적 편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평생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평생교육법」에 언급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중,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총 9가지 형태의 기관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표 I-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부설 기관이나 2017년부터 조사에 포함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개설된 프로그램 수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의 과반수의 프로그램은 원격형태의 기관에 의해 운용되며, 그밖에 대학(원) 부설 기관이나 사업장 부설 기관,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평생학습관도 비교적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자 수의 경우 원격형태의 기관이 전체 4분의 3 정도의 비중을 보이며, 지식·인력개발형태의 기관들도 개설한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학습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기관별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의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관별로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종류의 기관이 개설·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규모는 일정한 패턴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언론기관 부설 프로그램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지만, 이후 2015년에는 갑자기 그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격형태 기관의 프로그램 역시 전체 프로그

램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점유율이 32.53%에서 44.45%까지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연간 변화율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법률의 변화에 따라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수가 갑자기 변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자세한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표 1-28> 평생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로그램	초·중등 학교 부설	103 (0.08)	47 (0.03)	46 (0.04)	31 (0.02)	44 (0.03)	45 (0.03)	57 (0.04)	73 (0.04)	47 (0.03)
	대학(원) 부설	24,612 (19.46)	25,394 (17.79)	26,516 (20.48)	26,561 (19.84)	27,585 (17.60)	28,066 (17.91)	28,884 (17.85)	27,688 (16.87)	25,971 (15.87)
	사업장 부설	27,303 (21.58)	28,489 (19.95)	28,140 (21.74)	29,560 (22.09)	33,157 (21.16)	34,721 (22.16)	35,069 (21.68)	34,105 (20.78)	34,360 (21.00)
	언론기관 부설	2,987 (2.36)	3,790 (2.65)	3,825 (2.95)	5,241 (3.92)	8,035 (5.13)	4,295 (2.74)	3,931 (2.43)	3,913 (2.38)	4,260 (2.60)
	지식·인력 개발형태	9,810 (7.75)	9,307 (6.52)	8,966 (6.93)	8,448 (6.31)	9,059 (5.78)	8,887 (5.67)	8,749 (5.41)	8,583 (5.23)	7,975 (4.87)
	시민사회 단체 부설	3,442 (2.72)	4,341 (3.04)	4,337 (3.35)	4,168 (3.11)	5,098 (3.25)	3,788 (2.42)	3,535 (2.18)	3,239 (1.97)	3,251 (1.99)
	원격형태	45,099 (35.65)	57,509 (40.28)	42,854 (33.11)	43,541 (32.53)	56,705 (36.19)	60,351 (38.52)	60,917 (37.65)	65,656 (40.00)	64,223 (39.25)
	평생 학습관	13,150 (10.39)	13,899 (9.73)	14,759 (11.40)	16,294 (12.17)	17,007 (10.85)	16,512 (10.54)	20,646 (12.76)	20,015 (12.19)	22,883 (13.98)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	-	-	-	-	-	888 (0.54)	661 (0.40)	682 (0.37)
	계	126,506 (100.00)	142,776 (100.00)	129,443 (100.00)	133,844 (100.00)	156,690 (100.00)	156,665 (100.00)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학습자	초·중등 학교 부설	3,283 (0.01)	2,035 (0.01)	1,390 (0.01)	388 (0.00)	1,078 (0.01)	1,094 (0.01)	1,337 (0.01)	1,321 (0.01)	1,028 (0.01)
	대학(원) 부설	883,196 (3.27)	856,432 (2.96)	845,860 (4.80)	833,176 (4.56)	869,789 (6.73)	824,011 (6.88)	902,600 (7.96)	882,884 (7.42)	839,631 (5.14)
	사업장 부설	1,236,890 (4.58)	1,187,437 (4.11)	1,036,910 (5.89)	1,197,333 (6.56)	1,150,763 (8.91)	1,179,153 (9.84)	1,206,895 (10.65)	1,160,749 (9.76)	1,127,759 (6.90)
	언론기관 부설	119,007 (0.44)	146,959 (0.51)	134,454 (0.76)	225,355 (1.23)	417,086 (3.23)	188,735 (1.58)	151,101 (1.33)	151,703 (1.28)	178,454 (1.09)
	지식·인력 개발형태	768,736 (2.84)	833,343 (2.88)	840,451 (4.77)	869,497 (4.76)	813,185 (6.29)	767,210 (6.40)	664,509 (5.86)	630,856 (5.30)	629,184 (3.85)
	시민사회 단체 부설	169,401 (0.63)	178,937 (0.62)	186,712 (1.06)	170,032 (0.93)	196,724 (1.52)	140,058 (1.17)	156,000 (1.38)	116,438 (0.98)	103,611 (0.63)
	원격형태	23,123,612 (85.56)	24,972,426 (86.35)	13,669,575 (77.59)	13,799,283 (75.57)	8,670,272 (67.11)	8,043,523 (67.13)	7,304,497 (64.43)	8,013,061 (67.35)	12,492,784 (76.43)
	평생 학습관	721,917 (2.67)	743,211 (2.57)	903,143 (5.13)	1,165,237 (6.38)	800,939 (6.20)	838,870 (7.00)	949,625 (8.38)	911,650 (7.66)	937,451 (5.74)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	-	-	-	-	-	28,574 (0.24)	34,756 (0.21)	43,588 (0.27)
	계	27,026,042 (100.00)	28,920,780 (100.00)	17,618,495 (100.00)	18,260,301 (100.00)	12,919,836 (100.00)	11,982,654 (100.00)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나 학습자 수의 규모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관은 사업장 부설과 대학(원) 부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 부설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 수의 경우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 어느 정도 증가·안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대학(원) 부설 기관에 의한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주제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표 I-29〉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구분된 여섯 가지 형태의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개설된 주제는 직업능력향상교육 분야로 전체의 41.23%에 해당하는 75,955개의 프로그램이 이 영역에 속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스포츠와 관련된 56,448개(30.64%)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인문교양 프로그램 30,125개(16.35%)가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 수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수의 순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선 직업능력향상교육의 학습자가 전체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 수를 나타냈던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의 경우,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문교양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자 수가 오히려 더 적었다.

〈표 I-29〉 주제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력보완	프로	31,463 (24.87)	44,309 (31.03)	26,106 (20.17)	21,051 (15.73)	20,387 (13.01)	21,492 (13.72)	20,348 (12.58)	21,117 (12.86)	20,653 (12.62)	20,789 (11.29)
	학습자	17,696,296 (65.48)	18,757,358 (64.86)	6,643,491 (37.71)	8,432,088 (46.18)	1,964,891 (15.21)	1,856,548 (15.49)	1,898,313 (16.75)	1,954,123 (16.43)	2,278,216 (13.94)	2,533,959 (15.50)
성인기초/문자해득	프로	576 (0.46)	788 (0.55)	458 (0.35)	604 (0.45)	597 (0.38)	546 (0.35)	682 (0.42)	634 (0.39)	708 (0.43)	696 (0.38)
	학습자	30,949 (0.11)	33,918 (0.12)	16,395 (0.09)	19,757 (0.11)	27,158 (0.21)	46,104 (0.38)	51,335 (0.45)	48,768 (0.41)	21,858 (0.13)	27,006 (0.17)
직업능력향상	프로	36,103 (28.54)	38,322 (26.84)	42,648 (32.95)	49,053 (36.65)	63,242 (40.36)	57,467 (36.68)	57,718 (35.68)	67,320 (41.01)	65,040 (39.75)	75,955 (41.23)
	학습자	4,351,758 (16.10)	4,047,980 (14.00)	5,373,464 (30.50)	5,336,466 (29.22)	6,123,831 (47.40)	5,743,960 (47.94)	4,745,635 (41.86)	5,612,746 (47.18)	7,370,030 (45.09)	8,828,647 (54.00)
인문교양	프로	17,162 (13.57)	18,838 (13.19)	18,908 (14.61)	18,967 (14.17)	21,000 (13.40)	26,945 (17.20)	29,825 (18.43)	22,593 (13.76)	23,153 (14.15)	30,125 (16.35)
	학습자	3,002,437 (11.11)	3,651,546 (12.63)	3,609,192 (20.49)	2,699,001 (14.78)	2,728,242 (21.12)	2,397,685 (20.01)	2,580,494 (22.76)	2,246,129 (18.88)	4,618,008 (28.25)	2,571,028 (15.73)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 그램	41,069 (32.46)	40,351 (28.26)	41,214 (31.84)	44,073 (32.93)	51,392 (32.80)	50,145 (32.01)	53,093 (32.82)	52,297 (31.86)	53,822 (32.89)	56,448 (30.64)
	학습자	1,917,536 (7.10)	2,404,364 (8.31)	1,969,156 (11.18)	1,762,666 (9.65)	2,069,494 (16.02)	1,932,741 (16.13)	2,047,052 (18.06)	2,017,166 (16.95)	2,031,469 (12.43)	2,367,113 (14.48)
시민 참여	프로 그램	133 (0.11)	168 (0.12)	109 (0.08)	96 (0.07)	72 (0.05)	70 (0.04)	122 (0.08)	199 (0.12)	255 (0.16)	201 (0.11)
	학습자	27,066 (0.10)	25,614 (0.09)	6,797 (0.04)	10,323 (0.06)	6,220 (0.05)	5,616 (0.05)	13,735 (0.12)	18,304 (0.15)	25,077 (0.15)	21,089 (0.13)
계	프로 그램	126,506 (100.00)	142,776 (100.00)	129,443 (100.00)	133,844 (100.00)	156,690 (100.00)	156,665 (100.00)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184,214 (100.00)
	학습자	27,026,042 (100.00)	28,920,780 (100.00)	17,618,495 (100.00)	18,260,301 (100.00)	12,919,836 (100.00)	11,982,654 (100.00)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16,348,842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지난 10년 동안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 변동 경향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법률 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학력보완교육 학습자 수가 2012년과 2014년에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보완교육의 학습자 수는 2010년 전체 학습자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천7백 7십여 만 명에서 2019년 2,533,959명(전체의 15.5%)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직업능력향상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와 비교하면 학력보완교육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자 수는 여전히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프로그램 수는 2014년 이후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인문교양교육, 학력보완교육의 순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특성

가. 재정지원의 종류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개인의 특성상 재정지원 없이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해고나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국가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I-30>은 재정지원 주제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크게 재정지원 유무만을 놓고 본다면, 2019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전체의 18% 남짓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학습자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17% 수준이다. 지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지원하는 비율이 4.7~4.8% 정도로 유사하고, 국고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조금 적은 3.1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은 학습자 수는 오히려 국고지원에 의한 경우가 9.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자 규모(3.32%)가 컸다. 즉 국고지원의 경우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고지원을 받는 학습자 수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인 2018년부터인데, 2010년에는 지원 규모가 1백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5~60만 명에 불과했던 적이 대부분이었고, 2018년부터 1백5십만 명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표 1-30〉 재정지원 주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 없음	프로 그램	104,305 (82.45)	122,041 (85.48)	107,523 (83.07)	113,434 (84.75)	133,850 (85.42)	135,408 (86.43)	139,628 (86.30)	141,907 (86.44)	137,673 (84.14)	150,907 (81.92)
	학습자	25,117,440 (92.94)	27,440,806 (94.88)	15,820,892 (89.80)	15,728,424 (86.13)	11,488,244 (88.92)	10,634,850 (88.75)	10,047,277 (88.63)	10,336,534 (86.88)	13,896,900 (85.02)	13,574,509 (83.03)
국고 지원	프로 그램	9,599 (7.59)	6,307 (4.42)	7,687 (5.94)	6,781 (5.07)	6,825 (4.36)	6,221 (3.97)	5,711 (3.53)	5,022 (3.06)	4,863 (2.97)	5,879 (3.19)
	학습자	1,058,305 (3.92)	654,593 (2.26)	794,953 (4.51)	838,590 (4.59)	528,896 (4.09)	500,679 (4.18)	392,365 (3.46)	598,922 (5.03)	1,506,887 (9.22)	1,583,122 (9.68)
교육청 지원	프로 그램	5,669 (4.48)	6,501 (4.55)	7,658 (5.92)	6,938 (5.18)	7,991 (5.10)	7,735 (4.94)	8,021 (4.96)	7,737 (4.71)	7,972 (4.87)	8,863 (4.81)
	학습자	274,627 (1.02)	301,461 (1.04)	364,764 (2.07)	1,051,960 (5.76)	332,944 (2.58)	318,671 (2.66)	319,078 (2.81)	325,541 (2.74)	302,874 (1.85)	302,588 (1.85)
지방 자치 단체	프로 그램	3,975 (3.14)	4,217 (2.95)	4,096 (3.16)	3,704 (2.77)	4,218 (2.69)	3,371 (2.15)	5,938 (3.67)	7,597 (4.63)	7,993 (4.88)	8,770 (4.76)
	학습자	232,505 (0.86)	310,434 (1.07)	440,993 (2.50)	376,716 (2.06)	354,652 (2.75)	287,456 (2.40)	371,659 (3.28)	426,853 (3.59)	433,598 (2.65)	542,468 (3.32)
기업	프로 그램	2,070 (1.64)	2,518 (1.76)	1,403 (1.08)	1,739 (1.30)	2,289 (1.46)	2,580 (1.65)	1,486 (0.92)	859 (0.52)	4,191 (2.56)	8,784 (4.77)
	학습자	282,063 (1.04)	146,622 (0.51)	97,604 (0.55)	156,439 (0.86)	135,617 (1.05)	141,525 (1.18)	145,356 (1.28)	72,821 (0.61)	146,801 (0.90)	213,298 (1.30)
기타	프로 그램	888 (0.70)	1,192 (0.83)	1,076 (0.83)	1,248 (0.93)	1,517 (0.97)	1,350 (0.86)	1,004 (0.62)	1,038 (0.63)	939 (0.57)	1,011 (0.55)
	학습자	61,102 (0.23)	66,864 (0.23)	99,289 (0.56)	108,172 (0.59)	79,483 (0.62)	99,473 (0.83)	60,829 (0.54)	136,565 (1.15)	57,598 (0.35)	132,857 (0.81)
계	프로 그램	126,506 (100.00)	142,776 (100.00)	129,443 (100.00)	133,844 (100.00)	156,690 (100.00)	156,665 (100.00)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184,214 (100.00)
	학습자	27,026,042 (100.00)	28,920,780 (100.00)	17,618,495 (100.00)	18,260,301 (100.00)	12,919,836 (100.00)	11,982,654 (100.00)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16,348,842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나. 주제 영역별 재정지원 유무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표 1-31〉은 최근 5년 동안의 재정지원이 앞서 언급된 여섯 가지 평생교육 주제 영역 중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영역별 프로그램 중 2019년 가장 재정지원의 비중이 높았던 영역은 성인기초/문자해독 교육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78.30%가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참여교육으로 62.69% 지원율을 나타냈으며, 인문교양교육도 34.22%로 비교적 높은 프로그램 지원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자해독 교육이나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개설 프로그램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절대 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재정지원 혜택을 받은 프로그램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 혜택 비율이 17.49%에 그쳤지만 프로그램 숫자로 본다면 13,282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표 1-31〉 주제 영역별·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5~2019년)

(단위: 개, %)

프로그램 구분	재정 지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학력보완	있음	1,486	(6.91)	1,328	(6.53)	471	(2.23)	257	(1.24)	398	(1.91)
	없음	20,006	(93.09)	19,020	(93.47)	20,646	(97.77)	20,396	(98.76)	20,391	(98.09)
성인기초/ 문자해독	있음	373	(68.32)	474	(69.50)	494	(77.92)	525	(74.15)	545	(78.30)
	없음	173	(31.68)	208	(30.50)	140	(22.08)	183	(25.85)	151	(21.70)
직업능력 향상	있음	7,323	(12.74)	6,663	(11.54)	6,919	(10.28)	9,516	(14.63)	13,282	(17.49)
	없음	50,144	(87.26)	51,055	(88.46)	60,401	(89.72)	55,524	(85.37)	62,673	(82.51)
인문교양	있음	6,264	(23.25)	6,480	(21.73)	6,801	(30.10)	7,444	(32.15)	10,310	(34.22)
	없음	20,681	(76.75)	23,345	(78.27)	15,792	(69.90)	15,709	(67.85)	19,815	(65.78)
문화예술 스포츠	있음	5,768	(11.50)	7,136	(13.44)	7,428	(14.20)	8,046	(14.95)	8,646	(15.32)
	없음	44,377	(88.50)	45,957	(86.56)	44,869	(85.80)	45,776	(85.05)	47,802	(84.68)
시민참여	있음	43	(61.43)	79	(64.75)	140	(70.35)	170	(66.67)	126	(62.69)
	없음	27	(38.57)	43	(35.25)	59	(29.65)	85	(33.33)	75	(37.3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5년간의 주제 영역별 혜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보완교육의 경우 재정지원 프로그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2015~2017년 사이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밖에 나머지 주제 영역들은 특별히 두드러진 감소 경향 없이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수요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설계·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성인 학습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표 I-32>는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수을 기준으로 분류한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를 나타낸다. 우선 충분히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절대 다수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프로그램 수의 76.73%, 학습자 수의 76.52%가 성인을 수요자로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비율은 2014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표 I-32> 수요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0~2019년)

(단위: 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로그램	어린이 (16.52)	23,208 (16.25)	20,680 (15.98)	20,452 (15.28)	21,549 (13.75)	22,189 (14.16)	23,418 (14.47)	21,895 (13.34)	21,063 (12.87)	21,753 (11.81)
	청소년 (16.58)	30,970 (21.69)	11,378 (8.79)	5,478 (4.09)	4,510 (2.88)	4,260 (2.72)	5,167 (3.19)	4,517 (2.75)	4,632 (2.83)	4,769 (2.59)
	성인 (57.56)	77,977 (54.61)	82,759 (63.93)	91,946 (68.70)	111,995 (71.48)	110,276 (70.39)	119,298 (73.74)	125,234 (76.29)	122,890 (75.10)	141,351 (76.73)
	노인 (1.58)	2,306 (1.62)	2,348 (1.81)	2,520 (1.88)	2,819 (1.80)	2,542 (1.62)	2,562 (1.58)	2,057 (1.25)	2,416 (1.48)	2,535 (1.38)
	통합 (7.76)	8,315 (5.82)	12,278 (9.49)	13,448 (10.05)	15,817 (10.09)	17,398 (11.11)	11,343 (7.01)	10,457 (6.37)	12,630 (7.72)	13,806 (7.49)
	계 (100.00)	142,776 (100.00)	129,443 (100.00)	133,844 (100.00)	156,690 (100.00)	156,665 (100.00)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184,214 (100.00)
학습자	어린이 (20.26)	2,681,438 (9.27)	1,614,711 (9.16)	1,237,148 (6.78)	1,134,081 (8.78)	1,194,903 (9.97)	1,275,192 (11.25)	1,147,709 (9.65)	1,234,951 (7.56)	1,224,517 (7.49)
	청소년 (48.11)	17,782,380 (61.49)	4,667,043 (26.49)	6,133,124 (33.59)	417,921 (3.23)	298,623 (2.49)	342,984 (3.03)	311,235 (2.62)	334,829 (2.05)	281,878 (1.72)
	성인 (20.18)	5,476,181 (18.94)	6,846,967 (38.86)	7,491,228 (41.02)	9,749,134 (75.46)	8,271,582 (69.03)	8,527,994 (75.23)	9,133,593 (76.77)	10,879,582 (66.56)	12,509,661 (76.52)
	노인 (0.50)	152,430 (0.53)	138,901 (0.79)	212,882 (1.17)	221,423 (1.71)	175,411 (1.46)	127,005 (1.12)	120,158 (1.01)	117,740 (0.72)	123,549 (0.76)
	통합 (10.95)	2,828,351 (9.78)	4,350,873 (24.69)	3,185,919 (17.45)	1,397,277 (10.81)	2,042,135 (17.04)	1,063,389 (9.38)	1,184,541 (9.96)	3,777,556 (23.11)	2,209,237 (13.51)
	계 (100.00)	28,920,780 (100.00)	17,618,495 (100.00)	18,260,301 (100.00)	12,919,836 (100.00)	11,982,654 (100.00)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16,348,842 (10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 집단은 ‘어린이’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 11.81%의 프로그램이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에 비해 ‘노인’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까지는 두 자리 수의 프로그램 수 점유율과 무려 60%가 넘는 학습자 수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조사 대상 기관과 프로그램 규모의 변화로 인해 2014년부터는 2~3%대의 프로그램 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1%대의 저조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지금까지 제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제 영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의 특성 및 그들의 변화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생교육의 대상이나 범위 역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평생교육의 개념적 정의나 범위에 대한 설정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에서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사회적 통념상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학습자에 대해서는 조사의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된 연구(박근영 외, 2018)에 의하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조사 대상 중 조사가 서둘러 필요한 기관이지만 실제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평생교육 등이 그것인데, 이 중 최소한 지역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가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이든 단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평생교육 현황 파악에서의 공백을 메꿔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더 적극적인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할 때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언급된 6가지 주제 영역(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향

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분류 이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중·소 분류 영역을 함께 조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유 분류체계는 2007년 처음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시행될 당시 개발된 것으로 크게 ‘일반’ 및 ‘입시 관련’ 프로그램으로 전체 풀(pool)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학의 학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인문, 사회, 자연, 교육, 공학, 의학, 예체능의 7가지 계열을 대분류로 설정하고 있으며(김창환 외, 2007), 이는 2019년을 기준으로 26개 중분류 및 100여 개 이상의 소분류 영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같은 분류 방식은 2018년부터 시행된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분류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평생교육과 다른 교육체계 사이의 연계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0년에 두 분류체계의 매칭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체계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화(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창환·김본영·오요섭·오지연·이진영·정미림·손지혜(2007). 2007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근영·김진희·오요섭·이재준(2018). 2주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향란(2016). 평생교육개론. 경기: 공동체.

제3절

평생교육기관



1. 개요

「평생교육법」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을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셋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그것이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평생교육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3>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법적 근거	평생교육기관	기관 유형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제21조의2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유치원, 초·중·등학교)
	제21조의3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제29조	학교(초·중·등학교, 대학교)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적 근거		평생교육기관	기관 유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제38조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비형식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교습소 제외)	비형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평가인정 운영기관	준형식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시·군·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비형식/준형식 미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내용 수정·보완.

2019년 평생교육백서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있는바, 이 통계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평생교육기관 현황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와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은 2019년부터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의 부록 자료로만 제시하고 있고,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9조와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은 통계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표하는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기관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되나,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직접 해당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구분된다.

평생교육통계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부설형[초중등 및 대학(원) 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독립형[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형태], 전담형[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을 포함한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대학, 전문대학), 원격/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학), 사내대학(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가인정 운영기관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대표적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정부관련기관, 학원, 원격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2.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전체적인 현황을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변화 추이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연도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는 아래의 <표 I-34>와 같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최근 5년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무직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전년 대비 2019년에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9년에 4,295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51개가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수는 2019년에 244,421개로 5년 전에 비해 33,228개가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 수는 2019년에 16,348,842명으로서 5년 전에 비해 4,366,188명이 증가하였다. 기관 수와 프로그램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 수는 전년도에 급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의 증가 폭에 비해 학습자 수의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교강사 수는 2015년 70,835명에서 2019년 75,492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57명이 증가하였다. 사무직원 수는 2015년 18,833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228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9,772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 경향을 보였다.

〈표 I -34〉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개황

(단위: 개, 명)

구분	연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¹⁾	2015년	4,144	211,193	11,982,654	70,835	18,833
	2016년	4,153	212,339	11,336,564	73,204	19,842
	2017년 ²⁾	4,032	214,413	11,897,236	71,723	19,778
	2018년	4,169	216,980	16,344,658	72,783	20,228
	2019년	4,295	244,421	16,348,842	75,492	19,772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2015년	1,037	미조사 ³⁾	609,489	6,908	2,603
	2016년	1,024		567,528	7,076	2,717
	2017년	1,040		545,869	7,204	3,514
	2018년	1,056		526,655	7,367	3,431
	2019년	1,046		518,155	7,384	4,06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주1) 학원을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임.

주2) 2017년부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가됨.

주3)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는 미조사됨.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또는 학교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형태와 고등교육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1,046개이며, 지난 5년간 20여 개 내외의 증감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 수는 2015년 609,489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9년에는 518,15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강사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 현재 7,38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원 수 또한 2018년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교강사 수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비형식·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은 다음 〈표 I -35〉와 같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 현재 4,295개로 전년 대비 3.0%p(126개) 증가하였다. 기관 유형 중 언론기관 부설 기관은 지난 3년 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년에 비해 13.6%p(101개)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초·중등학교 부설은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여 2019년 기관수는 7개로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 부설은 2015년부터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 현재 기관 수는 415개이다. 원격형태는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41개로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부설 중 유통업체 부설은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의 기관 수는 379개이고, 산업체 부설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의 기관 수는 36개이다. 시민사회단체 부설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 492개, 언론기관 부설과 지식인력개발 형태는 2017년부터 증가하여 그 기관 수는 각각 842개, 595개이다. 교육감 설치 및 지정 평생학습관은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에 증가하였으나, 2019년 기관 수는 322개로 전년 대비 1.2%p(4개)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149개이다. 2017년 처음 조사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1개씩 운영되어 총 17개이다.

〈표 1-3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4,144	4,153	4,032	4,169	4,295
학교 부설	초중등학교 부설	9	6	5	6	7
	대학(원) 부설	403	406	412	412	415
	소계	412	412	417	418	422
원격형태		903	927	949	1,012	1,041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69	378	383	381	379
	산업체 부설	45	48	41	39	36
	소계	414	426	424	420	415
시민사회단체 부설		549	544	515	500	492
언론기관 부설		882	792	707	741	842
지식·인력개발 형태		626	608	579	586	595
평생 학습관	교육감 설치 및 지정	358	322	285	326	322
	지자체 설치 ¹⁾	-	122	139	149	149
	소계	358	444	424	475	47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²⁾		-	-	17	17	1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주1) 평생학습관은 2016년에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을 추가 조사하면서 교육감 설치 및 지정 평생학습관과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주2) 2017년부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추가됨.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수도권 지역의 기관 수는 2,757개(64.2%), 비수도권 지역의 기관 수는 1,538개(35.8%)로 나타났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은 지난 5년간 동일하였다. 매년 수도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기관 수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4,144	4,153	4,032	4,169	4,295
수도권	2,502	2,510	2,429	2,593	2,757
비수도권	1,642	1,643	1,603	1,576	1,53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나.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크게 초중등교육형태와 고등교육형태로 구분된다.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평생교육기관 수는 2015년 175개에서 2019년 191개로 증가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각종학교(초·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 49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5년 간 기관 수는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고는 지난 5년간 42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은 2015년 12개에서 2019년 24개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지난 5년간 각각 3개, 7개로 기관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은 2017년 이후 4개 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표 1-37>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75	170	179	189	191
고등공민학교	3	3	3	3	3
고등기술학교	7	7	7	7	7
각종학교(초·중·고)	42	43	51	60	62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6	3	4	4	4
방송통신중	12	20	20	23	24
방송통신고	42	42	42	42	42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초	5	3	4	3
	중	12	5	5	5
	고	37	28	25	25
	통합	9	16	16	16
	소계	63	52	50	49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015년 72개에서 2018년 77개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75개 기관으로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은 2017년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 116개 기관으로 늘었다.

<표 1-38> 초·중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75	170	179	189	191
수도권	72	76	76	77	75
비수도권	103	94	103	112	1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전년 대비 12개가 감소하여 2019년 현재 8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유형은 특수대학원으로서, 2019년 현재 94.5%(808개)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대학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지난 5년간 19개 기관 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1-39〉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860	852	861	867	855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산업대학	2	2	2	2	2
기술대학	1	1	1	1	1
각종학교	2	2	2	2	2
원격대학	2	2	2	2	2
사이버대학	19	19	19	19	19
사내대학	8	8	8	8	8
기능대학	10	9	9	9	9
전공대학	3	3	3	3	3
특수대학원	813	805	814	820	80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현재 전년 대비 3개 기관이 줄어 425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2015년 445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는 430개로 줄었다.

〈표 1-40〉 고등교육형태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860	852	861	867	855
수도권	415	415	421	428	425
비수도권	445	437	440	439	43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학점은행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의 최근 5년간 교육

훈련기관 유형별 현황은 다음의 <표 I -41>과 같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2015년 535 개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430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대학(교)부설 교육훈련기관으로서, 2019년 현재 전체 430개 교육훈련기관 중 46.0%에 해당하는 198개 기관이 이에 포함된다. 대학(교)부설 교육훈련기관의 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원격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으로서, 2015년에는 각각 86개, 95개 기관이 있었으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76개, 71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학원은 2015년 43개에서 2019년 현재 18개로 감소하였고, 정부관련기관은 군교육훈련시설과 지자체훈련시설이 통합된 2016년 39개 기관에서 2019년 37개로 줄었다. 그 외의 다른 유형들도 대부분 매해 기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 -4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535	501	460	437	430
대학(교) 부설	대학	141	142	131	133	125
	전문대학	81	75	72	67	73
	소계	222	217	203	200	198
전공심화/특별과정		8	7	6	5	4
학원		43	31	26	18	18
직업훈련기관		95	91	80	77	71
정부관련기관 ¹⁾		4	39	39	37	37
지자체교육시설		11	-	-	-	-
군교육훈련시설		28	-	-	-	-
고등기술학교		1	1	1	1	1
특수학교		4	6	6	6	6
기타평생교육시설		26	25	21	18	19
국가무형문화재시설		7	5	2	-	-
원격교육시설		86	79	76	75	7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주1) 2016년 이후 정부관련기관에 지자체교육시설과 군교육훈련시설이 통합됨.

4. 향후 과제

본 절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 수준에서 수집되고 있는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기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까지 포괄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공표하고 있는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평생교육기관 현황 자료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어 평생교육기관 전반의 현황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국내의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그 추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의 증가는 원격형태,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 수 변화 추세와 연관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부설과 같이 전통적인 평생교육기관은 지난 5년간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규모가 작은 평생학습관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기초지방정부의 평생교육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민간 평생교육의 기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의 증가는 기관 유형 중 특히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증가와 관련되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증가 및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및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지난 5년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2019년에는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유형 중에서도 원격교육시설이 대학(교)부설 교육훈련기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장점도 있지만, 현장성, 상호작용, 수업의 질 등의 측면에서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31&efYd=20191024#0000\(2020. 3. 2.\)](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31&efYd=20191024#0000(2020. 3. 2.))

제4절

평생교육 전문인력



I. 평생교육사

1. 개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배치와 전문성 유지·신장을 위한 연수 등에 대한 사항 또한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 최초로 20명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양성된 이후 2019년까지 총 13만 7천여 명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다.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의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자격의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고, 기존 1·2등급 자격체계가 1·2·3등급 자격체계로 개편되었다.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다시 전부 개정되면서 양성과정이 개편되었다. 양성과정의 이수학점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확대하였고, 평생교육실습이 비학점에서 학점화되었으며,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은 승급과정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2013년에는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가 양성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부·재교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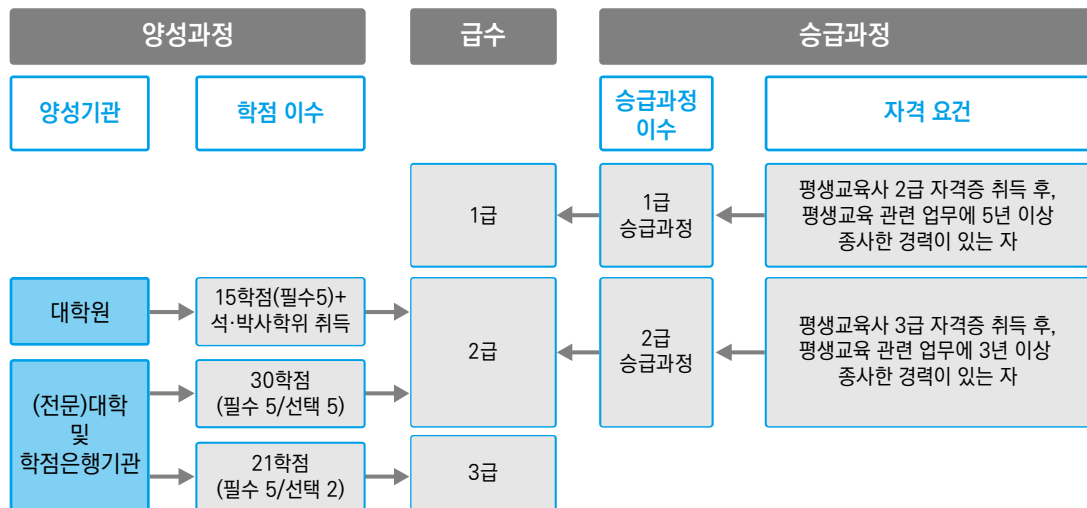
「평생교육법」제26조에서는 양성된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의무배치 대상 기관과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그리고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외에도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읍면동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 전담 조직에서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개요

평생교육사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이수과정은 다음 [그림 1-5]와 같이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양성과정은 (전문)대학,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고, 승급과정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이다.



[그림 1-5] 평생교육사 이수 과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사업 내부 자료.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표 1-42>와 같다. 평생교육사 1급은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대학원에서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평생교육사 3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3급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표 1-4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	자격 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출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항 별표1의 2

나.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8,404명으로 가장 많이 양성되었다. 최근 3년간 양성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6,496명, 2018년에는 6,788명, 2019년에는 6,671명이 양성되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평생교육사는 총 137,067명이 양성되었다. 평생교육사 자격 등급별 양성 현황을 보면 1급이 전체의 0.6%인 856명, 2급이 93.9%인 128,644명, 3급이 5.5%인 7,567명으로 평생교육사의 대부분이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표 1-43〉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3급	총계	비 고
1986~1999년	0	21,007	2,008	23,015	(구)사회교육전문요원
2000년	22	1,548	344	1,914	평생교육사
2001년	25	2,878	513	3,416	
2002년	38	2,957	636	3,631	
2003년	31	2,982	601	3,614	
2004년	32	2,776	551	3,359	
2005년	26	3,734	490	4,250	
2006년	33	3,735	143	3,911	
2007년	16	4,566	316	4,898	
2008년	33	5,448	273	5,754	
2009년	57	5,447	260	5,764	
2010년	55	6,697	383	7,135	
2011년	30	6,808	221	7,059	
2012년	70	7,900	183	8,153	
2013년	58	7,633	156	7,847	
2014년	42	7,791	113	7,946	
2015년	44	8,278	82	8,404	
2016년	38	6,923	81	7,042	
2017년	43	6,386	67	6,496	
2018년	87	6,618	83	6,788	
2019년	76	6,532	63	6,671	
계	856	128,644	7,567	137,06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사업 내부 자료.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44>와 같다. 전국 304개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있으며, 전체의 74.0%인 225개 기관이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고, 25.0%인 76개 기관이 학점은행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87개(28.6%), 경기 52개(17.1%)로 인천 8개(2.6%) 등 수도권에 전체의 48.4%인 147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울산의 경우 양성기관이 없으며, 제주의 경우 1개의 양성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44>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대학원	일반대학원	8	1	1	-	1	-	-	-	2	1	-	-	1	-	1	-	-	-
	특수대학원	21	9	1	-	-	2	1	-	2	2	2	1	-	-	-	-	1	-
	대학원대학	14	7	-	-	1	-	1	-	4	-	-	1	-	-	-	-	-	-
대학	대학	126	32	9	2	2	7	6	-	20	6	8	12	6	3	8	4	-	1
	산업대학	1	-	-	-	1	-	-	-	-	-	-	-	-	-	-	-	-	-
	전문대학	37	3	-	3	-	1	-	-	8	3	4	1	2	3	7	2	-	-
	원격대학 ¹⁾	18	8	2	1	-	-	1	-	2	-	-	1	-	-	3	-	-	-
학점은행 기관	원격기반	32	19	1	2	-	4	-	-	1	-	-	1	2	-	1	1	-	-
	출석기반	43	6	3	2	3	2	3	-	12	-	1	4	3	-	1	2	-	1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1	-	-	-	-	-	-	-	1	-	-	-	-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1	-	-	-	-	-	-	-	-	-	-	-	-	-	-	-	-
기타 ²⁾		2	1	-	1	-	-	-	-	-	-	-	-	-	-	-	-	-	-
계		304	87	17	11	8	16	12	0	52	12	15	21	14	6	21	9	1	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구 사업 내부 자료.

주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으로 분류

주2) 기타유형: 백석예술대학교(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한국사학진흥재단(폐교대학 관리).

주3) 해당 자료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ledu.nile.or.kr) 홈페이지 가입기관에 한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유형별 자격교부 현황은 다음 <표 I-45>와 같다. 유형별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일반평생교육시설이 2018년 2,279명, 4년 동안 9,063명(31.5%)으로 평생교육사를 가장 많이 양성하였고, 이어서 방송통신대학교가 2018

년 1,397명, 4년 동안 6,360명(22.1%)을, 대학이 2018년 1,098명, 4년 동안 6,360명(22.1%)을 양성하였다. 양성과정을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보면, 2018년에는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4,431명(65.3%)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어 정규교육기관이 평생교육사 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45〉 양성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5~2018년)

(단위: 명)

기관 유형	2015	2016	2017	2018	계
정규교육과정	5,776	4,885	4,385	4,431	19,477
비정규교육과정	2,628	2,157	2,111	2,357	9,253
전문대학	826	729	740	832	3,127
교육대학	3	4	-	-	7
대학	1,686	1,344	1,151	1,098	5,279
방송통신대학	1,977	1,543	1,443	1,397	6,360
산업대학	64	53	57	95	269
각종학교	-	-	-	1	1
원격 및 사이버대학	1,042	1,045	850	840	3,777
대학원대학	127	117	109	122	475
전공대학	51	50	35	46	18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8	35	39	78	190
일반평생교육시설	2,590	2,122	2,072	2,279	9,063
계	8,404	7,042	6,496	6,788	28,73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2019).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다.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과 배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과 배치 기준은 다음 〈표 I-46〉과 같다.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평생학습관은 정규 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 직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등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표 1-46>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배치 대상 기관	배치 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 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 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출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참조.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기관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295개의 평생교육기관 중 79.6%인 3,419개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배치율은 100.0%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모두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으며, 시군구평생학습관에는 80.3%인 378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배치율이 9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81.2%로 높았다.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71.4%,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75.2%로 다른 시설에 비해 배치율이 낮았다.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398개 기관의 97.7%인 389개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

<표 1-47>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총 기관 수	배치 기관 수	배치율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17	100.0
시군구평생학습관	471	378	80.3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7	71.4
	대학(원)	415	81.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415	405	97.6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42	652	77.4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595	455	76.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492	370	75.2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1,041	800	76.8
소계	4,295	3,419	79.6
학점은행기관 ¹⁾	398	389	97.7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

주1) 학점은행기관 중 일부는 시군구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중복됨.

주2) 조사 기준일 및 조사처: 평생교육기관(2019. 5.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기관(2019.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 현황을 보면 전체 4,295개 평생교육기관에 5,419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으며 기관당 평균 1.3명의 평생교육사가 있다.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166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기관당 9.8명으로 평균 평생교육사 수가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평생학습관의 경우 471개 기관에 864명이 배치되어 기관당 평균 1.8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기관당 0.7명,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기관당 0.9명으로 기관당 평균 1명 미만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 학점은행기관은 398개 기관에 1,048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기관당 평균 2.6명이 배치되어 있다.

<표 1-48>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자격 등급별)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평생교육사 수				기관당 평생교육사 수
				계	1급	2급	3급	
평생 교육 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166	26	136	4	9.8
	시군구평생학습관		471	864	73	764	27	1.8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7	5	-	5	-	0.7
		대학(원)	415	667	35	620	12	1.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415	533	23	502	8	1.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42	751	23	669	59	0.9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595	656	28	605	23	1.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492	499	23	455	21	1.0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1,041	1,278	46	1,194	38	1.2
	소계		4,295	5,419	277	4,950	192	1.3
학점은행기관 ¹⁾			398	1,048	37	990	21	2.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

주1) 학점은행기관 중 일부는 시군구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중복됨.

주2) 조사 기준일 및 조사처: 평생교육기관(2019. 5.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기관(2019.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라. 평생교육 연수 운영 현황

평생교육 연수는 평생교육사 연수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관계자 연수로 구분된다. 먼저 평생교육사 연수는 승급과정과 일반 연수과정으로 나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역할과 직무를 고려하고 기존 유사·중복 이수 과목을 검토·정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개편된 승급과정의 교

육 내용은 다음 <표 I-49>와 같다. 1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기관 경영자 및 평생교육 정책 전문가로서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2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로서의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성평등·인권교육 과목이 추가되었다.

<표 I-49>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 내용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		
영역	이수 과목명	시간	영역	이수 과목명	시간
평생교육 비전과정	평생교육사의 역할 및 철학	3H	평생학습 환경분석	평생교육사의 역할 및 철학	3H
	평생교육법과 정책의 이해	3H		평생교육법과 정책의 이해	3H
	평생교육사의 직업윤리	3H		국내외 평생교육 동향	3H
	평생교육 리더십	3H		요구조사분석	3H
	국내외 평생교육동향	3H		성평등·인권교육	2H
	평생교육사 비전 워크숍	3H			
	성평등·인권교육	2H			
	조별프로젝트 운영 및 발표	3H			
평생교육 기관경영 및 관리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문제해결	3H	평생학습 기획	사업기획의 실제	3H
	평생교육기관 비전 및 전략	3H		평생교육 실무행정	3H
	조직분석 및 기관역량 분석	3H		평생교육 자원관리	3H
	마케팅 및 기관홍보전략 수립	3H			
	평생교육기관 재무관리	3H			
	평생교육기관 성과관리	3H			
평생교육 사업 및 정책	평생교육사업 기획	3H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텍소노미	3H
	평생교육사업 타당성 분석	3H		평생교육프로그램 요구분석	3H
	평생교육사업 설계 및 모니터링	3H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H
	평생교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3H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H
	평생교육 정책제안 워크숍(Ⅰ)	3H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케팅 및 홍보	3H
	평생교육 정책제안 워크숍(Ⅱ)	3H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	3H
변화촉진 및 지역 디자인	평생학습과 변화촉진	3H	지역 네트워크	지역사회교육의 이해	3H
	평생학습동아리 조직화	3H		지역동향 및 기관역량 분석	3H
	평생학습네트워크전략	3H		평생교육네트워크	3H
	지역사회와 평생교육리더 실천현장 사례공유	3H		실천현장 사례공유	3H
평생학습 상담 및 컨설팅	생애발달과 평생학습상담	3H	교수학습 기법 및 상담	성인학습자의 이해	3H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3H		평생교육 상담 및 학습설계	3H
	평생교육 컨설팅의 이해	3H		교수-학습기법 실습	3H
	평생교육 컨설팅 실제	3H			
평생교육 교수학습	평생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Ⅰ)	3H	기타	평생교육기관 및 행사 건학 (조별 프로젝트 운영 및 발표)	5H
	평생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Ⅱ)	3H		개강식 및 종강식 종합시험	2H 3H
기타	개강식 및 종강식	2H			
	종합시험	3H			
	평생교육기관 및 행사 건학	8H			
교육과정	6개 영역 / 31과목	105H	교육과정	5개 영역 / 21과목	70H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구 사업 내부 자료.

2019년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은 수요가 없어 폐강되었으며, 1급 승급과정만 운영되었다. 2019년에는 1급 승급과정 2개반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승급과정 신청자를 모집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67명을 선발하였으며, 67명이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표 I -50〉 2019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

구분	1급 승급과정 개요	
	A반	B반
교육 기간	2019. 5. 24.(금)~2019. 11. 1.(금)	
교육 장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 인원	36명	31명

2019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4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하였다. 제주(4월), 대구(7월), 대전(9월), 서울(11월)의 4개 지역에서 6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297명의 평생교육사가 연수에 참여하였다. 각 과정별 교육 내용은 〈표 I -52〉와 같다.

〈표 I -51〉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현황

차수	과정	지역	연수 일자	연수 대상	참여자 수
1차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과정	제주	4. 19.(금)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경력 5년 이상)	54명
2차	장애 평생교육 특성화 과정	대구	7. 4.(목)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	74명
3차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과정(A)	대전	9. 27.(금)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경력 5년 이상)	81명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과정(B)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과정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 2급(경력 5년 미만) 또는 3급	
4차	평생교육 통합과정	서울	11. 22.(목)	평생교육기관 재직 평생교육사	88명
4개 지역(6개 과정)					297명

〈표 I -52〉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별 교육 내용

차수	구분	교육 내용
1차	공통학습과정	2019년 사회트렌드와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과정	평생교육 조직관리
2차	공통학습과정	평생교육 철학 및 평생교육사 역할
	특성화과정	장애 평생교육 법률과 정책 방향 장애 평생교육 현황
3차	공통학습과정	미래사회와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과정	평생교육 기획
		평생교육 마케팅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과정	평생교육 조직관리
4차	공통과정	2020년 트렌드와 평생교육
	평생교육 직무과정	평생교육 마케팅
		평생교육 사업·정책기획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사업 내부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외에도 체계적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관계자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실시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담당자 직무 연수에는 양성기관 담당자 91명이 참석하였으며, 10월 실시된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 연수에는 실습기관 담당자 94명이 참석하였다. 각 직무 연수별 세부 교육 내용은 〈표 I -53〉과 같다.

〈표 I -53〉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관계자 직무 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관계자 직무 연수	
연수명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담당자 연수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 연수
일시	6. 28.(금), 10:00~15:00	10. 31.(목), 10:00~16:00
장소	서울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엘타워 별관 멜론홀(5층)
참석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담당자 91명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 94명
교육 내용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이해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의 이해 • 자격발급 신청업무의 이해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상호컨설팅	• 평생교육 현장실습 운영현황(특강)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사례공유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사례공유 • 평생교육 현장실습 상호컨설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사업 내부 자료.

3. 향후 과제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사 양성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는 법정 교과를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양성과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평생교육 현장은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평생교육사의 역량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검토하여 개편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자격 취득 이후 연수와 현장 업무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유사 자격 제도는 전문성의 유지·신장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를 위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연수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19년 배치율은 79.6%로 여전히 약 20%에 해당하는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배치 위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기준은 기관당 1명이며(시군구평생학습관의 경우 정규직 직원 2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2019년 7월 기준, 4,295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5,419명이 재직 중으로 기관당 약 1.3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 평생교육사 1명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모두를 수행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체계적이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재 지역의 시민 수, 기관의 학습자 수 또는 프로그램 수 등 보다 유연한 배치 기준을 두어 평생교육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cbinfo.or.kr>

II.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교원

1. 개요

현행 평생교육법령에는 평생교육 교강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자격 기준, 양성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학점은행제 교강사에 대한 자격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교강사에 대한 정의는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에서 찾을 수 있다.

평생교육통계 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 교강사는 평생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맡아 온 내·외국인을 의미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강사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되고, 각 직명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담당 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담당할 과목과 관련된 학력,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원이나 강사에 대한 규정이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평생교육기관은 종류나 규모가 다양하고, 운영 목적이나 방식, 학습자 및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교강사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 예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사 선정 및 관리, 강사 의무, 강사로 등을 포함하는 평생교육 운영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 평생교육 운영 지침에서 강사란 자격 조건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강사 자격은 해당 과목을 전공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사 선발은 각 운영시설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의 선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관련 법과 규정 등을 토대로 평생교육 교강사에 대한 의미를 종합하면, 평생교육 교강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담당 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와 강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교강사에

대한 자격, 선정, 양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08년 성인 문해교육 교원의 조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에 성인 문해교육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문해교육 교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지칭한다.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각 과정은 문해교육개론, 문해교육 기획 및 개발, 문해교육 교수법, 문해교육 학습 및 기관 경영, 문해교육 네트워크 경영, 문해교육 가치와 교사 사명 등의 6개 과목(초등과정 50시간, 중학과정 24시간)과 현장실습(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문해교육센터, 2020).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문해교육 교원 연수 이수증을 발급한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19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연도별 성별 교강사 현황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I-54〉 참조). 2019년을 기준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수는 75,492명,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수는 7,384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및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015년 교강사 수가 70,83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75,492명으로 증가하여, 2015년 대비 6.6%(4,657명) 증가하였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교강사 수는 6,908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7,384명으로, 2015년 대비 6.9%(476명) 증가하였다.

2015-2019년 기간 남녀 교강사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 비율이 높았고,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남성 비율이 높았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교강사의 여성 비율은 2015년 65.9%에서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67.3%로 2015년 대비 1.5%p 상승하였다. 반면에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교강사의 남성 비율은 2015년 이후 66%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I -54〉 평생교육기관의 연도별 성별 교강사 수

(단위: 명)

구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¹⁾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수	성별		교강사 수	성별	
		남	여		남	여
2015년	70,835	24,170	46,665	6,908	4,574	2,334
2016년	73,204	24,995	48,209	7,076	4,742	2,334
2017년	71,723	24,638	47,085	7,204	4,749	2,455
2018년	72,783	24,476	48,307	7,367	4,863	2,504
2019년	75,492	24,649	50,843	7,384	4,826	2,55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주1) 학원을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임. 학원은 교강사 성별 구분이 불가하여 제외함.

다음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를 분석하였다(〈표 I -55〉 참조). 2019년을 기준으로 학원을 포함한 교강사 수는 119,294명 이었다. 이 중 학원 교강사 수가 43,802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20,437명(17.1%), 평생학습관 13,849명(11.6%),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13,717명(11.5%),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13,405명(11.2%),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6,127명(5.1%) 등의 순이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변화 추이를 보면, 학원,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원의 교강사 수는 2015년에 35,540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3,8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23.4%(8,262명) 증가한 것이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강사 수는 2015년 10,470명에서 2016년 11,123명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2019년에는 13,405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 대비 28.0%(2,935명)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15년 대비 교강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학습관이었다. 평생학습관의 교강사 수는 2015년 8,697명에서 2016년 11,790명으로 상승하여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13,84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 대비 59.2%(5,152명)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

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강사 수는 2015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중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은 2017년 이후 교강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 -5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원 포함 총계	106,375	112,224	113,988	116,407	119,294
학원 미포함 총계	70,835	73,024	71,723	72,783	75,492
유·초·중등학교 부설	41	35	29	32	31
대학(원) 부설	15,206	15,033	15,562	14,381	13,717
원격형태	10,470	11,123	11,399	11,862	13,405
사업장 부설	22,024	21,128	19,302	19,961	20,437
시민사회단체 부설	3,865	3,575	3,032	2,915	3,192
언론기관 부설	4,060	3,604	3,414	3,722	4,186
지식·인력개발형태	6,472	6,916	6,847	6,293	6,127
시도평생교육진흥원 ¹⁾	-	-	720	375	548
평생학습관	8,697	11,790	11,418	13,242	13,849
학원	35,540	39,020	42,265	43,624	43,80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주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은 2017년부터 추가됨.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 소재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광역시, 도)으로 구분하여 교강사 수를 분석하였다(〈표 I -56〉 참조). 2019년을 기준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교강사 수를 보면, 수도권이 43,781명, 비수도권이 31,711명으로 수도권 교강사 수가 비수도권 교강사 수에 비해 12,070명 많았다. 비수도권 내에서는 광역시 14,590명, 도 17,121명으로 도의 교강사 수가 광역시의 교강사 수에 비해 2,531명 많았다.

<표 I -56>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강사 수

(단위: 명)

구분	교강사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70,835	73,204	71,723	72,783	75,492
수도권	41,587	42,890	41,130	42,636	43,781
비수도권	29,248	30,314	30,593	30,147	31,711
광역시	14,187	14,093	14,803	14,216	14,590
도	15,061	16,221	15,790	15,931	17,12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주1) 학원은 지역별 통계 미비로 제외함.

나. 문해교육 교원

문해교육 교원 현황은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과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문해교육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현황을 분석하였다(<표 I -57> 참조). 2019년 현재 문해교육 교원은 총 5,356명으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은 3,946명,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은 1,410명이다.

연도별 문해교육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수는 2013년에 496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4년에 303명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다시 382명으로 상승하였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수는 연수과정이 처음 시작된 2013년에는 13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6년에 167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 32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9년에는 29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I -57> 연도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초등과정	1,358	496	303	382	400	358	340	309	3,946
중학과정 ¹⁾	-	133	138	30	167	320	328	294	1,410
계	1,358	629	441	412	567	678	668	603	5,35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운영

다음은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광역시, 도)으로 구분하여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의 교원 현황을 분석하였다(〈표 I-58〉 참조).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현황을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문해교육 교원은 수도권에서 40명, 비수도권에서 269명(광역시 77명, 도 192명), 총 309명이 양성되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수는 수도권 1,462명, 비수도권 2,484명(광역시 895명, 도 1,589명)으로 총 3,946명이다.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문해교육 교원은 수도권에서 132명, 비수도권에서 162명(광역시 27명, 도 135명), 총 294명이 양성되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된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수는 수도권 567명, 비수도권 843명(광역시 334명, 도 509명)으로 총 1,410명이다.

〈표 I-58〉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초등과정							중학과정							계
	2008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전국	2,157	382	400	358	340	309	3,946	271	30	167	320	328	294	1,410	5,356
수도권	1,030	88	129	75	100	40	1,462	139	17	65	171	43	132	567	2,029
비수도권	1,127	294	271	283	240	269	2,484	132	13	102	149	285	162	843	3,327
광역시	431	129	84	94	80	77	895	93	2	53	35	124	27	334	1,229
도	696	165	187	189	160	192	1,589	39	11	49	114	161	135	509	2,098
서울	442	47	39	-	38	-	566	79	7	31	34	-	30	181	747
부산	177	29	26	25	-	21	278	9	-	14	17	25	-	65	343
대구	89	34	27	4	36	-	190	36	-	4	18	-	27	85	275
인천	61	1	27	-	23	-	112	2	1	-	21	-	27	51	163
광주	67	30	29	-	44	-	170	21	2	17	-	37	-	77	247
대전	55	-	1	39	-	30	125	25	-	18	-	27	-	70	195
울산	42	36	-	26	-	-	104	2	-	-	-	35	-	37	141
세종	1	-	1	-	-	26	28	0	-	-	-	-	-	0	28
경기	527	40	63	75	39	40	784	58	9	34	116	43	75	335	1,119
강원	48	29	34	-	40	30	181	2	-	-	-	30	-	32	213
충북	57	2	20	-	29	24	132	0	-	1	2	19	-	22	154
충남	199	1	41	40	-	33	314	19	9	-	26	38	27	119	433
전북	87	4	28	40	27	29	215	5	1	-	30	21	29	86	301
전남	84	29	28	49	43	46	279	7	-	-	20	24	33	84	363
경북	60	40	35	30	21	-	186	3	-	26	12	-	46	87	273
경남	73	60	1	30	-	30	194	2	1	22	-	29	-	54	248
제주	88	-	-	-	-	-	88	1	-	-	24	-	-	25	11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평생교육 교강사의 경우 해당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교강사를 양성, 선정,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문해교육 교원은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관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표 I-59〉, 〈표 I-60〉 참조), 10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317명 중 309명(97.5%)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는 2018년(340명) 대비 9.1%(31명) 감소한 것이다.

중학과정은 8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1개 평생학습관에서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300명 중 294명(98.0%)이 이수하였다. 이는 2018년(328명) 대비 10.4%(34명) 감소한 것이다.

〈표 I-59〉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2008-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초등과정	37	12	8	12	12	10	10	10	111
중학과정 ¹⁾	-	3	4	1	7	11	11	9	46
계	37	15	12	13	19	21	21	19	15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운영됨.

〈표 I-60〉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운영 주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선발대상자)						이수자 수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		1		1		40		30		30		38		30		3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25		21	17	25		25		21	17	25	
대구평생교육진흥원		1		1		1		36		23		28		36		23		27
인천평생교육진흥원		1		1		1		25		35		27		23		31		27
광주평생교육진흥원		1			1			51			43			44			37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		1		1		39		30		30		39		30		27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1		27				35		27				35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1						26						2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	1	1	2	1	1	78	40	40	111	43	45	75	39	40	109	43	45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						30						30

운영 주체	운영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선발대상자)						이수자 수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초등과정			중학과정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40	30		30			40	30		30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30	25		20			29	24		19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1	42		35	25	39	29	40		33	25	38	27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1	1	40	27	30	30	21	29	40	27	29	30	21	29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1	1	50	49	50	20	26	36	49	43	46	20	24	33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34	21		11		46	34	21		11		46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1		1		1		30		30		29		29		30		2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24						24		
소계	10	10	10	11	11	9	365	359	317	326	341	300	358	340	309	320	328	294
2008-2016년	81			15			3,101			484			2,939			468		
계	111			46			4,142			1,451			3,946			1,410		
	157						5,593						5,35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운영됨.

3. 향후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교원의 발전으로 위한 향후 과제로서 먼저, 평생교육 교강사 관련 통계 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관련 통계는 평생교육기관 대상의 교강사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통계이다. 그러나 최근처럼 학습동아리, 협동조합, 학습공동체, 유튜브 등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식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습 단위와 매체를 통한 강사의 역할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평생교육기관 중심의 교강사 조사에 추가하여 새로운 학습 단위와 매체를 통한 교강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교강사 통계는 평생교육법령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즉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 관련 시설, 문화 관련 시설 등 다수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이 기관 역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교강사 통계에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제 평생교육 강사의 규모와 활동 영역 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 교강사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강사의 변화 추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는 지속적으로 교강사 규모가 확대되었고, 평생학습관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교강사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반면에 평생교육기관 교강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원) 부설 및 사업장 부설의 교강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교강사 규모 변화는 원격평생교육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증가, 이로 인한 교강사 수요 증가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러한 경향은 평생교육 분야의 성장 동향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변화 추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 또는 기관별 교강사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전문성 높은 교강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 정밀한 수준의 교강사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책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해교육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문해교육 교원 양성 규모는 관련 예산과 과정 지원자 규모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요인은 공급자 결정 요인으로 문해교육 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즉 문해교육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문해교육 교원의 양성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 교강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교강사는 교과 내용 전문가이지만 현재의 교강사 양성체계에서 이들이 성인 및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양성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내용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평생교육 교강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 차원과 평생교육기관 차원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 교강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채용하는 교강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성인교수법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교강사 대상의 교수법 강의나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강사 대상 평생교육 과정 운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문해교육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문해교육 교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 및 양성과정을 거치고 나면 재교육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재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다. 하지만 문해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및 제공, 문해교육과 학력취득 연계 제도 강화, 신규 비문해자 증가, 중학과정 진학자 증가 등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해교육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양성과정 역시 실질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해교육 교수방법, 비문해학습자 이해, 성인교육방법, 성인학습자 이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해교육기관 경영, 성인학습자 상담,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 내용을 기준으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시수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le.or.kr/contentView.do>(2020. 3. 1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1_5.do(2020. 3. 20.)
- 평생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02&efYd=20190119#0000>(2020. 3. 5.)
- 평생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71&efYd=20190101#0000>(2020. 3. 5.)

제5절

평생교육 예산



1. 개요

2019년 교육 분야의 예산은 총 70.6조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 대비 증가율은 10.1%에 이른다. 최근 5년간의 교육 분야 예산은 2015년 52.9조 원, 2016년 53.2조 원, 2017년 57.4조 원, 2018년 64.1조 원, 2019년 70.6조 원으로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2018년(11.7%)과 2019년(10.1%)은 전년 대비 10% 이상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개년 정부 총예산은 2015년 375.4조 원, 2016년 386.4조 원, 2017년 400.5조 원, 2018년 428.8조 원, 2019년 475.4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6.7%로서 교육 분야 예산의 증가율인 8.4%보다 1.7%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61〉 2015~2019년 교육 분야 예산 및 정부 총예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교육 분야 예산	52.9	53.2	57.4	64.1	70.6	8.4
정부 총예산	375.4	386.4	400.5	428.8	475.4	6.7

출처: 교육부(2018).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교육부 홈페이지 「재정·예산정보」참조.

2. 주요 현황

교육 분야 예산은 〈표 I-62〉와 같이 유아·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육 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규모는 2015년 414,568억 원, 2016년 430,588억 원, 2017년 471,494억 원, 2018년 537,736억 원, 2019년 598,01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율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다음으

로, 고등교육 예산은 2015년 107,450억 원, 2016년 93,593억 원, 2017년 94,584억 원, 2018년 95,617억 원, 2019년 99,537억 원으로 연평균 -1.8%의 감소율을 보였다. 세 번째로,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예산은 2015년 6,150억 원, 2016년 6,577억 원, 2017년 6,935억 원, 2018년 6,707억 원, 2019년 7,420억 원으로 연평균 5.2%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분야의 예산은 2015년 1,020억 원, 2016년 1,101억 원, 2017년 1,110억 원, 2018년 1,240억 원, 2019년 1,270억 원으로 연평균 6.1%의 증가율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표 I-62> 2015년~2019년 교육 분야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414,568	430,588	471,494	537,736	598,011	11.1
고등교육 예산	107,450	93,593	94,584	95,617	99,537	-1.8
평생·직업교육 예산	6,150	6,577	6,935	6,707	7,420	5.2
교육일반 예산	1,020	1,101	1,110	1,240	1,270	6.1
교육 분야 예산 계	529,188	531,859	574,123	641,300	706,238	8.4

출처: 교육부(2018).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내용 재구성.

가. 2019년 교육 분야 예산 현황

2019년의 교육 분야 예산 706,238억 원 중에서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598,011억 원으로 총 교육 분야 예산 대비 84.68%, 고등교육 예산은 99,537억 원으로 14.09%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9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1.23%의 교육 분야 예산 비율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1.05%(7,420억 원)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비로 구성된 교육일반 예산이 0.18%(1,270억 원)이다(<표 I-63> 참조).

분야별 세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598,011억 원)은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증진, 학교교육 활성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정책 지원의 여섯 가지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7,431억 원/93.21%)과 지방교육정책 지원(34,770억 원/5.81%)에 편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총 99,537억 원이며, 대학교육 역량강화, 학술연구 역량강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국립대학 운영지원,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운영비의 여섯 가지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단위 사업은 42.58%를 차지하고 있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사업이다. 그 다음은 국립대학 운영지원 사업

(32.06%),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14.32%), 학술연구 역량강화 사업(8.8%),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2.14%), 기금운영비(0.11%) 순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분야 예산의 1.05%인 7,420억 원이며,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국제교육 협력 증진,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의 여섯 가지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절반 이상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54.03%)에 편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은 1,361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0.19%이며, 이는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18.34%에 불과하다. 그 이외에 국제교육 협력증진(13.52%), 국립국제교육원 지원(12.24%),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1.54%),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0.34%)순으로 평생·직업교육의 단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표 1-63> 2019년 교육 분야별 세부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액	전체 교육예산 대비 비율	세부 교육예산 대비 비율
①유아·초·중등교육 예산	598,011	84.68%	100.0
-학교교육 내실화	2,342	0.33%	0.39
-교육복지증진	559	0.08%	0.09
-학교교육 활성화	239	0.03%	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7,431	78.93%	93.21
-지방교육정책 지원	34,770	4.92%	5.81
②고등교육 예산	99,537	14.09%	100.0
-대학교육 역량강화	14,249	2.02%	14.32
-학술연구 역량강화	8,764	1.24%	8.8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42,378	6.00%	42.58
-국립대학 운영지원	31,907	4.52%	32.06
-대학교육 역량강화	2,133	0.30%	2.14
-기금운영비(사학진흥기금)	105	0.01%	0.11
③평생·직업교육 예산	7,420	1.05%	100.0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	25	0.00%	0.34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361	0.19%	18.34
-국제교육 협력 증진	1,003	0.14%	13.52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908	0.13%	12.24
-산학연 협력 활성화	4,009	0.57%	54.03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14	0.02%	1.54
④교육일반 예산	1,270	0.18%	100.0
계	706,238	100.00%	

출처: 교육부(2018).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내용 재구성.

나. 2019년 평생교육 예산 현황

2019년의 평생교육 예산 현황은 교육부의 교육 분야 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사업 중의 일부인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사업(총 1,361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사업은 총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이다(〈표 I-64〉 참조).

먼저, 2019년 평생교육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진흥 지원 10억 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0억 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35억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5억 원,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억 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41억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5억 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14억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79억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억 원이며, 이를 합산한 예산은 총 581억이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10개의 평생교육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과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은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개의 평생교육 사업은 총 11개로 구성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1,361억 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의 평생교육 사업 예산이 전체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69%(581억)로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인 706,238억 원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082%로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4> 2019년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의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사업명	예산액 (백분율)	사업 내용	운영 주체
평생학습진흥 지원	10 (0.73)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사 제도 운영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0 (0.73)	- 평생교육통계조사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OECD국제성인역량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35 (2.57)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5 (1.84)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 (0.59)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41 (17.71)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5 (3.31)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14 (8.38)	- K-MOOC 개발 및 운영 - 매치업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79 (5.80)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 (1.03)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780 (57.3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계	1,361 (100.0)	전체 교육분야 예산(706,238억 원)의 0.19%임.	

출처: 교육부(2018).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내용 재구성.

주1) 음영처리된 사업은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 예산에 해당됨.

3. 향후 과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 분야 투자 계획은 2019년 70.6조 원, 2020년 72.4조 원, 2021년 76조 원, 2022년 79.1조 원, 2023년 81.9조 원으로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교육 분야 전체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3.8%)보다 6.8%가 높은 10.6%에 이른다. 교육 분야의 어떤 영역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된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2023년 평생·직업교육 예산으로 계획된 약 1.3조 원은 2023년 교육분야의 총 예산 81.9조 원의 1.6%에 해당하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표 I-65〉 참조).

〈표 I-65〉 2019~2023년 교육 분야 투자 계획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59,383	60,296	62,953	65,766	67,218	3.1
고등교육 예산	10,258	10,982	11,694	11,904	13,267	6.6
평생·직업교육 예산	877	1,068	1,250	1,326	1,312	10.6
교육일반 예산	131	137	142	148	155	4.2
계	70,649	72,483	76,039	79,144	81,952	3.8

출처: 기획재정부(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와 같이 2019~2023년 평생교육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 편성되어 있지만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의 평생교육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 기준 평생교육 사업은 총 10개에 이르고 있으나, 10개 사업의 총예산은 581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 간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추진되는 사업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은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만 개발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평생교육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

된 평생교육 예산에서 이와 같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 기반 평생교육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평생교육 브랜드 사업’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 편성된 평생교육 예산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브랜드 사업’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2018년부터 추진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한정된 예산 재원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는 평생교육 사업 중에서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는 평생교육 사업들을 선별하고 브랜드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함께 수행하여 전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8).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8).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 자료. 세종: 교육부.
- 기획재정부(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제6절

평생교육 국제교류



1. 개요

2019년의 평생교육 분야 국제교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체계가 2018년 12월에 수립된 이후 국내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국내외 논의에 발맞추어 SDGs 이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례화된 교류 영역인 해외 주요 기관의 한국 방문 연수, 글로벌 평생교육동향 제작, 국가 수준 보고서 작성·제출 등은 국내 평생교육의 인적·물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기관 방문 연수에서는 방문국의 수요에 맞춘 개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평생교육동향은 보다 전문적 관점에서 심층적 분석을 더하였다. 또 국제기구가 요청한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그 결과를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공유하여 한국 평생교육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국제적 흐름과 정부의 외교적 정책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는 협력 지평의 확대와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로 이어졌다. 2019년에도 긴 흐름으로 지속되는 평생교육 국제교류의 역사적 진전을 추구하면서 포용 국가의 비전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국제교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주요 현황

1) SDG 4-교육 2030 이행

2015년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된 이래, 국제협력은 SDG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8년 12월에 수립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지표체계는 국내 SDGs 이행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은 UN HLPF¹⁾ 검토 목표에 SDG 4(양질의 교육)²⁾가 포함되면서 국내 SDG 4-교육 2030 협의체에서도 이행 보고서 작성³⁾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HLPF는 2016년부터 매년 6~7개의 목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2019년은 17개의 목표가 모두 점검된 시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표 1-66> HLPF 목표별 검토 현황

연도	HLPF 주제와 점검 목표
2016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2017	“변화하는 세계에서 빈곤퇴치와 번영 추구” - 1(빈곤퇴치), 2(기아 종식), 3(건강과 웰빙), 5(성평등), 9(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4(해양생태계 보존), 17(글로벌 파트너십)
2018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 - 6(깨끗한 물과 위생),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5(육상생태계 보존), 17(글로벌 파트너십)
2019	“시민 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 4(양질의 교육),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불평등 감소), 13(기후변화 대응),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글로벌 파트너십)

출처: HLPF TIMELINE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SDG 4.6(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목표의 경우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외 이행 쟁점과 현안을 검토하였다. 2018년도에는 민·관·학 대표위원 12명의 전문가로 SDG 4.6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지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2019년은 SDG 4

1) UN 경제사회이사회(ESOCOC)가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으로 글로벌 차원의 SDGs 모니터링 담당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각료급 회의는 매년, 정상급 회의는 4년 주기로 개최함.

2)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44개 지표가 구축되어 있음. 그중 목표 4(SDG 4)는 양질의 교육이며 10개의 세부 목표(SDG 4.1~4.7, 4.a~4.c)와 43개의 지표를 포함함.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의 SDG 4 이행 현황 연구

담당 국제조정기구(custodian agencies)인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 UIS)의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쟁점 사항을 검토하면서 국내 이행 수준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병행하였다.

<표 1-67> 2019년 SDG 4.6 워킹 그룹 운영 현황

1차 회의 〈국내 이행 현황 공유〉 9. 26.(목) “한국의 SDG 4 이행 현황 및 포용성과 교육”	2차 회의 〈글로벌 이슈 검토〉 10. 16.(수) SDGs에서 평생교육의 역할	3차 회의 〈이행 시사점 모색〉 12. 19.(목) 국내외 SDG 4.6 최신 이슈와 쟁점
- SDG 4 세부 목표 이행 현황 공유 (HLPF 활용 국가 수준 보고서) - 한국에서의 포용성과 교육	- 국내외 전문가 그룹 초청 현안 토의와 조정 - 평생학습과 SDGs 쟁점과 전망	- SDG 4 세부 목표 간 연계와 협력 - SDG 4.6 지표산출 관련 국가통계 개선 및 개발 영역 탐색

여러 데이터는 SDG 4 목표 달성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UIS, 2019). SDG 4.6 역시 OECD 및 세계 은행과 협력하여 기본 성인 문해력 조사를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문해연합(Global Alliance for Literacy, GAL)⁴⁾을 설립하여 광범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SDG 4.6 세부 목표(targets) 이행을 위한 지표(indicators)는 세 개로 선정되었으며, 이 지표 중 1개는 글로벌 지표에 해당한다.

<표 1-68> SDG 4.6 세부 목표와 지표

구분	개념 정의(Definition)
Target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Global Indicators	4.6.1 활용 가능한 언어 역량과 수리 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성별) (Proportion of population in a given age group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a) literacy and (b) numeracy skills, by sex)
Thematic Indicators	4.6.2 청소년/성인 문해율(Youth/adult literacy rate) 4.6.3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참여율(Participation rate of illiterate youth/adults in literacy programmes)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9). SDG 4 Data Digest 내용 재구성.

4) 평생학습 맥락에서 문해력 증진을 위한 세계 공동의 프로젝트로 2016년부터 29개 회원국의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2) 한국 평생교육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

매년 해외 주요 기관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을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1일 단기 연수 형태로 ‘한국 평생교육 주요 정책’, ‘중앙-지방정부 평생학습 추진체계’, ‘평생교육 플랫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등 4개 분야의 공통과정이 진행되었다. 또 방문 기관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에듀테크, 문해교육 등 특별과정을 상세하게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영문 소책자와 안내자료 제작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류의 지평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과 기관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였다.

<표 1-69> 2019년 해외 주요 기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현황

국가명	일자	교류 기관명
싱가포르	3. 25.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도	4. 9.	인도정부 고등교육 대표단
태국	4. 24.	태국 방콕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단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 국가	6. 25.	한-유네스코 펠로십 프로그램
베트남	7. 8.	베트남 중견관리자급 공무원 연수단 1차
베트남	7. 15.	베트남 중견관리자급 공무원 연수단 2차
팔레스타인	7. 23.	팔레스타인 공무원교육원 연수단
알제리	10. 11.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자
독일 등	10. 28.	독일 시민대학연합(DWV) 및 동유럽 연수단
코트디부아르	11. 5.	코트디부아르 교육부 대표단
라오스 등	11. 7.	유네스코 브릿지아시아 역량강화 워크숍
싱가포르	12. 6.	싱가포르 SkillsFuture 대표단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생교육은 선도적인 사례로 많은 국가들에게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진전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과 같은 국가수준의 정책 모델과 지방정부 및 민간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있었다. 동시에 학습의 DNA가 강한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학습동아리와 마을 단위 학습 활성화 등 상승효과에 한몫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평생교육을 건설적으로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을 향한 다각적인 국제교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콘퍼런스와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표 1-70〉 2019년 국제 평생교육 콘퍼런스 참가 현황

국제 행사명	장소	기간	주요 내용
3rd VPL ⁵⁾ Biennale 2019 'Inspiring people, Shaping the Future'	독일 베를린	5. 5. ~5. 9.	• 유럽 전역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선행학습 인정을 촉진하고자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 • 선행학습에 대한 독일 및 유럽 동향 공유 • 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선행학습 인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베를린 선언 작성
2019 ADB Workshop on Lifelong Learning and Digital Skills	필리핀 마닐라	5. 7. ~5. 9.	• 주제: 평생학습과 디지털 스킬 • 아시아지역에서 심화되는 less born, longer live 현상, 급속한 기술변화(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평생학습 중요성 • 동남아시아 CLCs 중심 문해교육과 일자리 연계 • 한국 평생학습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의 함의
2019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Developing Indicators to monitor & evaluate lifelong learning implementation"	싱가포르	6. 30. ~7. 3.	• 평생학습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 한국의 평생학습 성과분석 사례 발표 • 평생학습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적 방법 관련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참여 • International Dialogue Platform on developing LLL indicators(IDP)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 협의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earning Cities	콜롬비아 메데인	9. 29. ~ 10. 4.	• 주제: 포용-평생학습과 지속 가능한 도시의 원리 • 10개 학습도시 2019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 지역 수준 포용정책 및 거버넌스 사례 공유 • 학습도시 모니터링 체계 협의
5th Asia-Pacific Meeting on Education 2030	UNESCO Bangkok	9. 30. ~10. 4.	•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1과 4.6의 달성 현황 공유 및 이행 권고문(안) 작성 • SDG 4.6 주제별 세션: 문해의 포용과 형평성, ICT 활용, 지표와 측정 • APFSD와 HLPF 결과 공유 •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회의(2020) 논의
ASEM MOOC 관계자 포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 6. ~11. 8.	• NILE-말레이시아 파향대학 간 강좌 교차 탑재를 위한 MOU 교환 • K-MOOC 우수 사례 발표 • 성균관대-말레이시아 파향대학 강좌 교차 탑재 실무자 회의 • ASEM MOOC 품질관리 국제비교 연구 회의 진행
Workshop on Developing a Curriculum and Competence Framework for Adult Educators	독일 함부르크	12. 1. ~12. 6.	• 성인교육자 교육과정 및 역량체계 개발 • 성인교육자 비형식적 전문화의 인정과 검증 • UIL과 DVV의 성인교육자 양성 교육과정인 Curriculum golbaALE(CG) 공동 개발 공유
Lifelong learning conference 2019	싱가포르	12. 5. ~12. 8.	• SkillsFuture 주관 행사로, 교육,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전문가 초청 사례 및 주요 정책 이슈 등 공유 •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발전 과정 및 우수 실천 사례 발표 • 지역 평생학습 촉진 및 정교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5) VPL: Validation of Prior Learning

3) 세계와 공유하는 평생교육동향

일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일종의 유행과 같은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류가 되어 거창한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평생교육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내외 평생교육 최신 동향 관련 정보를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전 지구적 비전을 공유하고자 ‘글로벌 평생교육동향’(이하 ‘평생교육동향’)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표 1-71> 2019년 평생교육동향 발간 현황

구분	시기	제목
국외 이슈	10월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정책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 분석
	12월	제4차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보고서(GRALE IV) 요약
국내 이슈	11월	2018 평생교육백서 요약
	12월	한국의 SDG 4.6 이행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2019년 첫 번째 평생교육동향은 중국의 교육 현대화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이 처음으로 교육 현대화를 주제로 발표한 중장기 전략계획이자, 교육강국 건설을 위한 체계적 교육 현대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교육 현대화 2035」가 2019년 2월 발표되었다. 「중국 교육 현대화 2035」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교육에 대한 발전 계획이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시민학습, 교사 양성 및 교육 평가 체제를 모두 포함한 발전 계획으로 ‘실시 방안’을 통해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중 다섯째 임무로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평생교육동향은 한국의 평생교육 최신 현황을 망라한 2018 평생교육백서에 대한 영문 보고서이다. 평생교육 최신 통계, 제도와 사업의 일반 현황을 포함한 한 해 동안의 평생교육 발자취를 담았고, 향후 전망과 비전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이해와 공감을 넓히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2019년 말에 발표된 제4차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Fourth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 IV) 요약본의 한국어 판으로 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GRALE III부터 벨렘 실행 계획에서 제시한 5개의 키워드로 분류되어 세계의 평생교육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참여, 지식, 거버넌스, 예산, 교육의 질, 불평등의 5개 키워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과제를 대표하기도 한다. GRALE IV는 특히 소외계층에 관하여 성인학습 및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증가, 학습 참여비용 절감,

성인학습 및 교육이 가져오는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포용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을 투영하고 있어 정책입안자, 교육전문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평생교육동향은 SDG 4.6 국내 이행 현황과 국제적 논의 동향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수립된 2018년 12월 이후 최종 확정된 SDG 4.6 지표체계에 따른 이행 모니터링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SDGs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목표까지의 도달거리를 측정하는 분석 도구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EU의 Eurostat 정기 보고서를 통해 장단기 동시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EU SDG 지표 세트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행 평가체계 도입에 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SDGs 목표와 지표 재검토 주장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4) 국가보고서를 통한 위상 제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2월 제4차 Global Inventory of Regional and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 제작을 위한 한국의 이행 현황과 사례에 관한 국가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자격체계(The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의 수준체계를 상세히 소개하고, 2017년 KQF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이행 현황 및 학교, 자격, 평생학습 및 훈련 분야의 연계 방안을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2019년 1월 교육부에서 행정예고를 실시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정(안)을 포함한 최신 국내 현황을 보고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한 종합 보고서가 2019년 하반기에 발간 되었다. 2019년 도 Global Inventory of Regional and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는 2013년 첫 발간 이후 네 번째 자료이다. 성인 역량에 관한 글로벌 전문 기관인 Cedefop, ETF, UNESCO는 매 2년마다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의 자격 프레임워크 설정 및 구현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총 2권으로 제작되었는데 1권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제별 분석을 제시하고, 2권에서는 각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19년 Global Inventory에 제시된 다양한 국가의 자격체계 구축 상황과 개혁 동향을 통해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고 광범위한 새로운 학습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자격 제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도전받고 있는 전통적인 자격을 대신해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자격, 학습 결과

에 기반한 안정적 자격 제도 구축, 포용과 공정의 관점에서의 사전학습 인정 등의 사례가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2019년 세계교육현황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9; GEM)의 주제는 국제 이주와 교육(Migration, displacement and education: Building Bridges, Not walls)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5년 OECD 국가에서 15세 학생 중 적어도 5분의 1이 이민자이거나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국제 이주민은 2억 5,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때 국경을 넘어서는 학습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2019).

공교롭게도 2019년 NQF에 관한 Global Inventory와 유네스코의 GEM 보고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과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변화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NQF Global Inventory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제교육지침(World Reference Levels; WRLs)은 이러한 대응 중 하나로 더 많은 국가 자격 시스템과 국가별 학습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실행 도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는 WRL은 2020년 전 세계 일반화를 목표로, 평생학습 관점에서 직업 영역 이외의 교육 및 훈련의 모든 수준 및 영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스킬, 직업 자격, 자격 증명, 학력, 비형식 학습 결과, 직무명세서, 선행학습 요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의 평생학습계좌제가 학습자들의 모든 학습 경험을 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WRL은 NQF와 같은 자격 체계를 기본으로 직업교육 이외에 의미 있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이는 국경을 넘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인의 역량과 자격을 인식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지원될 수 있다.

나. 운영 성과

1) 지속 가능 교육의 협력 지평 확대

2018년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SDGs 17개 목표별로 해당 부처와 대표 기관이 각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9년은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모니터링이 내실화된 시기였다. 그중에서도 SDG 4(교육 분야)의 이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 수준의 이행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조정기구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이행 노력이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후 교육 분야

에서 글로벌 이행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업의 결과이며 국가-지역-국제 수준 거버넌스의 중단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가교 역할을 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72> 2019년 SDG 4.6 글로벌 이행 매커니즘

국가 수준 (National level)	지역 수준 (Regional level)	국제 수준 (Global level)
<K-SDGs 작업반> • 대규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상향식 협의와 개선 <SDG 4-교육 2030 협의체> • 국내 10개 교육 유관 기관 관계자의 실질 협력 강화 <SDG 4.6 워킹그룹> • 민·관·학 전문가 그룹 워크숍을 통한 국내 지표체계 확립	<APMED Meeting> • 2015년 1차 회의 이래 아태지역 5차 회의 개최 • SDG 4.1과 4.6 모니터링과 평가, 주요국 이행 현황 • SDG 4 중간보고 준비 • SDG 4.1과 4.6 지역 권고안 채택	<UN HLPF> • SDG 4 국가 자발적 보고서를 위한 이행 현황 연구 참여 <GEM 2019 보고서> • 10개 세부 목표 이행 현황 보고 및 지표 개선 동향 <GRALE IV 보고서> • 지속 가능 발전 관점의 성인학습 및 교육 분석

2) 국제 수준의 협력 증진과 새로운 교류 파트너 개척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초청을 시작으로 2019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한국 평생교육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저개발국가를 위한 한국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 공유부터 세부적으로는 문해교육 활성화, K-MOOC와 학습 플랫폼,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어 한국 평생교육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평생교육 주제별, 국가별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 중 체결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Future Strategy Group)에 대한 MOU⁶⁾를 계기로, 2019년 인도 정부는 대학 총장을 포함한 대규모 고위급 고등교육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번 파견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최근 양국 정상외 상호 방문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도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을 배경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인도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매치업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주도 학습환경 및 직업교육 시스템, 평생교육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파견단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6) 최첨단 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11건의 MOU를 체결함. 주력 분야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3D 프린팅, 전기 자동차 및 노인/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등임.

계기로 그동안 평생교육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가 없었던 국가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3. 향후 과제

세계 각국은 글로벌 및 지역 수준, 그리고 국가 수준의 SDGs 이행 평가를 추진하여 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2020년부터 환경부는 K-SDGs의 국내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행 부처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목표치가 확정되지 않은 K-SDGs 45개 지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30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확정된 K-SDGs 지표 및 세부 목표는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이에 따라 국내 SDG 4.6 워킹그룹의 2020년 활동의 경우 현재 3개의 세부 목표와 지표에 관한 개선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활동에는 이미 확정된 지표의 산출 근거가 국제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한 유사 지표 탐색과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포용성에 기반한 지표의 데이터 세분화 논의도 진행하여 정책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은 평생교육분야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특별한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2022년 개최 예정인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의 참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국가적 추진 성과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주관기관인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I) 이사회는 Daniel Baril 의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논의될 평생학습의 급속한 확장에 부응한 새로운 정책 및 교육자원에 관한 실질적 협력 제안, 그리고 한국의 성과와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제3차 워킹그룹 회의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의 SDG 4 이행 현황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세종: 환경부.
- Cedefop·ETF·UNESCO(2019). Global Inventory of Regional and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 2019: Volume II: national and regional cases. doi: 10.2816/841519
- UNESCO(2018).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9: Migration, displacement and education: building bridges, not walls. Paris, FR: UNESCO.
- UNESCO(2019). 4th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Leave no one behind: participation, inclusion and equity. Hamburg, DE: UNESCO.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9). SDG 4 Data Digest: How to produce and use the global and thematic education indicators. Quebec, CA: UIS.
- HLPF TIMELINE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제7절

소결



제2장 2019년 평생교육 개요에서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전문인력, 평생교육 예산, 평생교육 국제교류를 다루었다. 개요라고는 하지만 평생교육통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태를 다루고 있는 가장 유용하고 방대한 장이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율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현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성격을 갖고, 가장 널리 참고한다. 2019년도 만 25세에서 64세 성인의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로 전년도 대비 0.6%p 증가하였다.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15년 40%대를 넘어섰지만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4.9%p나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참여율은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폭(7.0%p)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2019년 조사에서도 40% 중반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문재인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성과이다.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비형식 학습 영역별 참여율 변화를 보면, 가장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2019년 조사에서 22.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 17.3%, 인문교양교육이 8.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격형태'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 44.5%에 해당하는 81,878개의 프로그램이 원격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의해 개설·운영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수도 12,111,454명으로 전체 학습자 수의 74.1% 이상을 차지한다. 영역과 전달 체계 면에서 볼 때 비대면 원격교육 형태의 직업교육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때문에 원격형태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원격교육 형태의 직업능력향상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평생교육사는 1986년에 최초로 20명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양성된 이후 2019년까지 총 13만 7천여명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다. 문제는 배치다.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기관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295개의 평생교육기관 중 79.6%인 3,419개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사 현황을 보면 전체 4,295개 평생교육기관에 5,419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으며 기관당 평균 1.3명의 평생교육사가 있다.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배치되지 못한 평생교육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사의 수급과 배치가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한다. 앞으로 정책의 비중이 양성보다는 배치로 옮겨가야 함을 시사한다.

2019년 평생교육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생학습진흥 지원 10억 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0억 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35억 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5억 원,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억 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41억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5억 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14억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79억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억 원이며, 이를 합산한 예산은 총 581억이다. 평생교육 예산을 절대적으로 확충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2019년의 평생교육 분야 국제교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체계가 2018년 12월에 수립된 이후 국내 SDGs 이행과 모니터링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국내외 논의에 발맞추어 SDGs 이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는 SDG4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격상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이루는 ‘그린 뉴딜’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의 국제교류와 SDG4는 그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 평생교육백서

제2부

평생교육 일반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제1절

학력보완교육



I. 초중등학력인정제

1. 개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은 ①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⑧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한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그리고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대학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태동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학령기 학생을 정규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정은 1946년 공민학교 설치 요령을 제정하여 공민학교를 설치하였다. 초창기 공민학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되어 그 수가 초등학교보다 많았다. 공민학교는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가 있었으며 보수과는 1948년 고등공민학교 규정에 의해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되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의하여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도 학교의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1977년 대통령에 의거하여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야학, 청소년 학교 중 일부(250여 개 중 18개)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되었고 검정고시에서 9과목 중 4과목이 면제되면서 1989년부터 검정고시 없이 학력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생겨났다. 이후 2000년에 발효한 「평생교육법」에 의해 그 명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었다.

2006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가입 대상이 되었고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신설로 교원 대상 자격 연수 등 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대상이 되었고, 2010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27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법인, 공익재단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법인 1개교, 재단법인 10개교, 비영리법인 1개교, 지방자치단체 1개교, 개인 운영 30개교로 총 43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별 현황

(단위: 개)

구분	개인	법인			기타 (도립)	계
		학교법인	공익재단	비영리재단		
시설 수	30	1	10	1	1	43

평생교육통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22,0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에 집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42개교이다. 학습 수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개교 44학급 학생 1,501명, 중학교 16개교 138학급 학생 5,088명 학생, 고등학교 42개교 504학급 학생 17,358명이 있다.

<표 II-2> 연도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관수	초등	6	6	5	5	5	3	3	3
	중	27	26	24	12	12	5	5	5
	고등	54	51	50	37	37	28	27	25
	통합	-	-	-	9	9	16	17	16
계	87	83	79	63	63	52	52	52	49
학생수	초등	2,260	2,022	1,927	1,871	1,874	1,640	1,639	996
	중	7,667	6,993	6,586	2,324	2,402	1,386	1,344	1,569
	고등	31,844	27,928	25,888	17,200	15,735	12,759	11,713	8,698
	통합	-	-	-	9,253	8,572	10,353	11,112	10,823
계	41,771	36,943	34,401	30,648	28,583	26,138	26,076	24,240	22,08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2019).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표 II-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시 도	연 번	학교명			특성	학습비 지원
		초등	중등	고등		
• 서울 -인문계 4개교 -실업계 7개교 -중학교 6개교 -초등교 3개교	1		진형중	진형고	일반계	X
	2		성지중	성지고	일반계	X
	3		일성여자중	일성여자고	일반계	X
	4		청암중	청암고	일반계	X
	5		신동신중	신동신정보산업고	정보처리/상업	
	6			서울연희미용고	미용	폐교 예정
	7			서울자동차고	자동차정비(법인)	
	8			정암미용고	미용	
	9			청량정보고	정보처리	
	10			한국예술고	음악/미술/연극영화	
	11	한림초	한림중	한림실업·연예예술고	연예/뮤지컬/무용/음악/모델/영상제작	
	12	양원초			초등학교	폐교 예정
	13	서현초			초등학교	
• 부산 -실업계 7개교	14			국제금융고	상업/아동보육/스포츠레저	
	15			부산경호고	경호/간호/호텔조리	
	16		(병설 성인중고)	부산골프고	골프/사회체육/재활스포츠	
	17		(병설 성인중고)	부산미용고	미용	
	18		(병설 부경중)	부경보건고	간호/응급구조/미용/아동	
	19		(병설 예원중)	부산예원고	미용/유아교육/스마트IT	
	20			부산조리고	조리	

시 도	연 번	학교명			특성	학습비 지원
		초등	중등	고등		
• 대구 -실업계 1개교 -중학교 1개교	21		한남중	한남미용정보고	미용	
• 인천 -인문계 1개교 -실업계 1개교 -중학교 1개교	22		남인천중	남인천고	일반계	X
	23			인천생활예술고	정보처리/미용/간호/ 호텔조리/음 악연기	
• 대전 -인문계 1개교	24		대전예지중	대전예지고	일반계	X
• 경기 -인문계 1개교 -실업계 5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교 1개교	25			계명고	일반계	X
	26		진영중	진영고	쇼핑몰창업/자동차/미용	
	27			안양상업고	상업	
	28			부천실업고	미용예술/전자기계	
	29			고양실업고	상업	
	30			경기미용고	미용	
	31	진영초			초등학교	
• 강원 -인문계 1개교	32		(중고통합과정)	한국 YMCA 원주고	일반계	X
• 충북 -실업계 1개교	33			예일미용고	미용	
• 전북 -인문계 6개교 -실업계 1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교 2개교	34		도립여성중	도립여성고	인문계	X
	35			진북고	인문계	X
	36		군산평화중	군산평화고	인문계	X
	37			백제고	인문계	X
	38	인화초	인화중	인화고	인문계	X
	39	남일초	남일중	남일고	인문계/미용	
• 전남 -인문계 1개교 -실업계 1개교 -중학교 2개교	40		목포제일정보중	목포제일정보고	사이버정보통신	
	41		홍지중	홍지고	인문계	X
• 경북 -실업계 1개교	42			경북미용예술고	미용	
• 경남 -실업계 3개교	43			경남미용고	미용/공예디자인	
	44			경남기술과학고	만화애니/간호/컴퓨터디자인	
	45			경남보건고	보건간호	
계		6개교	16개교	42개교		

출처: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2019). 내부 자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자격은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해당 단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자(영 27조 3항)로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이 가능한 자는 ①만 16세를 넘은 자, ②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③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46명, 중학교 4,586명, 고등학교 11,881명 등 17,713명이다.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은 10,120명, 성인은 13,828명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34.9명으로 정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2.3명,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중 26.4명, 특성화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4.7명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교원당 학생 수는 17.9명으로 정규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14.5명, 중학교 12.7명, 특성화고등학교 13.2명에 비하여 학생 수가 많다.

<표 II-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2018.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학생 수			재적생 수	24세 이하 청소년	성인
	계	남	여			
초	1,287	41	1,246	1,501	-	1,287
중	5,088	502	4,586	5,088	5	5,083
고	17,573	5,692	11,881	17,359	10,115	7,458
계	23,948	6,235	17,713	23,948	10,120	13,828

출처: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2019). 내부 자료.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 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수는 교장 47명, 교감 36명, 교사 1,043명, 직원 207명 등 1,333명이다.

<표 II-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수

(2018. 12. 31. 기준, 단위 : 명)

교장	교감	교사	직원	계
47	36	1,043	207	1,333

출처: 사)학력인정초중고등학교전국연합회(2019). 내부 자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34.9명, 교원당 학생 수는 17.9명(2017년 학급당 학생 수: 초등 22.3명, 중 26.4명, 특성화고 24.7명)으로 정규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다(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 14.5명, 중 12.7명, 특성화고 13.2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7조에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8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제2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에서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①명칭, ②목적, ③위치, ④과정별 학급 수, 정원 및 학습비, ⑤교육과정 편성, ⑥교원의 정수, ⑦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⑧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⑨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⑩개설 예정일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고 있다(「평생교육법」 제27조[개정 2015. 11. 26., 2016. 3. 25.]).

교육감에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정규학교와는 달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 운영 방안은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의도된 방안이다(박태준 외, 199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 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신설 2015. 3. 27.).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 기준 면적은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 -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의 기준 면적

(단위: m²)

학교		학생 수별 기준 면적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 이하	241명 이상 960명 이하	961명 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 이하	121명 이상 720명 이하	721명 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주1) N은 각급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 정원을 말한다.

주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 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 고등학교에 2 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주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주4) 주간 수업과 야간 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 학생 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 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구분	시설·설비 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 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시설·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항제1호(인접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 시설 공동사용) 또는 제2호(지역여건으로 체육장 확보 곤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정규학교나 각종학교와는 달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설 기준이 매우 느슨하여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 용지 지정을 받지 않고도 개교가 가능하다 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주로 공장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업체 부설학교처럼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 학습환경이 좋지 못하며,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변에 유흥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대체로 건립한 지 오래되어 노후한 건물이 많고 속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학생인 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완만한 경사 계단 등 별도의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김경희 외, 201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일반 학교에는 재정결함보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인건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급여 수준은 일반학교의 5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생들에게 받을 수 없어 재정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준용하여 관리하며, 2020년 예산편성 기준경비는 <표 II-8>과 같다.

〈표 II-8〉 2020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구분	세부 편성 기준														
특근매식비	• 단가: 8,000원														
일·숙식비	• 단가: 50,000원														
여비(국내 여비)	• 단가: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업무추진비	• 단가: 30,000원 이내														
급량비	• 단가: 8,000원 이내 ※ 공무원(교원, 교육공무직원 포함)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위원회 참석수당	• 단가: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														
강사 수당	• 단가: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p.88 기준액														
동호회 지원비	• 필요시 최소 경비														
심사 수당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지급액</th></tr><tr><th>기본료(2시간 미만)</th><th>초과</th></tr><tr><td>교수, 전문가</td><td>80,000원</td><td>•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0,000원 • 4시간 이상: 40,000원</td></tr><tr><td>교장, 4급 상당 이상</td><td>60,000원</td><td></td></tr><tr><td>교감, 5급 상당, 일반인,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td><td>40,000원</td><td>•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 4시간 이상: 20,000원</td></tr></table>	구 분	지급액		기본료(2시간 미만)	초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0,000원 • 4시간 이상: 40,000원	교장, 4급 상당 이상	60,000원		교감, 5급 상당, 일반인,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	4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 4시간 이상: 20,000원
	구 분		지급액												
		기본료(2시간 미만)	초과												
	교수, 전문가	8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0,000원 • 4시간 이상: 40,000원												
	교장, 4급 상당 이상	60,000원													
교감, 5급 상당, 일반인,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	40,000원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 4시간 이상: 20,000원													
기타	• 보상적 성격의 국외 여비 편성 지양 • 합숙 연구 지양														

특히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교육 계획과 연계하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e교육금고, EFT) 및 통합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적극 이용하게 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우선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학사관리, 회계관리, 인건비 및 장학금 관리 등에서 부정비리가 지적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조례에 따라 주의, 경고, 보조금 감액, 지원 중단, 교육과정 운영정지, 교육과정 폐쇄, 등록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은 〈표 II-9〉와 같다.

<표 II -9>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서울특별시)

분야	지적 사항	처분 기준							
		등록 지정 취소	교육 과정 폐쇄	교육과정 운영정지		보조금		경고	주의
				전부	일부	지원 중단	감액		
등록지정기준	시설·설비 무단변경 (시설활장 및 축소, 위치이전 등 포함)	○	○	○	○	○			
	설치자 임의변경	○	○	○	○	○	○		
	학교시설, 운영권 무단임대	○	○	○	○	○	○		
	기타 등록·지정 기준 임의변경			○	○		○	○	○
	승인조건 미이행			○	○		○	○	○
회계운영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합계액 기준 1억 원 이상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누적 합계액 기준 3억 원 이상	○	○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합계액 기준 2억 원 이상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누적 합계액 기준 6억 원 이상	○	○						
	보조금 관리 부적정	○	○	○	○	○	○	○	
	제장부 미비치, 관리 부적정				○		○	○	○
	학습비 상한액 초과 징수				○	○	○	○	○
	회계운영 부적정	○	○	○	○	○	○	○	
	예산편성 부적정						○	○	○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부적정(고의, 중과실)		○	○	○		○	○
	교육과정운영 소홀				○		○	○	
학사관리	법정장부관리 부적정				○		○	○	○
	전·편입업무 부적정				○		○	○	○
	생활지도 부적정(고의, 중과실로 사회문 제화)			○	○		○	○	
	생활지도 부적정(경미한 사항)				○			○	○
기타	교육청 시정명령, 보고사항 등 3회 이상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	○	○	○	○	○	
	시정명령, 보고사항 미이행				○		○	○	○
	명칭사용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	○

3. 향후 과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학령기에 학교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기초교육, 성인 초중등교육을 실시하여,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희수, 200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미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에게 학력보완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실 운영과 갑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5년 3월 27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고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역시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력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서울의 4개교를 포함하여 전국 15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학습비를 지원할 경우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사관리 부실, 교비회계의 부정사용 및 개인적 유용, 학생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평생교육시설도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인 조항 개정과 법인 전환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보조금을 포함한 교비회계를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초·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2019).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화·오대영·김종훈·최돈민·김지은(2019). 재외한국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안전사고예방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 박태준 외(1999).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년3학기제 운영방안 연구. 충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업무처리지침.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2020). 2020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한눈에 쏙! 길라잡이.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 이정표·황홍규·윤여각(201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이희수(200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영 입장에서 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향후 진로와 과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법률적 쟁점과 과제탐색세미나, 8월 29일. 서울: 중앙대학교.
- 최돈민(201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지원 방안.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콘퍼런스, 9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II.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 개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이하 '방송중·고')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규 학교의 한 유형으로, 성인학습자는 물론 10대 청소년에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와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방송중·고의 설치, 교육과정·방법,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는 방송중·고의 핵심적인 특징인 방송·정보통신 수업 운영과 학교 외 학습경험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⁷⁾)이 방송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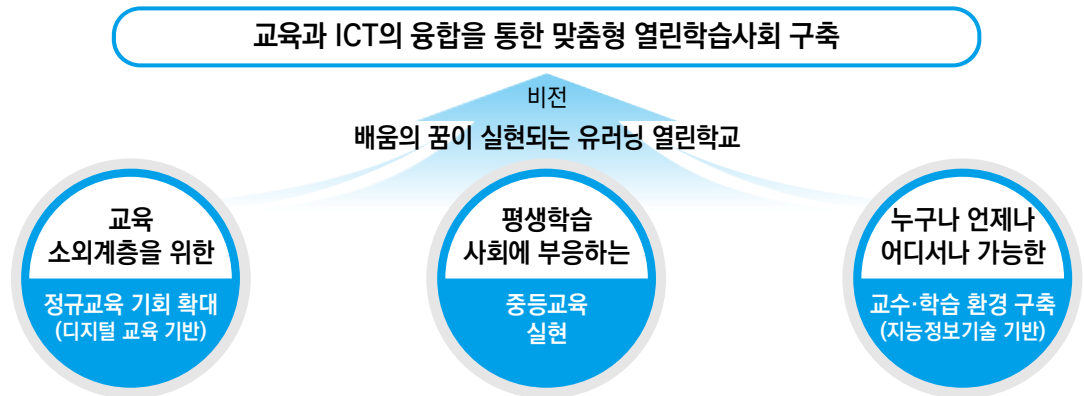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사업 추진 체계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송중·고의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중·고 운영사업은 중등학력 미만 대상자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학업 부적응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으로의 연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2017년까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로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 '디지털교육연구센터'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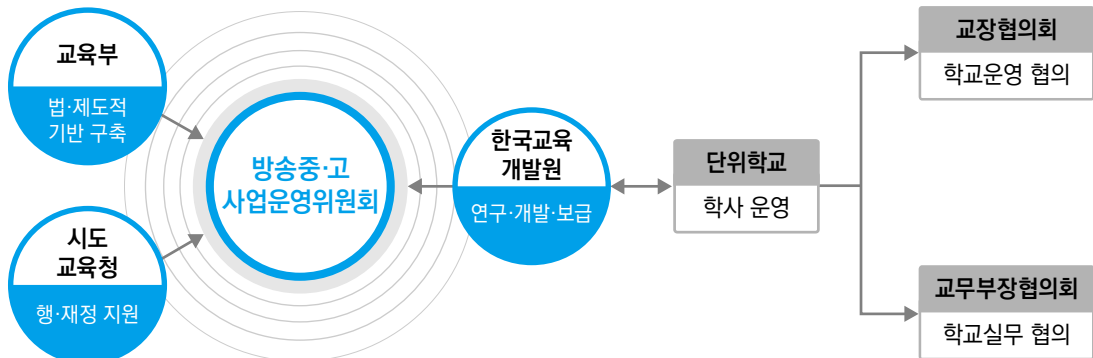
방송중·고 운영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그림 II-1]과 같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실현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배움의 꿈이 실현되는 유러닝(u-learning) 열린 학교’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학습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II-1] 방송중·고의 비전 및 목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방송중·고 운영사업의 추진 체계는 [그림 II-2]와 같이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단위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중심으로 방송중·고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심의 및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중·고 사업운영위원회, 방송중·고 학사운영 및 현안 문제 개선을 위한 교장협의회, 교무부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2] 방송중·고 설치·운영 추진 체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나. 방송중·고 운영 현황

1)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현황

최근 7년간 방송통신중학교(이하 '방송중')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10>과 같다. 방송중은 2013년 광주와 대구 지역에 각 1개교가 최초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9년에 충남에서 1개교가 추가 개교함으로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총 24개교가 운영 중이다. 방송중의 총 재학생은 2019년 4월 기준 4,726명이다. 이 중 서울의 아현중 부설 방송중은 타 방송중과는 달리 성인반과 함께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의 대구고⁸⁾ 부설 방송중 역시 2017년까지 성인반과 청소년반을 운영했으나 2018년부터는 성인반만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반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인 '해울중·고등학교'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도 고등학교인 학성고에 방송중을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10> 방송중 운영 현황(2013~2019년)

(단위: 개,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설치 시도 수	2	5	8	13	13	16	16
학교 수	2	6	12	20	20	23	24 ⁹⁾
편성 학급 수	5	30	81	123	154	174	186
학생 수	160	826	2,074	3,241	3,970	4,476	4,726
교원 수 ¹⁾	14	88	198	345	442	528	56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주1) 방송중의 전담 교원이 아니라, 방송중을 부설하고 있는 학교 또는 협력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겸직하고 있음.

2019년 기준 방송중 재학생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2,582명(54.6%)으로 가장 많으며, 50대 1,466명(31.0%), 70대 530명(11.2%), 40대 77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학생이 4,601명으로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97.4%로 매우 높다. 이는 방송중이 개교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연장자에게 입학의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2013년 설치 이후 2019년까지 방송중 학생의 연령별 분포는 <표 II-11>과 같다.

8)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에 따라 방송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부설할 수 있음.

9) 방송중 지역별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 1개교, 부산광역시 1개교, 대구광역시 1개교, 인천광역시 1개교, 광주광역시 1개교, 대전광역시 1개교, 울산광역시 1개교, 경기도 4개교, 강원도 3개교, 충청북도 1개교, 충청남도 2개교, 전라북도 1개교, 전라남도 2개교, 경상북도 1개교, 경상남도 2개교, 제주특별자치도 1개교

<표 II-11> 방송중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령별	10대	1 (0.6)	40 (4.8)	90 (4.3)	69 (2.1)	41 (1.0)	16 (0.4)	7 (0.2)
	20대	0 (0.0)	5 (0.6)	9 (0.4)	19 (0.6)	23 (0.6)	21 (0.5)	13 (0.3)
	30대	1 (0.6)	9 (1.1)	26 (1.3)	23 (0.7)	27 (0.7)	29 (0.6)	28 (0.6)
	40대	8 (5.0)	48 (5.8)	112 (5.4)	118 (3.6)	130 (3.3)	105 (2.3)	77 (1.6)
	50대	68 (42.5)	407 (49.3)	887 (42.8)	1,479 (45.6)	1,720 (43.3)	1,752 (39.1)	1,466 (31.0)
	60대	76 (47.5)	288 (34.9)	819 (39.5)	1,314 (40.5)	1,714 (43.2)	2,152 (48.1)	2,582 (54.6)
	70대	6 (3.8)	29 (3.5)	126 (6.1)	213 (6.6)	301 (7.6)	389 (8.7)	530 (11.2)
	80대 이상	— ¹⁾	—	5 (0.2)	6 (0.2)	14 (0.3)	12 (0.3)	23 (0.5)
계		160 (100.0)	826 (100.0)	2,074 (100.0)	3,241 (100.0)	3,970 (100.0)	4,476 (100.0)	4,726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주1) 2013, 2014학년도에는 연령대 구분을 '70대 이상'(80대 포함)으로 조사하였음.

방송중은 2013년 처음 개교하여 2016년 처음으로 2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53명이 졸업하였다. 2019년 졸업생 1,353명¹⁰⁾ 중 1,162명(85.9%)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자 중에서 98.0%에 해당하는 1,139명이 방송고로 진학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d). 최근 5년간(2015~2019년) 방송중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방송중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2015~2019년)

(단위: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졸업생 수	1 ¹⁾	201	642	1,097	1,353
진학생 수	1	84	588	852	1,162
진학률	100.0	42.0 ²⁾	91.6	77.7	85.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주1)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조기졸업자 1명을 나타냄.

주2) 졸업생 배출 학교(6개교) 중 3개교(아현중, 광주북성중, 경원중)는 진학 현황 조사 미실시로 반영하지 않음.

10) 2019년 2월 졸업생 기준

2)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현황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42개교¹¹⁾가 운영 중이며, 2019년 4월 기준 총 재학생은 9,869명이다. <표 II-13> 2019년 기준 방송고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학생이 2,991명(3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60대 2,474명(25.1%), 10대 1,353명(13.7%), 40대 991명(10.0%), 20대 793명(8.0%), 30대 732명(7.4%), 70대 이상 535명(5.4%)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중과 달리 방송고는 10대 학생 수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에도 50대 이상의 학생 수는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중을 졸업한 고령자들이 방송고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단계인 방송중은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가 없는 반면, 방송고는 일정 수업료를 학생이 부담한다. 방송고의 수업료는 시도별 상황에 맞추어 책정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학기당 53,074원이다. 방송고의 시도별 학습자 부담 비용¹²⁾을 살펴보면 서울(101,400원), 부산(90,400원), 광주(83,700원), 대전(83,400원)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32,634원)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형료를 제외하고 방송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개 지역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다. 방송고 무상교육을 가장 먼저 추진한 곳은 제주로, 2018년부터 방송고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은 2019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김성미·김상철, 2019).

11) 방송고 지역별 설치 현황: 서울특별시 5개교, 부산광역시 2개교, 대구광역시 1개교, 인천광역시 2개교, 광주광역시 2개교, 대전광역시 2개교, 울산광역시 1개교, 경기도 5개교, 강원도 7개교, 충청북도 2개교, 충청남도 2개교, 전라북도 2개교, 전라남도 2개교, 경상북도 4개교, 경상남도 2개교, 제주특별자치도 1개교

12) 입학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함.

<표 II-13> 방송고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령별	10대	2,520 (18.9)	2,654 (21.9)	2,332 (20.4)	2,076 (18.9)	1,790 (17.3)	1,583 (16.0)	1,353 (13.7)
	20대	2472 (18.6)	2,101 (17.3)	1,865 (16.3)	1,669 (15.2)	1,364 (13.1)	1,142 (11.6)	793 (8.0)
	30대	1396 (10.5)	1,189 (9.8)	1,229 (10.7)	1,142 (10.4)	1,089 (10.5)	912 (9.2)	732 (7.4)
	40대	2521 (18.9)	2,074 (17.1)	1,865 (16.3)	1,728 (15.7)	1,598 (15.4)	1,291 (13.1)	991 (10.0)
	50대	3422 (25.7)	3,045 (25.1)	3,029 (26.5)	3,040 (27.6)	2,989 (28.8)	2,799 (28.3)	2,991 (30.3)
	60대	915 (6.9)	975 (8.0)	1,021 (8.9)	1,182 (10.7)	1,372 (13.2)	1,751 (17.7)	2,474 (25.1)
	70대 이상	74 (0.6)	98 (0.8)	101 (0.9)	159 (1.5)	176 (1.7)	403 (4.1)	535 (5.4)
계		13,320 (100.0)	12,136 (100.0)	11,442 (100.0)	10,996 (100.0)	10,378 (100.0)	9,881 (100.0)	9,869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e). 2019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19년 방송고 졸업생은 총 3,342명으로 이 중에서 40.1%에 해당하는 1,33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이는 4년제 대학 704명(52.6%), 2~3년제 대학 628명(46.9%), 유학 7명(0.5%)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생은 방송대 42.5%, 일반대 29.3%, 원격 및 사이버대 28.3% 순이며, 2~3년제 대학 진학생은 전문대 93.0%, 원격 및 사이버대 6.4%, 폴리텍대학교 0.6%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9e). <표 II-14>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을 나타낸다.

<표 II-14> 방송고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졸업생 수	4,267	3,775	3,616	3,523	3,342
진학생 수	1,579	1,430	1,273	1,455	1,339
진학률	37.0	37.9	35.2	41.3	40.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e). 2019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다.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¹³⁾

1) 방송중·고 학점제 도입 및 수업연한 유연화 방안 마련

최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고교 학사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방송고 역시 학점제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반고와 구별되는 방송고의 특성을 고려한 학점제 도입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후 중학교 단계로 점진적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상대적으로 수업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점제 도입이 중학교 급에서 추진될 경우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중·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업연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2년, 최대 6년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사운영 방안 강구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방송중·고의 특성에 부합한 학점제 도입 및 수업연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손찬희 외, 2018)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학교가 2019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연구학교는 총 3개교로 방송중은 화명중, 방송고는 수성고, 서현고이다. 화명중은 수업연한 단축과 연장을 위해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칙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고, 수성고는 학점제와 수업연한 유연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학습자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맞춤형 지원체제 개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했으며, 서현고는 2019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과 장래희망 현황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b).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2차년도 연구학교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2) 방송중·고를 통한 학력 취득 기회 확대

학력 취득 기회 확대 측면에서 방송중·고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충청남도에 방송중 1개교가 추가로 개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방송중 운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둘째, 방송중·고를 통한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이라는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공중파를 통한 공익 광고 영상 제작·송출과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전국 만 15세~75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중·고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방송중

13) 2019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9c)와 2019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9a)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17.0%, 방송고 32.2%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중·고의 홍보 공익 광고 캠페인으로 제작된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 나에게 선물하세요’는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라이브이벤트 부문 소비자이벤트혁신상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한 다양한 경험을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2019년에는 48개교의 232명(방송중 50명, 방송고 182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방송중에서는 29명, 방송고에서는 67명의 학생이 조기졸업 하였다.

넷째, 2019년 방송중 졸업생 1,353명 중 85.9%에 해당하는 1,16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진학생 중 98.0%인 1,139명이 방송고로 진학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9년 방송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체 3,342명 중 40.1%인 1,339명이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 및 사이버대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3)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송중·고 학생 맞춤형 교육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수학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학습더하기’라는 실시간 화상수업 온라인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수업 참여와 즉각적 피드백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방송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더하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어·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방송중 학생들은 87.5%, 방송고 학생들은 76.3%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둘째, 방송중 학생들의 자기이해 증진과 학교 적응력 함양을 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개 학교 1,333명을 대상으로 자기이해(16가지 성격유형, MBTI)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은 대인관계,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이해 및 진로(진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학업적응력 제고를 위해 인성·진로교육을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인성·진로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학교 단위 현장 컨설팅을 운영했으며, 단위 학교의 인성·진로교육 수업자료(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러한 맞춤형 상담(인성·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생들은 87.1%의 만족도를, 담당교원 컨설팅 추진에 대해 교원들은 94.6%의 만족도를 보였다.

4) 방송중·고 교수학습체제 개선

방송중·고 교수학습체제 개선과 관련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고의 수업이 주로 방송·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디지털 학습 적응력 제고를 위해 ICT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신입생을 대상으로 ICT 활용능력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찾아가는 ICT 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ICT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둘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중·고 교수학습체제를 고도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방송중·고 디지털 학습 3차년 콘텐츠의 고도화(동영상 내 상호 작용 기능 추가 개발, VR을 활용한 학습활동 개발, 인권·윤리·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및 반영)를 추진하였고, 2019년도 방송중·고 교과내용 검토 교사 운영 및 단계별 교과교재 품질 관리를 통해 2020학년도 교과교재의 정확성 및 완성도를 향상시켰다.

셋째, 디지털 학습 콘텐츠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중 사용성 검사를 통해 학습자 눈높이에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학습자 맞춤형 VR(Virtual Reality)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학습 활동 구동 방법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별도로 제공하였으며, 텍스트 가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춘 활동 지시문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3. 향후 과제¹⁴⁾

방송중·고는 안정적 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교육 소외계층과 학업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 수요 및 원격 수업 기반의 중등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중·고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중·고 운영 측면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고 중장기 수요 예측 연구」(김성미 외, 2019)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중·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중·고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방송중·고의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입학률 비롯한 운영 방식을 다양화,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방송중·고 학습

14) 2019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9c)와 2019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9a)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수요에 고루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이나 학습 목적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교육 내에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유입되고 있는 신규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이를 위한 방송중·고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방송중·고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고 홍보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 연령, 지역, 직업, 학력에 따른 인지도 및 인지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가 높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 및 지역별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잠재 수요자들이 방송중·고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입학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시기와 기준에 맞는 운영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인정대상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신청 학습경험을 효율적으로 인정하는 현 제도의 장점에 기반한 방안과 방송중·고 학생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학습경험의 인정 방식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2020년에 추진될 예정이며, 해당 연구 결과를 향후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방송중·고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동영상 중심의 학습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추가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습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방송중·고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학습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방송중·고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2020년 수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중·고 차세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도출된 단계별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웹 표준지침과 기술을 준수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학습의 효과성과 시스템의 사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성미·김상철(2019). 평생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현황. 교육개발, 46(3).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미·손찬희·이광현·이길재·김동심·김상철·박주희(2019). 방송중·고 중장기 수요 예측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손찬희·김성미·이유리·이은철·김진숙·박대규(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및 수업연한 유연화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 결과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9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9e). 2019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Ⅲ. 독학학위제

1. 개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개방형 고등교육제도이다. 1980년대 후반,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 해소 및 재수생 문제 해결 그리고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갖춘 자가 자학자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1~4과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1990년 중앙교육평가원 주관하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1998년 관련 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되었고,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 검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1990년 4월 7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4227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같은 해 5월 3일에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00호)을, 5월 18일에는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586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1990년 10월 21일, 제1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이 중앙교육평가원 주관 아래 시행되었다. 독학학위제의 주요 추진 경과와 같은 다음과 같다.

<표 II-15> 독학학위제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4227호) 제정·공포
1990년 6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 설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 개시
1990년 10월	제1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6개 전공)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
1992년 4월	5개 전공 신설(행정학, 유아교육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1993년 2월	제1회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147명)
1995년 7월	1개 전공 신설(중어중문학)
1998년 1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업무 이관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기관 변경
2013년 7월	1개 전공 신설(정보통신학)
2014년 2월	1개 전공 신설(심리학)
2015년 9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13223호) 일부 개정
2017년 2월	2017년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974명)
2018년 2월	2018년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887명)
2019년 1월	교양 분야 11과목 개정 고시(2020년 시행)
2019년 2월	2019년 학사학위수여식 개최(학위취득자 834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가. 제도 현황

1) 학위종별 전공

독학학위제는 문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공학사 등 10개 학위종별 11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16>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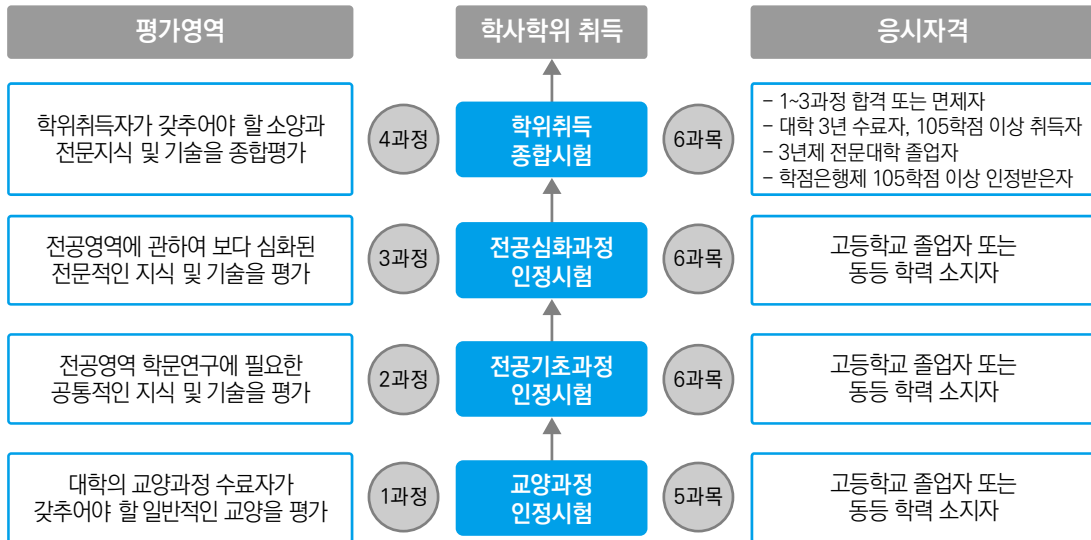
학위종별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중어중문학*
법학사	법학
행정학사	행정학
경영학사	경영학
이학사	수학*
공학사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가정학사	가정학
간호학사	간호학**
교육학사	유아교육학**
농학사	농학*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 *신규 응시 폐지 전공, ** 3(4)과정만 지원 가능.

2) 학위취득의 과정

독학학위제는 총 4개 과정의 시험(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평가영역 및 응시자격은 아래의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의 과정

3) 시험 실시 현황

독학학위제 시험 지원자는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이후,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시행 등을 통하여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4년에 걸쳐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9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응시자격¹⁵⁾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1과정, 2과정, 3과정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2016년 4월)함에 따라 지원자가 다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1.7%가 증가한 31,697명의 학습자가 시험에 지원하였다. 다음 <표 II-17>은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이다.

15) 1단계 시험인 교양과정 인정시험은 대학교 1학년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대학교 2학년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대학교 3학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음.

<표 II-17>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양과정 인정시험 (1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4과정)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2015년	12,270	8,722	6,278	8,662	6,412	4,170	3,376	2,429	1,953	3,910	3,003	1,057
2016년	11,313	7,874	5,071	9,456	6,659	4,254	4,389	3,097	1,960	3,539	2,645	974
2017년	11,538	8,308	5,755	9,655	7,105	5,602	4,587	3,202	1,989	3,208	2,401	887
2018년	10,658	7,545	5,246	10,112	7,448	5,476	4,726	3,314	1,961	2,869	2,146	976
2019년	11,695	8,489	6,511	11,796	8,846	6,529	5,495	3,836	2,376	2,711	2,025	834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1~3과정 합격자는 1과목 이상 합격자 수이며, 4과정 합격자는 학위취득자 수임.

4) 학위취득자 현황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 소폭 상승 후 다시 감소했다. 특히 간호학 학위취득자는 전년 대비 35.8%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4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 전공분야의 응시자가 전년 대비 20.3%(232명)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에 따라 전문대학에 설치된 3년제 간호학과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4년제로 승격시켜, 2019년 대입 기준, 전체 86개의 전문대학 중 약 98%의 대학이 모두 4년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분야의 응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공분야 증설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의 <표 II-18>은 전공별 학위취득자 현황이다.

<표 II-18>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현황

(단위: 명)

연도	199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국어국문학	1,658	108	94	144	99	134	124	84	77	94	76	2,692
영어영문학	1,896	166	238	222	214	229	159	90	112	113	112	3,551
중어중문학	22	1	0	0	0	0	0	0	1	0	0	24
심리학	-	-	-	-	-	7	19	15	20	24	29	114
경영학	851	38	45	51	54	48	28	19	22	32	34	1,222
법학	838	37	54	41	32	36	33	27	35	32	42	1,207
행정학	640	11	21	19	22	12	6	10	5	10	10	766
유아교육학	1,973	69	54	51	99	83	132	76	81	129	173	2,920

전공\연도	199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수학	24	0	2	0	0	0	0	0	0	0	0	26
가정학	1,119	56	49	54	59	71	29	26	20	30	12	1,525
농학	40	0	0	0	1	0	0	0	0	1	0	42
컴퓨터과학	2,097	63	51	66	70	67	67	32	37	67	60	2,677
정보통신학	-	-	-	-	2	3	3	1	0	3	3	15
간호학	747	193	179	302	309	668	457	594	477	441	283	4,650
계	11,905	742	787	950	961	1,358	1,057	974	887	976	834	21,431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분야는 2003~2006년까지 순차로 폐지, 기존 학적보유자만 응시 가능함.

주2) 정보통신학(2013년), 심리학(2014년) 분야는 산설 전공임.

<표 II-19>의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30대의 학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비율은 86.1%이다. 이는 독학학위제가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정규학교 졸업 후에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평생교육제도임을 알 수 있다.

<표 II-19>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연도\연령	24세 이하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2015년	211 (20.0)	294 (27.8)	311 (29.4)	166 (15.7)	75 (7.1)	1,057 (100.0)
2016년	116 (11.9)	326 (33.5)	294 (30.2)	177 (18.2)	61 (6.3)	974 (100.0)
2017년	127 (14.3)	247 (27.8)	276 (31.1)	177 (20.0)	60 (6.8)	887 (100.0)
2018년	116 (11.9)	265 (27.2)	308 (31.5)	213 (21.8)	74 (7.6)	976 (100.0)
2019년	116 (13.9)	193 (23.1)	301 (36.1)	158 (18.9)	66 (7.9)	83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제도 운영 성과

독학학위제는 11개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간호학)의 217개 시험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총 3개 전공의 폐지 이후, 9개 전공으로 운영되는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3년 2개 전공(심리학, 정보통신학) 분야를 신설하였다. 이 중, 심리학 전공은 2014년 1,487명에서 2019년 4,621명으로 지원자가 세 배 이상 급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1~3과정의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하였다. 응시자격 완화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독학자의 학습의지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독학사 시험 지원자가 응시자격이 완화·적용된 2016년부터 소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위취득 이외에도 교육수요(학점인정,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 등)가 증가하여 학습 경험 인정의 징검다리로서 독학학위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는 선택형과 서술적 단답형 혼합으로 출제되던 시험 문항의 유형이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의 경우 선택형으로 변경되었다.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의 시험 문항 유형은 객관식(사지선다형)이며, 문항 수는 총 40문항(예외 과목은 25문항)이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문항 유형은 객관식(사지선다형)과 서술형 주관식이며, 문항 수는 총 28문항(예외 과목 20문항)이다.

또한 독학학위제는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시대적·학문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험 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교양분야의 시험 과목 및 평가영역, 그리고 공학계열(컴퓨터과학 전공, 정보통신학 전공)의 시험 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 문항 출제에 참여하는 11개 전공별 외부 전문가 118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2017년 연구 및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교양분야 11개 과목의 과목명 및 평가영역을 개정하여 관보 고시 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대적·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자(2013년~2017년, 총 502표본)의 학위 취득 전후의 경력 변화 등 사회적 경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독학학위 취득자의 사회적 경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명 중 7명이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타인 추천 의향 및 사회적 유용성은 만족도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독학학위 취득 전후의 직업 변화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무직의 경우 54.9%가 직업의 변화를 보여 독학학위제가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향후 과제

독학학위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학습 병행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매년 약 3만 명의 학습자가 독학학위제 시험에 지원하고 약 천 명의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의 학력 보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필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계속교육의 차원에서 독학학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전공분야별 참여 학습자 현황 및 사회적인 수요 전공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공 증설과 함께 기존 전공분야의 융·통합 그리고 수요가 적은 전공분야의 폐지, 평가영역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평생교육의 수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받고, 시험을 통해 검정받은 개인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인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학학위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학습자 불편사항을 분석·개선하여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 대학 등 학위취득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독학학위제의 지원자 및 합격자 추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유용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 유인 및 저해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활한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위취득자의 사회적 경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이유, 목적, 진학과 취업 등 활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독학학위제의 사회적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학점은행제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434호)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학점은행제를 토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정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는 정규 고등교육의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방형 평생학습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 한국교육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1998년 3월부터 실행되었고,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와 함께 고등교육 불수혜 집단에 고등교육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 부문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규 학교교육 밖에서 이수한 결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교육력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 밖 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경과

1997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은행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곧바로 동년 9월 11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고 1998년 2월 28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학점은행제의 주요 추

진 경과는 다음 <표 II-20>과 같다.

<표 II-20>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1997년 9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1998년 2월	제1차 표준교육과정, 제1차 교수요목 고시(41개 전공, 167개 과목)
1998년 3월	제1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1개 기관, 274개 과목)
1999년 8월	1999년도 하반기 학위 수여(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2003년 3월	10개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3년 3월	11개 군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4년 3월	제1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개 기관, 42개 과목)
2006년 3월	20개 간호·보건계열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기관 변경
2015년 3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년 11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시스템 「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
2019년 2월	2019년 전기 학위수여(학사 16,395명, 전문학사 13,646명)
2019년 8월	2019년 후기 학위수여(학사 16,319명, 전문학사 8,727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운영체제

학점은행제는 다음 [그림 II-4]와 같이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국가자격과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등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 대학)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제적 혹은 졸업한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시간제등록	자격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고시에 포함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무형문화재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이거나,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

[그림 II-4] 학점은행제 학점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의한 수여 방식과 대학의 장 명의로 의한 수여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 종류와 전공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 학위의 종류

에 따른 전공,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전공별 학위수여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이다. 표준교육과정은 노동 시장 등 사회적 요구와의 부합성, 학문적 타당성, 현실성,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나. 제도 현황

1) 학습자 현황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분기별로 최초 학점인정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인적사항·학력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등록하고 학습자번호(학번)를 부여받게 된다. 2019년에는 약 15만여 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기 위해 등록하였고, 최근 5년간(2015~2019) 등록 학습자는 연평균 약 1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까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한 누적 학습자 수는 약 168만 명으로 학점은행제는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여 년 만에 매우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II-22>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단위: 명)

연도	상반기			하반기			계
	1분기	2분기	소계	3분기	4분기	소계	
2015년	21,285	48,775	70,060	21,804	21,872	43,676	113,736
2016년	20,883	49,682	70,565	21,932	24,163	46,095	116,660
2017년	22,628	45,254	67,882	23,338	24,222	47,560	115,442
2018년	25,082	42,725	67,807	23,663	26,848	50,511	118,318
2019년	28,976	48,513	77,489	36,900	35,975	72,875	150,364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 학점인정 현황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된 학점은 약 917만여 학점으로 이 중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7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이수(19.5%), 자격 취득(6.4%)의 순서로 학점을 인정받았다. 현재 인정되는 학점원 중 상기한 3가지 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이 전체 학점 중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학습경험인 시간제등록을

통한 이수(1.3%),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인정(1.3%),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한 학점인정 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현황에서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이 2015년 3.7%에서 2019년 6.6%로 증가 추세라는 점,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인정은 2015년 2.7%에서 2019년 1.3%로 감소 추세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I-23> 최근 5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단위: 학점, %)

연도	학점원별 인정 학점							계
	평가인정 학습과정	자격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시간제 이수	
			시험합격	면제과정				
2015년	5,812,088 (72.0)	302,151 (3.7)	93,647 (1.2)	2,990 (0.0)	1,647,862 (20.4)	543 (0.0)	216,686 (2.7)	8,075,967 (100.0)
2016년	5,899,644 (72.6)	379,914 (4.7)	80,366 (1.0)	2,440 (0.0)	1,586,769 (19.5)	575 (0.0)	174,384 (2.1)	8,124,092 (100.0)
2017년	6,247,888 (73.0)	481,627 (5.6)	95,985 (1.1)	2,873 (0.0)	1,590,597 (18.6)	598 (0.0)	136,443 (1.6)	8,556,011 (100.0)
2018년	5,857,226 (71.0)	542,831 (6.6)	96,658 (1.2)	3,853 (0.0)	1,616,137 (19.6)	363 (0.0)	126,989 (1.5)	8,244,057 (100.0)
2019년	6,559,213 (71.5)	585,783 (6.4)	120,903 (1.3)	2,816 (0.0)	1,786,179 (19.5)	248 (0.0)	123,462 (1.3)	9,178,604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학위수여 현황

학점은행제의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는 학사 학위취득자가 전문학사 학위취득자보다 많다. 학사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문학사보다는 상위 학위인 학사 학위를 더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2015~2016년에 약 5만 8천여 명이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약 7만 3천 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8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학위취득자 수준인 약 5만 2천 명이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2019년에 약 5만 5천 명이 학위를 취득하여 그 수가 2015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상기와 같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수의 변동은 자격취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시기까지 학

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늘어난 필수교과목과 대면교과목 등을 이수해야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자격기준 강화 이전인 2017년에 학위취득을 희망함에 따라 2017년의 학위취득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24〉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전문학사	학사	계
2015년	27,913	30,070	57,983
2016년	26,525	31,538	58,063
2017년	34,877	37,889	72,766
2018년	21,604	30,001	51,605
2019년	22,373	32,714	55,08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다음 〈표 II-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총 학위취득자 중에서 30세 미만 학위취득자(24세 이하 20.1%, 25~29세는 20.2%)는 약 40%, 30대(30~39세)와 40대(40~49세) 학위취득자는 그와 비슷한 약 22%, 50대 이상(50세 이상) 학위취득자는 약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전통적 학습자(성인학습자, 30세 이상)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점은행제가 성인들의 평생학습제도로 자리를 굳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5〉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령	24세 이하	25~29세	30대	40대	50세 이상	계
2015년		11,530 (19.9)	10,281 (17.7)	16,400 (28.3)	13,794 (23.8)	5,978 (10.3)	57,983 (100.0)
2016년		11,782 (20.3)	10,802 (18.6)	15,481 (26.7)	13,622 (23.5)	6,376 (11.0)	58,063 (100.0)
2017년		12,201 (16.8)	12,938 (17.8)	22,446 (30.8)	17,774 (24.4)	7,407 (10.2)	72,766 (100.0)
2018년		11,215 (21.7)	10,489 (20.3)	11,072 (21.5)	11,423 (22.1)	7,406 (14.4)	51,605 (100.0)
2019년		11,070 (20.1)	11,136 (20.2)	12,075 (21.9)	12,499 (22.7)	8,307 (15.1)	55,087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4) 평가인정 현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은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대학 수준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총 433개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별 현황은 다음의 <표 II-26>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125개(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시설’ 96개(22.2%), ‘인적직업훈련원’ 66개(15.2%),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교육시설’ 38개(8.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교육훈련기관의 약 46.7%에 해당하는 202개 교육훈련기관이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6>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 %)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율
대학 등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125	28.9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73	16.9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	0.9
	소계	202	46.7
직업훈련 시설	공공직업훈련원	1	0.2
	인정직업훈련원	66	15.2
	소계	67	15.5
학원	기술계학원	7	1.6
	사회계학원	9	2.1
	예능계학원	1	0.2
	소계	17	3.9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7	1.6
정부·지방자치 등 교육시설		38	8.8
평생교육시설		96	22.2
K-MOOC		6	1.4
계		433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5) 표준교육과정 현황

표준교육과정은 1998년 2월에 41개 전공을 고시한 이후, 2019년까지 24차에 걸쳐 학사 115개, 전문학사 110개 전공이 개발·고시되어 있다. 2019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을 살펴보면, 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등 26개 학위종류, 115개 전공을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가정전문학사를 비롯하여 13개 학위종류, 110개 전공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27>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단위: 개)

구분	학위 종류	전공 수
학사	가정학사, 간호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무용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법학사, 보건학사, 세무학사, 수사학사, 신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이학사, 지식재산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해양학사, 행정학사(총 26개)	115
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생명산업전문학사, 언어전문학사, 예술전문학사, 의료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총 13개)	110

출처: 교육부(2019).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4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제2019-181호).

다. 운영 성과

학점은행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학습수요의 변화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실현 및 이를 통한 국민(학습자)의 배움 여건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 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9년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첫째, 국민(학습자)의 K-MOOC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최초로 추진하였다. 이는 2018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되면서 K-MOOC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K-MOOC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표 II-28>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경과

일자	주요 추진 내용
2018. 8. 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8. 11. 1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공포 ※ 시행일 2019. 1. 1.
2018. 11. 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8. 12. 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공포 ※ 시행일 201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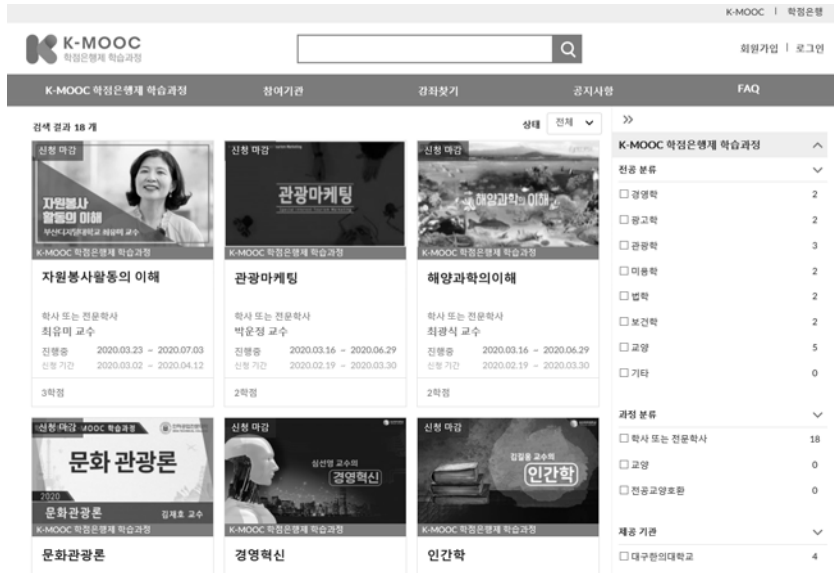
K-MOOC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통해 K-MOOC의 우수한 강좌를 수강한 국민들이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전 국민의 학점은행제 참여 기회를 확장함과 함께, 다양한 K-MOOC의 강좌들이 학점은행제 영역으로 공급됨으로써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학점은행제 제1차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2019년 4월에 기본계획(교육부)이 공고되었으며,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의 시행을 K-MOOC 참여 대학에 안내하였다. 이어 2019년 5월 사업 신청 기간에 6개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결과 6개 대학의 11개 학습과정을 평가인정(2019. 6.) 하였으며, 8월에는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이트(cb.kmooc.kr) 오픈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학습과정을 제공하였다.

학점은행제 K-MOOC 평가인정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주요 추진 경과
 - 2019. 4.: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2019. 5.: 평가인정 신청 접수(총 6개 대학, 12개 학습과정 접수)
 - 2019. 6.: 평가인정 결과 통보(총 6개 대학, 11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 2019. 8.: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이트 개통 및 학습과정 운영

- 학점은행제 제1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기관명	제주대학교	대구의대학교	동명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성신여자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습과정 (표준교육 과정)	해양과학의이해 관광마케팅	한의학개론 화장품학	소자본창업경영	문화관광론	경영혁신 설득커뮤니케이션 인간학 헌법 I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그림 II-5]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이트(cb.kmooc.kr)

둘째,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군 장병 학습자의 학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점은행제는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자가 군 특기병 교육훈련 이수 시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군 생활로 인한 교육 및 취업 단절 해소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보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종전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는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 당 수업 기간’을 4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4주 이상의 특기병 교육훈련과정에 한해서만 평가인정이 가능하였고,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이 4주 미만으로 단축된 특기병 수료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군 특기병 교육훈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정하였다.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평가인정 관계 법령 개정 사항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 시간)
 -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II-4-가. 수업 기간 및 시간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원격수업 및 K-MOOC 학습과정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함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II-7-다.
 -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제11차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년도(2018년) 신청 학습과정 수(28개) 대비 2019년 신청 학습과정 수는 59개로, 대폭 증가(21개)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산업 분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계열과 관련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고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교육과정은 전공 수준이 아닌 일부 학습과목에 국한된 형태로 개설·고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체제 개선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관련 연구를 추진(2018년 10월~2019년 2월)하였으며, 그 결과 신산업 분야(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표준교육과정 전공·교수요목 개발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상의 2019년 학점은행제 성과는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과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K-MOOC 학습과정의 학점인정을 통해 더욱 많은 학습자에게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학점은행제 제1차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11개 학습과정의 총정원 4,800명이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은 기존 대다수의 학점은행제 과정과 달리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함께 학습비 경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완화를 통하여 소외된 계층의 학습기회 마련에 기여하였고, 이는 국군 장병의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제도 내에도 다양한 전공의 새로운 학습과정이 공급됨으로써 학습과정의 다양성 측면에서 활력소가 되었다.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기존에 검증된 K-MOOC 강좌가 학점은행제 영역으로 포함되었으며, 신산업 분야의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전공이 학점은행제 전공으로 신설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되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인학습자의 유연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향후 과제

향후 학점은행제는 변화하는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학습자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 해 다양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었지만, 아직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2019년 완료된 ‘신산업 분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공 신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러 전공 중 인공지능(AI)을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AI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도 관련 전공 및 학습과정의 신설을 통하여 국가의 AI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점은행제 원격수업 기반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 설비를 규정한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도 서버 운영 등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에서도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학점은행제 내부 자료.
- 교육부(2019).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4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제2019-181호).
- 교육부(2019). 2019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홈페이지. <https://cb.kmooc.kr>

제2절

성인문해교육



1. 개요

‘문해능력’은 단순히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역량으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과거에 글을 몰라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과 화해하고, 현재의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약 7.2%에 해당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또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약 517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13.1%가 문해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5).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문해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문해 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학력 학습자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고학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문해교육 인식확산 및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 사업 형태로 추진하며, 시도 단위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 야학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문해교사가 기관 접근이 어려운 개인 학습자를 찾아가는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지원’으로 구분된다.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역 단위의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역 간 공동사업인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및 보수교육,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2016년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총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설립되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저학력·비문해 학습자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공공기관(기초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및 비영리기관(야학, 복지관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평생교육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지역 내 문해교육 기반 및 관심 확대를 위하여 국고 지원액의 70% 이상의 대응투자액을 필수 확보하여야 한다(2020년은 대응투자 100%). 2019년에는 교육소외지역 문해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 직영의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액을 당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한으로 상향하여 농산어촌의 교육기회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문해 학습자 맞춤형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 문해교육 사례 확산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기관당 최대 500만 원)하며,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인문학, 생활문해교육, 문화예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성과물을 산출해냄으로써, 전국 단위의 문해교육 우수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의 경우 2019년에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건강,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개인 학습자를 위해 문해교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지방자치단체당 최대 1,000만 원)이다. 2019년 시범 사업에는 총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세부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시도진흥원), 시도교육청]는 시도 단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표 II-29>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체제

추진체제	주요 역할
〈총괄 기획·조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 타 부처 역할 조정·협업 강화
〈사업전담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사업 신청서 접수·선정·평가 - 사업수행 지원, 결과 분석 등
〈시도 단위 사업 주체〉 시도(시도진흥원) 및 시도교육청	-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설치·지정 - 문해교육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시군구 단위 지원 주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 신청서 작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 문해교육기관 지도·점검
〈사업 수행기관〉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개설·운영, 학습자 관리,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006년부터 추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4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누적하여 약 298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었다. 2006년 13억 7,500만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19년 31억 9,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132% 성장하였다. 2006년 61개 지방자치단체, 178개 문해교육기관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에 165개 지방자치단체(전국의 72.1%), 407개 기관 참여로 확대되었으며, 누적 학습자 수는 약 41만여 명에 이른다.

〈표 II-30〉 2006~2019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명)

연도	국고지원액 ¹⁾	대응투자액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	참여자 ²⁾
2006년	1,375	828	61	178	14,668
2007년	1,800	1,619	108	356	21,294
2008년	2,000	3,000	118	439	25,579
2009년	2,000	2,424	130	353	24,638
2010년	2,000	2,398	134	348	23,778
2011년	1,800	2,068	129	360	20,135
2012년	1,500	2,026	107	189	16,334
2013년	1,950	2,263	130	261	19,745
2014년	2,200	3,132	142	306	23,879
2015년	2,250	3,398	146	318	35,614
2016년	2,436	4,978	162	384	36,039
2017년	2,436	5,862	165	377	39,732
2018년	2,960	6,628	160	389	51,901
2019년	3,190	7,175	165	407	63,201
계	29,897	47,799	-	-	416,537

출처: 교육부(2019). 2020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주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한함.

주2) 참여자는 공모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학력인정 프로그램 등록자, 성인문해교과서 무상보급 인원 등을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9년).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07개 문해교육기관에서 1,68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26,19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지역별 프로그램 개설은 경기도 총 73개 문해교육기관에서 23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3.7%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 학습자는 서울시 4,311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표 II-31〉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역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단위: 개, 명, %)

광역시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서울	61 (15.0)	200 (11.9)	4,311 (16.5)
부산	53 (13.0)	139 (8.3)	2,584 (9.9)
대구	33 (8.1)	89 (5.3)	1,458 (5.6)
인천	14 (3.4)	30 (1.8)	546 (2.1)
광주	15 (3.7)	39 (2.3)	597 (2.3)
대전	15 (3.7)	39 (2.3)	555 (2.1)
울산	5 (1.2)	14 (0.8)	200 (0.8)
경기	73 (17.9)	230 (13.7)	3,593 (13.7)

광역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강원	16 (3.9)	101 (6.0)	1,207 (4.6)
충북	15 (3.7)	64 (3.8)	867 (3.3)
충남	21 (5.2)	144 (8.6)	2,053 (7.8)
전북	23 (5.7)	111 (6.6)	1,558 (5.9)
전남	27 (6.6)	222 (13.2)	2,805 (10.7)
경북	12 (2.9)	44 (2.6)	721 (2.8)
경남	20 (4.9)	198 (11.8)	2,820 (10.8)
제주	4 (1.0)	18 (1.1)	321 (1.2)
계	407 (100.0)	1,682 (100.0)	26,19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결과 보고.

주) 본 개설 현황은 2019. 12.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초등 1단계(초등 1~2학년 수준), 초등 2단계(초등 3~4학년 수준), 초등 3단계(초등 5~6학년 수준), 중학 단계(중학 1~3학년 수준)로 구분된다. 2019년에는 총 1,682개 프로그램 중 초등 1단계가 959개로 전체의 57.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초등 2단계(368개, 21.9%), 초등 3단계(243개, 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2> 2019년 성인문해교육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단위: 개, 명, %)

구분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중학 단계	계
프로그램	959 (57.0)	368 (21.9)	243 (14.4)	112 (6.7)	1,682 (100.0)
학습자	14,299 (54.6)	6,058 (23.1)	3,963 (15.1)	1,876 (7.2)	26,19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결과 보고.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1,307개로 전체의 7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혼합 프로그램이 18.7%를 차지하였다. 학습자는 내국인이 24,162명으로 전체 학습자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3> 2019년 성인문해교육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단위: 개, 명, %)

구분	내국인	외국인 및 다문화	장애 성인	대상자 혼합	계
프로그램	1,307 (77.7)	26 (1.5)	35 (2.1)	314 (18.7)	1,682 (100.0)
학습자	24,162 (92.2)	1,503 (5.7)	501 (1.9)	30 (0.1)	26,19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결과 보고.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5,049명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하여 참여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6.9%(12,279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6,156명, 23.5%), 80대 이상(5,229명,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4〉 2019년 성인문해교육 성별·연령별 참여 학습자

(단위: 명, %)

연령	남성		여성		계	
20대	85	(0.3)	218	(0.8)	303	(1.2)
30대	72	(0.3)	281	(1.1)	353	(1.3)
40대	113	(0.4)	301	(1.1)	414	(1.6)
50대	156	(0.6)	1,298	(5.0)	1,454	(5.6)
60대	239	(0.9)	5,917	(22.6)	6,156	(23.5)
70대	343	(1.3)	11,936	(45.6)	12,279	(46.9)
80대 이상	136	(0.5)	5,093	(19.4)	5,229	(20.0)
기타 ¹⁾	3	(0.0)	5	(0.0)	8	(0.0)
계	1,147	(4.4)	25,049	(95.6)	26,19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결과 보고.

주1) 기타: 외국인(10대) 등 포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문해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기관 대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9년에는 16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총 27회 문해교육 교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해교육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정책 사업 신규 참여 문해교육기관(33개)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나.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는 18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시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가 안정적인 정책적 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의 추진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76조에 의거하여 문해교육 전반에 걸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문해교육 교육과정 맞춤형 성인문해교과서를 개발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문해교육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하며, 학습자의 학력충족 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한다. 시도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 교육과정, 교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경우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지정받은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들이 학력 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II-35>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추진체제

추진체제	주요 역할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문해교육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운영) - 성인문해교과서 개발,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시도교육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 성인학습자 학력충족 여부 심사 및 학력인정 실시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력인정 문해학습자 관리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문해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는 2011년 전국 6개 시도교육청, 42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하여 2017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국 265개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이 설치·지정되었다. 초등과정 운영기관이 총 199개로 다수를 차지하며, 중학과정 11개, 초등·중학과정 동시 운영은 55개 기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개, 경기도 53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6> 2019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설치·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설치	22	7	5	-	1	-	-	11	-	-	1	-	-	-	7	-	54
	지정	25	6	2	5	4	1	6	-	22	14	4	15	14	13	7	7	145
	계	47	13	7	5	5	1	6	-	33	14	4	16	14	13	7	14	199
중학	설치	-	-	1	-	1	-	-	-	-	-	-	-	-	-	-	-	2
	지정	-	-	1	-	2	1	-	2	-	-	1	1	-	1	-	-	9
	계	-	-	2	-	3	1	-	2	-	-	1	1	-	1	-	-	11
초등/ 중학	설치	-	-	-	-	-	-	-	-	-	-	-	-	-	-	-	-	-
	지정	15	4	-	1	1	-	-	18	2	3	6	-	2	1	1	1	55
	계	15	4	-	1	1	-	-	18	2	3	6	-	2	1	1	1	55
계	62	17	9	6	9	2	6	-	53	16	7	23	15	15	9	15	1	26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2019년 하반기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운영 결과 보고.

주1)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14,149명의 학습자가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초등과정 학력인정자는 현재까지 총 12,202명이며, 서울 지역이 4,065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한다. 중학과정 학력인정자는 1,947명으로, 역시 서울 지역이 645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7> 2011~2019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4,065	788	862	100	442	387	183	19	2,172	127	48	980	313	996	211	443	66	12,202
중학	645	-	480	-	170	194	-	-	380	-	-	33	-	30	-	-	15	1,947
계	4,710	788	1,342	100	612	581	183	19	2,552	127	48	1,013	313	1,026	211	443	81	14,14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2019년 하반기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운영 결과 보고.

2017년부터는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학력인정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자, 교원 등을 종합 DB로 구축·관리함으로써 학력인정체제의 체계적 운영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가 개정(교육부 제2018-157호)됨에 따라 생활문해교육 강화 등 실생활 중심 문해교육 기초가 강화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2018년에는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가 개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중학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중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수학, 과학 과목을 개정하고, 개정이 완료된 중학과정 성인문해교과서에 대해서는 추후 무상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문해 학습자의 교육 참여 촉진과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였다. 최소한의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성인문해교과서를 무상 보급하고, 교육기관이 없는 소외지역 학습자를 위한 EBS 성인문해교육방송을 제작·방영하였다. 아울러 문해 학습자의 기초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문해교육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문해교과서 무상보급’은 문해 학습자 대상 최소한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개인 또는 기관의 신청으로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문해교과서는 학습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1인당 5권의 교과서가 지원된다. 2019년에는 초등 성인문해교과서 중심으로 총 35,568명의 학습자에게 177,840권의 교과서를 지원하였다.

〈표 II-38〉 성인문해교과서 무상지원 현황

(단위: 명, 권)

교과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습자	배포	학습자	배포	학습자	배포	학습자	배포	학습자	배포
초등과정	45,553	216,805	44,373	220,884	6,308	39,030	5,398	26,990	35,568	177,840
중학과정	7,000	35,000	5,746	28,730	6,413	37,375	1,972	9,860	-	-
생활문해	-	-	-	-	27,000	27,000	13,500	13,500	-	-
계	52,553	251,805	50,119	249,614	39,721	103,405	20,870	50,350	35,568	177,84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EBS 성인문해교육방송’은 고령의 학습자, 교육소외지역 문해 대상자 등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하게 공부하는 학습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작·방영되었다. 2016~2017년에는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중심으로 총 130편을 방영하였다. 2018년에는 문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외래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생활영어(알파벳, 파닉스, 기초 회화 등) 중심의 ‘영어하기 좋은 날’(26편)을 제작·방영하였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는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 활용법과 영어 학습을 융합한 콘텐츠를 제작·방영하여 문해 학

습자의 실용적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EBS,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하여 학습자의 예·복습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4년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개념이 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의 기초 능력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에 문해학습자의 실질적 생애 역량을 향상시키는 생활문해교육 영역을 발굴하고, 생활문해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2016년에는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금융 취약계층인 문해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생활(은행창구 이용,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등)을 지원하는 ‘금융문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문해학습자의 학습공간 이동이 잦아지면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한 ‘교통안전문해 교과서’도 개발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한 소통형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활용 중심의 ‘정보문해 교과서’, 201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문해학습자의 안전한 식품·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건강문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2019년에는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콘텐츠에 맞추어 문해학습자의 경험세계를 반영하고 문해교육 현장의 영어 학습 노하우 등을 접목한 기초생활영어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활용도 확장을 모색하였다.

<표 II-39>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과정	성인문해교과서 (초등1~3학년)	성인문해교과서 (초등4~6학년)	기초생활영어 I (알파벳, 파닉스, 기초회화)	기초생활영어 II (스마트기기 활용 관련 기초영어)
제작편수	총 78편	52편	26편	26편
콘텐츠				

출처: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

라. 성인문해교육 조사·연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문해교육 조사·연구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문해학습자의 정보능력 수준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정보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0년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를 대비하여 ‘성인문해능력조

사 측정도구 개선 연구'를 추진,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한 최종 문항을 도출하고 향후 성인문해능력조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 문해교육 지원 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 민간영역의 문해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해당 결과가 향후 문해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 운영 성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는 첫째, 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학습기회 확대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야학,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문해학습자 약 41만여 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를 도입하여 14,149명의 학습자가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는 등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보완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문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둘째, 교육 소외 지역 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 참여기회 강화이다. 20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3배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해교육기관은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을 시범 운영 하여 기관방문이 어려운 고연령, 도서 벽지 지역 학습자에게 문해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 문해교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액 상한을 당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농산어촌 학습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성인문해교과서 무상 보급을 도입하면서 문해 학습자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성인문해교육방송을 통해 개인 및 가정 내 학습자를 위한 상시 학습체계를 마련하는 등 균등한 문해교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문해교육의 개념이 일상생활 영역에 필요한 생활문해능력까지 확장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활 경험을 반영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내용이 개발되었다. 전문 콘텐츠를 보유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 교통안전, 정보, 건강문해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문해 학습자의 교육요구가 가장 높은 기초생활영어에 대한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초생활영어 교과서

의 경우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콘텐츠와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여 정책적 활용도와 학습자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3. 향후 과제

향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해학습자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2016년 2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고,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총 8개의 시도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17개 지역 전체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지역 간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문해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도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 단위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문해교육 정책이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토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합리적인 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의 추진이다. 성인문해능력조사는 국민의 문해능력을 측정하는 국가 유일의 승인 통계로, 비문해 인구에 대한 실증적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이다. 3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능력조사는 2020년 제3차 본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신문해 계층 증가 등에 따른 포용적 문해교육 정책 수립 방향을 설계할 예정이다.

셋째, 문해교육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다. 문해교육은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높기에 개별 기관 단위에서 교강사의 역량강화를 모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 단위에서 문해교원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과 보수교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문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습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 제고와 문해교육 여건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a).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결과 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b). 2019년 하반기 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운영 결과 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9). 2020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 <http://ebs.co.kr>
- (주)문화방송 홈페이지. <http://imbc.com>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1. 개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74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매년 일정 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의 무제를 규정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 출발로 본다(고용노동부, 2019b). 1976년에는 이 두 법령을 통합하여 사업주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제도의 기본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97년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004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b).

이러한 제도적 기반하에서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표는 1970년대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향상으로 발전하였다. 제도의 변천에 따라 명칭도 직업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평생직업능력개발로 변화하였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직업훈련은 2008년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 변화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2010년부터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2002년부터 시작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NCS 학습모듈의 개발 및 활용 확대,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직업훈련의 확대와 일학습병행제의 내실화 강화,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현황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정규교육 시기부터 재직 단계 및 실업 시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각 단계별로 취업 준비자, 재직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 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

<표 II-40> 노동시장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단계	정규교육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시기	재직 시기	실업 시기
대상	중도 탈락자 비진학 청소년	미취업자(청년실업자) 비경활자(여성, 고령자 등)	근로자	실업자
종류	기능사양성과정 신규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출처: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 487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생애 단계별로 살펴보면 학교 재학 단계, 구직 단계, 재직 단계, 재취업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그림 II-6 참조). 재학 단계에서는 고교, 전문대, 대학 등의 단계별로 주로 일학습병행,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규 학생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거나, 교육훈련 방법으로 현장실습이나 일기반 학습(WBL: work based learning)을 적용하는 등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교실수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직 단계의 경우 실업자훈련이 대표적이고, 재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별로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실업자훈련은 목적이 구직이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달성 여부를 취업률로 평가하고 있다. 재직 단계 훈련은 직무능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재직근로자의 참여 목적이 분명한 편이나 기업 규모별, 근로자의 고용상의 신분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주로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사업명	실적 (단위: 명)		
			'17. 12월 말	'18. 12월 말	
재학단계	고교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8,113	11,882
			P-Tech(폴리텍, 전문대)	143	529
	일반고 3학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4,992 (특화 3,156)	4,950 (특화 3,345)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과정)	4,496 (특화 4,079)	5,159 (특화 4,965)	
		폴리텍 일반계고 연계과정	1,016	1,387	
	전문대	2학년	일학습병행	-	88
		졸업예정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00	544
	대학	3~4학년	실업자내일배움카드	968	958
			IPP형 일학습병행	1,005	1,61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644	6,526
	폴리텍	졸업예정자	실업자내일배움카드	6,782	8,453
			2년 학위과정	18,330	17,725
구직단계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차 선도인력 양성)	58,293 (4차 851)	52,517 (4차 921)	
		실업자내일배움카드	201,872	192,112	
	폴리텍	전문기술과정(기능사 훈련)	4,322	3,761	
		하이테크과정	395	538	
재직단계	중소기업	*비정규직 포함	사업주 훈련지원(자체+위탁)	1,265,116 (공통법정훈련 제외)	1,386,661 (공통법정훈련 제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컨소시엄+지역산업맞춤)	261,730	252,159
			일학습병행훈련	29,948	26,168
			재직자내일배움카드	248,246	292,081
	대기업	45세 이상	사업주 훈련지원(자체+위탁)	1,225,430 (공통법정훈련 제외)	1,079,105 (공통법정훈련 제외)
			재직자내일배움카드	11,472	16,228
			단시간 근로자	재직자내일배움카드('18년 신규)	-
	자영업자 (특고포함)	고보가입자	재직자내일배움카드	2,216	2,58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921	1,126
		고보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내일배움카드	5,126	4,764
			고보미적용자 (예술인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8년 신규)	-
	재취업단계	중장년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18년 신규)	-
베이비부머훈련과정(45~65세)				1,367	1,370
경단년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과정	1,064	1,056

[그림 II-6]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출처: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9).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p. 6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 2018년 기준 전체 직업능력개발 재정 25,843억 원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이 20,819억 원으로 전체의 80.6%에 해당하여 여전히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중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II-4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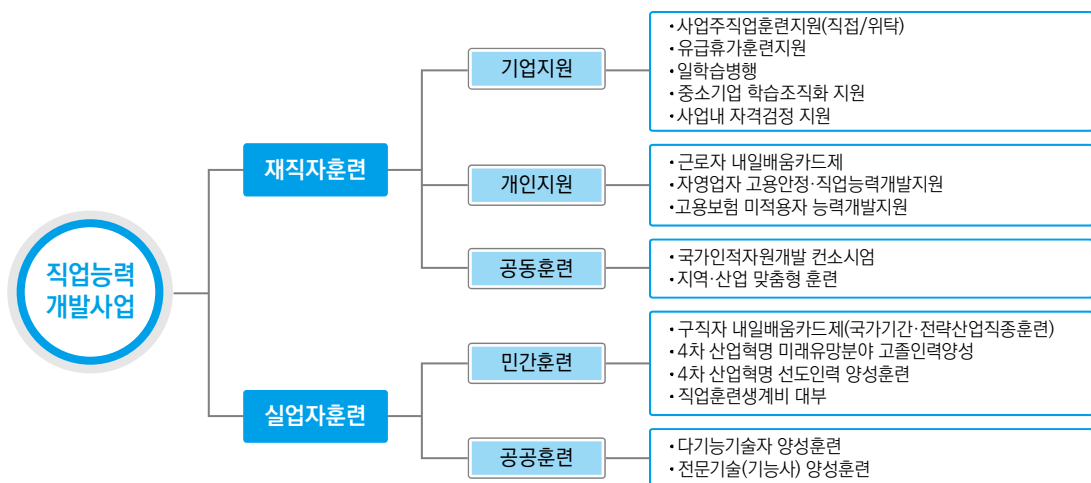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17,837	21,158	23,453	23,928	25,843
고용보험기금	14,617	17,391	19,686	19,787	20,819
일반회계	3,220	3,767	3,766	4,141	5,024

출처: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 487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별로는 크게 재직자훈련(기업지원, 개인지원, 공동훈련)과 실업자훈련(민간훈련, 공공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b). 여기서는 [그림 II-6]에서 살펴본 재학 단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자훈련은 실업자의 취업 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의 습득을 위해서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II-7]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출처: 고용노동부(2019b).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p. 3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근로자능력개발지원으로 세분화되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재직자를 위한 훈련지원 실적은 사업장 수의 경우 전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2,308,327개소의 10.0%인 240,698개소로 2017년 2,211,482개소의 12.0%인 265,232개소에 비해 적용 사업 수와 훈련참여 기업 모두 증가하였으나 참여 비율은 2%p 감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0; 2019a:496).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한 재직자는 전체 피보험자 14,432,497명의 34.1%인 4,914,227명으로 2018년 12,958,825명의 28.7%인 3,720,168명에 비해 피보험자 및 참여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0; 2019a:49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은 2018년도 460만 건이 지원되어 2017년도 346만 건 및 2016년도 288만 건에 비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원금액은 5,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0; 2019a:496).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은 보험료 납입금액 대비 훈련지원 금액을 의미하는 훈련비지원율의 경우 2018년 12월 1,000명 이상 사업체는 8.4%로 평균지원율 23.9%보다 낮았고, 50~100명 미만 사업체는 60.8%로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고용노동부, 2019a:496). 이는 2017년(평균지원율 24.8%)에 비해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p, 50~100명 미만 사업체는 2.2%p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1; 2019a:496).

〈표 II-42〉 기업 규모별 재직자 훈련비 지원 실적

(2018. 12.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계	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분류 불능
납부보험료(A)	28,479	5,989	1,513	3,527	1,822	2,561	13,068	-
지원금(B)	6,804	2,691	921	1,295	382	416	1,095	4
훈련비지원율 (B/A)	23.9	44.9	60.8	36.7	21.0	16.2	8.4	-

출처: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 496

주1) 재직자훈련 실적=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유급휴가 훈련, 일학습병행,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합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에는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2018년 훈련실적은 239,235명으로 2017년 250,726명 보다 감소하였고, 취업률은 55.5%(잠정)로 2017년 54.3%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2; 고용노동부, 2019a:498). 실업자훈련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직실업자훈련 142,350명(2017년 147,822명), 신규실업자훈련 30,939명(2017년 31,019명), 지역실업자훈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283명(2017년

196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5,663명(2017년 71,450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492; 고용노동부, 2019a:497).

〈표 II -43〉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 현황

(2018. 12.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직실업자훈련	131,520	120,711	138,137	147,885	142,350
신규실업자훈련	34,920	30,312	28,760	31,019	30,939
지역실업자훈련	776	448	437	372	28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1,142	74,207	58,947	71,450	65,663
계	208,358	225,678	226,281	250,726	239,235

출처: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 497 내용 재구성.

주1) 훈련 실시 기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공공훈련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37개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1개소), 한국장애인공단(5개소), 관계부처 등(42개소)으로 2017년과 동일한 85개소이다. 민간훈련기관은 사업주단체, 평생교육시설,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고용노동부 훈련법인 등 7,228개소로 2017년의 7,588개소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19b).

〈표 II -44〉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소계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공단	관계부처 등 ¹⁾	소계	지정 직업훈련 시설 (훈련법인 포함)	사업주 단체 등 시설	기타
2014	8,304	82	34	1	5	42	8,222	852	2,830	4,540
2015	7,812	82	34	1	5	42	7,730	813	3,277	3,640
2016	6,885	85	37	1	5	42	6,800	789	3,123	2,888
2017	7,673	85	37	1	5	42	7,588	761	3,438	3,389
2018	7,313	85	37	1	5	42	7,228	748	3,450	3,030

출처: 고용노동부(2019b).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p. 74

주1) 2018년 12월 기준 관계 부처 현황: 법무부(35), 환경부(1), 서울특별시(4), 경기도(1), 부산광역시(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도, 정부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이 현장(일)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연결 기제인 NCS의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13년 240개의 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24대 직업 분야에 걸쳐 1,001개가 개발되었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6년 3월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실무과목)을 적용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체 594교 중 547교에서 실무과목(196개)을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는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199). NCS 기반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개편한 고교 직업교육과정(2018년 수정 고시)으로 그 체계는 전문공통과목(1과목), 기초과목(179과목), 실무과목(36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EDUNET T-CLEAR).

스위스·독일의 도제제도, 영국 및 호주의 견습제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은 2013년 10월 51개의 시범 기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부터 재직자 위주에서 고등학교 단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전문대 재학생단계 및 후학습 단계인 P-Tech, 대학 단계인 IPP형 일학습병행 등 정규 재학생 단계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187~188).

〈표 II -45〉 일학습병행 유형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 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듀얼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 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지원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Uni-Tech	•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대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 방식 장기현장실습 +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後)학습	P-Tech		•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2019b).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p. 7

2019년 12월 말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 현황을 보면 선정 기업은 15,369개소, 훈련 기업은 12,652개소, 학습근로자는 91,195명으로 2014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박종성·이수정, 2020: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선정된 9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 186개교, 2018년 198개교, 2019년에는 19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과정(Uni-Tech)에 참여한 학습 근로자는 2017년 930명에서 2018년에는 1,411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학 단계인 IPP형 일학습병행은 2015년 13개 학교에서 2017년 40개교, 2018년에는 38개교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188).

2017년부터는 도제학교 졸업생의 직무능력 심화를 위한 일학습병행인 P-Tech을 6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범 실시 하였고, 2018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외 13개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a:189).

〈표 II -46〉 일학습병행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선정 기업	훈련 기업	학습 근로자
2014년	1,897	752	3,154
2015년	5,212	2,816	14,318
2016년	8,492	6,207	34,378
2017년	11,688	9,228	57,423
2018년	14,110	11,217	76,076
2019년	15,369	12,652	91,195

출처: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p. 189, 박종성·이수정(2020).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현황 및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p. 2

2018년 숙련근로자 대비 일학습병행 학습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와 기업현장교사 모두 훈련 전에 비해 평균 32.0%p(2017년에는 25.6%p) 이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용노동부, 2018a:189; 2019a:190).

정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직무 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일자리위원회·관계 부처 합동, 2019). 주요 방안으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나. 운영 성과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문제, 구직·구인자 간의 숙련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a). 한국형 도제훈련 제도인 일학습병행은 추진 5년 만에 1만 1천여 개 기업으로 확산(2014년 752개 → 2018년 1만 1천 개) 되었고, 재직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단계로 확대되어 7만 6천여 명의 학습 근로자(2014년 3천 명 → 2018년 7만 6천 명)가 참여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189).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대상 일학습병행)는 특성화고의 취업을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참여 학생·학교 모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실력 중심 사회의 핵심 기제인 948개의 NCS를 확정·고시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50개를 추가로 개발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16). 또 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전면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개편·적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스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8년의 대표적 변화는 2017년에 발표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2019a:15). 이를 위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직업훈련과정을 마련하고 훈련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대비 50~100명 미만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률이 2.2%p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491).

한편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폴리텍, 민간훈련기관, 특성화고 등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로봇하드웨어,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였다(고용노동부, 2019a:15).

3. 향후 과제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 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일자리위원회·관계 부처 합동, 2019),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19c).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현행	개편
지원대상	- 실업자 - 재직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300~500만원

[그림 II-8]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변경 내용

출처: 고용노동부(2019c),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보도자료.

정부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였다(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로,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즉 이는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AI),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데도 초점을 두었다. 먼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거대정보(빅데이터) 분석, 인터넷 기반 공유서비스(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455개 선정하였다. 또한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하였으며,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상당수 포함(409개 과정)하고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을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향후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통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인 성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주도 훈련시간을 확보하는 등 훈련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20).

2017년부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의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이 협약기업과 현장전문가의 참여로 성과가 높다고 평가되어 향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19a:15).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2013). 2013년판 고용노동백서. 과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6). 2016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8a). 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8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9a).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9b).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9c).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2019. 11. 20. 보도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0).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2020. 1. 2. 보도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종성·이수정(2020).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현황 및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9).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제10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안건.
-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www.ncs.go.kr
- 정책위키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http://www.hrd.go.kr>
- EDUNET T-CLEAR 홈페이지. <http://www.edunet.net/>

제4절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1. 개요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사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되는 가치 결핍의 시대로 진단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은 물질적 만족 외에 지적, 도덕적, 예술적 가치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가 실현 되었을 때 가능하다(박영식, 2011). 이러한 반증으로 인간의 품격과 생명 존엄에 대한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예술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고 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르면 인문교양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전제 하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길러주며 종합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인문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호 외, 2003).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9). 문화예술교육은 좁게는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향수나 제작 능력을 함양하는 ‘예술을 위한 교육’을 가리킬 수도 있고, 넓게는 자신의 문화와 예술을 익히고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자발적인 학습으로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창의성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의미할 수 있다(김정희, 이주연, 이지연, 20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인성함양, 문화적 소외 극복, 삶의 질 향상 인간변화의 사회다양성 증진 등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이민철, 2017). 본 절에서는 2019년 평생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실태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평생교육통계로 보는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 현황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와 현황은 매년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9)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다음의 <표 II-47>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영역의 프로그램 지침을 보면 평생교육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포용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인문교양강좌는 물론 컴퓨터강좌에서 건강 및 의료강좌까지, 문화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스포츠 강좌까지 생활 전반에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폭 넓게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7> 평생교육통계조사의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

평생교육 영역	프로그램 지침
인문교양교육	-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 외국어강좌(생활 외국어 등) - 컴퓨터강좌(정보 인터넷 소양 교육 등) - 종교교육강좌(성경/불경 모임 등) - 인문교양강좌(역사강좌, 철학강좌, 미술사 강좌, 문학강좌 등) - 가정생활강좌(요리, 유아·아동·청소년교육, 꽃꽂이, 예절교육 등) - 건강 및 의료강좌(보건교육, 금연교육, 생활의료교육 등)
문화예술스포츠교육	- 음악강좌(피아노, 플룻, 노래교실, 가야금, 사물놀이 등) - 미술강좌(풍선아트강좌, 사진, 공예, 천연염색 등) - 스포츠강좌(수영, 댄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 52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는 평생교육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평생교육기관의 전체 프로그램(184,214개) 중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은 16.4%(30,125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30.6%(56,448개)에 해당한다. 6대 영역 프로그램 중 인문교양·문화에

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47%를 차지할 만큼 평생학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공급은 원격교육기관, 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을 주도하는 기관유형은 민간영역의 사업장부설기관과 공공영역의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구도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인문교양·문화예술 영역이 85~97%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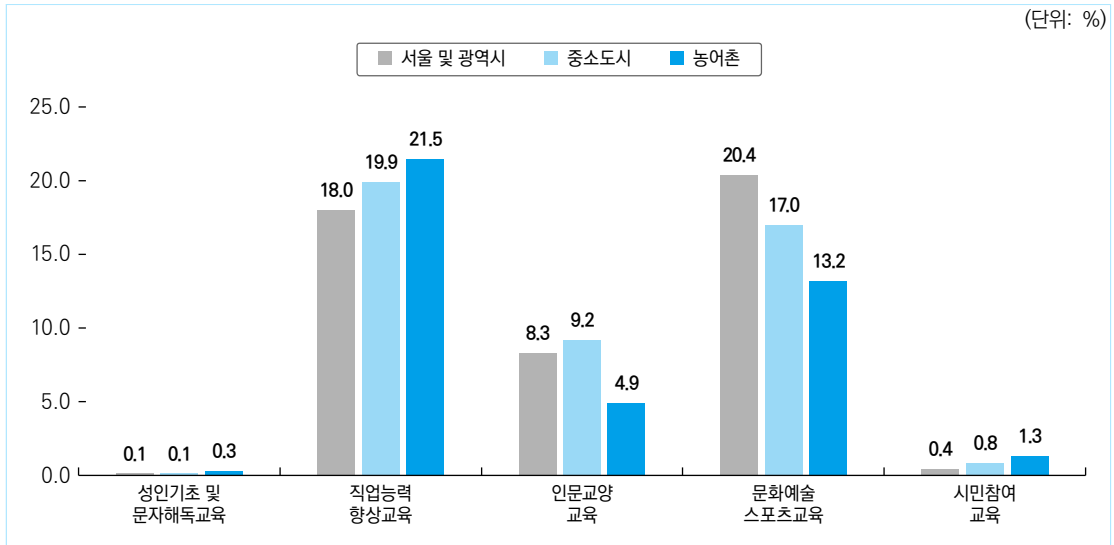
<표 II-48> 2019년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

(단위: 개, %)

구분	6대 영역 프로그램	인문교양 (A)	문화예술 (B)	인문교양·문화예술 (A+B)	인문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중
전체	184,214	30,125	56,448	86,573	47.0
학교부설	46	25	10	35	76.1
대학부설	26,282	2,922	7,021	9,943	37.8
원격교육	81,878	11,892	1,364	13,256	16.2
사업장부설	34,214	3,523	29,826	33,349	97.5
시민사회단체	3,282	607	1,421	2,028	61.8
언론기관부설	4,528	517	2,356	2,873	63.4
지식인력개발	8,985	890	2,782	3,672	40.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682	218	309	527	77.3
평생학습관	24,317	9,531	11,359	20,890	85.9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통계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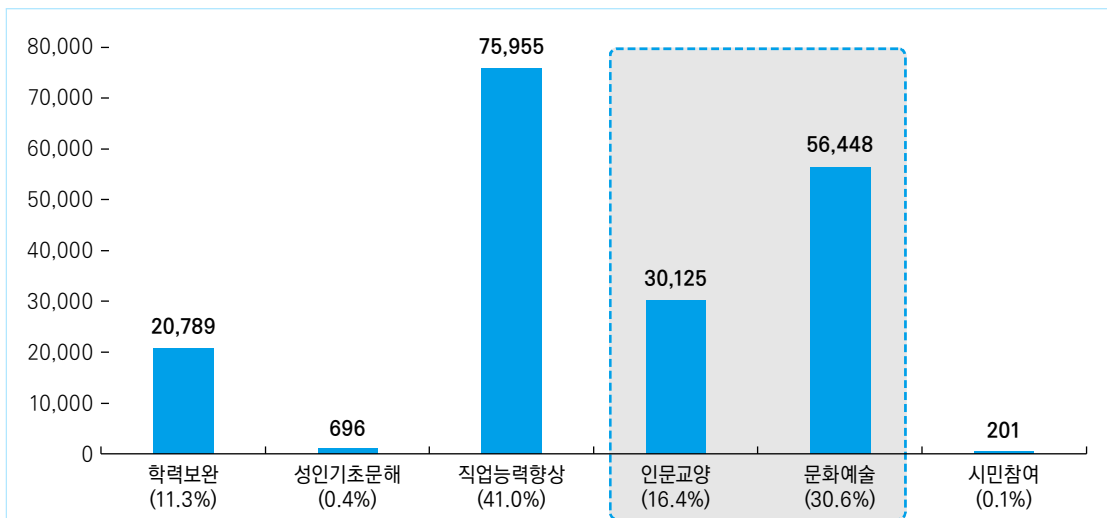
2019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따르면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은 직업능력향상교육(19.3%), 문화예술스포츠교육(17.9%), 인문교양교육(8.2%) 순으로 높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는 직업능력향상교육(각각 19.9%, 21.5%)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20.4%)에 많이 참여하였다. 향후 참여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강좌(4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 강좌(14.1%), 건강 및 의료강좌(9.1%), 외국어강좌(8.3%), 가정생활강좌(7.2%), 자격증인증과정(7.2%), 경제·경영 강좌(6.3%), 미술강좌(6.1%)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9]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지역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p. 55

또한 2019년 주제구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문교양 프로그램은 16.4%,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30.6%이다. 두 영역을 합하면 46.7%로 전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41.2%) 보다 4.5%p 높을 정도로 인문교양·문화예술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장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10] 주제구분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2018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대비하여 2019년 전체 프로그램은 12.6% 증가한 반면 인문교양 프로그램은 30.1%,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4.9% 증가하였다. 학습자 참여 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다. <표 II-49>와 같이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과 학습자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 가운데 직업능력향상교육 다음으로 많이 공급된 분야로서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양은아 외, 2018; 양은아, 2019).

<표 II-49> 연도별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2015~2019년)

(단위: %, 개,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비
프로그램	전체	156,665	161,788	164,160	163,631	184,214	12.6
	인문교양	26,945	29,825	22,593	23,153	30,125	30.1
	문화예술	50,145	53,093	52,297	53,822	56,448	4.9
학습자	전체	11,982,654	11,897,236	11,897,236	16,344,658	16,348,842	-
	인문교양	2,397,685	2,580,494	2,246,129	4,618,008	2,571,028	-44.3
	문화예술	1,932,741	2,047,052	2,017,166	2,031,469	2,367,113	16.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통계자료 재구성.

나. 국가차원의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현황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평생교육 통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보다 폭넓은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문교양교육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평생교육법」 외에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6년에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2)’을 수립하여 인문교양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다. 2019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수록된 인문교양교육 관련 부처별 사업 내용은 <표 II-50>과 같다. 교육부는 대학 인문교육 강화사업, 일반 시민들의 인문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인문도시사업, 인문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뿐 만 아니라 연구자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과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문화재청은 직접적인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교육 운영을 주로 하고 있다.

<표 II-50> 2019년 부처별 인문교양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교육부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_교양교육체제 구축	9.7
	인문학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 인문학분야 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및 연구자 간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학술담론의 생산 유도 • HK연구소, 성과확산총괄센터, 지역인문학센터	336.84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 인문도시의 브랜드화 • 전담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강좌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28.13
	교육부(3개 사업) 소계		374.67
문화체육관광부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 길 위의 인문학 등 기존브랜드 프로그램 내실화 •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한 심화 강좌 개발·보급 • 폭넓은 사유의 공간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의 책임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25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 공간·인력·정보 지원으로 동아리 활동 역량 강화 • 인문매개자 육성·활용으로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0.02
	문화체육관광부(2개 사업) 소계		225.02
법무부	체계적·연속적 수용자 인문학 교육	• 교육 편성 다변화를 통한 인문교육 활성화 • 지역 인프라 및 특별강연 유치를 통한 인문교육 연속전개 • 인문학 영상 강좌 제작·방영	669
	법무부(1개 사업) 소계		669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체계에 의한 체험·참여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학당 등	13.2
	청소년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으로 문화유산 교육 강화 • 어린이·청소년·소외 청소년 대상 교육, 자유학기 문화유산 교재 보급,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영상콘텐츠 제작·보급	0.6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 문화유산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유산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초·중·고등학교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 문화유산교육사 양성교육	0.7
	문화재청(3개 사업) 소계		14.5

출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재구성.

2) 문화예술교육 추진현황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b)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은 25.2%로 기록되며, 실제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10.6%로 2014년 6.9%에 비해 3.7%p 증가하였다. 하지만 참여의향에 비해 참여율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 면에서는 2005년 208억 원에서 2013년 1,099억 원, 2016년 1,760억 원으로 10년간 8.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한다. 먼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인력을 학교 교육현장 참여하도록 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였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2018년 주요사업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획 사업,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주요 내용과 실적은 <표 II-51>과 같다.

<표 II-51>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상	실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 인, 장애인을 대상	17개 분야 495명의 예술강사를 575개 시설에 파견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방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통일부·국가보훈처협력	총 1,190개 프로그램을 시설에 지원 하으며, 19,727명의 군인, 재소자,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참여(군부대 306개, 교정시설 52288개, 소년원학교 11개, 치료감호소 8개, 근로자 30개, 방과후청소년 40개, 학교 밖 청소년 73개, 지역아동센터 645개, 북한이탈주민 9개, 상이군경 16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기획프로그램	참여 확대가 필요한 전 국민	농산어촌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방학 중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가와 함께 2박 3일 체험 창의예술캠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화파출소 9개소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	사회 통합과 문화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치유프로그램	2018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위기청소년, 도박중독자, 군대부적응병사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 국군병원, 소년원학교 등 77개 시설에서 85개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자, 성폭력피해자, 미혼모,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8개 시설에 31개 프로그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c).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pp. 286~287

3. 향후 과제

2018년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로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므로’라는 응답이 64.8%(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과 ‘사회 공동체의 가치 구현에 기여’ 순으로 응답하였다. 인문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사회활동 및 봉사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1.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이는 시사점은 인문교양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에 참여토록 변화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교양 프로그램의 개선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인문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정치 경제 경영 등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를 다루며 실용성 확대 (54.2%), 심리학 인류학 예술 등 폭넓은 인문학 계열로 확장(23.4%), 과학·공학 분야를 다루며 범위 확장(16.6%)으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인문교양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는 문학·사회·철학에 집중하여 인문학의 본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9%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인문교양 교육프로그램 기획에서 실용성 고려와 과학 공학 등 보다 다양한 범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2019)에서는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기는 문화예술 능력 상승과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를 경험하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관계적 질 역시 향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성인 전기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효과, 성인 중기의 자녀 이해 증진 효과, 성인 후기의 삶에 대한 긍정 효과와 자기초월 효과는 각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특성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민 문화권이 실현되는 맥락으로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적·공생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율에 있어 절반 가까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공급하는 기능을 넘어서 개인 삶의 질 변화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적 실천의 측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의 발전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2). 세종: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정희·이주연·이지연(2013). 인격형성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방안. 문화예술 교육연구, 8(2), 201-225.
- 문화체육관광부(2018a).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b).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c).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식(2011). 인문학강의. 서울: 철학과현실사.
- 양은아·한승희·김민수(2018). 인문교양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시민인문교육복합체 형성의 실증적 탐구. 평생학습사회, 14(3), 1-36.
- 양은아(2019). 지역사회 평생교육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공급 및 참여 패턴 연구: 10년간 (2008-2017) 〈평생교육통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7(1), 107-137.
- 이민철(2017). 문화예술교육의 의의와 과제. 서울교육, 22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이영호·김주창·진영종·김범춘(2003). 대학 인문교양교육의 현황 진단 및 정책대안 연구보고서. 인천: 인하대학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5절 시민참여교육



1. 개요

서구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권은 대체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선 이들 시민권이 상호 보완적이다. 신장된 자유권과 참정권을 바탕으로 사회권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나,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권이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사회 시민권의 수준을 언론사가 뽑은 10대 뉴스¹⁶⁾를 살펴보면 한국 시민의 자유권이 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¹⁷⁾ 한국 시민의 참정권을 신장시킬 기회가 주어졌다.

2017년, 2018년 평생교육백서는 시민참여교육을 시민성 함양 방식에 따라 다음 <표 II-5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다. 민주주의, 선거, 대화와 타협, 소수자의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룬다. 둘째,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일차적 목표이나, 이와 더불어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경우다. 지역주민들은 학습동아리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운동이나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혹은 그밖에 다양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을 무형식적으로 함양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 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종교교육 등의 성과로서 시민성 함양이 이뤄진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시민참여교육 유형을 기준으로 2019년 시민참여교육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6) 연합뉴스, 조선일보, YTN 라디오 선정 2019년 10대 뉴스 참조

17)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로 시작됐다가,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만 20세)'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됐다(네이버 지식백과, 2020).

<표 II-52> 시민참여교육의 유형

구분	시민성 함양 방식	사례
범주 1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헌법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
범주 2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동아리, 시민사회단체, 집회 및 시위,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에 참여
범주 3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문해교육, 종교교육 인문학강좌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시민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시민참여교육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한 7개 평생교육시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53>과 같다. 2019년 5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201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에 21,089명이 참가했다. 2018년 조사 결과(246개 프로그램, 24,975명 참석)에 비하면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45개, 참여자 수는 3,886명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교육 참여자 수는 2,000명 가량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여러 자치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세종시(2018년)와 수원시(2018년)가 합류한 것이 2019년의 공공 평생학습관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전체 참가자 수도 2018년 103,611명에서 2019년 189,225명으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가 2018년 41개에서 2019년 37개로 줄었고, 참가자 수는 2018년 6,837명에서 2019년 2,761명으로 더 크게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크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참여교육의 방향을 프로그램 중심에서 일상의 사회참여로 전환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 생각하나, 보다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겠다. 2019년의 경우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는 201개로 전체 184,21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0.11%(2018년 0.15%), 학습자 수는 21,089명으로 전체 학습자 16,159,617명의 0.13%(2018년 0.15%)에 불과해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아직도 매우 적은 편이다.

〈표 II-53〉 평생교육시설별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증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연도	계	대학부설 ¹⁾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평생 학습관 ²⁾
프로 그램 수	2016	122 /161,731	23 /28,884	4 /60,917	2 /35,069	18 /3,535	6 /3,931	10 /8,749	59 /20,646
	2018	246 /163,413	36 /25,971	- /64,223	2 /34,360	41 /3,251	7 /4,260	12 /7,975	148 /23,373
	2019	201 /184,214	33 /26,328	- /81,878	3 /34,214	37 /3,282	4 /4,528	6 /8,985	118 /24,999
학습자 수	2016	13,735 /11,335,227	1,361 /902,600	197 /7,304,497	1,335 /1,206,895	1,694 /156,000	398 /151,101	378 /664,509	8,372 /949,625
	2018	24,975 /16,329,145	3,404 /839,631	- /12,492,784	990 /1,127,759	6,837 /103,611	215 /178,454	883 /629,184	12,646 /957,722
	2019	21,089 /16,159,617	1,968 /818,651	- /12,111,454	943 /1,185,565	2,761 /189,225	117 /271,957	644 /623,058	14,656 /1,148,932

출처: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주1) ‘대학부설’에는 유초중고부설을 포함.

주2) ‘평생학습관’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시민인문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기획단 ‘나침반’이 기획한 강좌 ‘먹고 사는 일’(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슬아슬한 일과 주거 이야기)을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4회에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알지 못하는 어느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 ‘대리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대리 노동들’ ‘영화 <소공녀>로 읽기: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과 ‘집’의 의미’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알바, 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수원시평생학습관, 2020).

세종특별자치시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회 제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9년의 경우 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거의 매주 화요일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3.1운동과 대한 임시정부 수립’ ‘최근의 재난과 시사점’ ‘인권, 과연 절대 가치인가?’ ‘시민참여 정책-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시민의 삶과 질을 바꾸는 거버넌스’ 등 총 40개 강좌를 운영했다(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20).

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

한국 국민들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면서 시민성을 함양하였다. 행정안전부(2020)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62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2,613개로서 총 14,275개에 이른다. 다음 〈표 II-54〉가 가리

키덜트 비영리민간단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은 2000년에 비해 거의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표 II-54>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추이

(단위: 개)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계	2,524	4,588	6,699	9,003	10,889	12,894	14,275
중앙 정부 등록	292	480	743	981	1,319	1,561	1,662
지방자치단체 등록	2,232	4,108	5,956	8,022	9,570	11,333	12,613

출처 : 행정안전부(2020).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2017)이 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분야는 시민사회일반, 경제, 예산감시와 납세자운동, 사회적 경제, 소비자, 사회공헌, 여성, 환경, 문화, 사법개혁, 건강과 보건의료, 평화와 통일, 국제연대와 협력, 언론, 인권, 교육, 노동, 사회복지, 이주와 다문화, 자원봉사, 기부와 나눔, 풀뿌리자치, 노년소비자운동, 시니어문화 등 총 24개 분야로 매우 다양하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2019년 현재 66.1%이다. 1999년 15세 이상 참여율이 23.1%인 것에 비해 세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친목 및 사교단체나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의 참여가 많고,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이 2017년 8.4%까지 감소했다. 다행히 2019년 12.6%로 크게 반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표 II-55> 사회단체 참여율 추이

(단위: %)

구분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23.1	44.8	38.8	39.8	46.6	50.1	48.9	49.7	66.1
친목 및 사교단체	63.2	82.5	78.7	77.8	73.1	75.3	75.6	78.2	77.4
종교단체	21.6	20.2	21.7	28.9	28.7	26.4	27.2	28.2	28.7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	21.2	28.6	27.9	30.0	34.0	32.8	35.2	43.6	47.3
시민사회단체	9.7	9.9	10.8	12.9	11.0	11.3	9.4	8.4	12.6
학술단체	1.8	4.4	3.8	5.1	4.7	4.6	5.3	5.6	7.6
이익단체	2.6	3.5	3.4	3.4	2.5	2.1	2.5	3.8	4.3
정치단체	1.3	0.8	1.1	0.9	1.0	0.7	0.6	1.3	1.7
지역사회모임	-	-	-	-	10.1	8.9	9.2	10.4	11.5
기타	0.8	0.5	0.4	0.5	0.7	0.3	0.1	0.1	0.0

출처 : 통계청(2020). 2019 사회조사 결과.

반면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19.9%로 정점을 찍고 난 뒤 이후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6.1%를 나타낸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이 76.1%로 높은 반면에 20, 30대와 60대 이상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표 II-56〉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구분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13.0	14.6	14.3	19.3	19.8	19.9	18.2	17.8	16.1
연령 집단	20세 미만	33.8	52.4	59.5	79.8	77.7	80.1	76.6	76.1
	20-29세	7.8	10.3	8.3	13.9	13.2	13.7	11.6	9.9
	30-39세	13.2	11.6	10.2	13.6	11.2	11.2	10.6	9.8
	40-49세	13.0	14.2	13.9	18.6	17.0	17.3	15.6	15.4
	50-59세	10.8	12.2	12.4	15.5	14.6	14.5	14.6	12.6
	60세 이상	6.7	6.7	6.5	7.0	7.2	7.8	7.8	8.1

출처 : 통계청(2020). 2019 사회조사 결과.

한국 국민들의 사회참여 활동 중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자원봉사활동만이 아니라, 집회 및 시위도 있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시위건수가 2018년에 다소 줄었으나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57〉 경찰력 동원 집회시위 현황

(단위: 건)

연도	2007	2010	2013	2016	2018	2019
집회·시위건수	11,904	8,811	9,738	11,061	9,627	13,864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통계자료.

다. 인문학교육 등을 통한 시민성 함양

시민성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인문학교육 등 여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기를 수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했던 인문사회 분야 ‘당당한 삶 특강’(강사 김지승 시인)에 참여했던 어느 학습자는 수강 후기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상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인문학 학습을 통한 시민성 함양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돈·학력·지능·나이 등은 행복을 10~15% 정도밖에 예측할 수 없고, 행복의 압도적 변수는 ‘관계’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을 특정 계급으로 소외시키지 말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 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신이 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과 관계 맺기를 하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노년 문화를 만들자. 학습관에서 장을 마련해 주니 우리들은 여기서 어울리면 된다.” (손00, 2019.4.19. 수원시평생 학습관 홈페이지 교육후기)

3. 향후 과제

평생교육은 확장성, 혁신성, 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Kirpal, 1976).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근대 서구 사회의 시민이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써 시민교육이 우리의 일상과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화한 공동체 문화,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토착적 생활방식 등을 존중하고 복원하여 서구의 개인주의 시민과 통합한 그래서 한국 사회 현실에 보다 적합한 ‘혼종의 시민성’(hybrid citizenship)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분절된 시민성을 각 개인의 삶의 맥락과 의미 형성(English & Tisdell, 2010: 288)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사회과학 기반의 시민교육을 인문학 기반의 인문교육과 학제적으로 통합하는 시민교육 방법의 혁신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민교육 내용 선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습자들에게 학습활동의 자유, 교육 선택의 권리, 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의 참여권, 지식과 사상 창출의 자유와(김신일, 2005) ‘시민의 학습 주권’(김신일, 2020: 290)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지향점 역시 비판적 의식 함양을 넘어 시민적 책임감 형성(Baptiste, 2006)에 둬으로써 시민교육의 내용 검토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변화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구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를 조직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자로 바라보고, 학습의 단위를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하는 교육 형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교육을 인생의 특정 단계, 특정 시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기간으로 연계하고, 시민교육을 인문교육이나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사회참여활동과 통합하는 교육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 2018).

참고 문헌

- 김신일(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김신일(2020). 학습사회. 서울: 학이시습.
- 시민운동정보센터·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2017). 한국시민사회연감 2017. 서울: 시민운동정보센터.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2018).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11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통계청(2020). 2019 사회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2020).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세종: 행정안전부.
- Baptise, I.(2006). Beyond lifelong learning: A call to civically responsible. In P. Jarvis(Ed.), From adult education to the learning society (pp. 429-439). London, UK: Routledge.
- English, L. M., & Tisdell, E.(2010). Spirituality and adult education. In C. E. Kasworm, A. D. Rose, & J. M. Ross-Gordon (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2010 ed., pp. 285-29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Kirpal, P. N.(1976). Historical studies and the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 R. H. Dave(Ed.),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pp. 97-128). Oxford, UK: Pergamon Press.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jsp>
-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
-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권 연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680&cid=43667&categoryId=43667>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사업/아카데미/정책아카데미. <https://www.sjhle.or.kr/dms/contents/dms/header/02/content.02.01.motion?mnucd=MENU0100077>
-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여마당/공지사항/2019년 2학기 시민인문학교 강좌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5_com01.asp?no=807&mode=view&page=1&Category=1&search_value=시민인문학교
- 연합뉴스 홈페이지. 2019년 10대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1730000005>
- 조선일보 홈페이지. 2019년 10대 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098.html
- 지방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 YTN 라디오 홈페이지. 2019년 10대 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300445302764

제6절

소결



「평생교육법」 제2조제1항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을 구분한다. 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는 경우가 있고, 기관별 혹은 대상별 평생교육 구분과 중첩되기도 하는 등 6대 영역 구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6대 영역 구분은 평생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표상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력보완교육 영역에서는 우선 초·중등학력인정 기관의 폐교가 계속되었다. 2011년 54개였던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37개, 2018년 27개, 2019년 25개로 감소하였다. 초·중·고교 학력인정을 모두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2019년에 하나가 줄어들어 16개가 되었다. 학생 숫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등록 학생 수는 2011년 41,771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0,823명으로 사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데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단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비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학력보완교육 기관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방송통신중학교는 학교, 학생, 교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도 학교가 하나 늘어났으며, 학생 숫자도 2018년 4,476명에서 4,726명으로 증가했다. 교원 숫자도 528명에서 56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체적인 학생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학생 수는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13,320명이던 재학생 숫자는 2018년 9,881명, 2019년 9,869명으로 감소했지만, 50대 재학생은 2018년 2,799명에서 2019년 2,991명으로 증가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개선, 학습경험인정제 활용 등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학력보완교육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독학학위제는 2019년 2월에도 834명의 학위취득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올해 283명의 학위취득자를 배출한 간호학 전공의 경우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전환에 따라 앞으로 응시자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심리학과 정보통신학을 신설한 것과 같이 새로운 전공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고등교육 학위 수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독학학위제가 학습경험의 사회적 인증 체제로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결과 인정 체제 전반의 정비도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는 2019년에는 K-MOOC 학습결과를 학점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학점인정 강좌의 다양성 증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무료인 K-MOOC 강좌를 통해 향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표준교육과정도 개발되었다. 2019년에는 등록 학습자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1만명 수준이던 등록 학습자 수도 2019년에 150,36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위수여자도 55,087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학위수여자의 연령별 분포도 예년과 비슷했다.

성인문해교육 영역에서는 국고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최초로 각각 30억과 70억을 넘어섰다. 문해교육기관도 최초로 400개를 넘었으며 학습자 숫자도 전년도 보다 1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난 63,201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여성이 95.6%로 남성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EBS를 통한 성인문해교육 방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스마트폰 활용법 콘텐츠가 추가되었다.

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에서는 2017년(250,726명)에 비해 2018년(239,235명)에 전반적인 훈련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관도 2017년에는 7,673개였지만 2018년에는 7,313개로 줄어들었다. 정책 측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통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도입되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고 그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 다음으로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그 숫자가 30% 이상 늘어났다. 2018년 23,153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30,125개로 증가한 것

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숫자도 2018년 53,822개에서 2019년 56,448개로 4.9% 늘어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 숫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백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약 33만명이 늘어난 2,367,113명으로 전년도 보다 16.5% 증가했다.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확대 경향과 달리 시민참여교육 영역은 2019년에 다소 침체되었다. 2018년에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246개였지만 2019년에는 201개로 줄어들었다. 전체 평생교육프로그램 숫자가 2018년 163,413개에서 2019년 184,214개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숫자의 감소는 두드러진다. 참여 학습자 숫자도 2018년 24,975명에서 2019년 21,089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공공 평생학습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2018년 12,646명에서 2019년 14,656명으로 증가한 점은 눈에 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 사업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시민참여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2장

지역별 평생교육

제1절

국가-시도 평생교육네트워크



1. 개요

「평생교육법」 제20조는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는 시와 도에 3년간 그 운영비의 일부와 컨설팅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016년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까지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은 2017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시도의 고유 권한이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 기능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각 진흥원은 지역 평생교육의 총괄기구로서 사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 수행하고 있고 그 집중도도 다르다. 물론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등 일부 사항은 법령으로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시도 간에 더 많은 연계가 요구된다. 각 시도가 공통으로 고려하는 평생교육 사업 수요와 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평생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국가와 시도는 지속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필요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시도 평생교육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고, 이하에서는 네트워크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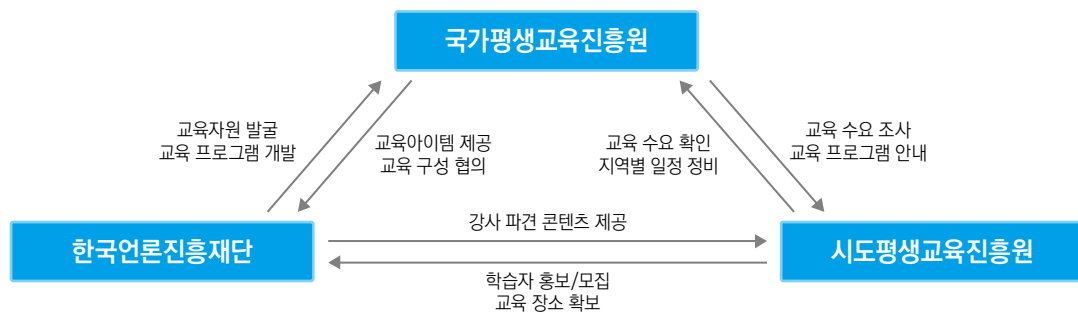
2. 주요 현황 및 성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네트워크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2019년의 경우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간담회, 실무자 협의회, 공동자료 발굴 및 사업 운

영 등이 이루어졌다.

첫째,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간담회는 당초 4회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러 정책 환경의 변화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9년에는 한 차례 운영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진흥원의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차원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2019년은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체하는 평생학습박람회 즉 시도 단위의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다양한 현안 이슈를 다루는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실무자 협의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동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9년에 열린 실무자 협의회로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평생학습동아리 자료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이 있다.

둘째,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라는 공동의 평생교육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과정, 평가 등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도모한 것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미디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부모와 노인층 등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 운영에 참여하였다.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내 관련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홍보를 하는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2차례 이상 모니터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수합한 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유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11]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운영 구조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층과 학부모층을 대상으로 총 4종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각 미디어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판별, 자녀를 위한 미디어 교육 등을 주제로 다룬다. 결과적으로 학습자 모집과 교육 공간 확보가 가능한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 15건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00명 이상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II-58〉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 내용 및 규모

연번	시도	교육 프로그램	차시	학습자
1	부산	실버세대가 알아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23명
		나도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8차시	15명
2	대구	유튜브, 넌 도대체 누구냐	특강(2회)	30명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미디어 사용 가이드(특강)	특강(3회)	106명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미디어 사용 가이드	8차시	100명
3	대전	나도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8차시	12명
4	충북	나도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8차시	22명
5	경북	유튜브, 넌 도대체 누구냐?	특강	17명
6	경남	나도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8차시	30명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미디어 사용 가이드	8차시	18명
7	제주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미디어 사용 가이드	8차시	27명
		나도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8차시	13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셋째, 시도 단위의 평생학습박람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7. 25.~27.), 세종특별자치시(10. 12.~13.), 울산광역시(10. 26.~27.)의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였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지역 박람회 콘셉트에 맞게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0년에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최 직전년도인 2019년부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들 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항목에서 따로 다룬다.

넷째, 자료 개발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을 시범 조사하였다. 스웨덴 등 해외의 학습동아리 사례를 통해 볼 때 공공 지원 등의 간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학습동아리가 평생교육 정책에서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세부 과제에서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언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시군구의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거나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학습동아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협조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시범 사업의 결과를 국가 수준에서 공식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군구가 평생학습동아리를 관리·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학습동아리 활성화 정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확인한 것은 시범 조사의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향후 과제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긴밀한 관계 형성과 협력은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이다. 그러나 2017년에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종료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예산이 감액되는 등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 완화하고자 재정 수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조사 사업 등의 영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도하였다. 각 시범 사업은 열악한 사업 환경 속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습동아리 현황 시범 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시도 평생교육에 직접 연계된 정책사업의 부재는 평생교육 협력체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시와 도가 시군구 평생교육에 대한 확고한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등 지역 평생교육체제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와 도가 이 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 간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이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과정에서 시군구의 평생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정 이후 정책적 간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도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3년 주기로 각 시군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도시가 전체의 70%를 넘

어서고 있는 만큼 시도 차원에서 고려할 각종 행정 사항을 공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네트워크를 행정 차원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각 시와 도의 평생교육 관내 지도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편 17개 시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평생교육진흥의 큰 틀은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나,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 규모와 사업 주안점 등에서 큰 편차를 지니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각 시와 도가 협력하여 평생교육 정책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 이루어진 미디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시범 사업은 미디어 사용뿐 아니라 소위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국민 역량을 높이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도 합치되는 면이 있었다. 다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그 대상 범위와 규모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시범 사업 운영을 계기로 삼아 국가의 주요 이슈에 특화된 평생교육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시도 간 평생교육 협력사업 모형을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시도진흥원 평생교육

1. 개요

2007년 「평생교육법」 2차 전부개정에 따라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전담기구 체계를 갖 추게 되었다. 또한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1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개원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경기도가 개원한 이래 2019년 현재 17개 광역 모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의 법적 기능과 역할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등을 포함하여 인력과 자원, 설립 형태 등이 상이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예산 현황

국가와 시군구, 읍면동을 잇는 가교 및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은 <표 II-59>와 같다.

<표 II-5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연번	시도	설립/지정 시기	형태	지정(위탁) 기관
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4. 4. 3.	지정	서울연구원
		2015. 3. 12.	법인	-
2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1. 3. 1.	지정	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16. 12. 27.	법인	-
3	대구평생교육진흥원	2012. 5. 10.	지정	대구경북연구원
4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3. 5. 9.	지정	인천인재육성재단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3. 4. 16.	지정	광주발전연구원
		2015. 2. 27.	법인	-
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1. 7. 28.	법인	-
7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2. 7. 1.	지정	울산발전연구원
		2018. 1. 1.	지정	울산인재육성재단
8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2016. 2. 15.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2018. 4. 13.	법인	-
9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1. 12. 28.	법인	-
10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3. 25.	지정	강원발전연구원
		2017. 1. 1.	지정	강원연구원
11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1. 4. 20.	지정	충북연구원
12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2. 1. 1.	지정	충남인재육성재단
		2016. 5. 31.	법인	-
1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6. 8. 1.	지정	전북연구원
		2019. 1. 1.	지정	전북인재육성재단
14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3. 19.	지정	전남발전연구원
		2017. 1. 22.	지정	전남인재육성재단
15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3. 6. 27.	지정	대구대학교
		2018. 1. 1.	지정	경북도립대학
16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5. 1. 1.	지정	경남연구원
		2018. 1. 1.	지정	
1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2. 7. 19.	지정	제주발전연구원
		2018. 1. 1.	법인	-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주) 설립/지정일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법인 또는 지정·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순으로 살펴보면 대전, 경기, 광주, 서울, 충남, 부산, 제주, 세종 등 총 8개 지역이다. 대전과 경기도는 설립부터 재단법인으로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6개 진흥원은 지정·위탁으로 시작하여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공공성 부각, 시대적·지역적 수요와 필요에 의한 평생교육의 위상 제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정(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의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지역연구원, 인재육성재단, 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 강원, 충북, 경남 등 4개 지역이며,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지역은 울산, 전북, 전남, 인천 등 4개 지역이다. 경북 지역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진흥원에서도 독립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황 조사·분석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하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9년도 예산 현황은 <표 II-60>과 같이 재원(국비, 지방비 등), 목적(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따라 운영 예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 총액은 경기도, 대전,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 규모와 강한 양적 상관관계(상관계수 $r=0.93$)를 보인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부산, 지방비는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다. 목적별로 살펴보면 조직 규모에 따라 인력, 사업비 등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진흥원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목적 사업은 물론 그 외 각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확대·운영하면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흥원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여러 견해와 현안이 도출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력과 재원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관의 위상제고를 가져온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별 특성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며 본연의 구심체 기능과 역할, 지역 평생교육 연계 체계 구축 등의 고유 업무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 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나 문화센터와 같이 나열식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17개 시도진흥원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광역 진흥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표 II -6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관	예산 현황							
	계	재원별			목적별			
		국비	지방비	기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
서울	10,595	-	5,640	4,955	1,593	3,347	886	4,769
부산	6,135	569	3,020	2,546	1,269	3,590	616	660
대구	634	-	634	-	206	387	41	-
인천	1,572	-	1,572	-	441	922	209	-
광주	3,083	191	2,687	205	710	2,020	218	135
대전	20,499	20	20,479	-	1,866	17,671	962	-
울산	1,512	175	1,337	-	486	975	51	-
세종	2,508	26	1,594	888	699	1,499	230	80
경기	38,704	25	30,994	7,685	11,118	21,570	5,961	55
강원	967	10	957	-	273	598	96	-
충북	604	-	604	-	207	330	67	-
충남	2,512	25	2,279	208	956	1,296	250	10
전북	590	10	580	-	186	339	65	-
전남	1,659	25	1,450	184	343	799	369	148
경북	966	10	956	-	197	730	39	-
경남	1,030	55	975	-	217	763	50	-
제주	7,075	-	7,065	10	612	5,791	404	268
계	100,645	1,141	82,823	16,681	21,379	62,627	10,514	6,125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구성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또한 기관별 차이가 큰 편이다. 각 기관별 조직 구성 및 종사자 현황은 <표 II-61>과 같다.

<표 II-6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 구성 및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기관	조직 구성	종사자(평생교육사) 현황								
		계	평생 교육사 비율	원장	본부장/ 국장/ 사무처장	실· 팀장	직원 (연구원)	파견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기타
서울	2국 6팀	45(30)	66.7	1	2(2)	5(2)	21(16)	-	16(10)	-
부산	1실 5팀	29(11)	37.9	1	-	5(1)	16(10)	-	7	-
대구	2팀 1센터	6(5)	83.3	1	1(1)	1(1)	3(3)	-	-	-
인천	2팀	8(4)	50.0	1	-	1(1)	5(3)	1	-	-
광주	1실 2팀	15(8)	53.3	1	1	3(2)	9(6)	-	-	1
대전	5부 1센터	40(37)	92.5	1	1	3(3)	35(34)	-	-	-
울산	2국	12(7)	58.3	1	1(1)	-	7(5)	1	-	2(1)
세종	1본부 3팀	13(9)	69.2	1	-	1(1)	8(6)	1	2(2)	-
경기	6본부 12실 1센터	241(19)	7.9	1	5	13(5)	143(14)	-	79	-
강원	1원 2팀	9(5)	55.6	1	-	1(1)	4(4)	3	-	-
충북	2팀	7(5)	71.4	1	1(1)	2(2)	3(2)	-	-	-
충남	1실 3팀	15(15)	100.0	1(1)	1(1)	3(3)	10(10)	-	-	-
전북	1본부 2팀	6(4)	66.7	1	-	-	4(4)	1	-	-
전남	1처 2팀	8(5)	62.5	1	1	1	5(5)	-	-	-
경북	2팀	6(3)	50.0	1	1	2(1)	2(2)	-	-	-
경남	1국 2팀	7(5)	71.4	1	1	2(2)	3(3)	-	-	-
제주	1본부 4부	58(13)	22.4	1	1	4(2)	8(4)	2	2	40(7)
계	-	525(185)	35.2	17(1)	17(6)	47(27)	286(131)	9	106(12)	43(8)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주) 괄호 안은 전체 인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수임.

전국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원장급 17명, 본부장/국장급 17명(부산, 인천, 세종, 강원, 전북 공석), 실·팀장급 47명(울산, 전북 공석)으로 총 52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3항 및 제4항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총인원 525명 중 185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진흥원에 비해 평생교육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이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와 특성화 사업 성격상 평생교육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역 평생교육의 중추기구로서 시도진흥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정된 기관 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II-62>와 같다. 독립 재단법인 진흥원들은 모두 이사회 구성과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실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참여위원회, 홍보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평생교육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6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실무협의회	기타
서울	○	○	○	○	○	○	
부산	○	○		○	○		
대구						○	
인천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세종	○	○		○	○		시민참여협의회
경기	○	○	○	○	○	○	홍보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강원							
충북						○	평생교육 포럼
충남	○	○		○	○		
전북			○			○	
전남			○				
경북			○		○		
경남			○		○	○	
제주	○	○			○		인권경영위원회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3)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추진 현황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 단위 평생교육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통 책무사업 발굴과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성과공유회에서는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100여명이 모여 시도진흥원으로서 꼭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협의·논의하였다. 그 결과 최종 10대 핵심 사업을 정리하여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비전 선포 결의문에서 합의된 10가지 핵심 사업별 추진현황은 <표 II-63>과 같다.

<표 II-63> 비전 선포 결의문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기관	역량 강화	지역 특성화	협력체계 구축	지역 우수 사례 공유	구심체 역할 수행	정책 조사 연구	사회적 가치 창출	생애주기 프로그램 개발	균형발전 지원	시도 진흥원 파트너십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17개 시도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취합하여 합의된 10가지 기능과 역할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 지원
 - 시군구 평생교육 관계자, 문해교원 연수, 평생학습 강사, 평생교육사, 학습동아리 연수, 주민자치위원,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등 전문 연수 및 워크숍, 세미나 등
- ②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 학습공간 발굴 지원, 불어라 평생학습바람(공모사업), 민주·인권 특화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희망사다리 지원, 군(軍)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배움의 학교 운영,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연구사업 공모, 인문학당 운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마을조성 등
- ③ 국가 및 시군구 협력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 평생교육 협의회·박람회·포럼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 운영 확대, 평생교육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운영,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지원(광역단위 심사) 등
- ④ 지역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평생교육 소식지·웹진 발간, 시민참여 캠페인 및 실천대회 운영,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유공표창, 시군 성과공유, 교류 증진 등),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및 BEST 평생교육 시상, 평생학습주간 운영, 평생학습대상 및 기관 지원 등
- ⑤ 지역 내 인적·기관·정보·시설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 수행
 - 평생학습 포털 운영, 평생교육(실무) 협의회 운영, 민관산학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정책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 등
- ⑥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정책개발과 조사·분석·연구 수행
 - 평생학습 DB구축사업, 평생교육 통계, 평생교육 현황 조사·분석, 정책 연구, 실천연구, 정책포럼 및 세미나 운영 등
- ⑦ 풀뿌리 학습문화 정착 및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창출
 -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민주시민교육,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등
- ⑧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년, 직장인, 중장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기술학교(5060)운영, 청소년 미래교육·인권교육, 인생설계학교, 시민대학 운영 등

⑨ 지역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시군 맞춤형 평생학습 자문 컨설팅,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점은행제, 장애인교육, 문해교육, 다문화교육, 노인교육, 경력단절여성교육, 평생학습도시 조성 컨설팅, 시민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평생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스마트 도민 아카데미, 배움디딤돌사업, 배움행복마을학교, 평생학습 지역 특화 밸트사업, 디지털 시민교육 등

⑩ 시대적 현안과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17개 시도진흥원과의 파트너십 구축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 진흥원간 협약체결(사업공유, 연수, 워크숍, 공동사업 개최 등), 공동 전문연수, 선진지 견학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개 시도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점 추진 사업, 인력 및 재원 규모 등의 차이와 지역별 현안에 따라 사업 전개 양상은 다소 상이하다. 2011년을 시작으로 이제 17개 시도진흥원이 모두 설립되어 완전체 형태를 갖춘 것을 바탕으로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다 견고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사업 질 관리, 구심체 기능강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운영 현황

1)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주요 연혁

시도진흥원 및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상호 간 교류·협력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가 창립하였다. 당시 시도진흥원 설립을 완료한 부산, 대전, 경기, 제주, 대구,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등 10개 진흥원이 주축이 되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네트워크 연수, 공동사업 발굴 및 개최, 실무협의회 운영, 공청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를 전담 운영하는 사무국은 선출된 지역의 진흥원장 관장부서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장이 사무국장, 부서원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회 예산으로 비상근 간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제1대와 제2대 회장은 경기도진흥원장이 역임하였으며, 제3대 경북, 제4대 서울, 제5대 부산, 제6대 광주, 그리고 2019년 현재 제7대 회장직은 경기도진흥원장이 수행하고 있다. 창립 이후 201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 명칭이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회장의 임기, 각 시도진흥원 분담금 등이 개정, 운영되고 있다.

<표 II-64>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주요 연혁

연혁		주요 내용
2013	4. 4.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간담회 개최
	5. 22.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 창립총회 개최(경기) ▶제1대 회장 선출: 이성(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14	1. 20.	제1차 정기총회 개최(경기)
	8. 28. ~ 30.	평생교육네트워크 연수(제주)
	10. 31.	제1회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개최(대전)
	12. 10.	제2차 정기총회 개최(경기) ▶제2대 회장 선출: 이성(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도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로 명칭 변경
2015	3. 13.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대전)
	4. 16. ~ 17.	제1차 정기총회 개최 및 평생교육네트워크 연수(제주)
	9. 21. ~ 22.	제2회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개최(대구)
	12. 21.	제2차 정기총회 개최(제주) ▶제3대 회장 선출: 김남선(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16	2. 25.	제1차 정기총회 개최(부산)
	3. 10.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대전)
	5. 12. ~ 13.	평생교육네트워크 연수(강원)
	11. 24.	제3회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개최(인천)
	12. 26. ~ 27.	제1차 정기총회 개최(제주) ▶제4대 회장 선출: 김영철(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2017	3. 16.	제1차 정기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제주)
	7. 10.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1차 공청회 개최(서울)
	11. 14.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개최(서울)
2018	1. 26.	제4회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개최(대전)
	1. 26.	제2차 2017 정기총회 개최(대전) ▶제5대 회장 선출: 이철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4. 5.	제1차 정기총회 개최(부산)
	5. 3.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서울)
	7. 30.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서울)
	8. 24.	제2차 정기총회 개최(서울) ▶제6대 회장 선출: 이계윤(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2019	2. 14.	제1차 정기총회 개최(광주)
	2. 14.	제5회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개최(광주)
	4. 18.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제주)
	8. 8.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서울)
	8. 22.	제2차 정기총회 개최(광주) ▶제7대 회장 선출: 한선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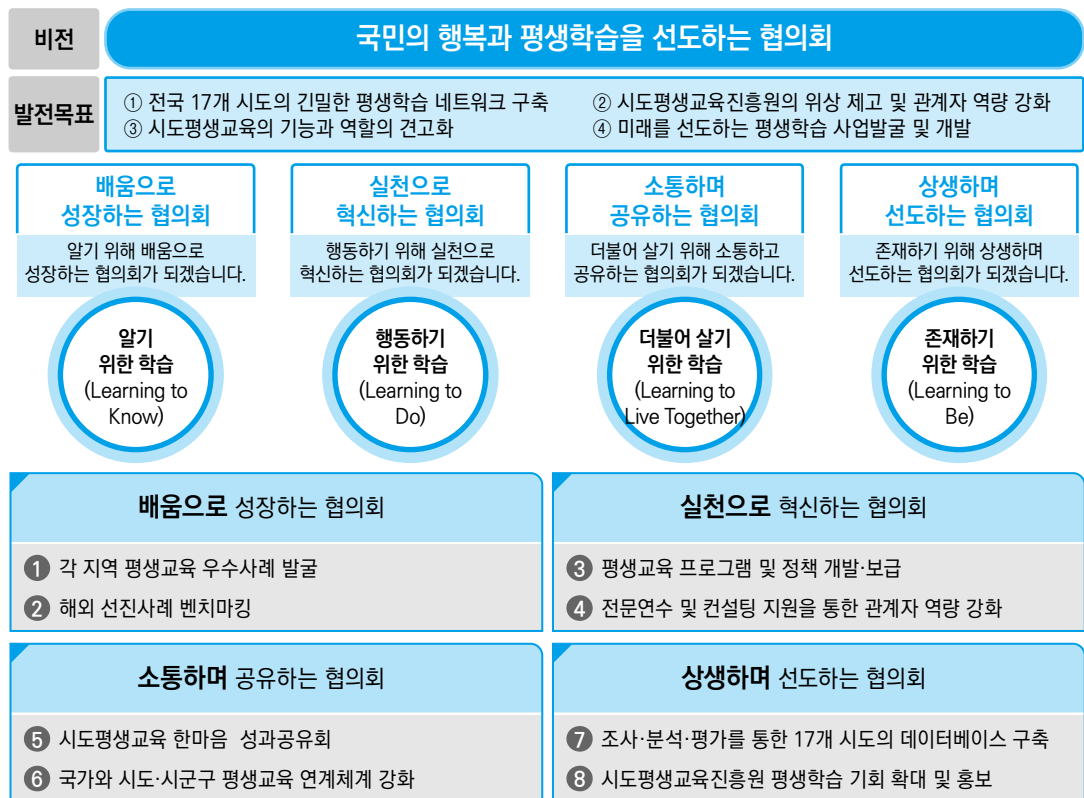
<표 II -65>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

구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기관	경기		경북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임기	2013.5 ~ 2014.2	2014.3 ~ 2016.2	2016.3 ~ 2017.2	2017.3 ~ 2018.2	2018.3 ~ 2018.8	2018.9 ~ 2019.8	2019.9 ~ 2020.8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2) 2019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운영 성과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창립 이래 별도의 비전체계 수립 또는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7대 협의회에서는 2019년 9월 첫 번째 임무로 비전체제도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초안은 사무국에서 설계를 하고, 17개 진흥원 실무협의회(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전 체계도를 최종 수립하였다.



[그림 II -12]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비전체계도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 비전: 국민의 행복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배움을 실천하고 소통하며 상생하는 협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협의회가 되고자 한다.

□ 발전목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발전목표는 전국 17개 시도의 긴밀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견고히 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평생학습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있다.

□ 4대 추진방향 및 8대 추진과제

향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배움으로 성장하는 협의회’, ‘실천으로 혁신하는 협의회’, ‘소통하며 공유하는 협의회’, ‘상생하며 선도하는 협의회’라는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배움으로 성장하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의회를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각 지역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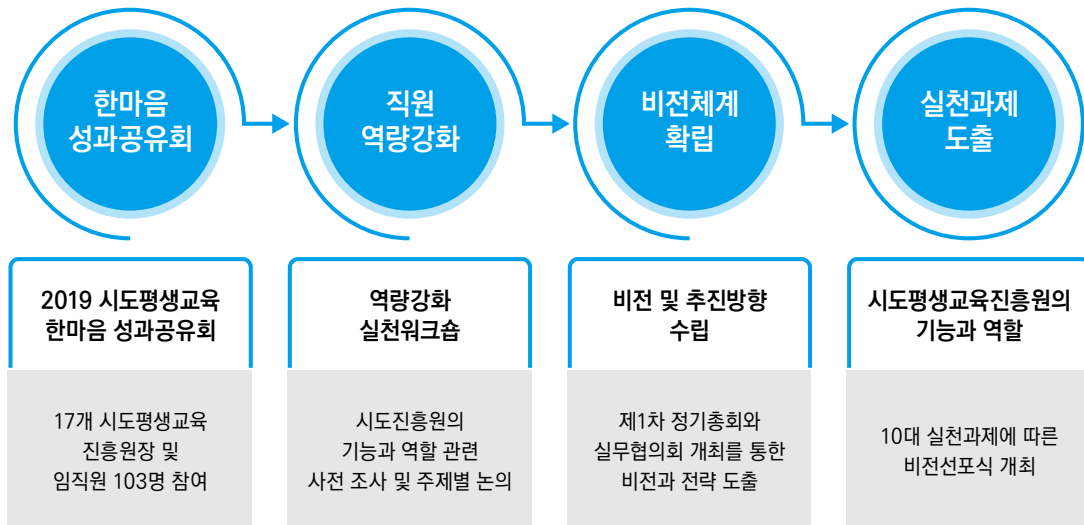
둘째, ‘실천으로 혁신하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실천을 위해 각 시도의 내부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정책 개발 및 보급, 전문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관계자 역량 강화이다.

셋째, ‘소통하며 공유하는 협의회’는 국가와 시군구의 가교 역할을 통해 평생학습공동체로서 협의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시도평생교육 한마음 성과공유회, 국가와 시도, 시군구의 평생교육 연계체계 강화이다.

넷째, ‘상생하며 선도하는 협의회’는 지역의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 협의회가 되어 평생학습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추진과제는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17개 시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홍보이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매년 각 직흥원 임직원들이 모여 1박2일 동안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성과공유회는 임직원 103명이 모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펼쳐 비전 선포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한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협의회 비전과 전략, 발전목표와 추진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확정하였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13년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시도진흥원이 참여하였고, 각 시도진흥원 임직원들이 고르게 분포된 모둠 구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아이디어 도출과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연대의식을 갖게 하였다.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공동의 실천과제를 함께 도출하였다. 특히 마지막 이벤트로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남녀 직원 대표가 시도진흥원의 10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전문을 낭독하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기관장 및 직원들의 비전, 소감, 결의를 담은 릴레이 발표는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책무성 고취, 실천의지를 견고하게 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성과공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II-13]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운영 성과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3. 향후 과제

지금까지 2019년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립·운영되면서 공동의 문제 해결 및 상호 협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도진흥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 전문성 확립, 그리고 국가와 시군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체 기능 및 네트워크 체계가 여전히 미비한 것은 큰 과제이다. 특히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간의 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및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한 축인 광역단위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책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이러한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7대 회장단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각 진흥원 중간관리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계획과 실천성, 전문성, 체계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였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별로 정리된 2020년 사업계획안은 크게 역량강화, 네트워크, 조사·연구로 구

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제별(문해교육, 장애인교육, 상담 및 컨설팅) 워크숍과 전문연수 실시, 17개 시도진흥원 직원대상 직무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17개 시도진흥원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권역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조사·연구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지표’ 개발과 공동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제안이 매우 많았다. 이를 통해 각 시도진흥원의 열정과 지역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시도진흥원들이 모두 각 본연의 사업들로 공동의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아직 어려움과 장애요인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의회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2019). 내부 자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점사업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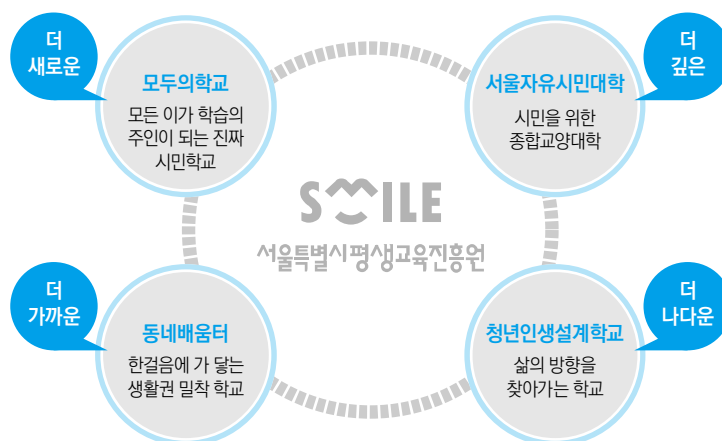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은 학교다

1. 개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4년 4월 설립 이후, 2015년 3월 서울특별시 출연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이후 '서울은 학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수한 민·관·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 평생학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4개의 학교를 주요 사업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II-14]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내용 구성

'더 가까운 학교-동네배움터'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며, 학습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의 폐교를 시민과 함께 리모델링한 '더 새로운 학교-모두의학교'는 시민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중심 평생학습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깊은 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의 인문학적 성찰을 토대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민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서울시청년의회 발의로 시작된 '더 나은 학교-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기 시민들에게 주체적인 인생 경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유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현황 및 운영 성과

가. 동네배움터

동네배움터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배움을 통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흥원, 자치구, 동네배움터의 추진 체제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흥원에서는 동네배움터 사업의 기획·운영과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고, 자치구에서는 동네배움터 공간 확보 및 전문가를 배치하며, 선정된 동네배움터들은 주민 밀착 프로그램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운영한다.

2019년 사업의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7억 원의 예산으로 14개 자치구 동네배움터 111개소를 선정·운영하였다. 선정된 동네배움터에서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1,254개가 운영되었고, 총 13,307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이수자 기준). 또한 주민 참여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에는 총 13,712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학습 관련 문제나 소소한 생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직접 실천까지 해보는 학습-실천 프로젝트가 257개 운영되었다. 이러한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당 2~3명의 동 평생학습 전문가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6회 진행하고,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을 6회 개최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는 45년 동안 중학교 시설이었던 공간을 서울시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며 탄생하였다. 또 2016년에 진흥원의 고유 업무로 이관되어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플랫폼 모델에서 '신개념의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시민 중심의 학습 플랫폼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해 나갔다.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민 참여공간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였

으며, 2017년 10월 28일 개관식도 시민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2018년 3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서로배움×새로배움’의 슬로건하에서 시민이 학습의 수혜자에서 주체자가 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삼각형의 순환 체제로 구조화하였다. 이는 주제 중심 융합형 프로그램(①모두의 양상블 프로젝트)의 능동적 학습 경험이 ②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③시민학교로 육성되어 지속 가능한 배움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제이다.

2019년에 운영 2년차를 맞이한 모두의학교는 시민 중심의 학습 플랫폼 사업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모두의학교가 명실공히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시민 자원활동가 78명 참여 및 상시 또는 정기적인 요구 조사 환류 프로젝트)이다. 둘째, 혁신적 서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혁신 교육 프로그램 기획 툴킷을 개발하고 확산(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 워크숍 4회)하였으며, 주제 중심의 다양한 내용 영역과 주제 간 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였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고민에서 출발한 공공성 있는 주제를 해결하는 시민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사업(13개팀)을 운영하였다. 셋째, 시민들의 학습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19개 커뮤니티 지원 및 사회공헌 연계 활동) 것이다. 넷째, 시민 성장의 자양분이자, 개개인의 취향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공공의 문화서재(모두의책방)를 운영하는 것이다.

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시민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자 설립된 종합교양대학 사업이다.

2019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시대적 이슈와 시민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총 62개소 캠퍼스에서 588개 정규 강좌가 연간 진행되었으며, 총 23,89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장노년층 학습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인문단체(17개), 대서관(5개), 기업(11개)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민·관·학 상생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였다. 서울시 내의 우수한 인문단체·민간기관을 선정하여 3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직장인의 평생학습기회 확보를 위해 하나투어, G밸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문 융합형 인재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한 외국 대사관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시민교육을 추진하였다. 셋째, 시민 주도적 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명예시민학위제를

운영(학사 381명 배출, 석사 148명 승인)하였고, 시민연구회 사업을 추진(19개 팀)하여 학습자의 자율적 모임을 지원하였다. 넷째, 2020년에 조성될 동남권 캠퍼스인 미래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실시하고, 혁신 허브 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다지며 차별화된 운영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2020년 10월 개관 예정).

라.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인생설계학교는 2017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청년들이 인생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20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청년들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 탐구하며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기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를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 보는 13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영광, 산청, 옥천 등 서울 밖 지역에서도 진행되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각 프로그램은 누적 1,573명이 참여하였고, 재참여 의사를 희망한 참여자는 84%에 달했다. 한편 참여자의 자율 활동 지원사업(자율기획 프로젝트)을 운영하여 여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활동비와 수행 자문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의 특징은 서울시 공공·민간기관들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청년들의 주체적 인생 경로 설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서울 시정에 대한 호감도(4.1)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 세대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고(조회수 23만 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갭 이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3. 추진 계획

동네배움터의 경우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서울시 공약 사항으로 선정되면서 2019년 17억 원, 2020년 23억 원 예산으로 그 사업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평생교육 전문가가 자치구에 배치되었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실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민 주도의 동네배움터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중이다. 사업의 특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0년에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실용·생활 중심의 프로그램 차별화와 학습·실천 프로젝트의 내실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두의학교는 실험적 평생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향후 평생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었다. 다만 설립 초기이다 보니 여러 실험적 프로젝트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에는 각 사업들의 상호 연계성 강화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 평생학습 플랫폼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위탁 운영을 통해 사업이 안정화되고 확대 추진되면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평생학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캠퍼스를 재정비하고, 전략적 발전 모델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사업 확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주체적인 인생 계획 설계를 돕기 위하여 심도 있는 사유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곳,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학습주간

1. 개요

부산평생학습주간은 부산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동아리, 학습자,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운영한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학습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습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기관 홍보 및 체험관 운영, 평생교육 학술세미나, 부대 행사, 시상식 등이다. 부산평생학습주간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여 평생교육문화를 확대하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현황

부산은 2002년부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으나, 2011년에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체제가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평생학습축제는 개최하지 않고, 평생학습실천대회, 부산평생학습대상, 평생학습아고라 등 다양한 행사로 대체되었다. 이후 지정 위탁운영한 부산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화되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면서 2017년부터는 격년제로 ‘부산평생학습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부산평생학습주간은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부산’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전시, 회의, 강의 등이 가능한 벡스코에서 부산시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가 되어 행사를 운영하였고 부산시교육청, 16개 구군 평생학습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부산평생학습주간 선포, 학술 세미나, 백일장, 청춘골든벨,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교육, 강연 및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다.

2019년 제2회 부산평생학습주간은 부산시민에게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학습의 일상화를 알리기 위하여 ‘일상의 배움, 일링이는 학습 물결~’을 주제로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광장)에

서 개최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평생교육 세미나 및 토론회, 평생학습동아리 사례 발표 및 경연 대회, 북 콘서트, 평생교육인의 밤, 야간 버스킹 등을 진행하였다.

<표 II-66> 부산평생학습주간 운영 현황

구분	2017년	2019년
행사명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제2회 부산평생학습주간
주제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부산	일상의 배움, 일렁이는 학습 물결~
기간	2017. 5. 19.(금)~5. 20.(토)	2019. 10. 25.(금)~26.(토)
장소	벡스코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광장)
주요 행사	• 평생교육기관 홍보·체험관 운영 • 개원 기념세미나, 개막식(주간 선포) • 백일장, 청춘골든벨 • 학습동아리 발표회 •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교육 • 강연 및 토크 콘서트 • 대학 및 인재육성 협의회 및 간담회	• 평생교육기관 홍보·체험관 운영 • 학술 세미나 및 토론회 • 개막식, 부산평생학습대상 및 성인문해교육시화전 시상 • 도전, 성인문해교육 골든벨 • 학습동아리 사례 발표 및 경연대회 • 세대융합 미래교육 • 북 콘서트: 강원국의 글쓰기 • 평생교육인의 밤 • 야간 행사: 버스킹 공연, 타로 체험

출처: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2019년 부산평생학습주간은 시민들이 부산의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부산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평소 가졌던 고민거리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 행사였다. 특히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외부인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었으며, 관계자들은 평생교육인의 밤을 통하여 부산 평생교육의 비전을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세대별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경연대회, 작품 전시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결과를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진 계획

향후 부산평생학습주간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민 중심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그램,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BB21플러스(Brain Busan21+)

1. 개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부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02년에 BB21사업을 출범하고 이 사업은 2018년에 BB21플러스로 탈바꿈하였다. BB21플러스 사업은 지역 대학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수도권 집중 등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부산시가 지역 대학에 지속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부산시는 BB21플러스 사업에서 장학금 지원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전문)학사 역량강화 등 대학 양대 핵심 기능을 지원하여 지역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지방 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역-대학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제고를 도모하였다.

2. 현황

BB21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총 5단계를 거쳐 2017년 12월에 종료되었다. BB21사업은 선정사업단의 학·석·박사 장학금 지원(지원금의 70% 이상)으로 연구 및 산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BB21의 5단계 사업은 13개 대학, 20개 사업단으로 참여 학생 217명, 논문 발표 330건, 기술 개발 28건, 특허 72건, 경영 및 기술 지도 117건으로 연구 및 산학협력의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BB21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하고, 연구인력 양성에 치중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BB21플러스는 BB21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 직무역량 기반형을 신설하여 지역 고등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학과 융복합 신청을 유도하여 학문 분야 및 사업단 규모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흥원은 2018년 6월에 13개 대학, 21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사업단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II-67〉 BB21플러스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구분	BB21	BB21플러스
사업 기간	5단계 (2013. 6.~2017. 12.)	2018. 6.~2023. 5.(5년, 2+2+1년)
사업 대상	부산 지역 대학 13개 대학, 20개 사업단	부산 지역 대학 13개 대학, 21개 사업단
소요 예산	5개년 총 4,505백만 원(진흥원·부산시)	매년 961백만 원(진흥원·부산시)
주요 내용	• 목적: 연구 및 산학협력 고급인력 양성 • 사업 유형: 연구형, 산학협력형 • 공모로 선정된 대학 사업단에 연구과제 수행 경비 지원 • 사업단별 지원금: 40~50백만 원 • 지원금의 70% 이상 학·석·박사 장학금 지원 - 학사 30만 원/월, 석사 50만 원/월, 박사 70만 원/월	• 목적: 연구 및 (전문) 학사 직무인재 인력 양성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 확대 • 사업 유형: 연구인재양성형, 직무역량강화형 • 공모로 선정된 대학 사업단에 연구과제 수행 경비 지원 • 사업단별 지원금: 30~60백만 원 • 지원금의 70% 이상 학·석·박사 장학금 지원 - 학사 30만 원/월, 석사 50만 원/월, 박사 70만 원/월
역할	• (부산시) 사업단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진흥원) 연차평가, 우수사업단 선정	• (부산시) 사업기본계획 수립 • (진흥원) 선정사업단 선정, 지원금 교부, 사업단 관리 등

출처: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7~2019).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부산시는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사업인 BB21플러스는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참여 학생 249명, 참여 기업은 73개, 석·박사 학위취득자 51명, 논문 실적은 SCI급 47건, KCI급 42건으로 총 88건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02년 BB21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석사 학생이 20년 이후 BB21플러스 사업의 사업단장이 되거나 다시 모교의 연구교수로 임용되는 등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 인재의 선순환 성과를 이루었다.

〈표 II-68〉 2019년도 BB21플러스 사업 운영 성과

(단위 : 명, 건, %)

구분	참여 인원						인재 양성		
	교수	참여 학생				참여 기업	석사	박사	계
		학사	석사	박사	계				
목표	59	61	83	21	165	68	38	8	46
실적	60	98	120	32	249	73	42	9	51
달성률	-	161	145	152	151	107	111	113	111

구분	진학 성과			취업 성과					
				학사		석사		박사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계	전체	지역 내	전체	지역 내	전체	지역 내
목표	32	5	37	27	13	29	13	3	2
실적	38	9	47	20	15	21	11	5	5
달성률	119	180	127	74	115	72	85	167	250

구분	연구 성과(건)									
	SCI급		KCI급		계	국제 발표 논문		국내 발표 논문		계
	교수	학생	교수	학생		교수	학생	교수	학생	
목표	7	35	13	41.5	96.5	1	59	5	137	298.5
실적	20	27	20	22	88	21	128	41	249	528
달성률	286	77	154	53	91	2,100	217	820	182	177

출처: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4. 추진 계획

BB21플러스는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지역 정주를 도모하여 지역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구축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연구 및 직무인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문사회 분야의 인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위기가 지역사회의 위기가 되면서¹⁸⁾ 대학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산·학·관·민의 연계 협력 체계에서 진흥원이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BB21플러스 사업결과 보고.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EBS(2020). 대학 문 달자 지역도 황폐화·‘유령도시’ 된 대학가(2020. 1. 20. 방영).

18) 대학 문 달자 지역도 황폐화·‘유령도시’ 된 대학가, EBS, 2020. 1. 20.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학습 리더 그루잉업 과정 운영

1. 개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대구평생학습 리더 그루잉업’ 과정을 운영하였다. 세부 과정으로 ‘대구평생학습 학습큐레이터 양성과정’과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 사업을 운영하였다.

‘대구평생학습 학습큐레이터 양성과정’은 평생학습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학습큐레이터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였다.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학습과 사회참여 활동, 일이 선순환을 이루는 학습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는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2. 현황

가. 대구평생학습 학습큐레이터 양성과정 운영

평생교육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대구시민을 모집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기초교육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평생학습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총 8차시의 교육과정

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지역 평생학습,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의 역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학습자 상담, 평생학습동아리와 같은 개괄적인 내용을 양성과정의 초반 4차시에 걸쳐 다루었다. 또한 후반의 4차시에서는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학습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홍보 및 마케팅, 퍼실리테이션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30명의 학습큐레이터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787시간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 대구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학습동아리 소셜러닝 활성화 지원, 대구시민대학 운영 지원, 시민배움터 운영 지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상담, 평생교육사 연수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등 대구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조력자로 참여하고 있다.

나.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평생교육 마인드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구근대문화골목 투어에 참가하여 교류를 나누었다.

노선옥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률과 정책 방향’ 특강에 이어 이정미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평생학습정책이 나아가야 할 통합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 과제와 개선책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이어 갔다.

3. 운영 성과

먼저 학습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통하여 총 30명의 학습큐레이터가 양성되었다. 교육 대상자 전원이 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활동에서도 중도 탈락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기 학습큐레이터는 위촉 후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홍보는 물론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는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학습큐레이터 양성사업은 지역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평생학습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평생학습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 연수는 평생교육사 총 74명이 이수하였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참여자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평생교육의 현안을 다룬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연수를 통하여 평생교육 관계자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다.

4. 추진 계획

2020년에는 학습큐레이터 2기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구는 기술과 인재양성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21세기형 관용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신뢰와 존중, 다양성과 포용성, 참여와 도전 정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층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통합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배움터 '다 : 이룸'운영 지원

1. 개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시민 밀착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새로운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9년에는 공공·민간시설과 유희시설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근거리 학습을 제공하는 시민배움터 운영을 지원하였다. '다:이룸'은 배움과 학습을 통해 성과를 모두 함께 이룬다는 의미와 룸(room)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포함한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에서 4곳은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소멸위험도가 높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 인구를 늘리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행정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것이 '마을'이다. 대구시의 '가족친화마을', 경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행정적 마을 사업은 일반적으로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이룸' 사업을 통하여 오늘날 시민에게 '공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공간의 재탄생에 주목하였다.

2. 현황

대구 지역 내 공공·민간시설 및 유희시설 등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 시설 중 공간 대여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역의 작은도서관, 민간 연구소, 사단법인 시설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재활용디자인, 부모성장학교, 생활법률, 독서코칭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 운영 성과

현대사회에서 '공간'은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낸다. 시민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총 12개 기관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공간에서 14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211명이 참여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학습 모임과 운영,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였다.

4. 추진 계획

시민배움터 ‘다:이룸’ 사업은 대구시민의 시민배움권 확대를 목표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 차원에서의 시민력 향상에 비전을 두고, 민·관·학의 연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 준비 중인 지식발전소(대구시청 별관 내)를 평생학습 플랫폼의 중심축으로 두고, 대구의 생활배움권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구의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으로 차별화된 운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프로젝트 1. 대구 배움광장 「지식발전소」	프로젝트 2. 배움곳곳 「다:이룸」	프로젝트 3. 「시민캠퍼스」
공간의 불협, 이슈화	시민학습도시, 대구 조성	대학 자원을 통한 시민학습 강화
• 방향성 - 대시민 배움 콘텐츠 서비스 - 대구평생학습 상담센터 • 추진 형태 - 직접 운영 및 위탁 계약	• 방향성 - 배움의 일상화 • 추진 형태 - 민간기관, 시설, 단체 발굴·지원 - 지식발전소 대여 지원	• 방향성 - 특성화 콘텐츠 발굴, 공간 협업 • 추진 형태 - 대학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원 - 학습 영역의 특성에 중점

참고 문헌

- 대구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사업성과 결과보고서. 대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 개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인천시민의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 기관, 지역, 사람, 분야를 넘나드는 촘촘하고 건강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역의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평생학습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현황

가. 평생교육기관 연계 협력 체계 마련

진흥원은 '지역 내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우선 진흥원의 사업 추진 목표·방향 등을 공유·연계하고 공모 사업 등을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진흥원 평생교육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하여 인천 평생교육 현안 과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간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 예술,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평생교육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평생학습 포럼·워크숍 등의 공동사업 진행

인천 평생교육×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포럼과 워크숍에서는 삶의 전환기를 맞는 세대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시작된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의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2019년은 ‘평생학습인, 그대는 별’이라는 주제로 각 평생학습도시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지역공동체에 대한 워크숍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II -69〉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 운영현황

연도	주제	일자	장소	참여자
2015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2015. 9. 17.(목)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450명
2016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를 맞는 중년의 인생 설계	2016. 9. 8.(목)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228명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7. 9. 7.(목)	남동복지관	300명
2018	인천 평생학습 순항하고 있나요?	2018. 9. 6.(목)	서구청 대회의실	250명
2019	평생학습인, 그대는 별	2019. 5. 28.(화)	카리스호텔	106명

출처: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9a). 내부 자료.

다.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개최

진흥원은 2016년부터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인식 제고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2019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성과공유회 형식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학습동아리, 활동가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표 II -70〉 최근 3년간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추진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 기간	2017. 10. 24.~10. 25.	2018. 9. 7.~9. 8.	2019. 11. 26.
개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아트플랫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소요 예산	30,000천 원	30,000천 원	30,000천 원
주요 행사	- 개막식 및 시상식 - 평생학습실천스토리 공연 - 시민마이크-말하는대로 - 평생학습 시민제안 부스 - 아울신평 아이디어 발표대회	- 개막식 및 시상식 - 인천 올해의 평생학습대상 - 우수동아리 선발설발 및 성과공유 - 인문학 특강 - 평생학습1번가-시민제안부스	- 개막식 및 시상식 - 올해의 평생학습대상 및 평생교육 유공자 -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참가 규모	약 1,500명	약 1,800명	272명
연계 행사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평생교육 정책포럼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인천평생학습 서포터즈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학습동아리 연수

출처: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9b).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 공유를 통해 관내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 설명회는 2019년 3월 11일(월)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기관 84개, 총 133명이 참여하여 진흥원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공모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시작을 열었다. 10월 14일(월)에는 9개 군·구와 진흥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하여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한 협력 방안,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11월 14일(목)에 열린 자문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등 9개 유관 분야의 현장 전문가 20명과 함께 분야별 교육 이슈를 공유하고 연계 방안 등을 찾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두 번째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5월 22일(수)에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전환의 시간,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기조 강연으로 ‘생애 전환과 시대 전환’(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자), 생애 전환 교육,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백현주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53개 기관 113명이 참여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의 생애 전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처럼 전문가와 청중이 생각을 나눔으로써 생애 전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10월 2일(수)에는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49명과 함께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문화예술로 만나는 생애 전환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생애 전환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타 지역 평생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었다.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기존 포럼 형식에서 벗어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인천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활동가 106명이 참석하여 ‘평생학습인, 그대는 별’이라는 주제로 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1월 26일(화)에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기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지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에는 10개 군·구와 47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실천대회를 통하여 평생

교육이라는 커다란 생태계 안의 사람과 기관 그리고 평생학습이 서로 만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4. 추진 계획

향후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평생교육기관 및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이다. 2020년 진흥원 추진 방향과 전반적인 사업을 소개하고 공모 사업을 안내하여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민·관·학 평생교육네트워크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안 주제에 따라 형태·규모를 조정하여 협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집담회를 진행하여 정보 공유 및 현안 과제 논의 등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유관 기관과의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선보이는 장(場)이다. 따라서 인천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그 중심에서 실천대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9a). 2019 인천 정책모럼(후원) 결과보고. 인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 결과보고. 인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1. 개요

2019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 받았고,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 기술 교육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시대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미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 현황

〈표 II-71〉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구성 및 운영	활용 및 연계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강의, 소규모 워크숍 등	인식교육 특강, 시민해커톤	⇒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 메이커교육	3D프린터, 아누이노를 활용한 공예 등 창작 활동	메이커 교육 체험 및 답사	⇒ 평생학습 박람회, 성과공유회

출처: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9).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2019 사업운영 자료집.

가.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대규모 특강과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대규모 특강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대상자 구분하여 생애주기와 사회적 역할에 맞는 주제(학부모: 교육/ 중장년: AI와 건강/ 청년층: 문화)

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강연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수준 높은 특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소규모 워크숍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는 시민해커톤¹⁹⁾이 운영되었다. 관심 있는 시민 및 관계자들을 사전에 모집해 3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여가생활/ 지역산업/ 시민사회’라는 팀별 주제를 가지고 사전 회의를 통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해커톤 당일 각 팀은 사전토론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였고, 이어서 좌장(전남대 이철우 교수)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 4차 산업혁명 메이커 교육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천 대응으로, 메이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두 트랙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메이커스 단체((주)8793, 오픈랩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일반 시민 대상 메이커 교육은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하여 메이커 프로그램 기획 부스 형태로 운영하였다. 기획 부스는 메이커스 단체 외에도 전남대학교 만들마루의 ‘찾아가는 메이커 버스’, 광주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의 ‘3D 프린팅을 활용한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전시 및 전자의수 체험’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다.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메이커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19) 해커톤(Hackathon):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한정된 기간 내에 다양한 참여자가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행사

3. 운영 성과

가.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표 II-7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시민인식 교육 운영 성과

구분	주제(대상)	내용	참여	일정	강연(발표)자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대규모	미래시대의 교육혁신, 에듀 테크(학부모)	73명	6. 20.	에듀클라우드 조성훈 대표
		AI와 의료의 만남 (중장년)	84명	8. 22.	삼성의료원 신수용 교수
	소규모	배달의 민족의 혁신과 미래전략(청년)	51명	9. 6.	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
		시민해커톤 사전 회의	20명	10. 11.	시민 리더, 장애인재활협회, 행복학습매니저
			34명	11. 7.	전남대학교 이철우 교수
		광주시민 해커톤 운영			

출처: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9).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2019 사업운영 자료집.

나. 4차 산업혁명 메이커 교육

유관 기관 및 메이커스 단체와 협업하여 체험 및 현장실습을 통한 메이커 교육을 총 30회 실시하였으며,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3D펜 등을 활용한 메이커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73>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차 산업혁명 메이커 교육 운영 성과

구분	프로그램명	학습 대상	운영	참여	전문가/관계자
메이커 교육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1회	12명	메이커스 단체 (오픈랩)
	광주평생학습박람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 시민	29회	272명	메이커스 단체 (오픈랩·8793)
계			30회	284명	

출처: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9).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2019 사업운영 자료집.

다.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공동주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9년 11월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

학교, 순천상공회의소와의 공동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과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알맞은 미래산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역 평생교육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운영, 시민 인식 확산, 기관의 운영 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공동 추진 등을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 추진 계획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9년에 운영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연합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심도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인식 교육의 경우,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찾아가는 시민교육’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며, ‘디지털리터러시 학부모 마스터 양성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활동 등 이론강의와 뉴스/영상/카드뉴스 제작, 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실습을 아우르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절차	사전 특강	참여자 선발	양성과정 운영	결과 정리	사후 관리
	학습과정 탐색	안내/서류/면접	연수(5일)	운영결과 및 자료 아카이빙	온라인 보수교육 학습동아리 연계 등
운영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광주평생교육 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협회
협조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그림 II-1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 학부모 마스터 양성과정 운영 절차

출처: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 자료.

참고 문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9). 4차 산업혁명 대응 시민교육 2019 사업운영 자료집. 광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8). 행복한 교육 7월호. 52-54.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1. 개요

현재 평생교육의 흐름은 기관 중심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학습자들은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에 참여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대상과 목적이 개인에서 지역 중심으로, 개인문제 해결 중심에서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학습을 매개로 한 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에서도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역재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참여와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사회개발 사업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습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가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민의 학습 주도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성장을 지역의 성장으로 연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현황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활 의제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평생교육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학습을 지원하여 다양한 생활 속 장면들과 연계된 학습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습영역별·생활권역별 학습공동체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성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입하여 학습공동체를 단계별 성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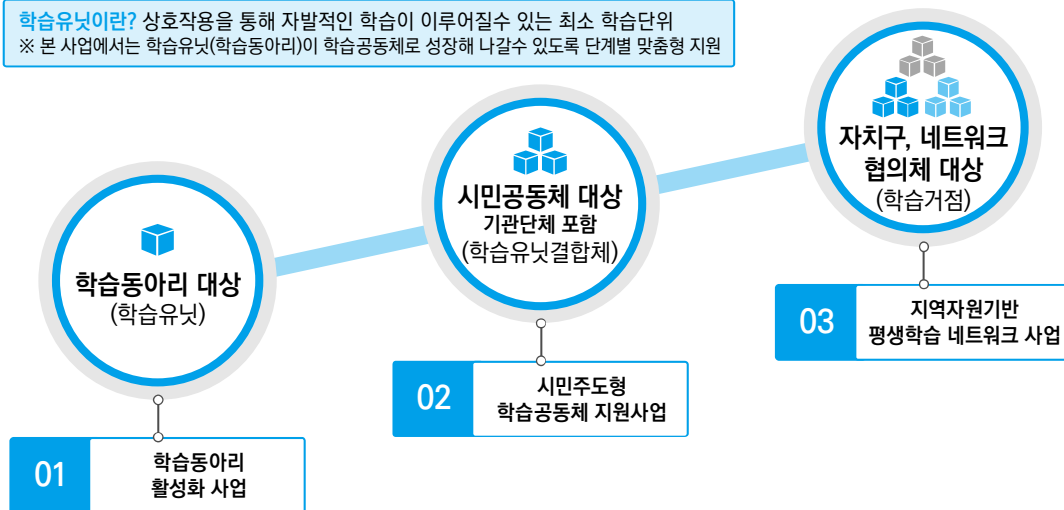
따라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학습조직성·공동체성·지역사회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다.

<표 II-74>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단계별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의 내용
1단계 학습조직 강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 배우며 실천하는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토대 마련을 위한 지원 •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일상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2단계 공동체성 강화	시민주도형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 평생학습으로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 지역의 기관·단체 및 시민공동체와 연계·협약하여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3단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사업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치구와 학습공동체,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사업(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건강한 대전평생학습생태계 조성

출처: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학습유닛이란?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는 최소 학습단위
※ 본 사업에서는 학습유닛(학습동아리)이 학습공동체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그림 II-16] 사업의 단계별 추진도

출처: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추진 계획

2019년도에는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지역자원기반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4개 자치구가 참여하였으며, 시민주도형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은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의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교육 콘텐츠 발굴 및 자원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주도형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습공동체 콘텐츠 공모전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공동체에서 학습형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여 운영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공동체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 주도의 학습공동체 플랫폼 구축과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학습자들에게 지역학습 공간 지원 및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공유 학습 공간으로 발굴·제공하고 학습공동체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습공동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연수, 컨설팅, 워크숍, 홍보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설립

1. 개요

중학교 의무교육의 도입 등으로 학령기에 속하는 학생들의 초중고 학력인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 및 학업 중단 청소년 등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대전 지역은 20세 이상의 성인 중 초중고 학력인정이 필요한 잠재 수요 비율이 18.5%에 이를 정도로 잠재수요자는 많은 데 비해 이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등 학력인정 잠재수요자는 20세 이상 성인 중 14.9%에 달하는데, 이를 수용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대전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학력인정의 수요와 학습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인학습자의 중등 학력인정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2. 현황

대전광역시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및 운영 주체로 결정하고, 민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자문단을 통해 학교 편제,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를 확정하였다. 2019년 12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중등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시간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게 단기간에 중등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을 수업일수로 활용한 1년 3학기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학업시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학교의 7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규모는 주·야간반 16학급 규모로 인가를 받았다(2020년에 한해 12학급으로 편성 운영).

<표 II-75>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규모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교육 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교육 기간	2년(6학기)	2년(6학기)

출처: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조직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부서 형태로 구성되며,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였다.

3. 추진 계획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3자 간 민관협력모델로 설립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다시 한 번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중등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배움을 이어 가는 교육 공간과 학습자 간에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외에도 학력인정 준비교육, 학력인정 연계 직업준비교육 등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로 인식하고 학교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비롯한 진로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단순히 학력인정교육을 위한 시설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해교육’과 ‘학력인정교육’을 아우르는 문해 및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이 학력을 취득하고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체득한 이후에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계획보고서.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대전평생교육진흥원(2020). 2019년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성과보고서.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광역시 평생학습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1. 개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군의 현안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평생학습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오염되었던 태화강을 복원시키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도시재생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태화강 정원은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는 국가정원과 관련된 지역 인재 양성, 시민교육, 관광객 대상 체험학습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 현황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지 않고 관내 내용 전문가와 외부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내부 컨설턴트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사의 사전 회의를 통해 담당자의 요구를 분석(10. 4.)하였고, 외부 컨설턴트와 5회(10. 23.~12. 19.)에 걸친 프로그램 개발 회의, 울산 관내 전문가의 자문회의 2회(11. 19./12. 19.)를 거쳐 특화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군의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울산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개발, 분석,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의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중구는 국가정원 중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정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역의 캐릭터인 ‘큰애기’를 활용하여 과정명을 브랜드화함으로써 특화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록 하였다. 남구는 국가정원 중 철새 도래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철새홍보관이 개관함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타 부서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3. 운영 성과

구군 평생학습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사업은 현안 업무로 인해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평생교육사를 지원하고, 지역의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성과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 연계사업을 독려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4. 추진 계획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울산 관내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울산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메이커 교육 운영 사업

1. 개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울산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 및 전문과정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기초교육 운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평생교육 메이커 교육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울산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메이커와 관련된 3D프린터, 레이저 커팅, UV프린터, 플루터 등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현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메이커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 '일상생활 지원용품'을 주제로 장애인과 어르신이 교육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물품을 제작하였다. 2019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종합사회복지관협회, 울산문해교육기관연합회와 연계하여 메이커 교육을 통해 제작한 7종, 700개의 일상생활 지원용품을 기부하였다.

3. 운영 성과

2019년 춘해보건대학교 융합기술신속대응센터와 함께 '메이커 교육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용품 제작 일반과정'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생 중 취업, 창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는 성과이다. 평생

교육의 교육과정은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수혜자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추진 계획

기초과정 진행 후 울산광역시 차원의 메이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과정(3D프린팅 운용기능사) 개설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전문자격과정 개설을 확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평생교육 수혜 소외계층인 청년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권 보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학습의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 시민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36.8%),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22.9%)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였다. 이는 국가정책, 학무모 교육, 인문학, 고전학, 세종학 등 전문 분야의 저명한 연사를 초빙하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시행하였다.

2. 현황

2019년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세부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76〉 2019년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현황

교육과정	교육 내용 개요	대상	운영 기간	운영 방식
정책아카데미	국가 주요 정책 주제별 운영(8개) 및 명사 특강(7회)	공무원, 시민	1~12월	직영
세종학부모대학	자녀를 위한 학습코칭, 생활지도, 진로교육, 소통·대화 등의 부모교육	초등 학부모	3~11월	협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주교육대학교】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	시민	4~11월	직영
고전학	논어, 명심보감, 천자문	시민	2~11월	직영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세종 지역의 역사, 문화, 미래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 교양과정 (교양 2학점, 학점교류)	대학생, 시민	3~12월	협업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최근 3년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성과는 다음의 <표 II-77>과 같다. 2019년은 전년과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총 참여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정책아카데미, 세종학부모대학, 인문학의 참여 인원은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 교육 내용이 2018년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대학 「집현전」의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표 II-77> 최근 3년간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성과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 회수	참여 인원	운영 회수	참여 인원	운영 회수	참여 인원
정책아카데미	42	4,870	37	6,099	40	5,506
세종학부모대학	20	4,700	24	5,811	24	4,964
인문학	22	1,834	16	1,505	16	1,257
고전학	67	1,360	82	1,476	87	1,504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15	1,171	27	2,346	29	4,606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7-2019). 내부 자료.

4. 추진 계획

향후 시민대학 「집현전」의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 플랜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시민 자문을 통해 시민대학의 전문성, 체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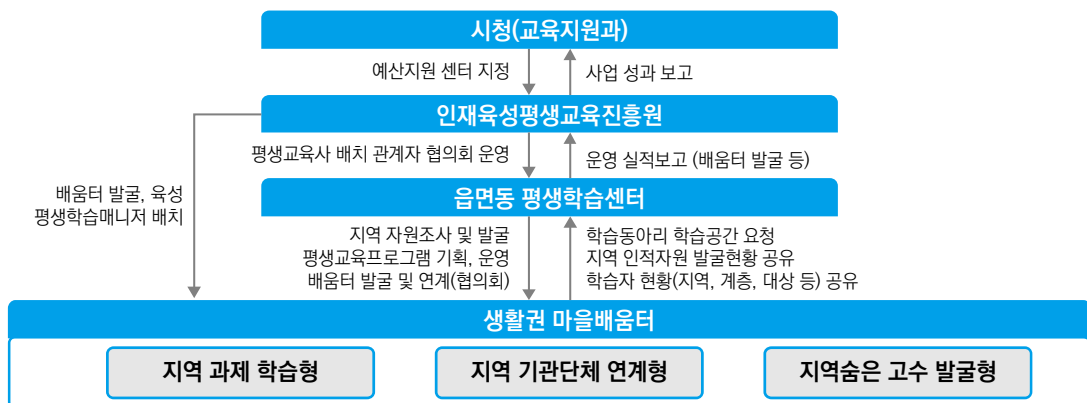
근거리 생활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마을배움터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평생교육 서비스의 신도심 집중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전환기 평생학습 지원모델을 만들고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세종동네배움터를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생활권 중심의 전환기 평생학습 지원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2. 현황

2018년에는 세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 및 민간센터 5개소를 센터로 지정하고 매니저를 배치하여 25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또한 세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마을 단위 세종배움터 10개소를 지정하였고, 평생교육 전문인력(평생교육사)을 배치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1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생활권 마을배움터 지원사업 추진 체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2018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5개소를 시범 지정하고 학습플래너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도 운영 결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읍면동 단위 거점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평생교육의 공공성 및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에서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평생교육 전문 인력(평생교육사) 배치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센터 기능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표 II-7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마을배움터 운영 성과

(단위 : 개소, 개, 회, 명)

구분		지정	프로그램 수	운영 회수	참여 인원	전문 인력 배치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	2018년	5	25	213	3,576	학습플래너 5명
	2019년	2	4	84	2,830	평생교육사 2명
마을배움터	2018년	-	-	-	-	-
	2019년	9	19		3,473	평생학습매니저 9명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2019). 내부 자료.

4. 추진 계획

2차년도 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별 역할 강화 및 평생교육사의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화 전문화를 도모하며, 2019년 연말 평가를 통해 기관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 시민 의식 조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1. 개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길어진 생애 후반기를 처음 맞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와 함께 시작되는 본격적인 생애 후반기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낀 세대’, ‘부포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을 부양하지만 자식들에게 부양받지는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1,323만 명 중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357만 명으로 약 26%가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의 잠재된 수요자라 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평생학습을 통한 은퇴 후 노후 준비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생활기술학교(이하 ‘생활기술학교’)'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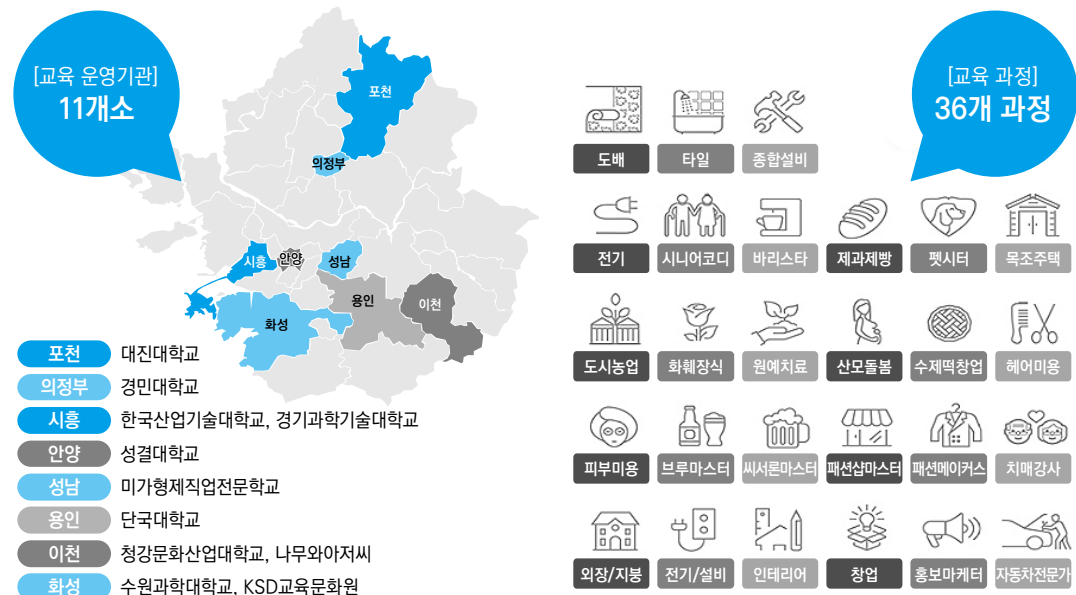
2. 현황

생활기술학교는 평생학습을 통한 중장년 세대의 은퇴 후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은퇴·노후 설계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교육’, ‘사회공헌 연계 현장실습’ 등이다. 전문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2019년 11개소에서 3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학습자는 총 1,484명으로 이 중 1,350명(91%)이 수료하였다. 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79>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추진 현황(2017~2019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6억 원	16억 원	20억 원
교육기관	2개소	6개소	11개소
학습자	150명	680명	1,484명
교양교육	• 건강, 여가, 재무, 일 등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한 인문교양교육 운영		
직업교육	5개 과정 • 도배, 목공, 설비, 전기, 타일	10개 과정 • 도배, 설비, 제빵, 한식조리 등 10개 과정	36개 과정 • 도배, 시니어코디, 펫시터, 수제 떡 창업 등 36개 과정
현장실습	• 장애인아학시설 환경개선	• 독거노인가구 환경개선 • 유기견, 미용봉사 실습 • 지역 취약계층 간식 제공	• 지역 취약계층 환경개선 • 요양시설 정원 만들기 • 지역 주민 헤어커트 봉사 • 노인시설 피부미용 봉사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그림 II-18] 2019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 운영기관 현황

3. 운영 성과

가. 경기도 내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생활기술학교는 2019년 265개의 취·창업 일자리 창출, 822개의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를 거두며, 중장년층의 건강한 미래 설계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II-80>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추진 실적(2017~2019년)

(단위: 명, %)

연도	교육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업 실적			자격 취득
				소개	취업	창업	
계	2,314	2,111	92	471	191	280	1,199
2017	150	137	91	85	34	51	18
2018	680	624	92	121	79	42	359
2019	1,484	1,350	91	265	78	187	822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평생학습을 통한 도내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생활기술학교는 각 과정별 특성에 맞춘 사회공헌 연계 현장실습을 통해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과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연계 현장실습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81>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회공헌 활동 내용(2017~2019년)

(단위: 개소)

연도	평생학습 통한 사회공헌 활동 내용	실습처
	계	151
2017	• (도배, 타일, 전기, 설비, 목공) 장애인아학 8개소 환경개선 실습 진행	8
2018	• (도배, 타일, 전기, 설비) 독거노인 가구 20개소 환경개선 실습 진행	38
	• (제과제빵) 제빵 실습 진행 및 실습 결과물 지역 아동보호소 기부	
	• (한식조리) 소외계층 대상 축제 및 지역 아동보호센터 도시락 지원	
	• (시니어코디) 지역 축제 체험부스 운영 및 요양원 어르신 대상 강의 시연	
	• (애견미용) 유기견보호소, 장애인도우미센터 미용 봉사	
	• (전통장제조) 발효 마을 현장 견학 및 실습결과물 행정복지센터 기부	
2019	• (도배, 타일, 전기, 목조주택 등)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105
	• (도시농업, 힐링원예, 화훼장식) 요양시설 정원 만들기, 꽃꽂이만들기 등	

연도	평생학습 통한 사회공헌 활동 내용	실습처
	• (치매예방강사, 시니어코디) 지역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 봉사 • (헤어미용) 지역 주민, 요양원 어르신 대상 헤어커트 봉사 • (제빵, 수제떡한과, 바리스타) 지역 주민, 요양원 대상 음식 기부 • (패션메이커스, 샵스타일마스터) 지역 축제 플리마켓 부스 참여 • (브루마스터, 씨서론 마스터) 지역 축제 맥주 양조 시연 및 시음 부스 참여 • (펫시터) 펫 박람회, 펫파크 훈련 상담 및 반려견 1일 도우미 • (홍보마케터) 지역 내 홍보 서포터즈 활동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4. 추진 계획

생활기술학교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총 2,1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471명이 취·창업을 하는 등 소기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 배우고 익힌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료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기술학교는 수료 이후 배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도 평생학습 사회공헌단’ 창단을 계획 중이며, 경기도 중장년들의 능동적 미래 설계를 위한 좀 더 안정되고 내실화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성과사례집.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1. 개요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표는 보다 많은 강원도민이 평생학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참여를 유도하며, 모든 도민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자 연 단위 종합성과를 선보이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의 모든 자치단체(18개 시군)는 각기 다른 환경과 전략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매년 다른 환경에서 박람회를 개최해 최대한 많은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또한 이 행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2019년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춘천호반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춘천시는 도시규모는 크지만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이번 박람회는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춘천시의 평생학습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춘천시민의 평생학습도시 인식 제고와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2. 현황

강원도의 첫 번째 박람회였던 2016 강원도 평생학습주간은 12일 동안 강원도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대규모 통합 행사를 치르기에는 진흥원과 자치단체 모두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소규모 시민참여형 행사를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운영 효율성과 전년도 개선과제를 고려해 단기·집중 형태의 행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평생학습축제와 공동개최를 추진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홍보관, 체험관을 운영해 강원도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강원도민에게 홍보하고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등 부대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행사의 전

반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8년 박람회는 체계적인 행사 준비와 개최 및 진행에 주안점을 두었다.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전문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체험부스를 정책관, 주제체험관, 특화체험관, 홍보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부대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관람객 동선 유도를 위한 행사장 구성과 이벤트를 추진했다. 또한 단순히 체험에 참여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는 박람회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의미와 국가·강원도·시·군의 평생학습정책, 지역별 평생학습기관과 교육과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박람회는 기존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이력이 없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박람회에서 지적되었던 점들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준비과정에서 개최 도시인 춘천시에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수하였으며 축제 개최역량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환경적 제약(주거밀집지역, 실내체육관 등)을 극복하면서도 조화로운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계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스탬프투어(기념품 제공)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짜임새 있는 행사장 구성으로 관람객의 동선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시민 중심’이라는 춘천시의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관람객 편의성에 최대한 집중하고 개막식 등 기념행사의 의전을 간소화하여 행사에 참여한 모든 강원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표 II-82>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행사명	2016 강원도 평생학습주간	2017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2018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2019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형태	분산 개최	통합 개최	통합 개최	통합 개최
개최 기간	12일(8. 30.-9. 10.)	2일(10. 14.-15.)	3일(10. 19.-21.)	3일(10. 25.-27.)
개최지	도 전역	인제군	강릉시	춘천시
소요 예산	123백만 원 (진흥원)	300백만 원 (진흥원·인제군)	229백만 원 (진흥원·강릉시)	245백만 원 (진흥원·춘천시)
주요 행사	- 개막 선포식 - 정책포럼 - 문해한마당 - 동아리경연대회 - 토크콘서트 - 시군, 기관별 자체행사 60개	- 개막식, 표창수여식 - 홍보체험부스 - 동아리한마당 (전시, 공연, 경연) - 문해시화전 - 열린강연회	- 개막식, 표창수여식 - 평생학습정책관 - 평생교육 주제체험관 - 강원도 특화 체험관 - 도정 홍보관 - 동아리한마당 (전시, 공연, 경연) - 문해시화전, 백일장 - 인문학콘서트 - 열린강연회	- 개막식, 표창수여식 - 평생학습정보마당 - 홍보체험마당 - 강원도 특화 - 춘천시 기관·단체 - 시민참여마당 - 동아리한마당 (전시, 공연, 경연) - 문해시화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가 규모	• 12개 시군 • 기관 100개 • 관계자 600명 • 도민 1만명	• 11개 시군 • 기관 120개 • 관계자 900명 • 도민 5,000명	• 10개 시군 • 기관 60개 • 관계자 1,000명 • 도민 4,000명	• 12개 시군 • 기관 70개 • 관계자 1,500명 • 도민 7,500명
행사 주안점	• 삶-학습 연계 •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 확인 및 간접체험	• 평생교육 집중 홍보 • 관계자 교류 확대 • 시군 공동 개최 - 개최지 역량 강화 - 활성화 계기 마련	• 평생교육 정보 제공 • 평생학습 이해 증진 • 평생교육 집중 홍보 • 관계자 교류 확대 • 시군 공동 개최 - 개최지 역량 강화 - 활성화 계기 마련	• 평생교육 정보 제공 • 평생학습 이해 증진 • 평생교육 집중 홍보 • 관계자 교류 확대 • 시군 공동 개최 - 개최지 역량 강화 - 활성화 계기 마련

출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6-2019).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2019년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는 향후 박람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도내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강원도 모든 자치단체 평생교육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매년 공동개최 형태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평생학습축제 규모와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일부 자치단체가 박람회 유치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 왔다. 그러나 2019년 박람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와 기반구축의 계기로서 새롭게 평생학습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추진해 왔던 자치단체별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관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박람회 구성 내용을 내실화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박람회의 개최 성과와 강원도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강원도 전역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년 동안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강원도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학습박람회는 단순한 체험프로그램 위주, 다양성의 부족, 대중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박람회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생학습 추진체제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평생학습 유관 기관의 구심점으로서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 전역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다방면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광역 단위의 평생학습박람회이다.

다음으로,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박람회를 위해서는 참여 기관의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평생학습박람회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평생교육의 대표 성과들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행사이므로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의 내실화는 곧 강원도 평생교육의 내실화와 같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성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별로 특화된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 관계자와 강사의 역량 강화, 평생학습동아리의 활성화 등 기반이 되는 사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 간, 광역과 국가 간 박람회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광역 단위 평생학습박람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분명 각 행사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광역 간 연계 협력과 교류,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의 연계 등 지역을 넘어선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4. 추진 계획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는 2020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홍천군 도시공원 일원에서 제7회 홍천군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평생학습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원도민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공원을 활용한 힐링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3일 동안 약 1만 명의 강원도민과 평생학습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평생학습 정보마당, 15개 시군과 90여 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참가하는 평생학습 홍보체험마당, 50여개 평생학습동아리가 참가하는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이 개최되며, 문해골든벨, 문해교육 시화전, 평생학습현장 사진공모전, 인문학강연, 야외버스킹 등의 부대 행사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6). 2016 강원도 평생학습주간 운영계획. 강원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강원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강원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강원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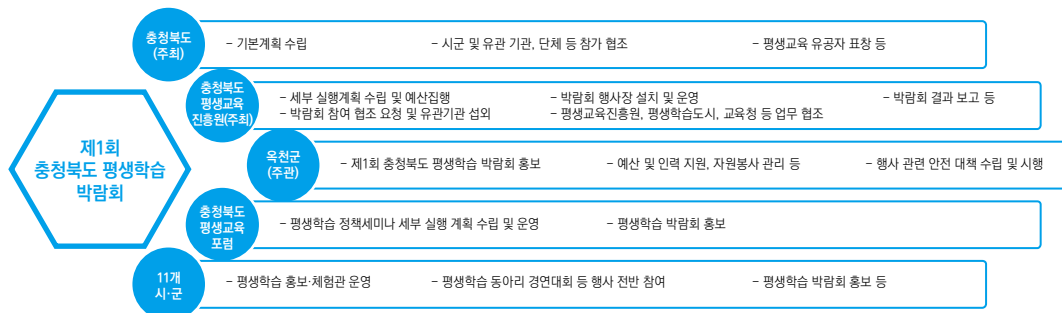
1. 개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형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격년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옥천군이 '배움으로 희망 충족, 일자리로 행복 충족'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하였다. 도내 11개 시군 및 평생학습기관·단체, 대학교 등 34개 기관과 31개 학습동아리가 참가하여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현황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주최 기관인 충청북도와 공동주관 기관인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옥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개 시군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림 II-19]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체계 및 업무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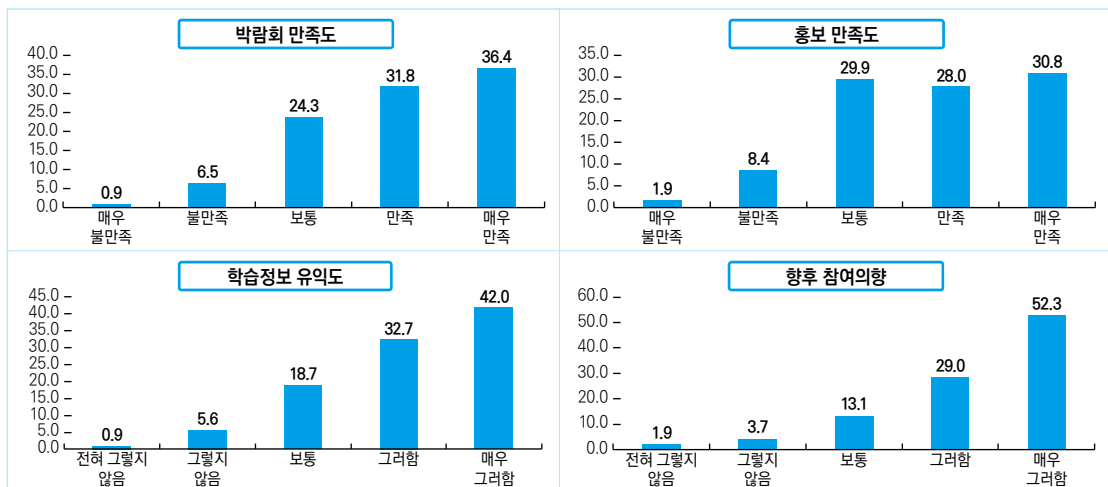
출처: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요 행사는 기념행사, 참가마당, 콘퍼런스, 부대 행사로 구성하였다. 기념행사에서는 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참가마당은 홍보·체험관, 평생학습동아리 작품 전시, 평생학습동아리 플리마켓,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콘퍼런스에서는 평생학습 정책세미나, 평생학습 관계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부대 행사로는 3·1운동 100주년 플래시몹 공연을 하였다. 기념행사, 참가마당, 부대 행사는 옥천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콘퍼런스는 충북도립대학에서 개최하였다.

3. 운영 성과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도내 11개 시·군 및 평생학습 동아리, 대학교 등 65개 기관의 홍보·체험관,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작품전시,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충청북도 평생교육의 종합적인 정보 및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이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는 68.2%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박람회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5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정보의 유익도에 있어서는 참가자의 74.7%가 유익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81.3%가 향후에도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20]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만족도

출처: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4. 추진 계획

제2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박람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평가회에서 논의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체험, 학습동아리 경연 및 전시, 콘퍼런스이다. 이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 및 박람회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홍보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홍보체험 프로그램이 단순한 학습 체험 기회 제공에 그치고 있어 박람회에 방문한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초청장 발송 등 기존의 홍보 방법을 답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는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평생학습박람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개최될 제2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박람회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고 문헌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평가보고서. 충북: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 평생학습 포털 통합 구축

1. 개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평생 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이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및 편리성 극대화를 위하여 충남 평생학습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및 도민의 요구, 기능의 분화에 따라 세 개의 홈페이지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통합 홈페이지로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 현황

가. 사업 추진 경과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사업'을 통하여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듬해인 2012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며 포털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에는 진흥원의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충남 온통배움터'라는 명칭으로 개편한 포털을 제공하였으며, 2018년에는 세 개의 홈페이지로 분리 운영하여 사업별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영 서버의 노후화 및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정보 연계의 불안정, 도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9년에는 도내 평생교육 강좌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 오류의 개선과 도민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II-83> 충남 평생학습 포털 구축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11년~2012년	- 충청남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012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으로 운영 업무 이관
2016년~2018년	2016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충남 온통배움터' 분리 구축 및 운영 2018년 학습공유공간 '공유로'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운영
2019년~현재	2019. 4. 17.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 착수 2019. 9. 3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 홈페이지 오픈 2019. 10. 21. 모바일 앱(APP) 신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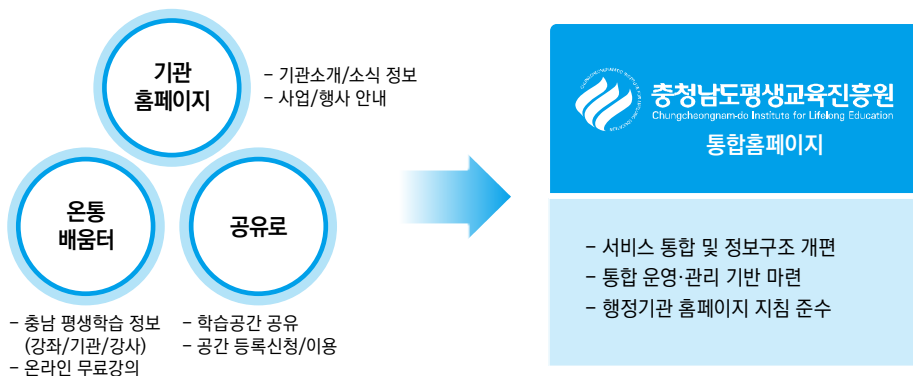
출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019년 1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홈페이지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들어갔다. 5월에는 충남 지역 평생교육 강좌정보 연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군 및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9년 9월 30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나. 주요 내용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합 홈페이지 구축, 둘째, 충남 지역 내 15개 시군을 비롯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셋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온라인 강좌 시스템 구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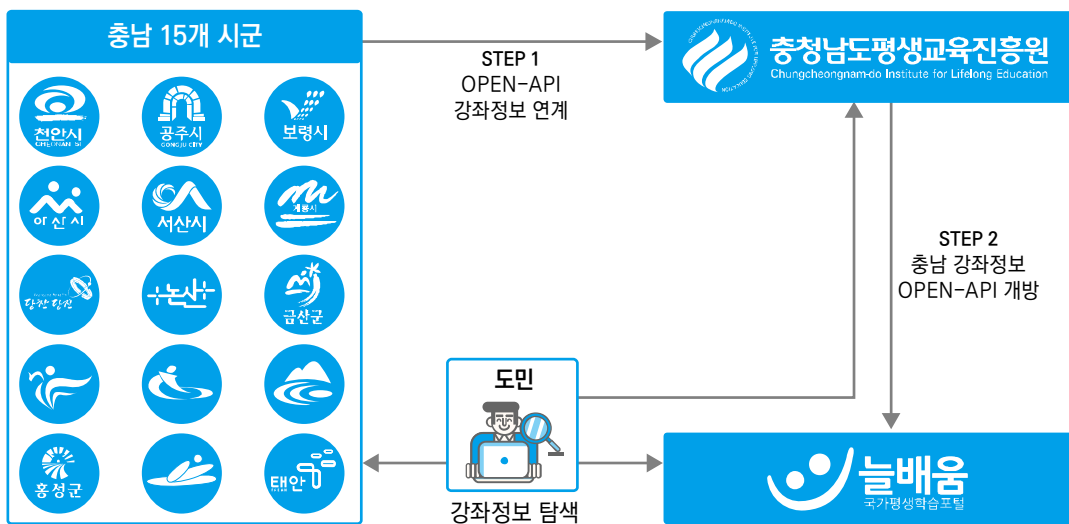
첫째, 세 개로 분리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기능 개선 또한 함께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무료 학습공간 공유 사업인 '공유로'의 경우 도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과 학습공간 이용 신청을 하고, 학습공간의 이용이 승인되면 카카오톡 무료 알림서비스를 통해 승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21]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 구조도

출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둘째, 오픈 API²⁰⁾방식을 활용하여 충남 지역 15개 시군의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좌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진흥원에서 API소스를 개발하여 각 시군에 제공하고, 시군에서 동일한 소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군 평생학습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수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수정되어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4개 시군의 평생학습관(센터)을 비롯하여 하위 기관(도서관, 각종 문화시설 등)까지 총 100개 기관이 연계되었다.



[그림 II-22] OPEN-API 활용 강좌 정보 연계 구조도

출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셋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충남공무원교육원 ‘도민대상 사이버 강좌’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문해교육을 위한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2016년부터 직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GSEEK’ 콘텐츠를 제공하며 도민의 온라인 강좌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20) 오픈 API(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타 정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출처: IST 용어사전, 국토교통부(20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1858&cid=42345&categoryId=42345>)

3. 운영 성과

첫째, 이용자 친화적인 통합 홈페이지의 구축이다. 홈페이지의 통합과 동시에 반응형 웹 환경 구축 및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의 개발로 PC 이외의 IT기기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자체 검색 엔진을 신규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체계적인 검색 결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 검색은 물론 메뉴, 게시물, 첨부파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도민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의 획득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림 II-23] 반응형 웹 구축 및 모바일 APP 개발로 정보 제공 환경 개선

출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둘째, 충남 평생학습 연계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다. API소스를 활용하여 통합 홈페이지 내 14개 시군 및 하위 평생교육기관(총 100개소)의 학습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평생교육 정보망 ‘늘배움’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가 강조됨에 따라, 무료 제공이 가능한 우수 온라인 강좌를 통합 홈페이지 내에 연계하여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4. 추진 계획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충남 지역 내 평생교육 강좌 정보 연계 기관을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평생학습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 평생학습 포털'로서의 기능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통합홈페이지 구축 결과보고서. 충남: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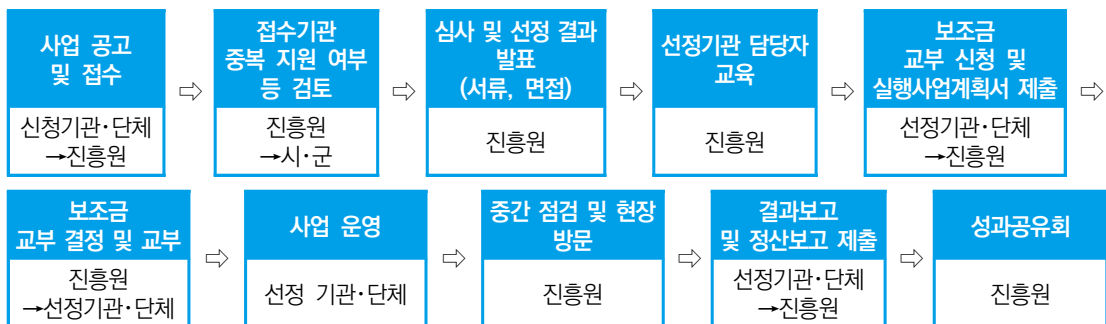
1. 개요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도내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4개 분야의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첫째, 지역특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일자리 디딤돌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평생학습 격차해소 지원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양극화 완화와 균형 잡힌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여 지역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2. 현황

가. 추진체계



출처: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0). 2020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공고.

나. 주요 내용

분야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지역특화 평생학습 지원사업 (4건)	군산대평생교육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지역 근대역사 및 문화에 대한 체계적 문화관광 교육 및 해설사 양성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환경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업사이클링	쓰레기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환경교육
	남원시청	내 손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일러스트	우리 지역을 드로잉과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높임
	부안군청	부안을 대표하는 1인 크리에이터 되기	영상제작의 과정 이해, 촬영 및 편집을 통해 지역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일자리 디딤돌 지원사업 (7건)	군산대평생교육원	취창업 목적의 수제맥주 제조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초급과정)	군산 지역 보리산업과 연계하여 수제맥주 제조 교육 진행
	김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커피프렌즈	청년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사회진입 기회 제공
	나무사랑가구제작학원	목공체험 지도사 3급 양성과정	목공교육을 통한 목공체험 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남원시청	판매용 목공 시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판매용 목공 시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프로그램
	익산시청	익산 청년탐구생활	자기소개서, 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역량 강화프로그램
	전주기전대평생교육원	전북지역 특산 자생 산야초 기반 취창업 디딤돌 전문기술교육	전북 지역 특산 식물인 기능성 산야초를 활용한 전문상품의 제조 교육을 통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전북본부	안전교육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어요	재난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진입 기회 제공
평생학습 격차해소 지원사업 (6건)	글로벌인재교육원	다꿈나눔! 다문화사회이해와 세계요리를 통한 감사양성	다문화이해교육 및 요리체험 교육으로 결혼이주여성 감사 역량개발 프로그램
	김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혼지적장애인 가족지원사업 "Happy Together"	기혼 지적장애인 가족구성원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무주청소년수련관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가족 오케스트라	가족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의사소통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완주군평생교육 아카데미	발달장애인이 만들어가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쓰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폐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되살림을 실현하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전주시청	정보문해교육 "스마트폰으로 세상열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정읍시노인복지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른신 공연단 "포돌이극단"	인형극, 마술, 악기연주 등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어른신 공연 프로그램
	배움누리공동체	전북형 민주시민 역량 증진 프로그램	민주시민 기초역량 강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지도 강사 양성과정
민주시민 양성 지원사업 (4건)	움티학교	포용적 민주주의 배움터, 부모시민학교	부모시민학교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와 지역공동체 형성
	전주시청	"왜"로 묻고 대안을 찾는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여성, 선거, 정치 등의 테마로 우리사회의 현상 진단 특강 및 지역 언론 모니터단 결성
	흥사단 전북지부	행복한 민주시민 부모교육	영화로 보는 민주시민 가치덕목 토론 및 발표 프로그램

출처: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결과 보고 내부 자료.

3. 운영 성과

가. 추진 성과

(단위: 개, 명, %)

	지원 분야	프로그램 수	참여자	만족도
2016년	(2개) 취·창업 및 진로직업, 학습동아리	14개	252명	-
2017년	(5개) 지역특화, 생애맞춤, 학습공동체, 학습동아리, 격차해소	18개	353명	90.5%
2018년	(5개) 지역특화, 일자리 디딤돌, 격차해소, 학습공동체(동아리), 격차해소	19개	904명	87.5%
2019년	(4개) 지역특화, 일자리 디딤돌, 격차해소, 민주시민 양성	21개	613명	93%

출처: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결과 보고 내부 자료.

나. 시사점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역특화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17개 기관)을 운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총 학습자 613명, 93%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2019년부터 지원 분야에서 제외하였다.

내실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1차 서면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의 보급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4. 추진 계획

2020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첫째, 지역특화 평생학습 지원사업, 둘째, 일자리 디딤돌 지원사업, 셋째, 평생학습 격차해소 지원사업, 넷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4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억 2천 3백만 원으로 1개 프로그램당 7백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사업의 발굴 및 지원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격차 없는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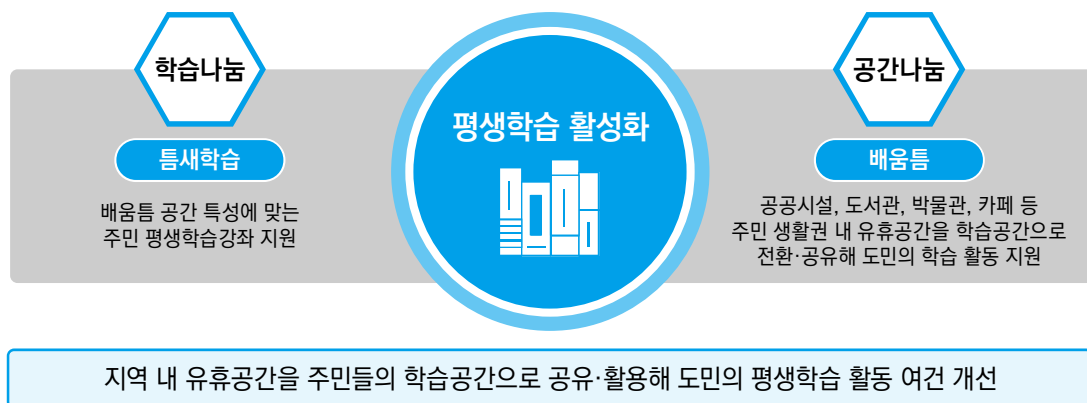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동네방네 배움툼

1. 개요

동네방네 배움툼은 지역 내 공공시설, 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 유휴 공간을 ‘배움툼’이라는 학습공간으로 전환·공유시켜 지역 내 부족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배움툼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틈새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동네방네 배움툼 사업은 공간주는 ‘배움툼’을 통해 학습공간을 기부하고, 강사는 ‘틈새학습’을 통해 소정의 시간 동안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기부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II-24] 전라남도 동네방네 배움툼 추진 목적

2. 현황

동네방네 배움틈은 3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첫 번째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배움틈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배움틈은 주민들이 학습활동이나 회의, 간단한 세미나,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공간별 공유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움틈 지정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간주가 철회할 때까지 주민들에게 공유가 지속되므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공유에 적합한 장소를 배움틈으로 선정하여 지정한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배움틈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틈새학습이다. 틈새학습은 배움틈 공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간 성격에 맞는 다양한 시민생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1개의 프로그램당 12시간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4시간 이상 강사의 재능 기부가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다.

세 번째로 배움틈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웹 및 모바일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배움틈 공간을 검색하고 공간 공유 일정과 시설 내부의 기자재 등을 한눈에 확인하며, 공간 이용 신청부터 활용 후기까지 바로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3. 운영 성과

주민들에게 무료로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간주를 대상으로 '배움틈'과 그 공간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틈새학습'을 동시에 모집하였다. 그 결과 17개 시군에서 92개소의 '배움틈'과 98개의 '틈새학습'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공간주의 기부 목적과 의지, 공유 형태의 적절성과 빈도 등 장소의 적합성을 평가한 뒤 최종 42개소의 '배움틈'과 39개 틈새학습을 선정·지정하였다.

〈표 II-84〉 2019년 동네방네 배움틈 지정 현황

(2019. 4. 기준, 단위: 개소)

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38	19	8	15

주) 지정한 배움틈 현황은 전라남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www.jndamo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배움툼 공간에서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틈새학습’에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296명의 학습자가 참가했으며 평생학습 강사 30명의 재능 기부가 120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유휴 공간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배움툼’은 사업의 성격상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시설 및 기관들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개방하였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소통과 행복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또 다른 자원 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과 그 배움을 실천하려는 활동이 ‘배움툼’과 ‘틈새학습’을 매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동네방네 배움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만들어가고 공간, 재능, 물건 등 다양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곳이자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추진 계획

2020년에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무상 제공과 재능 기부로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동네방네 배움툼 사업을 확대·운영하고자 한다.

기존에 지정된 배움툼 활성화를 위해 틈새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양한 신규 배움툼 공간 발굴과 홍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배움툼과 틈새학습 모집 시기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동네방네 배움툼 온라인 시스템의 기능 보강 작업을 통해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이용의 접근성 및 효용성을 높이려 한다.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행복, 학습, 성장의 시작' 경상북도 문해교육

1. 개요

경상북도 저학력 성인 인구는 2015년 인구 총조사 기준 21.1%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초졸 미만의 성인 인구는 19.4%, 초졸 이상 중졸 미만의 성인 인구는 13.7%이다. 경상북도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447,598명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이에 따라 경상북도 문해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운영 성과

가. 문해교육 지원 체제 구축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광역 거점 기관으로서 국가, 도, 시군, 민간기관, 문해학습자로 이어지는 문해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상북도 문해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도내 문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도내 문해교육 사업을 공유하고, '경상북도 문해대잔치'의 일정, 장소 등 행사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다.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립하여 도내 문해교육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해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경상북도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II-25] 경상북도 문해교육의 비전 및 목표

출처: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경상북도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나. 문해교육 전문화 및 고도화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교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총 46명이 이수하였다. 그리고 문해교육 강사들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해교육 교사 보수교육'을 2회(예천, 포항) 실시하였고, 총 156명이 이수하였다.

다. 경북형 문해교육 지원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문해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북형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북 도내 문해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딤돌 문해학당'을 운영하였다. 9개 문해교육기관에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129명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기존 문해교육 교과서의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고,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북형 문해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하였다. 3개 기관에서 '신혼민정음해례', '익힘책', '알쏭달쏭 파고드는 알파벳'으로 구성된 교재를 개발하였고, 2020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수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과서를 배포하였다. 총 15개 기관, 509명의 학습자들에게 2,545권을 배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내 비문해자들의 생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해교육, 건강보건 문해교육의 두 개 과정을 운영하여 67명 강사를 양성하였다. 양성된 강사들은 2020년 생활문해 강사 파견에 활용할 계획이다.

라. 문해교육 학습문화 확산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문해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교육청, 22개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하여 ‘경상북도 문해대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문해대잔치에서는 도내 문해교육 학습자 및 교강사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화전 및 편지 쓰기 시상식, 교사 공로상, 시 낭송, 동아리 공연, 칠곡가시나 배우들과의 만남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해교육 작품 전시회’를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의성), 경북도청 동락관(안동)에서 2회 개최하였다. 전시회에서는 문해교육 시화 및 편지 쓰기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작품들로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라는 작품집을 발간하여 시군, 문해교육기관 및 학습자 등에게 배포하였다. 또 수상 작품을 엮서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누구나 시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해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해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홍보 영상을 통해 잠재 학습자를 발굴하고,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하여 배움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추진 계획

‘모두의 행복, 학습, 성장의 시작’ 경상북도 문해교육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문해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문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민 문해학습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도내 문해기관에서는 기관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 문해교육 협의체 구성, 정책의 기획과 실행 등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경북형’ 문해교육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해교육 지원 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 단계별, 학습자 수준별로 지속 가능한 문해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기반’의 문해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7 성인문해 능력조사 내부 자료.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경상북도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북: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60+교육센터 사업 운영

1. 개요

경상남도는 행정구역이 18개 시군(10개 시, 8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단위 지역의 경우 2018년 4월 기준(주민등록인구)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18).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이 29.1%인 반면 경남은 33.1%로 전국에서 4번째이다. ‘경남 60+교육센터’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직무 역량 향상 및 개발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 현황

‘경남60+교육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국비) 주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모 참여 및 선정을 통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45,000천원의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였다.

60+교육센터는 기업 맞춤형 역량 양성 및 60세 이상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칭하며 취업형, 사회활동형, 자격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경남에서는 자격형 강좌와 사회활동형 강좌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그림 II-26]의 운영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격형	수요 조사	강좌 및 강사 선정	-	강좌 운영 및 종료	학습모임 운영
사회활동형	강좌 공모	강좌 심사 및 선정	강사 공모 및 선정	[방방곡곡 시스템 사용]	

[그림 II-26] 60+교육센터 운영 단계

출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자격형 강좌는 시니어 유망(적합) 직종 관련 장단기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강좌 및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사회활동형 강좌는 60+ 직업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강좌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강좌를 선정한다. 이후 강사 공모 심사를 거쳐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강좌 운영은 온라인으로 출석부, 교육일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본원의 「방방곡곡 학습공감 강좌나르미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강좌 종료 후에는 사회환원활동 추진을 위한 학습모임도 운영하였다.

3. 운영 성과

경남60+교육센터 사업의 성과는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량적 성과는 자격형의 경우, 안전교육지도사, 이야기어르신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등 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사회활동형은 노인수요맞춤형 9개 과정과 창원시 인력파견형 시니어역량강화 교육 2개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7개 과정에 총 27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자격증 또는 사회활동으로 연계된 인원은 총 165명으로 85.8%의 연계율을 달성하였다.

정성적 성과는 첫째, 경남 도내의 노인 관련 평생교육기관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둘째, 노인 분야의 국비 확보로 경남 지역의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대내외적으로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 한발 앞서 경남만의 노인평생교육 모델을 마련하였다.

4. 추진 계획

본 사업은 사업 평가를 통해 2년간 지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0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020년에는 자격형 강좌로 안전교육지도사, 시니어바리스타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활동형 강좌로 미디어리터러시 및 찾아가는 노인수요맞춤형 10개 과정, 시니어직무역량 향상과정, 강사스킬 및 활동역량 향상과정 5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강좌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경상남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5). 경남형 실버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남: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산청의 과거-미래-현재를 잇는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

1. 개요

본 사업은 산청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 보존, 지역문화 양성, 주민의 지역공동체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89곳으로 산청군도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산청의 역사, 문화, 전통이 가진 가치와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지역성, 사회적·심리적 유대감, 전통적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인한 공동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산청군에서 민간기록물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17년 산청군 기록물 지도사업’은 산청군의 역사 및 군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함으로써 산청군의 지역기록물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단순 기록물 조사에 그쳐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19년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현황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은 다양한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도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지역학습동아리 참여자, 평생학습활동가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모집하고 총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록 관련 현장교육(탐방), 실습교육, 인문교육(특강), 전문교육(특강) 등 15회, 5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협력 기관 및 부서에서 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 추수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산청군민 기록가 활동은 동아리 결성 및 기록집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정을 수료한 인원 17명이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고 군민 기록가들이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담아 기록집을 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산청군민 기록가 사진 전시회는 민간기록물 31점, 군전기록물 5점을 산청군청 1층 로비에

서 전시하여 산청군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청군민들에게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산청군민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3. 운영 성과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을 통해 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기관 차원에서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청군은 201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타 부서와 협력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은 2019년이 처음이었다. 협력 기관은 산청교육지원청, 산청도서관 등 8개 기관, 협력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등 6개 부서였으며, 이 외에도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고, 동아리 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시회 개최 및 기록집 제작이 가능했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산청군민의 공동체의식을 향상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산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보존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기록 문화를 양성하였다.

4. 추진 계획

본 사업은 산청군 행정교육과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 보수교육 및 채록교육, 기록가 활동 지원 등의 연차별 발전 계획을 전제로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산청군민 기록가 양성과정을 통해 기록가를 양성하고 기록연구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였다. 2020년에는 산청군민 기록가 보수교육 및 활동 지원을 할 예정이며, 2021년~2022년에는 구술기록 채록 교육 및 기록가 활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학습지원 체계 마련

1. 개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8년 새롭게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여 제주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조사 및 포럼 운영, 제주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평생교육 종합 정보망 운영,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스마트 도민 아카데미 운영, 제주인문학당 운영, 시민자원활동가 육성,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 시행, 글로벌 인재양성 및 도민 역량강화, 청년 해외배낭 연수 지원 등 제주 평생교육 모델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9년에 추진한 여러 사업 중 공공 학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진흥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제주지역 평생학습 기관 실태조사와 학습자 맞춤형 전문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례 등을 주요사업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운영 성과

가.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통계정보는 무엇보다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정보는 평생교육기관 정보 안내지나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개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 그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주지

역 평생교육기관은 595개(중복배제)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 43개소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552개소로 나타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관형과 시민사회단체형, 훈련 및 연수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은 대체로 제주시 중심으로 396개(66.6%)의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되어 지역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귀포시(199개)에 비해 2배 이상 배치되어 있다. 반면 제주지역 읍면동별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은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리 단위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매우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근거가 없어 평생교육기관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대상 유관시설을 살펴본 결과 마을단위 주민시설인 마을복지회관, 노인시설인 경로당, 문고시설인 새마을문고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복지회관은 410개소, 경로당은 444개소, 새마을문고는 127개소로 총 981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595개 보다 약 1.7배 더 많은 현황이다.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흥원에서는 읍면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리 단위의 마을 평생학습공간 확보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리 단위로 진흥원과 마을회가 협약을 통해 <표 II-85>와 같이 ‘마을배움터’를 마련하고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도민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9년에는 총 13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187명이 마을배움터에 참여하였다.

〈표 II-85〉 201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마을배움터’ 운영 현황

구분	지역	마을배움터	위치
1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귀덕1리 마을회관
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 마을회관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마을회관
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 마을회관
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 마을회관

출처: 제주장학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다.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도서관의 책요일’ 확대 운영

‘도서관의 책요일’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양질의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을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30곳에서 17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16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학습문화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 진흥원과 함께 양질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이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라. 아동·청소년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배움터 운영

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의 잠재된 자기주도성을 마중하여 외현화 하도록 돕는 배움터이자 협력기관으로 ‘마중물배움터’를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지역기관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의 지리적 한계를 해소하여 학습대상을 확대하였다. 진흥원의 제주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컨설팅, 학습전략, 창의인성 진로설계, 복합문화 등 프로그램 기회 및 강사 매칭을 담당하여 지역 연계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세부 추진 방법으로 학습지도전문가를 마중물배움터로 파견하여 시간관리, 학습플래너 작성, 자기주도학습법 등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을 운영하였다. 시내권 학생과 읍면지역 학생 간의 학습역량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습역량 강화 창의인성(코딩교육, 드론 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읍면 초중학생

대상 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였다.

이 같은 마중물배움터는 제주 시내권 14개소, 제주시 서부권(애월읍~한경면) 6개소, 제주시 동부권(조천읍~구좌읍) 4개소 등 24개소로의 확산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었다. 마중물 배움터를 통한 지역 학습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구축으로 2019년 85개의 과정에 210명이 참여하고, 이 중 186명이 이수하여 지역 아동·청소년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추진 계획

진흥원은 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공공 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의 배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이 부재한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읍면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 및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단위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운영 체계의 마련이다. 공공 학습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사업의 확대 적용과 맞닿아있다. 즉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습자의 지역사회주체로서의 시민성 증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평생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는 궁극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와 프로그램 강사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의 사전 협의회와 사업 설명회, 중간 점검, 사업 평가회 등의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활동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학습자를 넘어서 집단 학습으로서의 학습동아리 육성, 마을 단위의 마을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3절

평생학습도시 조성



1. 개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개인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외에 한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으나, 사업 기간 종료와 함께 2018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만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86〉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과

구분	2001~2007	2011~2013	2014~2017	2018~2019
사업 내용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지정, ㄹ선정도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지정, ㄹ선정도시 특성화, 일반도시 특성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¹⁾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지정, ㄹ선정도시 특성화, 일반도시 특성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¹⁾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지정, ㄹ선정도시 특성화)
예산 집행 방식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부 출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교육부 출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교육부 출연
지원 대상	시도교육청/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중점 방향 주요 성과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도시 확대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정보망 구축 등 시도 역량 강화 지원 2013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일반도시로 확대	- 학습형 일자리 개념을 도입, 학습결과 환원 및 공유의 문화 조성 -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회환원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지역 단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도시 확대

구분	2001~2007	2011~2013	2014~2017	2018~2019
특이 사항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시군구 공동신청 방식으로 추진 (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구 지원금 교부)	2007년 중단 이후 일반 회계 편성하여 평생학습 도시 등 세부 사업 재개 2008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유도	- 세부과제 순차적 종료 2016년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2017년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도입 준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3년 계속 지원, 2017년 사업 종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01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재원에 따라 운영에 약간의 변화를 겪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재원의 특성상 시도 교육청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기존의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 지원만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마저도 확보되지 않아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개하였고, 현재는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9년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첫째,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의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모형 개발을 지원하였다. 둘째,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이고 자립적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도입하고 실제 운영을 위한 평가체계를 확보하였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직, 예산, 인력 등)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 자원 활용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사업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도 포괄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경우 90백만 원 내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의 경우 50백만 원 내외로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대비 100% 이상을 지방비로 대응 투자하는 것을 기본 지원 조건으로 한다.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은 총 7개 내외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었고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을 신규 지정하였다. 특히 2019년 새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시지만 같은 법 제8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였다.

한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기존의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사업비 규모를 점검하였다. 점검을 통하여 2019년에는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고양시, 경기 이천시,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주시 등 12개 도시를 특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지원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87>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광역시	기초 자치 단체	평생 학습 도시	지정 연도 ¹⁾				
			2001~2007	2011~2016	2017	2018	2019
서울	25	18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	구로구 중랑구	성동구
부산	16	15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남구, 사하구, 서구, 기장군, 동구	북구 중구	수영구	동래구
대구	8	4	달서구, 동구	수성구, 북구	-	-	
인천	10	6	연수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	
광주	5	5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	-	
대전	5	4	유성구, 대덕구	동구, 서구	-	-	
울산	5	5	울주군, 중구	북구, 동구	-	남구	
세종 ²⁾	0	1	-	-	-	-	세종
경기	31	29	광명시, 부천시, 이천시, 구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화성시, 고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여주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강원	18	11	삼척시, 화천군, 강릉시, 횡성군	동해시,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	춘천시	-
충북	11	8	청주시, 단양군,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	-	-
충남	15	13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서천군,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	보령시	-
전북	14	10	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	-	고창군
전남	22	13	순천시, 목포시(신안·무안) ³⁾ , 곡성군, 광양시, 여주시, 강진군, 영암군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	해남군
경북	23	10	안동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청도군, 김천시	의성군	-	-
경남	18	13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창녕군, 합천군, 함안군	밀양시 산청군	-	-
제주 ⁴⁾	0	2	제주시, 서귀포시	-	-	-	-
계	226	167	76	67	10	7	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2008~201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중단.

주2)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 적용.

주3) 목포·신안·무안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지정(1개 도시로 환산).

주4)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시군구를 '0'으로 처리.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으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장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2019년 현재 총 167개이고, 지정 가능한 행정구역 중 약 73%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를 행정구역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초자치단체 중 시 64개, 군 43개, 구 56개가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와 군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가 1개(목포시·신안군·무안군)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종속행정시로 전환된 곳이 2개(제주시, 서귀포시)이며, 특별자치시 1개(세종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독려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를 갖추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위한 직접 지원은 2017년을 끝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그 제도적, 실천적 가치가 있음을 감안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읍면동 단위의 정교한 평생교육 정책 실시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신규 지정 및 특성화 지원에 참여한 19개 평생학습도시가 총 383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1,671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61,870시간 운영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표 II-88>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

(단위: 개, 명, 시수)

구분	2019년 참여 도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			
		센터 수	학습매니저 수	프로그램 수	운영 교육 프로그램 시수
신규 지정	7	150	87	576	17,885
특성화 지원	12	233	155	1,095	43,985
계	19	383	242	1,671	61,87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특히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통하여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을 위한 ‘제2의 경력 창출’ 지원, 시군구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학습형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였다. 2019년 특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11,261명의 학습자 중 학습 참여에 따른 취·창업자가 434명(3.9%), 사회환원활동 참여자가 1,201명(10.7%)이고, 결과적으로 학습형 일자리와 연결된 학습자는 총 1,635명(14.52%)이다.

<표 II-89>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학습형 일자리 창출

(단위: 명, %)

연도	이수자	경제활동		사회환원활동		전체(학습형 일자리)	
		참여자	참여율	참여자	참여율	참여자	참여율
2016	24,238	731	3.02	1,692	6.98	2,423	10.00
2017	22,532	904	4.01	4,667	20.71	5,571	24.72
2018	10,971	397	3.62	1,324	12.07	1,721	15.69
2019	11,261	434	3.85	1,201	10.67	1,635	14.52
계	69,002	2,466	3.57	8,884	16.45	11,350	16.4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셋째,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참여의 동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이 단순한 여가교육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을 통하여 총 46,227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사회환원활동 참여자는 총 2,363명으로 교육 이수자의 사회환원활동 참여율은 약 5.1% 수준이다. 특히 특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환원활동 참여율이 약 10.7% 수준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신규 지정 지역의 3배를 넘었다.

<표 II-90> 평생학습도시 세부 사업별 사회환원활동(자원봉사) 비교

(단위: 명, %)

	이수자	사회환원활동 참여자	참여율
신규 지정	34,966	1,162	3.32
특성화 지원	11,261	1,201	10.67
계	46,227	2,363	5.11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넷째, 2017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성과분석」 용역 연구에서 제시한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식을 2019년 사업에 적용한 결과, 2019년 운영지원 예산 대비 약 6.3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표 II-9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단위: 원, 명, 배)

구분		1차 효과(프로그램 효과)	2차 효과(사회회원 효과)	
		평생학습도시(신규+특성화)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교강사 활동
지자체 국고 지원(A)		1,130,000,000	-	-
체감 효과	이수자(참여자) 수	46,227	2,363	529
	평균체감가치(직접지불의사 비용)	142,974	187,608.7	190,909.1
	소계	6,609,259,098	443,319,358	100,990,913
계		6,609,259,098	544,310,271	
경제적 효과 종합(B)		7,153,569,369		
운영지원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B/A)		6.3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2001년부터 꾸준히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이후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제도가 부재하여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추가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고,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마다 다른 지역 환경 및 재정 여건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지정평가가 평생학습도시의 획일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더 우세하여 이에 관한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한 요구는 2016년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의 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을 넘어서면서 국회 및 재정 당국 등에서 사업의 내실을 높이는 방식의 성과관리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더불어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수립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및 사업 추진 노력 등 평생교육 역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재정지원 우대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성과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8년 5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기초연구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II -92>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단위: 명)

구분	일자	구분	대상	참여 인원
1	2018. 9. 6.	평생학습도시 중간관리자 정책세미나	평생학습도시 중간관리자(팀장급)	48
2	2018. 9. 19.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도입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1~3차)	2018년 평생학습도시사업 지자체실무자	20
3	2018. 11. 6.		시도(광역시) 사업관계자	19
4	2018. 11. 9.		시도 대표도시 중간관리자	11
5	2018. 12. 7.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공청회	전국 평생학습도시관계자	11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018년 12월에 수립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대상을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만 4년이 경과한 곳으로 하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3년 주기로 순환 평가를 실시한다. 제1그룹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으로 2018년 현재 총 45곳이고, 제2그룹은 도 산하의 시로서 2018년 현재 총 58곳이다. 제3그룹은 도 산하의 군으로서 2018년 현재 총 44개이다.

둘째, 평가의 시간 범위를 평가 연도 이전의 3개년으로 한다. 가령, 2020년 평가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셋째, 평가 내용을 사업 추진체계, 사업 운영, 사업 성과 등 3개 범주로 구분한 뒤, 각 범주에 대한 복수의 평가지표를 두어 평생학습도시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가령, 추진체계는 사업계획, 조직·인력 관리, 예산, 시설,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구분한다. 사업성과는 학습성과, 가치 창출, 우수 사례 등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균형감 있게 구분한다. 다만, 그동안 자료의 누적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여, 제1주기와 제2주기는 평가지표와 배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넷째, 재지정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우수한 평생학습도시에는 표창 및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 지역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한 뒤 차기 평가에서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에는 이상의 골격을 토대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 수립한 계획은 재지정평가의 큰 그림을 그려 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제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자료 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각 지역의 자료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표와 평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총 20개 평생학습도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II-93>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평가지표(안)

구분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제 1 주 기	추진 체계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조직·인력 관리	[조직·인력 관리의 적정성 및 역량강화 노력]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 / 직원 전문성 강화 노력
		예산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평생교육 분야 예산 규모 및 비중 / 예산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
		시설	[평생학습 공간의 적정성 및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평생교육시설 면적 및 확보율 / 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
		접근성	[평생학습 정보관리 및 홍보활동의 적정성] 정보관리의 적정성(전용사이트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준수 여부 포함) / 홍보활동의 적정성
	사업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수 /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시수 / 교육프로그램 개선 실적 / 지원활동 적정성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실적 및 개선 노력] 평생학습동아리 행·재정적 지원 비율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의 성과관리 노력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활성화 노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실적 /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실적 / 네트워크 활동, 지역자원 활용의 적정성
	사업 성과	학습 성과	[평생학습 시민참여]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교육 성과관리 노력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 평생학습 만족도 /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 노력
		가치 창출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노력] 취업 및 창업 지원 실적 / 재능 기부(자원봉사) 실적 /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우수 사례	[평생교육 특성화 구현 사례] 사업관리,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제 2 주 기	추진 체계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조직·인력 관리	[조직·인력 관리의 적정성]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 / 전담인력 배치 실적 [전담인력 역량 강화 노력] 평생학습 전문교육 이수 실적 / 직원 전문성 강화 노력
		예산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평생교육 분야 예산 규모 및 비중 / 예산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
		시설	[평생학습 공간의 적정성 및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평생교육시설 면적 및 확보율 / 시설확보를 위한 노력
		접근성	[평생학습 정보관리의 적정성] 정보관리의 적정성(전용사이트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준수 여부 포함) [평생학습 홍보활동의 적정성] 홍보활동의 적정성
	사업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수 /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시수 / 교육프로그램 개선 실적 / 지원활동 적정성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실적 및 개선 노력] 평생학습동아리 행·재정적 지원 비율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금 / 평생학습동아리 자체 지원 실적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의 성과관리 노력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활성화 노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실적 /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실적 / 네트워크 활동, 지역자원 활용의 적정성
	사업 성과	학습 성과	[평생학습 시민참여]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자 1인당 평생학습시간평생교육 성과관리 노력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 평생학습 만족도 / 평생학습 만족도 제고 노력
		가치 창출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노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평생학습 참여율 / 취업 및 창업 지원 실적 / 재능 기부(자원봉사) 실적 /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우수 사례	[평생교육 특성화 구현 사례] 사업관리,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주) 상기 지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추진계획(안)'(교육부, 2018. 12.)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2019년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과 배열 등을 조정 중임.

〈표 II-94〉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 참여 현황

유형	유형 범주	참여 도시
제1그룹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군	서울 서대문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제2그룹	도 산하 자치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충북 충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주시
제3그룹	도 산하 군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각 도시는 당초 구안된 지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자료를 챙겨 보고, 그러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별도로 꾸린 시범사업 운영 점검 연구진과 공유하여 지표와 평가기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개 시범사업 참여 도시들은 3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와 혼란, 그리고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시범사업 운영 점검 연구진과 공유하였다.

〈표 II-95〉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범사업 운영 과정

구분	일자	구분	대상	참여 규모
1	2019. 6. 21.	재지정평가 모형마련을 위한 시범운영 설명 및 협의회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60명
2	2019. 7.~8.	현장 시범운영을 통한 지표 적합성 및 작성 가능성 분석	20여 개 시범운영 참여 평생학습도시	20개 도시
3	2019. 10. 15.	시범운영 참여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시범운영 참여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22명
4	2019. 11. 29.	재지정평가 평가지표 관련 의견 수렴	시도 대표 도시 담당자	12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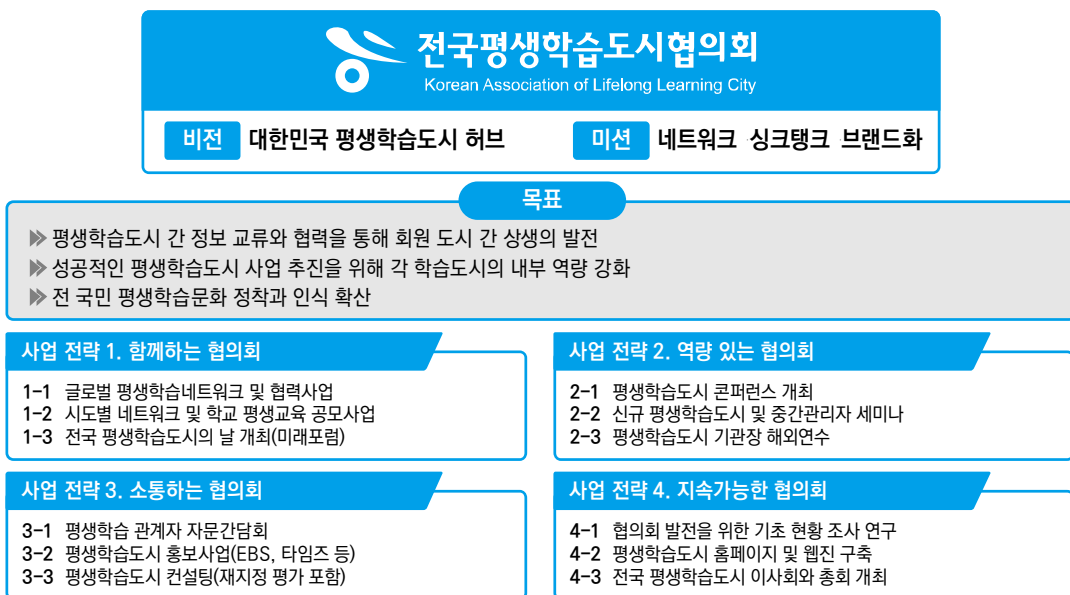
시범사업 운영 점검 연구진은 각 지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기준, 그리고 재지정평가 운영 방법 등에 관한 대안을 정리하였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지표와 평가기준, 절차와 일정 등을 정리 중에 있다.

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협의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169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또한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협의체가 되었다. 협의회 회원은 평생학습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2019년 제1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는 제8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5인의 수석부회장과 1인의 사무총장, 2인의 감사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0월 현재 총 244명(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장 169명과 교육장 7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교육부에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는 167개이나, 2008년도에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도시를 3개의 개별 도시로 인정하는 것을 협의회 임원 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협의회 회원 도시는 169개이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허브’라는 비전으로 지역의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평생학습의 지역화 및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학습도시의 내부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셋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에게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평생학습의 인식을 확산하여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그림 II-2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비전과 목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함께하는 협의회’, ‘역량있는 협의회’, ‘소통하는 협의회’, ‘지속가능한 협의회’라는 4가지 사업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함께하는 협의회’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169개 학습도시 75개 교육지원청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세계화에 맞춰 글로벌 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독일시민대학연합회(DVV),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위대한 도시와 평생교육의 힘, Active Citizenship’라는 주제로 국제 평생학습도시 콘퍼런스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평생학습도시의 날을 맞이하여 ‘제5차 휴먼 테크놀로지 혁명시대’라는 주제로 2019 평생학습도시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둘째, ‘역량있는 협의회’ 사업으로 변화하는 학습도시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장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독일시민대학연합회(DVV)와 함께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를 탐방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2월에는 동유럽국가의 평생학습을 원조하기 위해 기관장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셋째, ‘소통하는 협의회’ 사업으로 회장단과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학습도시 현안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학습도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협의회’ 사업으로 학습도시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평생학습도시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2020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 웹진을 발간할 예정이다.

라. 평생학습도시 국제협력

현재 UNESCO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국제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확장되고 있다. UNESCO는 평생학습의 확산과 실현에 있어 국가 단위 못지않게 지역 단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2012년부터 UNESCO의 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이 중심이 되어 ‘학습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를 구축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학습도시 국제네트워크에는 55개국 17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7개 지역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45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표 II -96>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국제협력(GNLC) 국내 회원 도시 명단

구분	도시 이름
서울(7)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4)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대구(1)	수성구
인천(1)	연수구
대전(2)	대덕구, 유성구
울산(1)	남구
경기(14)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의정부시
강원(3)	영월군, 인제군, 화천군
충남(1)	당진시
충북(1)	진천군
전북(4)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전남(3)	나주시, 순천시, 영광군
경북(4)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경남(1)	통영시

출처: 유네스코 UIL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GNLC 구성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19년 국제협력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과 해외의 자료를 공유, 전파하는 작업이다. 2019년에는 전년도에 UIL과 공동개발 한 「Learning Circles Towards Sustainable Learning Cities: 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에 전파하였다. 이 자료는 학습동아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뿐 아니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 총 7개국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현장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제회의와 세미나 등을 통한 직접적 소통 작업도 추진되었다. 2019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제행사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독일 시민대학연합회(DVV)가 공동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등이 후원한 '2019 국제 평생학습도시 포럼'이 있다. 2019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액티브 시티즌십(active citizenship)'을 주제로 양국의 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둘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ICLC, 제4차 학습도시 국제대회)'에 참여하였다. 2019년 제4차 ICLC는 콜롬

비아 메테진에서 ‘포용: 평생학습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리’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전 세계 학습도시와 정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시, 서대문구, 수원시, 안동시, 안산시, 연수구 등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관계자 36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제4차 ICLC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 서울 서대문구가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학습도시상(UNESCO Learning City Award)을 수상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중 서울 서대문구,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가 국제참가자 모두와 경험 사례를 공유하였다. 셋째,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시, 경기 오산시가 국제 평생교육협력에서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제4차 ICLC는 GNLC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시민성 교육, 교육계획·모니터링·평가, 건강과 웰빙 교육, 문해교육, 기업정신, 공평과 포용 등 7개 영역(cluster)을 구분하여 각 영역을 이끌어 갈 조정자 도시를 결정하였는데, 그중 고양시는 ‘교육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연수구는 ‘시민성 교육’, 오산시는 ‘건강과 웰빙 교육’ 영역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도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각 영역에서 다른 지역과 정책 및 사례 교류, 지식 생산 및 공유, 회원 지역의 역량 강화 및 의사소통 등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구축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이 운영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고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평생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사업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과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원만한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에 본격 추진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와 준거 등을 확정하고 각 지역에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지정평가에 따른 각 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체계 정비와 적극적 협력·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국제적 관심 대상이다. 2019년 제4차 ICLC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도적 위치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이 학습도시로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각종 정보와 자료 발굴 등에 국가가 협력 또는 지원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의 내부 발전과 국제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정체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그림과 함께 단위 지역의 평생교육 생활 실천을 표방하여 발전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와 읍면동 대상 지역 평생교육 정책 사업이 종료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만이 남아 있다. 사업의 구성이 달라지면 그 운영의 속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업 개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 운동성을 강조하여 특정 이슈의 발굴과 추진을 강조하는 정책사업으로 나아갈지 또는 공교육으로서 평생교육체제성을 강조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나아갈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교한 정책 구상을 위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

제4절

지역학습동아리 활동



1. 개요

학습동아리는 지식 창출의 기본 단위체이며 지식을 공유하는 최소 단위체이다(김진화 외, 2010). 학습동아리는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관심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평생 학습사회가 도래하면서 자발적인 문화로서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주로 평생학습 현장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성장 및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학습동아리는 국내외 평생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린다. 스웨덴이나 미국의 스터디스쿨(study circle), 호주의 학습서클(learning circle), 일본의 자주그룹(自主 group)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학습공동체, 학습조직, 평생학습조직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어재영, 2012). 이 외에도 평생학습동아리(김진화 외, 2010), CoP(Community of Practice)(석세스포럼, 2011), 실천학습공동체(김영옥, 2015), 자발적 학습모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비교적 작은 모임의 형태를 지니지만 친목 위주의 단순 소모임과는 구분된다(이지혜·홍숙희, 2002; 오혁진, 2006; 김진화 외, 2010; 어재영, 2012; 박상옥 외, 2014; 박선경 외, 2018). 첫째,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이 모여 학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혹은 모임,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모임이다. 통상 5~20명 규모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학습동아리는 구성원의 학습을 위한 활동 절차와 계획 등에 대한 공동의 동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발성, 학습자 중심, 민주적 풍토, 솔직함 등이 포함되고, 참여자는 구성원, 리더(촉진자), 학습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한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 외부의 학습자원을 동원하기도 한다. 셋째, 학습동아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전문능력 개발, 사회문제 해결 등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스스로 정한 계획과 일정 속에서 정보 습득 외에 실습, 토론 등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확장하고 실천해 나아간다. 요컨대 학습동아리는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여 소집단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찰 및 자아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이지혜·홍숙희, 2002; 허혜숙, 2003; 김진화 외, 2010).

학습동아리는 정책적으로도 꾸준한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학습진흥기본계획(2001)」에서 학습동아리를 장기 정책추진과제로 설정한 이래로 학습동아리는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자발적 학습모임 9,000개 내외 육성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학습동아리 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연구와 자료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평생 학습동아리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지방 수준의 실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한국의 학습동아리 활동 실태는 체계적인 통계정보로 직접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9년에는 53.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의 동아리 참여가 비교적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 주지만, 그 자체로 학습동아리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작업한 ‘자발적학습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물(박선경 외, 2018)’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학습동아리 참여자 905명에게서 학습동아리 참여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동아리의 활동 목적은 <표 II-9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봉사가 4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화학습형 27.8%, 전문탐구형 16.0%, 기타 13.1%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이 늘어날수록 학습동아리는 ‘심화학습형’에서 ‘지역사회봉사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 수가 10명 미만보다 10명 이상일 때 지역사회봉사형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활동 기간과 회원 수에 따라 활동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학습동아리 지원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97> 학습동아리 활동 목적

구분	심화학습형	전문탐구형	지역사회 봉사형	문제해결형	기타	계	χ^2
지역	시	139(27.6%)	67(13.3%)	219(43.5%)	10(2.0%)	68(13.5%)	10.857
	군	20(27.4%)	12(16.4%)	28(38.4%)	2(2.7%)	11(15.1%)	
	구	89(28.2%)	64(20.3%)	114(36.1%)	11(3.5%)	38(12.0%)	
활동 기간	1년 미만	50(34.2%)	25(17.1%)	38(26.0%)	4(2.7%)	29(19.9%)	29.141**
	1~3년	70(26.8%)	48(18.4%)	103(39.5%)	11(4.2%)	29(11.1%)	
	3~5년	61(29.3%)	26(12.5%)	96(46.2%)	1(0.5%)	24(11.5%)	
	5년 이상	66(24.3%)	43(15.8%)	121(44.5%)	7(2.6%)	35(12.9%)	
회원 수	10명 미만	126(37.0%)	59(17.3%)	100(29.3%)	10(2.9%)	46(13.5%)	33.299***
	10명 이상	122(22.3%)	83(15.2%)	257(47.1%)	13(2.4%)	71(13.0%)	
전체		248(27.8%)	143(16.0%)	361(40.5%)	23(2.6%)	117(13.1%)	892(100.0%)

*p<.05, **p<.01, ***p<.001

학습동아리의 활동 성과는 <표 II-9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증진’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봉사로 자긍심과 사회적 성취감 고취(26.6%)’, ‘지역사회 활동가로 사회참여 확대(11.2%)’, ‘일자리 기회 실현(8.8%)’, ‘공동체 의식 향상(6.6%)’순으로 나타났다.

<표 II-98> 학습동아리 활동 성과

구분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의식 향상	사회참여 확대	자긍심과 사회적 성취감 고취	일자리 기회 실현	기타	계	χ^2
지역	시	204(40.4%)	35(6.9%)	54(10.7%)	153(30.3%)	36(7.1%)	23(4.6%)	17.093
	군	35(47.3%)	3(4.1%)	7(9.5%)	18(24.3%)	9(12.2%)	2(2.7%)	
	구	149(47.0%)	21(6.6%)	39(12.3%)	67(21.1%)	34(10.7%)	7(2.2%)	
전체		388(43.3%)	59(6.6%)	100(11.2%)	238(26.6%)	79(8.8%)	32(3.6%)	896(100.0%)

*p<.05, **p<.01, ***p<.001

지역사회 참여활동 시 어려운 점은 <표 II-9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소요 예산 마련(44.9%), 공공기관 지원 부족(23.4%), 회원들의 참여 저조(14.7%)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동아리에서 예산이라는 물적 요소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99> 지역사회 참여활동 시 어려운 점

구분	회원 참여 저조	소요 예산 마련	정보 부족	공공기관 지원 부족	기타	계	χ^2
지역	시	64(12.9%)	224(45.2%)	47(9.5%)	128(25.8%)	33(6.7%)	13.437
	군	13(17.8%)	41(56.2%)	6(8.2%)	11(15.1%)	2(2.7%)	
	구	53(16.9%)	131(41.9%)	34(10.9%)	67(21.4%)	28(8.9%)	
전체	130(14.7%)	396(44.9%)	87(9.9%)	206(23.4%)	63(7.1%)	882(100.0%)	

*p<.05, **p<.01, ***p<.001

<표 II-100>에서 보이듯이 학습동아리 지원 필요 사항도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는 모임 장소 확충(21.6%), 지역사회 활동연계(15.9%), 강사 등 전문 인력(11.5%)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예산이나 공간 제공 등과 같은 물적 요소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연계와 관련된 정보 요소, 전문 인력과 관련된 인적 요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00> 학습동아리 지원 필요 사항

구분		장소 확충	지역 연계	시설 및 장비	네트 워크	전문 인력	운영비	정보 및 홍보	기타	계	x ²
지역	시	103 (20.5%)	83 (16.5%)	54 (10.8%)	25 (5.0%)	53 (10.6%)	161 (32.1%)	11 (2.2%)	12 (2.4%)	502 (100.0%)	21.861
	군	22 (30.1%)	11 (15.1%)	11 (15.1%)	4 (5.5%)	5 (6.8%)	16 (21.9%)	3 (4.1%)	1 (1.4%)	73 (100.0%)	
	구	67 (21.4%)	47 (15.0%)	21 (6.7%)	18 (5.8%)	44 (14.1%)	97 (31.0%)	16 (5.1%)	3 (1.0%)	313 (100.0%)	
전체		192 (21.6%)	141 (15.9%)	86 (9.7%)	47 (5.3%)	102 (11.5%)	274 (30.9%)	30 (3.4%)	16 (1.8%)	888 (100.0%)	

*p<.05, **p<.01, ***p<.001

한편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지원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10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개 시도를 제외한 총 13개 시도에서 학습동아리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 이루어지기보다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정보, 조직적 차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의 상황에 따라 물적 요소(예: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으나, 인적, 정보, 조직적 차원 등으로 2개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표 II-101>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지원 관련 사업 현황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인적, 물적, 조직, 정보 지원 표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정보) 학습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개) • (물적) 커뮤니티 지원(16개) • (물적) 장소서비스 제공 • (조직) 사회공헌활동 간 연계 프로젝트 지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공동체 구축(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 (조직) 컨설팅 • (조직)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 (물적) 학습공간 공유
대구평생교육진흥원	학습동아리 소셜러닝 활성화 지원	• (물적) 학습 및 실천형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및 지원	• (물적) 자발적 학습모임(Cop) 4개 지원 • (정보) 학습모임대상 전문역량 강화
	평생학습 인적네트워크 및 동아리 지원	• (인적, 조직) 동아리 관계자 교육(책임자 및 실무자) • (정보) 학습동아리 리더 교육 • (물적) 학습거점(지식공유터) 활동 지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물적) 자발적 학습모임 발굴 및 운영지원 • (정보) 자발적 학습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 (조직) 공익활동 추진 및 지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 (조직, 물적) 동아리네트워크 사업 지원 • (정보) 프로그램 콘텐츠 강사로 지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 (물적) 14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평생교육컨설팅 지원	• (조직) 나눔한마당 • (조직) 사업점검 컨설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 (인적) 지역인재(마을리더, 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발굴, 육성 • (정보) 마을공동체 관계자 워크숍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정보) 동아리 현황 조사(DB구축) • (조직) 학습동아리 한마당 운영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

기관명	사업명	지원 내용 (인적, 물적, 조직, 정보 지원 표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 (물적) 30개 동아리 학습활동지원 • (정보, 조직) 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컨설팅 • (조직) 학습동아리 한마당 개최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정보) 시군 평생학습동아리 현황 조사 • (물적) 평생학습동아리 선정, 지원(16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물적) 평생학습동아리 선정, 지원(12개) • (조직) 모니터링 실시 • (조직, 정보)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작품전시 및 사례 발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학습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	• (물적, 정보) 학습동아리 대상 교육과정 지원(20개) • (정보, 조직) 학습동아리 운영지도자 연수(1회)

출처: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향후 과제

앞서 제시한 박선경 외(2018)과 전국평생교육진흥원(2019)의 자료에 제시된 학습동아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나 기초지자체에서는 학습동아리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앞서 학습동아리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동 기간과 모임 인원 등에 따라 활동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동아리의 특성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시도나 기초지자체에서 학습동아리 지원에 앞서 명확히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정보, 조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학습동아리 지원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 경비(물적), 장소(물적), 지역활동 연계(정보, 조직), 전문 인력(인적) 등을 꼽았다. 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지원 요소들 중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습동아리 지원 시, 시도와 기초지자체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관련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적, 물적, 조직, 정보차원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원이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할 구분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지원한다면 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이자 평생학습시대에 지역학습동아리의 활동은 개인이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도와 기초지자체에 서는 지역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자발적 학습모임 사례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옥(2015). 실천학습공동체의 학습과정 연구: 재능기부 학습동아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2), 189-213.
- 김진화·고영화·정민주·정은주(2010). 학습동아리양성 인큐베이터 과정 프로그램. 울산: 울산광역시·울산발전연구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박상옥·이지혜·홍숙희·박혜원·이선아(2014).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자료 개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선경·이정미·고영화·노희숙·최은미·민병철(2018). 지역사회 활동지원을 위한 학습동아리 실무매뉴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석세스포럼(2011). 학습동아리구성(Cop)운영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안전행정부 발간자료.
- 어재영(2012).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 활성화 정도 및 활성화 지원요인 분석: J군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3(1), 1-18.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2(1), 53-80.
- 이지혜·홍숙희(2002). 학습동아리활동에 나타난 학습역동: 성인여성학습동아리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8(1), 177-200.
- 한국교육개발원(2004). 학습동아리 지도자 가이드북.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Blid, H.(1989). Education by the people: Study circle. Sweden: Trychery AB Plimo.

제5절

소결



지금까지 국가-시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시도진흥원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및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전담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2011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모두 설치·운영 중이며, 2001년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2019년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7개 도시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4년 시작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2017년에 국가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수요와 필요에 의해 자체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듯 국가로부터 읍면동까지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구심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고 재능을 나누는 학습공동체 형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동아리 활동이 있으며, 이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나누는 실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영역의 지역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20여 년 간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시군구를 잇는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전면 설치되어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을 위한 행정기구, 전담기구, 심의기구로서 그 체계가 확립하였다.

그러나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평생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와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고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교육으로서의 책무성과 체계성을 강조하여 일정 비율의 국도비 지원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장기적으로 양 관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평생학습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지속성, 전문성,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도비의 안착이 필요하다는 일선 지역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독립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시도진흥원은 8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진흥원별 인력과 예산, 사업 규모 등의 격차는 물론 시군구 평생학습도시보다도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흥원은 그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독립된 재단법인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연계사업, 공동 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과 시도별 특화사업 개발·운영을 통해 시도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상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평생교육 진흥에 가장 기여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년을 맞이하며 그간의 국내외 우수 성과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표출되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질 관리 체계 부재로 평생학습도시 간 격차가 심화되고 학습도시와 비학습도시간의 차별화 부재라는 부정적 시각도 표면화되면서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방향 설정을 위한 재구조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2019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라는 제도를 가시화하였다. 평생학습도시는 물론 평생교육 관계자들 대부분 이러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조치와 재지정평가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 원활한 소통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3대 목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러한 3대 목표는 기존 취미교양 위주의 평생학습, 중산층의 문화생활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전환하고 지역의 공동체 복원, 지역의 잠재된 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적 역할이 학습동아리였다. 기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자발적 의지를 통해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 함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 환원 활동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정주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공동체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학습동아리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미비하였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도 지역에서만큼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법적 기반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학습-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속에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평생학습 정책이 수립되고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제3장

대상별 평생교육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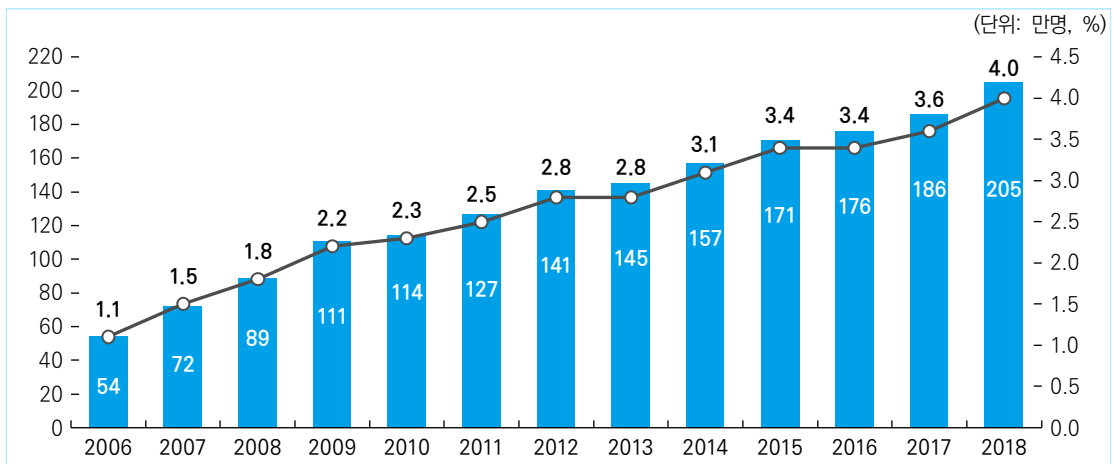
다문화 평생교육



1. 개요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이다.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다루고 있으므로 나이나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즉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보장받고,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덕목과 역할에 따른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205만 4,621명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은 해당 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2006년(536,627명) 이래 10여 년 동안 약 3.8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 인구 대비) 1.1%에서 2018년(총인구 대비) 4.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다문화학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 증가한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수는 2019년 기준 137,225명으로 2018년(122,212명) 대비 15,013명(12.3%)이 증가하였으며, 다문화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2%) 대비 0.3%p 상승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이 103,881명으로 2018년(93,027명) 대비 10,854명(11.7%), 중·고학생은 21,693명으로 2018년(18,068명) 대비 3,625명(20.1%), 고·중학생은 11,234명으로 2018년(10,688명) 대비 546명(5.1%)이 각각 증가하였고, 각종학교는 417명으로 2018년(429명) 대비 12명(-2.8%)이 감소하였다.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학급 학생 구성의 변화이다. 아래 [표 II-102]가 잘 보여 주고 있듯이 2019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2,747,219명) 대비 다문화학생 수(103,881명)의 비율은 3.8%이다. 이를 2019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2.2명)에 대입해 보면 산술적으로 두 학급 중 한 학급에는 최소 1명(1.69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라남도의 초·중·고등학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7.1%로, 이는 한 학급당 1.58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임을 나타낸다. 즉 학생 모두가 다문화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 학생 구성의 변화가 지역 인구·사회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볼 때,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102> 2019년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학생 수	2,747,219	422,293	155,589	126,122	160,853	88,990	82,743	68,512	27,892
다문화학생 수	103,881	13,067	4,509	3,516	5,866	2,739	2,238	2,421	543
비율	3.8	3.1	2.9	2.8	3.6	3.1	2.7	3.5	1.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학생 수	769,744	75,617	86,709	122,424	97,731	94,952	131,374	194,606	41,068
다문화학생 수	25,535	3,070	4,110	6,837	5,369	6,748	6,988	8,635	1,690
비율	3.3	4.1	4.7	5.6	5.5	7.1	5.3	4.4	4.1

출처: 교육부(2019).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자료 재구성.

주) 비율 = 다문화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 100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단독, 또는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법무부는 외국인과 난민 등에 관한 이민정책²¹⁾ 및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허가 및 취업 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교육부는 유학생과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한 진로·진학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정책 및 관련 사업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과 관련 사업²²⁾을 지원하고 있다.²³⁾

그러나 이를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이라는 관점, 즉 다문화학생과 성인 등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성 제고를 포함한 이해 증진과 다문화학생(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정책과 사업으로 한정하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먼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포함)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비전으로 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과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추진 과제로는 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② 학교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③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추진 과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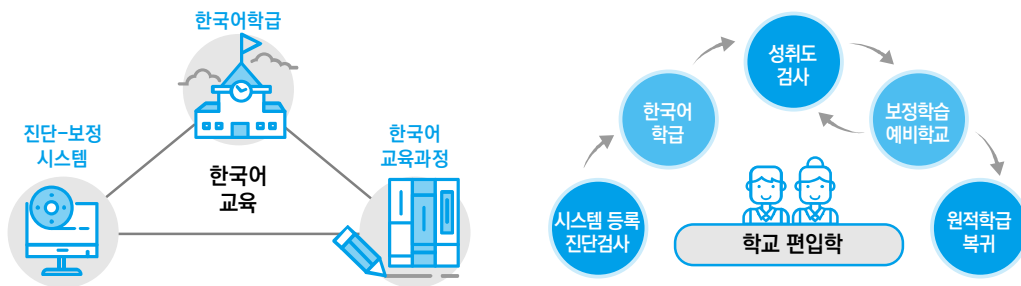
첫 번째 추진과제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이다. 다문화학생을 우수 인재로 양성하기

21)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사회 구성원 자격 부여와 이들이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 2018년에 법무부 차원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추진함.

22)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법무부 협력에 기반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18년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추진함.

23)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사업 내용별로 협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음. 예컨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의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다문화 이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 부처와 사업 체계를 조정하고 있음.

위하여 한국어교육과 함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돕고, 이들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제공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은 학교 내에 특별학급 형태로 설치하여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집중교육을 지원한다.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유치원)의 편·입학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림 II -29]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도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또한 한국어학급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7년에 개정된 표준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201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부는 국립국어원과의 협업을 통해 「표준 한국어」 교재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익힘책 및 지도서」도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학급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담당 교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능력 진단부터 보정·관리까지 지원하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급 전환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검다리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교급별·과목별 교과 보조교재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기존 ‘징검다리과정(초등)’ 개발에 이어 2019년에는 중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징검다리과정(중등)’을 개발하여 중학교 생활의 초기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또한 교과 보조교재는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학교급별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와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의 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은 물론 취약계층 및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등록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과 대학생, 연계·활동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매칭 대상으로 설정하고 참여 대학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 등의 소외 지역 지원에 할당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취학 안내 지원을 강화하였다. 법무부가 보유한 시기별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아동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매 학기 초에 한국의 교육제도 및 편·입학 정보를 다문화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학생이 우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강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이 주로 그들의 결핍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이며,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학습의 장려를 위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와 역할모델을 통한 진로탐색을 돕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이다. 이 과제는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과 모든 학교로 다문화교육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활동 실시를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기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차년도 계속 운영교 및 신규 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한편 기존 다문화 유치원·중점학교·예비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하는 제도 혁신을 단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설명회(2회) 개최, 운영계획서 검토 및 환류, 컨설팅, 워크숍, 현장방문, 교원 및 관리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교원과 예비 교원,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연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교원, 한국어학급 관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교원 및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언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우수 운영 사례를 전파·확산하였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의 내실화이다. 이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학교 현장에 다문화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연계 및 협업에 기반을 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활동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원들을 위촉하여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하고, 소속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교원들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역 차원에서는 중앙지원단 소속 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 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연수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연구학교 등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중앙 차원에서 다문화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자체 홈페이지인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의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들이 자료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 사업을 소개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다문화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 등 범부처 연계를 추진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 부처와 사업별 협업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부처 간 사업 연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다문화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²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통해 다

24) 여성가족부, 2019 정부업무보고_여성가족부.

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하여 아동과 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련 중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사례관리사업 등의 혁신 및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연령별, 정착 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초기정착, 적응단계 및 진로지원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그 단계에 적절한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컨대,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이 일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과 학교·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 교육도 이 범주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다문화이해교육과 다문화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포럼 등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하겠다.

사업 운영 성과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와 여성가족부의 사업 추진 성과로 나누어 차례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인 다문화 친화적 학교체제 구축 및 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성과를 살펴보겠다. 2018년까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되었으나 2019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되었다.²⁵⁾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포함한 다문화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9년 서울과 세종 및 대전에 각각 센터가 설립·운영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의 안정적인 다문화교육지원체계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실효성의 파악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사전·사후 조

25)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한국어학급(유치원, 초·중등)을 포함하여 총 643개(원)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조사(2019년 4월)에 참여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전조사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일반학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다문화교육 정책학교: 75.92, 일반학교: 75.70)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사후검사에서는 다문화포래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다문화통합성, 외국인수용성 등 4개 하위영역 및 전체 평균에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다문화수용성(다문화교육 정책학교: 78.17, 일반학교: 76.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한국어학급(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포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하여 교사(담당 및 원적학급) 및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한국어학급 만족도조사는 한국어 능력 향상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력, 수업 환경 등을 그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학급의 만족도는 4.56점에서 4.59점, 찾아가는 한국어학급은 4.50점에서 4.58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학급 운영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다문화 친화적 교육과정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학교급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 자료집(7종)을 개발하였고, 동 연구결과물을 수업모델자료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및 에듀넷 자료에 탑재하는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였다.

한편 다문화학생의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교육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모색하였다. 우선,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를 개정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시도교육청,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자료를 배포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 다문화담당자 협의회(3회) 및 워크숍(2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을 개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 개정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학력심의 권한을 단위 학교로 하향하여 학력 증명이 어려운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시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력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학생 대상 학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PDF 파일 및 인쇄본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입학 안내 자료를 전면개정하고 배포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 학교보내기’ 및 학교 입학 안내 자료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번역 언어를 추가(9개 언어→12개 언어)하였고, 법무부 측에 안내 자료를 지원하여 해당 정보의 수혜자를 크게 확대(10,100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여 다문화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의 고취를 지원하였다. 우선, 다문화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별 초급 1·2권, 중급 1·2권을 각각 개발하여 총 20권의 전자책(전자책 1종과 앱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이중언어교재에는 음원실행, 상호작용활동, 학습이력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도 포함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관·학 연계²⁶⁾를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이중 언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2019년 11월) 및 관련 워크숍(2019년 12월)을 개최하여 다문화학생의 정체성 확립 및 보다 효과적인 이중 언어교육 지원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교과 학습 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과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의 주요 개념 및 어휘를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 중학교 보조교재인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2종(수학/과학)을 개발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등 122개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공교육 진입 및 학교급 전환기에 마주하게 되는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영역에 대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초등학교)’의 시범 적용을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전국 14개 시도의 27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등 238명이 참여하였다. 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3점과 4.89점을 각각 기록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검다리과정(초등학교)’은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 사례(행정안전부)’ 후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중학교 입학 대상 다문화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중학교)’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하였다. 중학생 대상 징검다리과정은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자아존중감, 공감, 배려 및 협력의 네 가지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또래문화 기반 의사소통 교육 프

26)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교육부와 LG연암재단이 공동 주최 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 주관 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있음.

로그래밍과 체험·활동 기반 학교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은 다문화교육 담당자, 관리자 등 시도교육청 추천 교원 74명이 활동하였다. 중앙지원단은 2019년 1월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이수한 후 각 지역에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운영계획서 검토, 연수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담당자, 교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2019년 7월에는 표준한국어(KSL) 교육과정 담당교원 직무 연수를 기초와 심화의 수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8월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직무 연수를 통해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담당자 워크숍 운영을 확대(2018년 1회 → 2019년 2회)하고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권역별 협의회도 추가(2018년 1회 → 2019년 4회) 실시함으로써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다.

오프라인 기반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이외에도 교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 콘텐츠도 운영하였다. 중앙교육연수원 위탁과정인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실 속 다문화교육(30차시)’ 과정은 2019년 한 해 동안 5,002명이 이수(이수율: 84.3%, 과정 만족도 평균: 88.2점)하였으며,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및 상담의 이해(15차시)’ 과정은 2,182명이 과정 이수(이수율: 90.1%, 과정 만족도 평균: 90.4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제11회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에는 약 500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다문화 인식 개선 포스터 부문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14명이 참여하는 등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교육 실천 사례와 상담 사례, 교육 수기 부문의 경우 현직 다문화 담당 교원들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시선을 통해 학교와 가정, 다문화교육 기관에서의 우수 사례와 보람, 고충 등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다문화교육 포털’은 2019년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다문화교육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지향성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웹 주소를 www.edu4mc.or.kr로 변경하였다. 둘째, 다문화

교육 포털 내 교원들의 상시적인 소통은 물론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게시판 신설 등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문화교육 플랫폼 기반 다문화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접수기능을 신설하여 시도교육청의 응모작 접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는 등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포털의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류체계, UI재구성 및 검색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정책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학적관리 매뉴얼,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표준한국어 사용 안내서, 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13개 언어), 각종 연수 자료집 등 42개의 신규 자료를 업로드하여 모두가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인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2018년 152개소 → 2019년 183개소)함으로써 다문화 부모-자녀의 상호이해와 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제공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역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중도입국 자녀의 조기 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1,748명에게 한국어 및 사회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도왔으며, 전국 29개 기관, 92학급의 청소년 1,85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포함한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들과 관리자들은 한국어 역량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과 입국 초기 통합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공교육 진입단계별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보았듯이,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징검다리과정이 개발되어 이들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적응은 아직 시범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급의 설치와 운영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장의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입학과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언어 및 학습지원 등이 좀 더 체계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지원·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과 사업의 중심축은 대체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학습 지원 등에 있었다. 즉 다문화학생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다양한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갖는 다문화학생들의 강점 개발이나 정서적 지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학생의 강점 개발 측면에서 이중 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책과 앱 개발, 지역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언어 및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멘토링 사업, 진로 지원 측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진로탄탄’) 등이 일부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높은 수준의 인종/민족 정체성이 다문화학생의 학업정체성과 학교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오만석 외, 2018).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학생의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상급학교인 중·고등학교로의 진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사회·정서적 측면은 물론 진학 및 진로선택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기존의 언어 및 학습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이 갖는 한계와 다문화학생의 청소년기 전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문화학생의 균형감 있는 발달과 우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진학 및 진로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이 좀 더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관 간 사업 중복 및 연계·협력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있다. 다문화 업무 관련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부터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 언어 및 학습 지원, 진학 및 진로 선택과 체험, 정서적 상담 및 지지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학교 안팎의 정책 대상이라는 구분을 통해 지원 내용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일 대상에 대한 정책 내지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중복과 단절이 일어나기 쉽다.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진학과 진로 선택이 학생의 미래 인생설계 또는 경로 등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통합되어 단절 없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여건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참여는 물론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지역 내

학교의 외부환경으로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 간에는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약 71점이고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약 5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 간 다문화 관련 교육에의 참여율 차이(청소년 32.4%, 성인 4.6%)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까지 다문화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과제

현 정부가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의 모두의 아이”라는 표어 아래 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 달성을 위해 다문화교육 측면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이민, 귀화 등의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을 한국 사회의 취약 집단이 아닌 국제화 시대의 구성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의 시사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결핍 보완의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학생이 갖는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언어적 강점을 개발하여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교육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 관계 법령 등에서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학생의 편입학 및 학력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외국인 등을 포괄하기 어렵고, 공교육 진입 이후 교육 지원 등 다문화교육 추진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문화교육의 시행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아 다문화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별도의 법령 제·개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안정적인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법령 제·개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5년 단위의 체계적인 수요기반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단계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은 그 문화적, 언어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공교육 진입부터 학교생활 적응, 언어 및 학습 지원, 진학 및 진로 선택과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은 서로 다른 문화 및 언어 체계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어를 통한 소통, 한국의 사회·문화 등에 대한 이해 미흡, 심리·정서적 불안 및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쉽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공교육에의 접근성을 한층 제고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지원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교육 진입 안내 강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진로 지도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양질의 교수 학습 자원 개발 및 보급 등이 한층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지원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학습 선순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하여 개인과 사회의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삶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인정받아 진로 선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인적·물적 자원과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의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시사점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자 간의 다문화교육 참여 비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등 기존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연계한 지역사회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 평생교육 설계사인 평생교육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교육 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부.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중도입국청소년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진로탄탄: 교사용 매뉴얼.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경기: 법무부.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종: 여성가족부.
- 오만석·이길상·정미량·모경환·차윤경·주미경·함승환(2018).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경기: 한국학 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19). 2019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세종: 행정안전부.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www.edu4mc.or.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kihf.or.kr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yci.or.kr
-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www.kosis.kr

제2절

학부모 평생교육



1. 개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권리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상담·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도(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업무 지원을 통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2010년 10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지원 정책 기반조성,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지원, 학부모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전국 102개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별 학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며, 교육정보 및 온라인 교육과정도 공유 또는 연계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공식누리집인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2011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웹진인 '함께 하는 교육, 학부모On누리'를 창간하였다. 2013년에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부모상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대표번호(1899-0025)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학부모On누리와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합하였으며,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요람을 발간하였다. 2018년에는 e-book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학부모교육백서 발간과 진로교육 서비스를 맡아 개발·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민주주의주간 등 학부모 인식 제고 사업 및 학교자치기구 임원 온라인 선거 경비 지원사업도 운영하였다.

〈표 II-10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2017~2019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시도 네트워크 구축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실시(1회)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실시(2회)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실시(1회)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1종)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1종)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간(1종)
	· 2017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요람 발간	· 2018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요람 발간	· 2019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요람 발간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1,619명)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2,110명)	· 학부모강사 DB 구축·운영 (942명)¹⁾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운영 (1899-0025)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운영 (1899-0025)	· 학부모상담 대표번호 운영 (1899-0025)
	· 시도 학부모 정책 협의회 운영 (2회)	· 시도 학부모 정책 협의회 운영 (3회)	· 시도 학부모 정책 협의회 운영 (5회)
	-	-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1,058명, 총 28건 활동)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e-book 열람 시스템 도입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e-book 열람 시스템 운영
	·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6종)	·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6종)	·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6종)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부모용 매뉴얼 개정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 드림레터(102회), 진로레시피(54회), 드림주니어(20회) 등 제작	· 드림레터(108회), 진로레시피(50회) 등 제작
	· 학부모 교육정책 심층 토론회 개최(1회) · 미래공감, 학부모 토크콘서트 개최(1회)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개최(12회)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토크콘서트) 개최(19회) ·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 (20회)
			·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지원(총 67회 특강, 연수 개최) · 학교민주주의주간 등 학부모 인식 제고(칼럼 기고, 학부모 연수 등) · 학교자치기구 임원 온라인 선거경비 지원(K-Votin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학부모 지원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자료 발간	- 국내외 학부모정책 분석 연구 - 정부부처 단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학부모 교육정책 요구 빅데이터 분석 연구 - 지역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 총 4종 발간	2018 학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학부모 지원을 위한 지역인프라 활용 방안 연구 2018 학부모교육 백서 ※ 총 3종 발간	2019 학부모교육 관련 정부 부처 개발·보급자료 실태조사 연구 - 학부모회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인식 및 활성화 수준 비교 연구 ※ 총 2종 발간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부모On누리 웹진 발간	학부모On누리 웹진 발간	학부모On누리 웹진 발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 사례집 발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 사례집 발간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학부모특강 참여(김상옥 교수)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2016년도 이전 개인정보 보유 기간 만료로 감사 정보 등 1,168건 파기

가.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On누리’ 플랫폼을 통해 2013년부터는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자녀의 연령별 또는 학부모의 관심 분야별(교육정책, 창·인성,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 건강안전 등)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온라인 콘텐츠²⁷⁾ 등도 공동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표 II-104>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

연번	과정명	차시	연번	과정명	차시
1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5차시	26	우리 아이 경제교육	8차시
2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5차시	27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 가족	5차시
3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기	6차시	28	지혜로운 부모, 훌륭한 학부모	5차시
4	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10차시	29	가족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차시
5	우리 아이 중학교 보내기	6차시	30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5차시
6	우리 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6차시	31	초보 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5차시

27) 협력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남교육연구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연번	과정명	차시	연번	과정명	차시
7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바르게 이해하기	5차시	32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5차시
8	새로운 교육정책 바로알기 학부모교육	5차시	33	사춘기가 된 내 자녀,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다	5차시
9	우리 아이 성적표 읽기	3차시	34	아빠는 놀이쟁이	4차시
10	초등학교 보내기, 걱정 마세요!	4차시	35	(협력과정)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4차시
11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보고·듣고·말하기	15차시	36	(협력과정)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6차시
12	자유학기제, 학부모교육 매뉴얼	5차시	37	(협력과정)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	4차시
13	학부모 학교참여	1차시	38	(협력과정) [초등]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차시
14	학습자를 사로잡는 강의법	6차시	39	(협력과정) [중등]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차시
15	자녀들의 창의적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이해하기	5차시	40	(협력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1차시
16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15차시	41	(협력과정) 영유아 영양관리	4차시
17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7차시	42	(협력과정) 직장인 건강자세 만들기	5차시
18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진로·직업교육	4차시	43	(협력과정) 자살예방교육	4차시
19	아이와 함께 코딩을	4차시	44	시와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 핵심은 문해력!	5차시
20	우리 아이 그림으로 자존감 높이기	5차시	45	꼼꼼하게 따져보면 역시, '직업계 고등학교'	5차시
21	독서를 통한 우리 아이 인성교육	5차시	46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5차시
22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6차시	47	부모-자녀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마음 안아주기	6차시
23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8차시	48	학부모 학교참여 이해하기	5차시
24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5차시			
25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6차시	49	클릭! 미디어 리터러시	5차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또한 학부모On누리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부모를 위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자막서비스 및 일부 수어(手語)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웹진 메일링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학부모On누리 사용 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강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자 수는 61,993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최신 교육정책 현안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을 확

대·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진로교육,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한글책임교육, 일반계 고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교육부 담당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소통하며,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총 19회 개최하였고, 3,334명이 참석하였다.

<표 II-105> 학부모On누리 이용(누적) 현황(2017~2019년)

(단위: 명, 개, 건)

		2017	2018	2019
학부모On누리 가입 회원 수		78,257	80,109	83,370
탑재 자료	교육자료	234	476	448 ²⁸⁾
	동영상	329	350	451
페이지 뷰		1,479,979	2,162,789	3,448,878
온라인 교육과정		34	40	43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자		43,018	45,917	61,993 ²⁹⁾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논의와 공유의 장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세부 유형별 상시 협의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개선과 협력을 추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추진체제별, 담당별 현안 점검 및 소통, 교류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정책 현황, 사업계획 및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요람을 제작·보급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노력으로는 먼저,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 중 학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³⁰⁾하고 있으며,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28) 2019년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개선 작업으로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링크 된 일부 자료가 소실됨.

29) 2019년도의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자의 급증은 비회원으로도 수강이 가능한 점과 더불어 일부 교육과정을 일부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점이 그 이유로 분석됨.

3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7~: 자살예방교육, 직장인 건강자세 만들기, 영유아 영양관리, 성폭력 예방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8~: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중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초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이음e 부모교육]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밥상머리교육을 지원하였다.³¹⁾ 또한 전국 17개 시도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위한 윈도우10 무상 업그레이드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무상 제공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마이크로소프트 기관 간 협업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학부모 교육 관련 강사 정보의 통합·운영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 강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시 타 지역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열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학부모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국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학부모지원정책 기반 조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관련 정부부처 개발·보급자료 실태 조사’를 연구 수행을 통해 실시하였다. 학부모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부처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대한 생애주기별, 내용별, 대상별 자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모회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인식 및 활성화 수준 비교 연구’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한 10개 교육청³²⁾과 비제정 교육청의 학부모·교원이 학부모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필요성, 기대 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가 법적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확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향후 과제

시대 발전에 따른 학부모교육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은 한 기관의 예산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연계·제공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좋은 교육·정보에 대한 선택의 폭과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상호 제공하여 왔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정책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

31) 푸드포체인지(풀무원 봉사재단) 운영(2019년 150회 운영, 3,929명 참여): 초등학생(2~3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당 10~15가족의 밥상머리교육을 지원함.

32) 학부모회 조례 제정 교육청: 경기, 전북,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세종, 강원(2019. 12. 기준)

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추진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학부모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법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학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학부모 정책 세미나-학부모 학교참여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 학부모 온누리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제3절

장애인 평생교육



1. 개요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에 교육부에는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을 국립특수교육원에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다른 장애인 지원 관련 국가 주도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상승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2018. 9. 국무회의 보고), 국정과제(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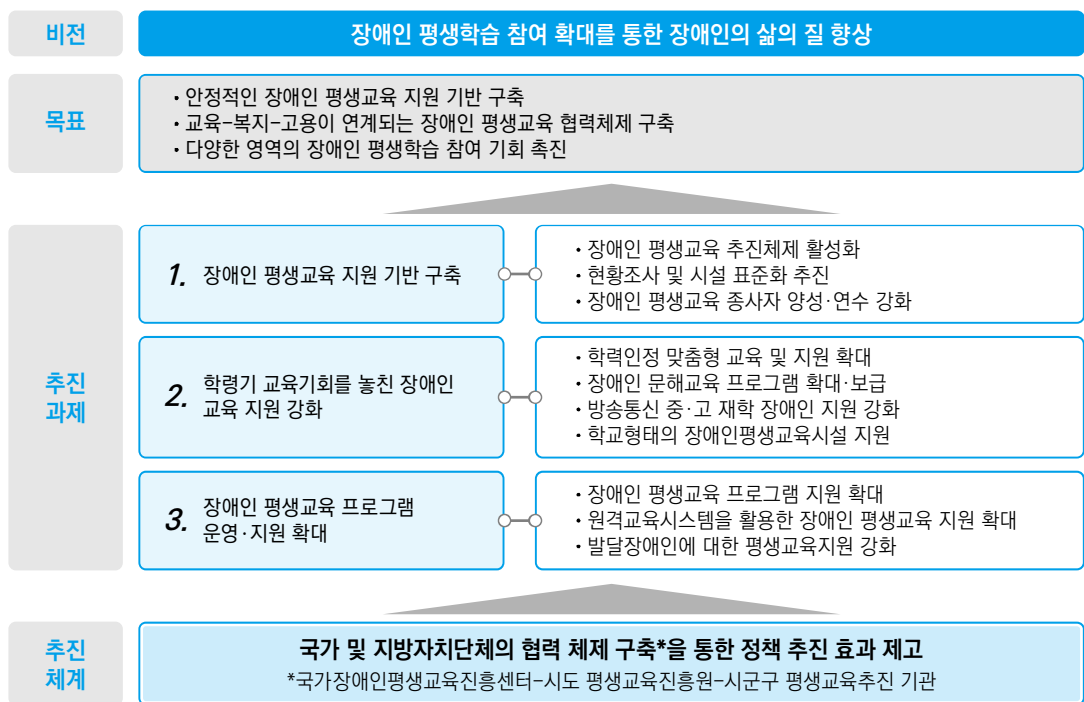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요구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지원에 주력하였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2019년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해로 2018년에 이은 지속 사업 이외에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하였고,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고시하였다(교육부 고시 2019-198호, 2019. 9. 17.). 또한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2019년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 II-30]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출처: 교육부(2018).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이와 같은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과제의 실질적인 구현과 현장 적용을 위하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결과물은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보급·공유하였다.

<표 II-106> 2019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추진 실적

구분	내용	실적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종, 100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표준(안) 개발	1종, 100부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일반화 모델 개발	18종
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4종, 480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	4종, 3,400부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1종, 500부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종, 240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기기 1종, 앱 1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체계(정보 시스템) 구축	1식
교육·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5회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1종, 100부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운영 등	5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한 팽창을 하였다. 우선 2019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4,044백만 원으로 2018년의 1,482백만 원에서 거의 3배가 증액되었다. 그 만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새롭게 추진하였던 사업과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마련한 것이다. 2019년 12월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내놓았다. 이는 「평생교육법」 제 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항제2호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향후 3년간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장 구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문헌연구, 초점집단면담, 서면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얻은 현장의 의견을

4개 영역, 10개 전략 목표, 39개 전략 과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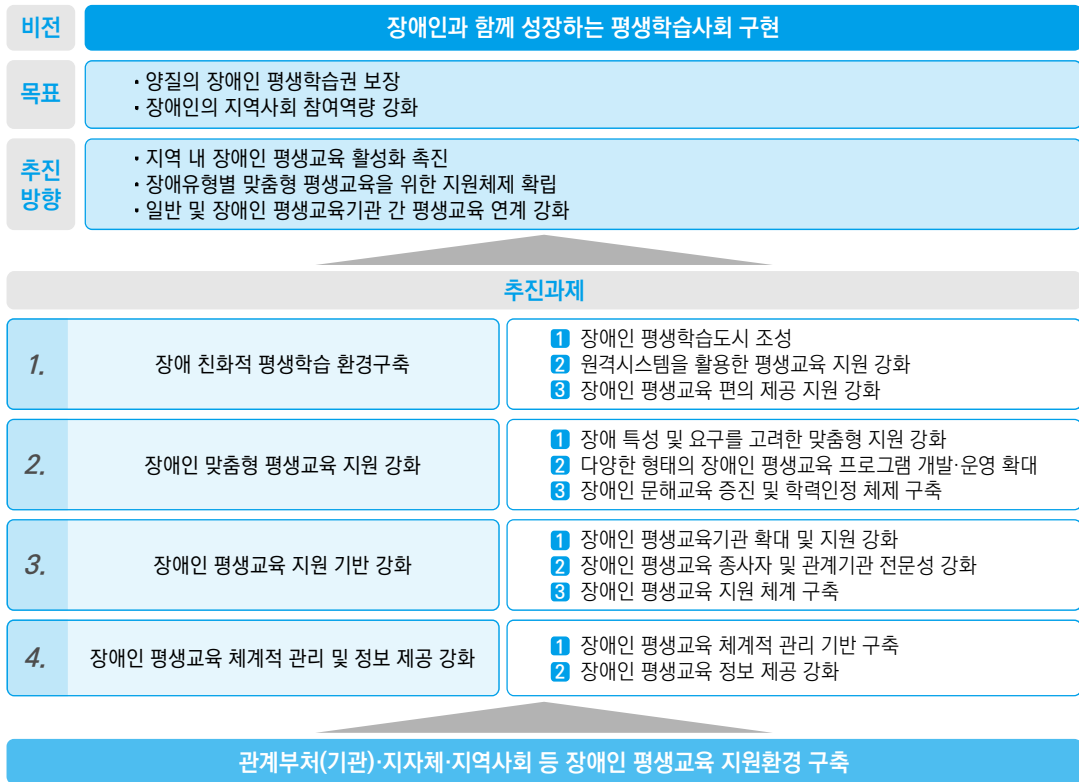


[그림 II-31]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전략체계도

출처: 김삼섭 외(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p. 27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에서는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황과 당면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이 방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약 44.5%보다 10배 정도 낮았다.

이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미비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II-32] 장애인 평생교육 비전 및 목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2020~2022).

또한 이 방안에서는 추진과제가 완료된 3년 후에 기대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분야	현재 (As is)	앞으로 (To be)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 제공 등이 부족한 일반 평생학습도시 운영 장애인 온라인 콘텐츠 및 웹 접근성 부족 장애인 교육편의 제공 부족으로 장애인 접근성 미흡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장애인 교육편의 제공 지원 강화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677개 장애인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체제 미흡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수 1,130개로 확대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시스템 개발로 장애인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부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질적 수준 저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기회 부족으로 지원역량 미흡 부처, 중앙-지방,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역량 강화 관계부처, 중앙-지방,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으로 체계적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파악 곤란 등으로 체계적 관리 미흡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성과평가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로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개선

[그림 II-3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후 기대되는 모습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2020~2022).

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근간은 정확한 전국 단위의 기초자료 확보에 있다.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연구’의 조사표와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0년 본조사의 정확성을 위한 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조사 대상, 조사기준일,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으로 첫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제시하는 15개 장애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하였다. 단, 학교 부설은 제외하였다. 셋째, 일반 평생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으로 하였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로 하였다. 다섯째, 특수교육 기관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및 학습자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외에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교육 등 프로그램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성인 학습자로 하였다. 현황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19년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10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계	여
전체	897	5,042	62,159	30,055
기관유형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71	680	2,761	1,174
일반 평생교육기관	291	1,655	24,371	11,710
장애인 복지시설	524	2,682	34,864	17,110
특수교육 기관	11	25	163	61

<표 II-108> 기관유형에 따른 주제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주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기타
전체	5,042								
기관유형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680	96	99	63	215	62	35	60	50
일반 평생교육기관	1,655	-	-	-	-	-	-	-	-
장애인 복지시설	2,682	162	93	251	1,049	216	99	430	382
특수교육 기관	25	-	-	-	-	-	-	-	-

2019년의 현황조사를 토대로 2020년에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 현황 및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조사를 인터넷 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교육과정 운영(안) 수립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 지 5년만인 2019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교육부 고시 2019-198호, 2019. 9. 17.)가 이루어졌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교육부 고시 2019-198호)

제4조(교육제공인력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고시에 따라 2020년부터 양성교육과정 운영이 필수 과제가 되었고, 양성교육과정(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협의회와 초점집단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양성교육과정 운영(안)을 마련하고 교육제공인력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각 교육제공인력별로 적용되는 선택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성인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정립과 이해, 장애 인권 감수성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라.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일반화 모델 개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향력이 전국에 고루 파급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23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하여 59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항의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중도·중복장애 등)을 고려한 14개 모델을 개발하였고, 아래 <표 II-109>와 같다. 23개 기관은 「평생교

육법」 제20조의 2항에 따른 각 교육감에게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이면서 정관이나 설립 주 목적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명시한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시 2018년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200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5개월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등록생은 365명이며, 평균 출석률은 81.1%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만족도 역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0이상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범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9> 시범 사업 운영 모델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모델 1	• 일상생활프로그램: 시각장애	운영모델 8	• 시민참여프로그램: 중도·중복장애
운영모델 2	• 일상생활프로그램: 청각장애	운영모델 9	• 시민참여프로그램: 발달장애
운영모델 3	• 일상생활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	운영모델 10	• 인문교양프로그램: 발달장애
운영모델 4	• 일상생활프로그램: 중도·중복장애	운영모델 11	• 문화예술프로그램: 발달장애
운영모델 5	• 시민참여프로그램: 시각장애	운영모델 12	•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발달장애
운영모델 6	• 시민참여프로그램: 청각장애	운영모델 13	• 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 발달장애
운영모델 7	• 시민참여프로그램: 지체·뇌병변장애	운영모델 14	• 문해교육프로그램: 공통

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체계(정보 시스템)구축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사업 중 하나가 장애인 평생교육 홈페이지(평생배움세상) 구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를 통합·제공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제가 보다 원활하게 되었다.



출처: 평생배움세상 홈페이지.

홈페이지 ‘평생배움세상’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유관기관 안내 뿐 아니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소개 및 사업결과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평생교육기관 간 교육자료 공유가 가능해졌다.

〈표 II-110〉 장애인 평생교육 홈페이지 ‘평생배움세상’ 구성

구분	하위 메뉴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온라인콘텐츠, 클립형 교육영상, 평생교육통계, 2018년 이전자료,
교육연수	평생교육연수계획, 평생교육연수안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행사안내, 카드뉴스, 홍보자료, 평생교육기관*
참여마당	의견보내기, 정보나눔, 설문조사
소개마당	센터소개, 주요기능, 조직, 찾아오시는 길

출처: 평생배움세상 홈페이지.

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적 기반 마련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7회 운영하였다. 장애인아학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249명이 이수하였다. 특히, 2019년에 운영된 7회의 연수 중에는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과정’이 2회 운영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목 등 인권교육과정(안)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인권변호사, 장애인 단체 활동가, 관련 학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사업 이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표준(안) 개발’을 통해 시도 교육청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례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기기와 200여개의 그림 상징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력인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향후 과제

2019년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된 해이다.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관련 단체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담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 이행 및 성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뿐 아니라 읍, 면 단위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부 전담조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구축되어 있지만,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책과 평생교육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8).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2019). 2019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김삼섭 외(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관계부처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세종: 교육부.
- 평생배움세상 홈페이지. <https://www.nise.go.kr/lifelong>

제4절

기타 평생교육



I. 여성 평생교육

1. 개요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참여율은 2019년 기준 51.6%로 OECD 기준인 57.8%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2% 증가에 그치고 있는 여성 경제참여율의 느린 변화는 우리사회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낮은 수준의 여성 대표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임신-출산-육아의 경험과 맞물리는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만 25~54세 여성의 3명 중 한 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나이는 28.4세이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이다.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재취업여성과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의 임금은 약 15%의 차이가 나고 약 50%정도만 상용근로자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38.1%이고 이 중 여성관리자 비율은 20.6%이다.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³³⁾이후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변화 속도가 더디다. 여성 대표성 제고는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보강하였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과 관련한 여성평생교육 일환으로 재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공공분야 및 민간기업

33)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지방공사, 공단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2006년부터 여성 고용 촉진과 간접적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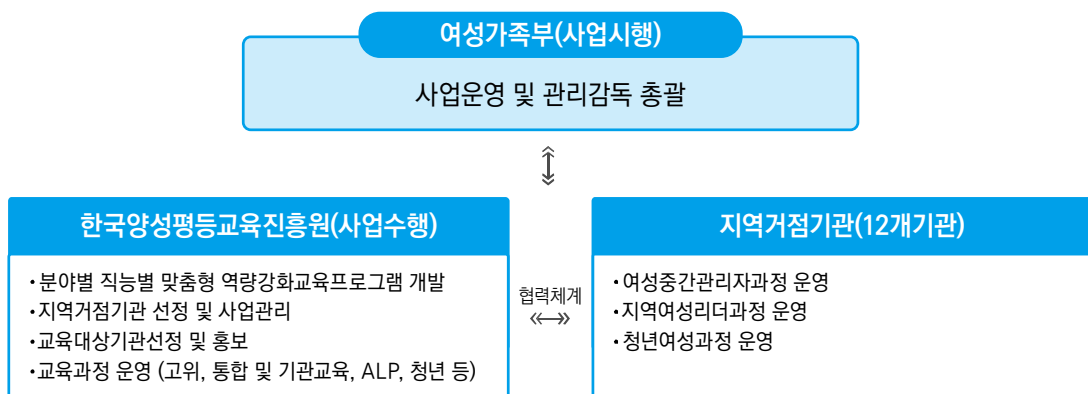
등의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이을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한 경제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본 백서에서는 주체적인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성인재양성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를 근거로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권역별 지역 거점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기반을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12개의 지역거점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하였다. 2019년 12개 지역거점기관에서 총 80회(2,538명)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림 II-34]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사업 추진체계

2019년 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에는 총 10,361명(집합교육 8,636명, 온라인교육 1,725명)이

참여하였다. 재직여성(중간·고위관리자), 여성인재풀에 등록되어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분야 여성, 지역사회여성리더,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여성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로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였고, 학습자의 교육편의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은 아래와 같다.

<표 II-111>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과정별 대상

구분		교육대상
청년여성		• 취업·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여성
재직 여성	중간관리자	• 민간기업/공공기관/단체 중간관리자급 여성
	고위관리자	• 민간기업/공공기관/단체 고위관리자급 여성
전문분야		• 국가공인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활동 중인 여성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여성 • 특정 직군 및 전문분야 차세대 리더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여성
지역사회여성리더		• 지역사회 여성활동가(주체적 소모임, 지역공동체, 조합 등) • 사회사회의 발전·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온라인교육		• 기업 및 공공부문 재직여성 • 전문분야 여성

첫째, 청년여성 역량강화 교육은 대학과 연계하거나 지역거점기관에서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이 주도적으로 경력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재직여성관리자 교육은 중간관리자와 고위관리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기업 및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동일한 조직의 해당 직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교육과 개인 신청으로 다양한 조직의 해당 직급자들이 참여하는 통합교육으로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은 여성 리더의 경력 상승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조직문화적 요소와 개선에 필요한 핵심요인을 파악하는 ‘이해편’과 중간관리자의 핵심적인 리더십스킬 실천역량을 높이는 ‘실천편’으로 구성된다. 고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또한 기관 추천이나 개인 신청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교육 내용은 성과를 견인하는 상위리더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조직변화를 주도하는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고, 여성리더의 학습요구가 높은 네트워크와 협상력 확장을 위한 실천학습을 병행하였다. 8주에 걸쳐 주 1회 교육하였고 이후 네트워크를 위한 자율적 학습모임을 시행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 여성관리자 및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여성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필요성 제

기에 따라 여성관리자들이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상호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료생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이수 후에는 이들이 중간관리자교육의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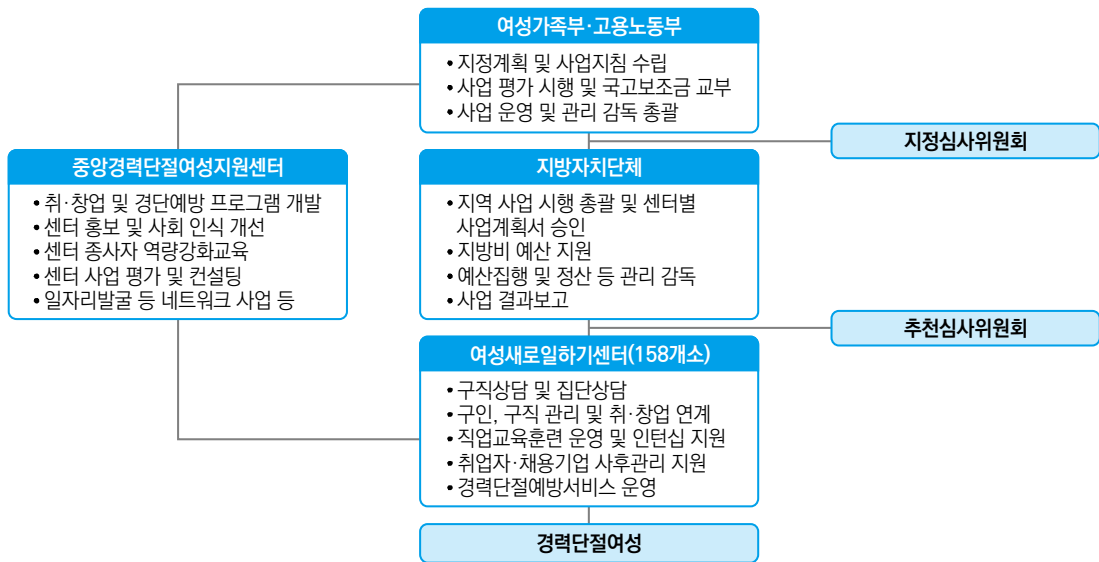
특히 2019년에는 재직여성관리자 육성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연수원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내 여성중간관리자양성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특성 상 조직 내 여성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기회가 수월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중소기업 분야에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공동체나 단체나 조합 등에 소속한 지역사회 여성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였다.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할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활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2일 과정, 1일 과정,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였다.

2018년에 개발하여 시범운영하였던 청년여성, 지역사회여성리더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안정화로 거점기관에서 여성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교육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강사에 따른 강의품질의 편차를 해소하고 1일 1강사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였으며, 교육결과와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참여자의 직급 및 역할 등에 유효한 교육 요소를 수시 반영하였다. 아울러 정규교육프로그램 수료자들의 학습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그룹코칭, 고위관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 이슈를 시의성 있게 문제해결로 전환할 수 있는 후속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2008년 6월에 제정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 지정은 지정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도별로 현장 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추천한다. 이어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직업훈련 및 인턴사업을, 고용노동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지원한다.



[그림 II-3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및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한다. 2019년에는 158개가 지정되어 여성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9년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2>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	28	11	5	8	5	3	4	1	29	8	6	11	9	9	9	9	3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과 내용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뿐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을 확장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과정은 지역의 구인·구직 수요, 실제 취업현황, 시도별 주요 역점사업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훈련 유형은 일반, 전문기술, 창업, 취업취약계층, 새일 역량 과정으로 분류하며 기업 맞춤형 과정은 훈련 직종에 따라 일반(기업맞춤형), 전문기술(기업맞춤형) 과정으로 분류된다. 훈련시간은 단기과정(240시간 미만)과 장기과정(24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소 60시간으로 편성하고, 교육내용 및 취업 후 종사 분야의 직종·직무 내용,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II-113〉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현황

교육과정	세부내용범위	주요교육과정
일반	일반	직업상담실무자양성, 사회복지행정실무자양성, 기업경리회계실무과정 등 (347개 과정)
	기업맞춤형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법무사무원 양성과정 등 (164개 과정)
전문기술 과정	전문기술	3D프린팅 전문강사, 제약바이오폐물관리전문인력 양성(66개 과정)
	기업맞춤형	자동차부품제조인력양성과정,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과정 등 (22개 과정)
	장기심화	드론촬영편집, 웹마스터, 피지컬코딩전문가, CAD활용사무원 등 (20개 과정)
창업		오픈마켓 창업과정, 농업창업가 양성과정 등 (39개 과정)
취업취약 계층	결혼이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등(39개 과정)
	장애	장애여성바리스타 양성, 디지털카페 창업과정 등(4개 과정)
NCS 인증 과정		ERP전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등 NCS 인증 프로그램(5개 과정)
전문인력 양성		IT, 콘텐츠, 디자인 등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48개 과정)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양성평등 정책연차보고서(p.127) 재구성.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2019년에는 745개 과정을 운영하여 14,544명이 교육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95.7%(13,919명)가 수료하였다. 또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희망자 177,589명을 취·창업으로 연계하였고, 사전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연계에는 7,350명이 참여하였다. 취업자의 사후관리는 경력코칭 8,666명, 가사부담 완화 951명, 자녀양육부담 완화 1,639명 등이 참여하였다.

〈표 II-1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추진 실적

(단위: 개, 명, %)

연도	과정 수	교육(a)	수료현황	
			수료인원(b)	수료율(b/a)
2019	745	14,544	13,919	95.7

또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과정을 지원해서 2019년에는 7,350명이 인턴

연계를 통해서 경력이음을 하였다. 2019년에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경력단절기간 및 일자리경험 등) 및 취업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전문기술과정을 강화하고,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존에 업무보조적이거나 저임금 단순직에 한정되었던 여성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해소해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경력개발 범위를 확장하고, 전문성과 자원수준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직업에 여성이 진입하고 역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직종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과정 (제약품질관리 전문인력,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전문가,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등)을 실시하여 경력이음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등 맞춤형직업훈련을 확대한 결과 790개 과정에 15,0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창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교육훈련 10개 과정을 증설하여 38개 교육과정에서 창업직종모색, 해당직종 창업을 위한 기초·전문교육, 창업 실무 등을 교육하였다. 여성의 경제력 증진에 중요 대상인 취업취약계층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특성 및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3. 향후 과제

여성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지역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조직 내 핵심리더인 중간관리자와 고위관리자로서의 재직여성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여성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포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등의 현실에서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여건상 쉽지 않다. 따라서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재직여성과 희망기업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여성

리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 컨설팅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교육 참여자의 여건과 학습효과를 최적화한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여성리더교육 신규과정을 개설하여 성평등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위치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여성친화도시,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정주민의 경험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늘리고 참여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기존 10개에서 2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 통합사례관리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관협회 및 직능단체 등과 연계한 전문기술과정을 추가하여 고부가가치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5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전문기술 등의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학력·전문직업 경력을 가진 경력단절여성들이 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서 요구되는 직업역량교육과정을 발굴,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2019년 시행한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및 취업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상담에서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개인별 집중사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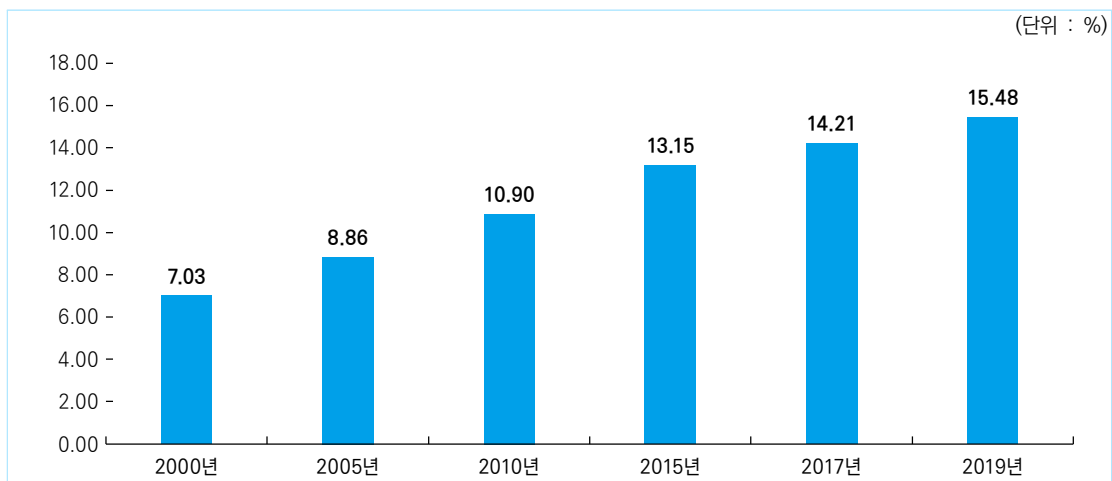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2019).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양성평등 정책 연차보고서. 세종: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 통계청(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II. 노인 및 중장년 평생교육

1. 개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8%로, 2017년 8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II-36 참조). 본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몰고 올 위기만 지나치게 부각해 온 측면이 있다(한정란, 2015). 그 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은 취약 집단으로서의 노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이나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나 생산력 저하 등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 뒤에는 장수의 축복과 제2의 인생 기회 실현이라고 하는 고령화의 긍정적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의 노화와 사회의 고령화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체적 노화와 노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II-36]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현황.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더불어 중노년층의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차 향상됨에 따라 중노년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중노년층 인구 규모가 유소년 및 성인 인구를 추월함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 또한 기존의 성인기 중심의 평생교육으로부터 중노년기 평생교육으로 초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은 성인 직업교육과 소외계층 중심의 문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또 평생교육 정책 안에서 중장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의 비중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을 공식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틀 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까지 망라하여 다루고자 한다. 한편 아직까지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으로서 ‘중장년’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다. 본 절에서는 ‘중년(中年)’의 어의상 중간의 연령대인 중위연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2019년 우리나라 중위연령(평균 43.1세, 남성 41.8세, 여성 44.5세)의 기준(통계청, 2019)을 적용하여 45세 이상을 중년의 기준으로 두고 살펴보되 세부 기준은 사업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노인의 기준 역시 노인복지법상 기준인 65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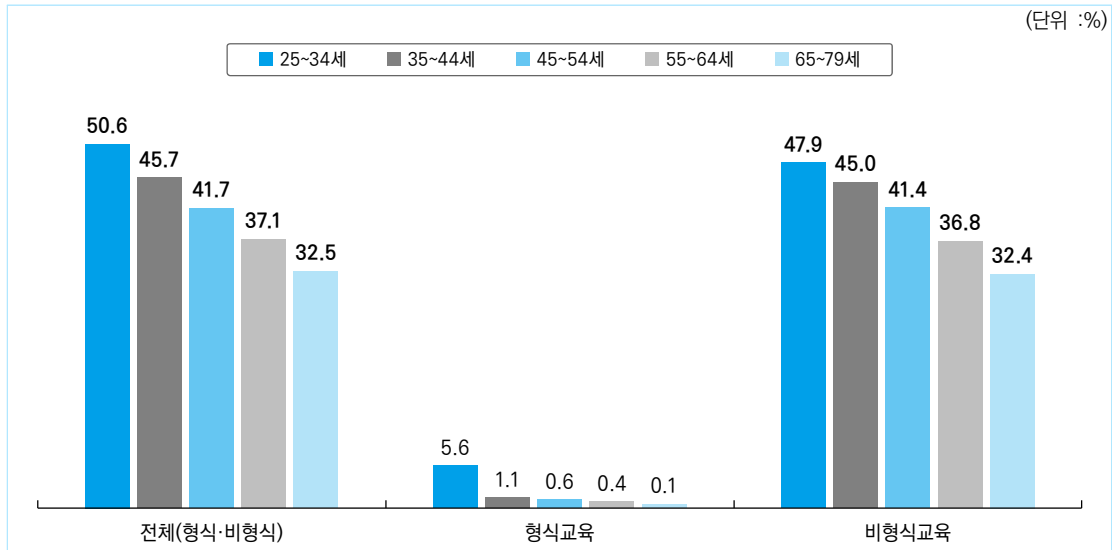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중장년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2007년 시작된 ‘평생교육 참여실태 조사’는 2016년까지 줄곧 25세~64세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7년부터 조사 대상의 연령을 79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019년 개인 대상 평생학습실태 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9a) 결과에 따르면,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모두에서 45세 이상부터 79세까지 중장년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5세 이전 성인층의 참여율보다 저조하다. 심지어 퇴직 이후 장노년층의 참여율은 직업 경력의 절정기에 있는 45세~54세 중년층보다도 낮으며, 참여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업 및 직장과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평생교

육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으로부터의 퇴직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일생 중 가장 긴 노년층의 평생학습 참여가 가장 저조하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중심의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II-37] 참조).



[그림 II-37]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편 평생교육의 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II-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성인 기초 및 문해교육,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육의 참여가 높고, 45세~64세는 특히 시민 참여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아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등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에 관심이 높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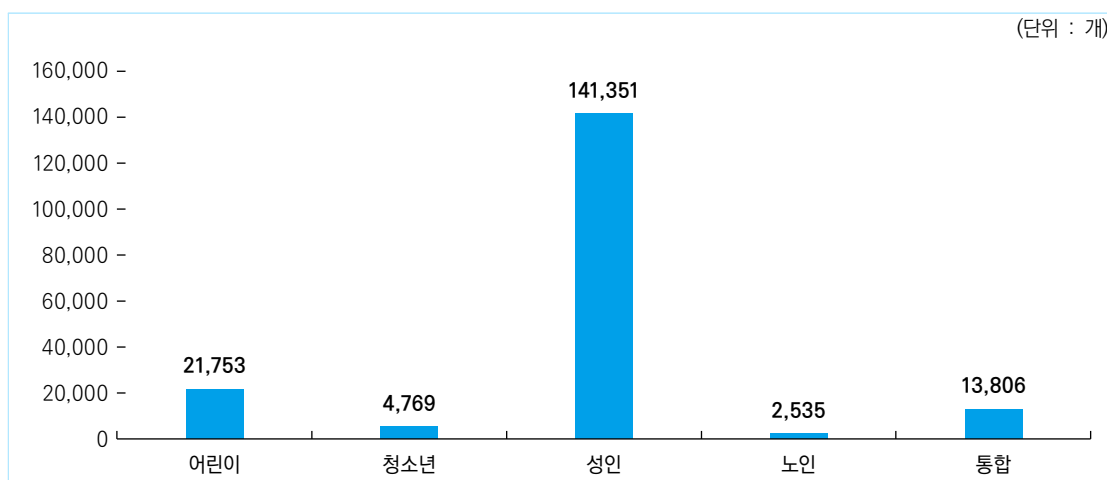
<표 II-115>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율

(단위 :%)

	성인기초문해	직업능력	인문교양	예술스포츠	시민참여
25~34세	0.1	30.4	8.6	15.9	0.4
35~44세	-	26.2	8.8	16.3	0.5
45~54세	0.1	20.8	7.5	17.9	0.9
55~64세	0.1	12.6	8.0	18.8	1.0
65~79세	0.4	4.7	8.1	21.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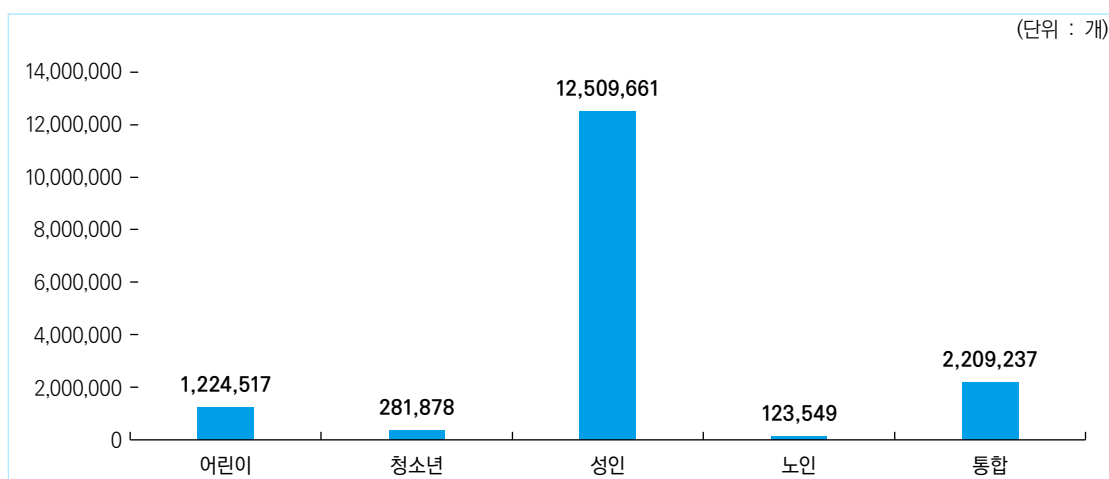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내용 재구성.

지역 평생학습관에서도 노인 학습자는 아직 소수집단에 불과하다. 2019년 수요 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2,535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1.38%에 불과하며, 노인 학습자도 123,549명으로 전체 학습자의 0.76%뿐이었다.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사업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우리 사회의 인구 변동 및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II-38] 수요 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내용 재구성.



[그림 II-39] 수요 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내용 재구성.

나. 서울특별시 50+사업 현황

중장년으로 특화된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50+(플러스)사업이다. 서울시는 2013년 설립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서울시50+재단’으로 재설립하고 2016년 5월 ‘50+서부캠퍼스’ 개관을 시작으로 50+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50+사업은 재단과 캠퍼스, 센터로 구성되는데, 2019년 말 현재 3개 캠퍼스와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50+재단에서 운영하는 50+캠퍼스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50+세대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새롭게 배우며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목표로 한다. 50+사업은 권역별 사업을 주관하는 ‘50+캠퍼스’와 자치구별로 사업을 운영하는 ‘50+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캠퍼스는 서부캠퍼스(2016년 개관), 중부캠퍼스(2017년 개관), 남부캠퍼스(2018년 개관)가 운영 중이며, 2020년에 북부캠퍼스, 그리고 2021년까지 동남캠퍼스와 동부캠퍼스 등을 추가로 설립하여 6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50+캠퍼스에서는 중장년층의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의 설계를 돕는 ‘인생재설계학부’, 일의 의미를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하는 ‘커리어모색학부’, 독립적이고 즐거운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연마하는 ‘일상기술학부’ 등 3개의 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치구별로 한 개 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50+센터는 현재 영등포, 금천, 성북, 도심권, 동작, 서대문, 노원 센터 등 7개 50+센터와 광진50+상담센터 한 곳이 운영 중이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50+센터는 캠퍼스와 기능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은, 일종의 캠퍼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또 50+상담센터는 대상자가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50+사업의 특징은 자율적 운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참여자와 동년배로 구성된 50+컨설턴트와 모더레이터(moderator)를 양성·배치하여 50+세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일, 재무, 가족, 관계 등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경로 설계를 돕는다. 또 교육 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50+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50+포털(<https://50plus.or.kr/>)’에 접속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캠퍼스나 센터의 프로그램

램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정규학기는 3~6월과 9~12월 등 2개 학기와 겨울(1~2월)과 여름(7~8월)의 계절학기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부터 실비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2018년 3개 캠퍼스의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493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그중 인생재설계학부 156개, 커리어모색학부 161개, 일상기술학부 176개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참여 인원(실인원)은 2017년 9,714명에서 2018년 12,673명으로 전년 대비 30.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과정별로는 인생재설계학부 6,782명, 커리어모색학부 5,762명, 일상기술학부 5,53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64세 참여자가 3,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55~59세 3,710명, 50~54세 2,252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이 1,689명, 50대 미만이 945명이었다.

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 현황

최근 들어 서울시의 50+사업과 유사한 중장년 대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대전광역시의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3년 동안 배재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현재는 대전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50~69세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 커뮤니티,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 공간으로서, 액티브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일, 건강, 여가, 재무, 관계, 주거, 사회공헌에 대한 교육 및 성공적인 인생재설계 지원을 통하여 50+세대의 삶과 나이 늙어 가는 인식에 대한 전환하도록 돕는 ‘50+인생재설계’, 둘째, 50+세대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50+경력개발’, 셋째, 여가, 건강,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 준비를 돕는 ‘50+문화조성’,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단기 특강인 ‘50+특강’ 등이 있다(<https://www.daejeonsenior.or.kr/kor.do> 2020. 2. 27. 접속).

부천시도 2016년부터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은퇴 이후 제2인생 설계 교육을 통한 미래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제2인생 설계 아카데미, 가정·경제 설계 아카데미, 이모작아버지 요리교실, 인문특강 등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둘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공헌·재능나눔 프로그램’, 셋째, 부천시 공공영역 참

여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영역 취업예정자 교육 프로그램’, 넷째, 베이비부머 간 소통 확대 및 사회공헌 참여 자부심 고양을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교육 수료자 및 회원들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충청남도, 경상남도, 수원시 등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 노인복지관의 노년 사회화교육 사업 현황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기능 회복, 건강 증진, 급식, 요양서비스, 상담, 정서 지원, 사회참여 지원, 주거 지원, 고용 및 소득 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의 노인 대상 사업은 물론이고 방문간호나 노인돌봄 서비스 등의 가족기능 지원, 가족상담 등의 가족통합 지원, 자원봉사자 발굴과 후원자 개발 등의 지역자원 개발, 지역복지 연계, 노인 권익 증진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기관이다. 노인 대상 평생교육은 노인복지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사업 중 하나로 2018년부터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983년 전라북도에 설립된 ‘금암노인복지회관’을 시작으로 2018년 말 현재 전국에 385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다(표 II-116). 노인복지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지방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복지 및 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노인복지관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평생교육보다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기획, 개발, 운영되고 있다.

〈표 II-116〉 노인복지관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2	31	19	20	9	7	13	1	59	15	18	16	22	29	19	23	2	385

출처: 보건복지부(2019b).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2018. 12. 31. 현재)』으로부터 재구성.

노인복지관의 노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 노인권의 증진사업 등 9개 중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취미여가 지원사업뿐 아니라 나머지 7개 사업들과도 모두 관련성을 갖고 있다. 건강생활 지원사업에서는 노년기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자가 건강관리 교육을,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에서는 교육을 통한 집단상담을, 사회참여 지원사업에서는 자원봉사 교육을,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에서는 사별 혹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에서는 경로당 대상의 다양한 교육을, 그리고 노인권의 증진사업에서는 노인권의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모든 사업에서 노인 평생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노년기의 연장과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년층이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 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 프로그램 등 인생 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9a). 다음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직접적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노년 사회화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체조나 댄스 등 건강교육, 어학이나 인문 등 교양교육, 예술과 문화 등 취미여가교육, 정보화교육 등과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시민의식과 노인들의 사회공헌 역량 강화를 위한 선배 시민 교육이나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증가에 따라 남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교육, 그리고 세대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세대공동체 교육 등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둘째,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년 사회화교육 프로그램들 외에 외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평생교육 사업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기관(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 학습자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체험, 학습, 표현, 창작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양성, 선발한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사진 등 5개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강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강사비 외에도 기관별로 교육지원금으로서 학습자 1인당 최대 15만원(미술 분야는 최대 17만원)까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자재와 음악 분야에 한하여 보조강사 인건비도 지원한다. 2019년 총 지원 예산은 29억

3천만 원으로, 260개 노인복지관에 152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6,110명의 노인 학습자들에게 314개 프로그램(음악 85개반, 미술 76개반, 사진 72개반, 무용 43개반, 연극 38개반)을 제공하였다(<http://www.kaswcs.or.kr/> 2020. 3. 2. 접속).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강사의 높은 전문성과 그에 따른 질 높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일상생활의 활력 증가, 자신감 상승, 즐거움과 건강, 스트레스 해소 등이다(한정란, 윤소영, 2015).

셋째, 외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교육은 2007년부터 SK텔레콤에서 지원하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활용교육이다. 교육은 SK SUNNY 대학생 봉사단이 일대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5회차씩 두 차례 진행하며, 20명 내외의 노인 학습자와 대학생 봉사자가 일대일로 매칭되어 교육을 진행한다. 2019년에는 전국의 16개 노인복지관에서 416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823명의 노인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스마트폰 활용교육의 의의는 노인들의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정보격차 및 정보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생 봉사단과의 소통을 통하여 세대 통합을 이루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교육 성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이후 노인들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지표가 향상되었으며, 더 나아가 대학생 봉사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참여 노인들의 청년에 대한 태도 모두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냈다(한정란, 2017).

마. 노인교실의 노인교육 사업 현황

1970년 부산 범일동에 ‘한얼노인대학’이 설립된 이후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의 「노인교실 설치요강」에 따라 정부가 초등학교 학구 단위 노인교실 설립 및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교실 설립이 급속히 증가하였다(한정란, 2015). 그리고 1998년 「노인복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노인교실과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상의 명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학구 단위 노인교실이 사라지면서 이 명칭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실제로는 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대학, 실버대학 등 다양한 명칭의 기관들이 법적 노인교실에 해당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인교실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 많은 미등록 노인교실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노인교실의 정확한 수효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342개소가 노인교실로 등록되었지만(보건복지부, 2019b),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설만을 취합한 숫자인 뿐 실제로 몇 개의 노인교실이 존재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표 II-117〉 참조).

〈표 II-117〉 노인교실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78	167	35	31	40	13	22	7	166	61	7	67	74	60	114	82	30	1,342

출처: 보건복지부(2019b).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내용 재구성.

노인교실의 노인교육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교실에 한하여 그 지자체의 예산 가능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지원 액수가 저마다 다르고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 등록된 노인교실보다는 미등록 노인교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한정란, 2015). 실제로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2013)에서 조사한 기독교 계통 노인교실만 해도 등록된 노인교실 수의 3배에 가까운 총 3,209개였다.

노인교실의 운영 주체는 크게 대한노인회, 종교단체, 기타법인단체, 개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가장 많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그 다음으로 많다. 각 노인교실의 지원 예산은 연 1백만 원부터 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노인교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취미여가, 건강, 교양 프로그램 등의 순이며, 노년기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에는 소극적인 편이다(손의성, 한정란, 전수경, 2018).

이처럼 시도별로 신고된 노인교실의 수, 종사자 수, 지원 예산 등에 있어서 편차가 큰 이유는 지역적 특성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표준화된 기준이나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지침이 없다는 데 있다. 또 대한노인회나 일부 종교별 연합회 외에는 산재해 있는 영세한 노인교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노인교실 연합회를 갖춘 곳은 천주교의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수원 등 일부 교구의 노인대학연합회와 개신교 중 장로교와 감리교의 노인학교연합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3. 향후 과제

이상에서 노인 평생교육 관련 주요 사업들을 보았다. 검토 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학습자들에게 특화된 정부 지원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편입으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노년기 건강과 여가활용 위주의 노인복지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중장년 및 노년층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평생학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향후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이다. 현재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법 조항 어디에서도 ‘중장년 평생교육’이나 ‘노인 (평생)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안을 제·개정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그중 하나로 2019년 5월에 발의된 「노인복지법」전부 개정안(의안번호 20727)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학교’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안 제24조 및 제25조).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장년 및 노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2020년은 2021년부터 향후 5년의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른바 ‘제4차 새로마지플랜’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주로 출산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던 저출산 정책을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확대 전환하였으며, 고령사회 정책 역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문제에서 더 중요한 영향 요인인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그나마의 고령화 관련 정책들도 대부분 연금제도 개편이나 재취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19a).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9b).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손의성·한정란·전수경(2018). 고령사회 인생3모작 설계를 위한 노인교실(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보도자료.
- 한정란(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정란(2016). 휴대폰활용교육 10년의 성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미간행 보고서.
- 한정란·윤소영(2015). 정책 수요자 요구에 근거한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제안. 노년교육연구, 1(1), 69-89.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27.101.213.4/>(2018. 12. 31.)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2020. 2. 23.)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aejeonsenior.or.kr/kor.do>(2020. 2. 27.)
-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twohappyllife.bucheon.go.kr>
-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ntcfol.co.kr/index.main.php>

Ⅲ. 농어업인 평생교육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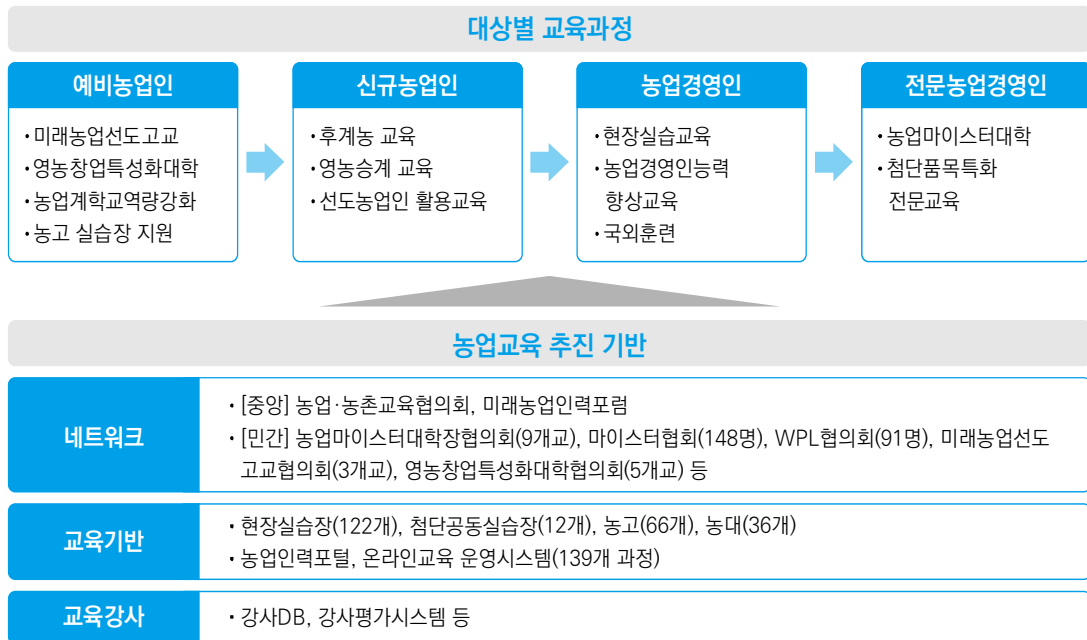
농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신농정 5개년 계획’(1993년) 수립을 통해 정책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0년), ‘정예농업인력 육성종합대책’(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4년),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2006년), ‘신농업교육체계’(2008년), ‘농업교육 3개년(2011~2013) 기본계획’(2010년), ‘농업교육 체계개편 계획’(2011년) 등의 마련을 통해 농어업인을 위한 전반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6년),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2017년) 등을 통해 귀농인, 청년농 등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982년부터 농업, 농촌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에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2019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은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생·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하며, 2019년에는 2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성인문해, 인문교양, 직업능력개발, 문화예술체육, 민주시민, 학력보완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직업능력개발 영역에 초점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주도의 교육·훈련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은 예비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및 실습 등을 강화하고,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실한 교육과정 정비와 신규 과정 개발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그림 II-40]과 같은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림 II-40]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추진 체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9). 내부 자료.

이러한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하여 농업계 학교 학생이 신규농업인으로 유입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의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농업인력포털(AgriEDU), 현장실습장 등의 교육기반, 강사DB, 강사평가시스템 등 교육강사와 같은 농업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교육사업의 추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운영기관 등이 관련된다. 각 기관들의 주요 임무는 <표 II-118>과 같다.

<표 II-118>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및 역할

기관	임무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비 배정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 교육운영지침 개발 -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 - 교육운영기관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교육과정 홍보 및 성과 발굴·확산 - 교육생 교육이력관리
교육운영기관 (위탁기관)	- 교육운영 실행계획 수립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교육운영결과 보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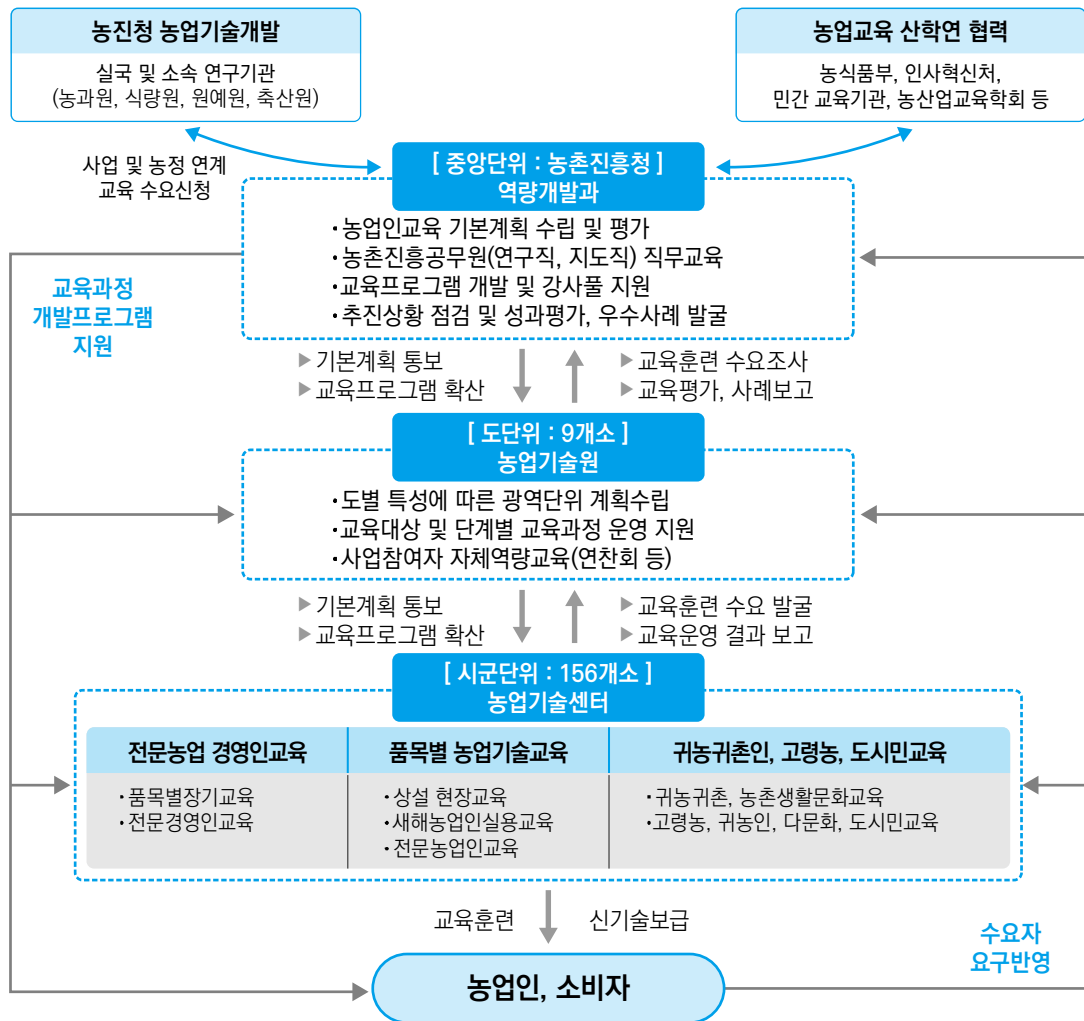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은 신수요자 농업·농촌교육(도·시민, 초중고생 대상), 농촌 생활교육(고령농, 다문화 대상), 농업입문교육(부업농, 한계농, 신규농업인), 농업기술교육(준전업농, 중소농, 수출농), 기술경영교육(전업농) 등 5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별 대표적 교육은 1단계 ‘농업농촌 가치교육’, 2단계 ‘농촌생활안정교육’, 3단계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4단계 ‘품목별 전문교육’, 5단계 교육은 ‘농업인 대학’ 등이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방향	대표 교육명
V단계 (심화)	기술경영 교육	전업농	문제해결 심화교육 지역사회 개발리더 육성	농업인대학 ·시군(137개소) 주력 1~4품목 중심 ·100시간 이상 장기교육
IV단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준전업농 중소농 수출농	품목별 전문기술 농업중견 인력양성	품목별 전문교육 ·중단기교육
III단계 (실용)	농업입문 교육	부업농 한계농 신규농업인	당면 영농기술 농촌정착지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매년 1~2월 중 실시 신규농업인교육 ·기초영농+현장실습+비즈니스
II단계 (안정)	농촌생활 교육	고령농 다문화	농촌주민 생활지원	농촌생활안정교육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교양·건강교육 등
I단계 (기초)	신수요자 농업농촌 교육	도시민 초중고생	친농업 소비자	농업농촌가치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등

[그림 II-41]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교육의 단계별 교육 대상, 교육 방향

자료: 농촌진흥청(2016). 농촌진흥기관 농업교육의 현황과 특징.

농촌진흥기관을 통한 농업인 교육·훈련의 체계는 [그림 II-42]와 같다. 중앙기관으로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등) 및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도 단위 지방기관(9개도 농업기술원), 시군 단위 지방기관(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해 예비 및 현직 농업인, 소비자 대상 농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42]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운영체계

출처: 농촌진흥청(2016). 농촌진흥기관 농업교육의 현황과 특징.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주요 성과는 예비농업인 육성을 위해 기존 농고생과 농대생들 이외에도 비농업분야 청년의 농업 분야 유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제고되었다는 점,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혁신성장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다는 점, 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실한 교육과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정을 개발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세부 사업은 1. 예비농업인 교육 지원, 2. 전문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으로 구성되는데, 각 세부 사업별 목적과 2018~2019년도의 실적 등은 <표 II-119>와 같다.

<표 II-119>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사업명	사업 목적	실적	
		2018	2019
1. 예비농업인 교육 지원			
영농창업특성화 과정 운영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 체계적 농업교육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 전문 인력 육성(미래농고 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 5개교)	66.7억 원 8개교 797명	97.7억 원 8개교 1,059명
농업계 학교 교육 지원	농고/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 분야 진출 촉진 유도	35억 원 24개교 15,154명	42억 원 30개교 14,268명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개보수 지원을 통해 실습교육 강화	13억 원 농고 3개교	25.6억 원 농고 4개교, 농대 4개교
2. 전문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			
현장실습교육(WPL) 지원	농고/농대생, 농업인 등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지원	18.9억 원 126개소 3,289명	18.9억 원 123개소 3,128명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경쟁력 심화	9.75억 원 11개소 2,411명	9.75억 원 11개소 2,423명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현장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우수 교육과정 발굴, 교육 운영지원	21억 원 3개기관 3개과정 540명	21억 원 5개기관 5개과정 880명
	(청창농 필수교육)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및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7.05억 원 1,545명	10.08억 원 6,594명
농업인 국외훈련	FTA 등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외 선진지 사례학습, 현장실습 등 추진	9.32억 원 18개 과정 331명	8.25억 원 17개 과정 315명

사업명	사업 목적	실적	
		2018	2019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11.2억 원 6개 품목 277명	11.2억 원 7개 품목 274명
선도농업인 활용교육	우수농업인의 컨설팅, 자기주도 학습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 향상 도모	4.58억 원 210명	4.58억 원 217명
상향식 학습조직	농업인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및 소통역량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공동체 육성	0.95억 원 12개소 118명	1.15억 원 15개소 256명
농업 마이스터 운영 지원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51.25억 원 9개소 1,974명	51.25억 원 9개소 2,114명
3.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인력 선발, 선정평가 및 주요 인력육성 계획 홍보 등	4.6억 원 청년창업형 1,600명 일반 965명 우수 250명	4.6억 원 청년창업형 1,600명 일반 998명 우수 255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상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교육(경영인력과 담당) 이외에도 농촌정책과를 통한 농업회의소와 농업인교류센터, 농촌복지여성과 주관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농촌산업과 주관 체험마을 리더교육,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주관 농업인소비자교육, 국제협력총괄과 주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 ‘기술혁신으로 농산업의 지속성장 실현’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ICT·BT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이라는 추진 목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비전인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창의적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기반 공무원 교육 ② 소득연계 기술경영 역량 기반 농업인 교육 ③ 스마트 농업기술 및 안전농업 기반 농업기계 교육 ④ 상호 작용적 자기 주도학습 기반 교육 등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훈련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직무 교육 74과정(3,244명),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 교육 28과정(1,769명), 농업인·신수요자·정보화 교육 22과정(1,940명) 등 총 124과정 6,9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에서는 농업인대학 등을 통하여 1,132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경영인을 양성하였다.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업인 대학'은 2018년 전국 143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 기술센터에서 추진(국비 21억 원, 개소당 1~3천만 원)되었는데, 총 328개 과정에 12,417명이 수료했다.

〈표 II-120〉 농업인 대학 운영 실적

(단위: 개소, 억 원,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량	88	100	105	128	136	137	136	137	137	142	143
사업비	2.64	3.3	3.13	4.16	4.36	4.13	4.14	4.14	4.14	4.28	4.2
수료 인원	6,254	8,766	8,598	1,011	10,444	10,722	10,500	11,090	11,880	11,620	12,417

출처: 농촌진흥청(2019b), 2018년 농촌지도사업보고서.

한편 농촌진흥청은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의 비전을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으로 잡고,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과 기술경영 기반 농업인교육 강화(농업인교육), 첨단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점검 강화(첨단기술교육),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공무원교육),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지원할 전략교육 확대(전략교육), 창의성 개발·학습자 지향의 열린학습 지원 스마트학습 환경 조성(기반구축) 등을 실행 과제로 추진하였다.

3. 향후 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의 기본 방침을 농산업 분야 진출 희망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농고·농대 교육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비농업계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산업 진출 희망 농업계 학생 중심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희망 학생 현장실습 교육 확대, 취·창업캠프에 비지원학교 및 비농업계학교 참여 유도)하고,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 매칭 등 농산업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청년두드림센터' 기능 강화(운영 기간 확대, 취업 멘토링 등))할 예정이다. 또 첨단 기술교육 보급 확대 및 농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시설을 보급하고(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및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우선 지원),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생 진로 경로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학생선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졸업생 창업 지원, 정책연계 등 개선 방안 도출)한다. 또 비농업 분야 청년의 농업 분야 유입 확대를 위해 농대 융복합과정 운영을 지속(융복합 교육운영 성과사례 발굴, 융합형 비즈니스 인력 양성)하고자 한다.

한편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차원에서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청년농·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창업 및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첨단품 목특화과정 교육이 필요한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농가교육에 활용(7개 품목대학은 유지하되 첨단기술 활용이 가능하거나 확대가 예상되는 신규 품목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평가를 컨설팅 위주로 개편하고, 현장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농업·농촌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9). 20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완료보고. 세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0). 2020년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세부 추진계획. 세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0). 2019년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완료보고. 세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촌진흥청(2016). 농촌진흥기관 농업교육의 현황과 특징. 전북: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19a).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전북: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19b). 2018년 농촌지도사업보고서. 전북: 농촌진흥청.

IV. 군 평생교육

1. 개요

한국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은 국방환경 및 병역제도의 변화 요구와 기술집약적 군 구조 변화에 따른 지식기반형 인적자원의 직무 발전과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절실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평생교육은 국민개병제하의 의무복무 장병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군 조직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군복무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로 인식되도록 하는 평생교육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Kime과 Anderson³⁴⁾에 의하면 군에서의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모집과 유지 및 직무배치(개인관리 기능), 둘째, 군대 훈련의 보충 및 보완(군 직무수행 기능), 셋째, 교육에 대한 인간의 욕구 충족(인적자원개발 기능)이 그것이다. 한편 Kauver와 Tilson³⁵⁾은 제도화된 군내 성인교육은 항상 군의 수요와 연계되며 군 생활의 매력은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군 기술수준 및 교육수준의 제고에 따라 정부가 군인의 사회복귀 활성화 차원에서 군인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군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하여 군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군 전체적으로는 국방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각종의 형식적 학교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활동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

34) Steve F. Kime & Clinton L. Anderson, Education vs. training: A Military Perspective. (Servicemembers Opportunity Colleges, Washington, DC. 1997). p. 6.

35) Kauver G. & Tilson G.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n international handbook*, (Education in the Armed forces, 1989), pp. 357-360.

해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문화 조성 과 학습 여건 마련

국방부는 군의 기본 임무인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과 중에는 기강이 바로 선 가운데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개발과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복무 규칙 준수 의지와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배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정해진 제반 규율을 준수하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장병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며 평생학습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 평생교육 학습 여건과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 단위의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활관이 현대화되어 병사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주거와 생활공간 및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더불어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5,000여 대를 설치하여 장병들이 시원한 생활관에서 휴식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익한 평생학습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표 II-121>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추진

구 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 병사 생활실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 병사 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중대장실, 행정반, 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내무반)	• 30~50명 소대 단위 침상형 • 1인당 2.3㎡	• 8~10명 분대 단위 침대형, 에어컨 설치 • 1인당 6.3㎡
	위생시설	• 생활관 외부 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세척장 없음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현대식 개선 • 샤워실, 군화세척실 설치
	편의시설 (평생학습시설)	• 생활관 외부 건물에 위치 •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없음	•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설치
간부 공간	행정·작전·훈련시설	• 중대장실, 행정반, 생활관 통합 • 대대 행정시설 별도 건물	• 지휘관실, 참모부, 지통실, 통신실, 의무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출처: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나.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는 ‘학업과 경력이 단절된다’, ‘경력과 스펙 쌓기에 뒤처진다’, ‘인생의 정체기이다’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의무 복무자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복무하고 있으나, 이러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의무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기대하는 최우선적 요구는 학업과 역량 개발 등 자기개발 분야이며 그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한편 군 복무는 국가·사회에 대한 헌신적 봉사이며, 대학 학점으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축적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회봉사, 리더십, 시민의식, 기초체육, 인권·성평등, 안전·위생관리 등 관련 교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참여를 희망하는 12개 대학과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24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더불어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장병들의 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원격강좌는 본인이 다니던 대학의 인터넷 개설 정규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20년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산업기사, 지계차운전기능사 등 82개 국가기술자격 검정종목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정기검정을 하고 있으며, 지계차와 굴삭기 기능사의 경우 상시 검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만여 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표 II-122〉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주요 성과지표

(단위: 명,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졸검정고시 취득	2,556	2,741	1,838	492	258	117
원격강좌 참여대학	110	122	134	141	145	154
원격강좌 수강인원	11,223	13,856	12,294	9,662	7,750	15,358
군복무경험 학점제 대학	·	·	·	·	·	12
특기병 학점인정 수료자	29,767	31,151	40,555	43,148	47,482	44,079
국가기술자격 취득	19,443	20,206	20,653	20,805	19,544	17,920
국방분야 국가자격 취득	66	115	53	98	150	240

출처: 국방부(2019). 내부 자료.

다. 자기주도적 학습지원(군 e-러닝 학습콘텐츠) 및 자기개발 비용 지원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무료화, 2017년 대학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지원 등에 이어 2018년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병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에 지출한 비용(2019년 5만 원, 2020년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병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병 및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학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응시료 할인혜택 및 군인대상 특별 어학시험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평생교육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인상하고,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독서카페 설치 예산을 6.2%로 증액하였다.

라. 학군 연계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부는 2008년부터 특성화고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영하여 입대 전 군에 소요되는 첨단장비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 전문 분야에 보직 후 활용하고 있다. 군 복무 중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역 후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군에 필요한 맞춤형 특수기술인력 1,000여 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각 군의 주특기 소요 확대 요구에 따라 12개교 500명을 추가 확대하여 2020년부터 35개교 1,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표 II-123〉 군특성화고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금파 공고	도화 기공	동아 마고	부산 전자고	송파 공고	수원 공고	서산 공고	성동 공고	경북 항공	강호 항공	서울 로봇고	춘천 기공	태백 기공	대구 일마고
50 (2)	60 (2)	40 (2)	45 (2)	60 (2)	50 (2)	25 (1)	70 (3)	75 (3)	70 (3)	40 (2,예1)	50 (2)	50 (2)	40 (2)
광주	인천	대전	부산	서울	수원	서산	서울	영주	고창	서울	춘천	태백	대구
사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사립	사립	공립	공립	공립	공립
2007년 (최초 10개 학교로 시작)										2015년 (3개교 추가)		2016년	

경남 자동차고	광운 전자고	신라공고	예산 전자고	인덕 공고	인천 정보고	인천 해양고	진안 공고	한양 공고
25 (1)	25 (1)	50 (2)	25 (1)	50 (1)	25 (1)	25 (1)	50 (2)	25 (1)
진주	서울	경주	예산	서울	중구	연수	진안	서울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공립	공립	사립

출처: 국방부(2020). 내부 자료.

주) 괄호 안은 학습과정 수임.

또한 국방부는 군특성화고 입대 인원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군기술전문학사(e-MU: electronic Military University)³⁶⁾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는 군 복무 개월 수 단축으로 간부 지원율 감소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며, 선취업 후진학(일-교육-취업-군복무)의 모범 사례로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II-124> e-MU 대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경기과학기술대		구미대			대덕대	인하공업 전문대	전남 과학대
		자동차 학과	전자 통신과	특수건설 기계과	헬기 정비과	기계 자동차과	총포 광학과	항공 기계과	특수 장비과
전문학사	795	130	125	120	40	130	60	120	70
전공심화	240	30	30	30	30	30	30	30	30

출처: 국방부(2020). 내부 자료.

마. 전역 예정 장병 평생직업교육 지원

국방부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 프로젝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³⁷⁾ 최근 고용시장의 침체로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 9천 명의 장병들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방부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

36)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산·학·군 협력 기술인력 육성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군특성화고 출신의 전문학사와 일부 부사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전문학사 학위과정 운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7) 국방부 보도자료(2018. 3. 21.)에서는 청년장병을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장교, 부사관)으로 정의하고, SOS는 'Soldiers on SMEs & Startups'의 약어로, '청년장병을 중소벤처기업으로'라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음.

책은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년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후까지 군 복무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장병에 대한 충분한 진로·취업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준비된 제대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가 좋은 중소기업에 장병의 취업을 연계하고 기술병 창업촉진을 통해 민간의 장병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다. 셋째, 청년장병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군 복무를 사회 진출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다.

<표 II-125> 청년장병 취업지원정책 추진 방향

구분	주요 내용
1단계(교육/상담)	•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 1:1 심층상담을 통한 장병들의 취업수요 및 개인역량 조사
2단계(전문역량 향상 교육)	• 현장탐방/직업훈련 - 중소기업 현장탐방, 분야별 전문 직업훈련 • 현장탐방/직업훈련 - 창업준비교육: 아이템 발굴, 사업모델 개발 등
3단계(취업/창업 연계)	• 취업 - 기업 발굴: 유관기관 협업으로 유망기업 Pool 구성 - 기업매칭(일자리 커플매니저): 최적의 기업 매칭/추천 • 창업 - 창업사관학교 입주/보육: 사업화, R&D 지원, 투자유치 등
국방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 진로/취업활동 여건 보장 • 국방 분야 NCS 적용으로 군 직무와 사회의 직업 연계 • 병 봉급인상과 연계한 목돈 마련 지원 및 유급지원병 확대, 부사관/군무원 증원

출처: 국방부(2018).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보도자료. pp. 3-4 내용 재구성.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년장병들의 진로·취업 교육과 제대 후 취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복무 중인 현역병의 진로 및 취업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으로 구축된 제대군인지원 인프라(제대군인 인적정보 DB 등)를 단기복무(5년 이하) 장병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대 전 → 복무 중 → 제대 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군과 사회를 연계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평생직업교육 차원의 경력관리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과제

군 평생교육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100세 평생학습시대’, ‘선취업 후 진학’을 강조하는 시대에 군 복무 중 학습 소외로부터 벗어나 취학 기회와 더불어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으로 입대한 병사들을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병사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였다. 또한 고졸로 입대한 하사들의 경우는 사이버 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병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초급 간부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정책을 통하여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자기개발 기회 상실을 우리 사회가 포용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해결하고 있다.

셋째,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취업박람회 참가, 취업상담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 생활의 적응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군 복무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을 단절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향후 군 평생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에 대한 패러다임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병들을 국가수호를 위한 전투자원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장병 개인들도 군 복무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복무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개발과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군 복무 이후 장병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가 군 복무를 하는 청년장병들을 위해서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다.

참고 문헌

-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2018).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보도자료.
- 국방부(2010).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정책설명 자료.
- 국방부(2019). 2018년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분석 회의자료. 서울: 국방부.
-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박효선(2010). 한국군의 평생교육. 서울: 학이시습.
- 박효선·최홍석·이미영·양철호·정응진(2018). 의무복무 제대군인 및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연구. 세종: 국가보훈처.
- 박효선 외(2019). 청년장병의 군 복무간 지원 및 보상(취업분야) 정책 연구. 서울: 국방부.

V.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1. 개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거하여 199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를 개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정착지원금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 기본계획에는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고용유지, 의료지원과 생활보호, 주거지원,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차 기본계획(2015~2017)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등 자립·자활역량강화 정책과 함께 중앙과 지방 및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하여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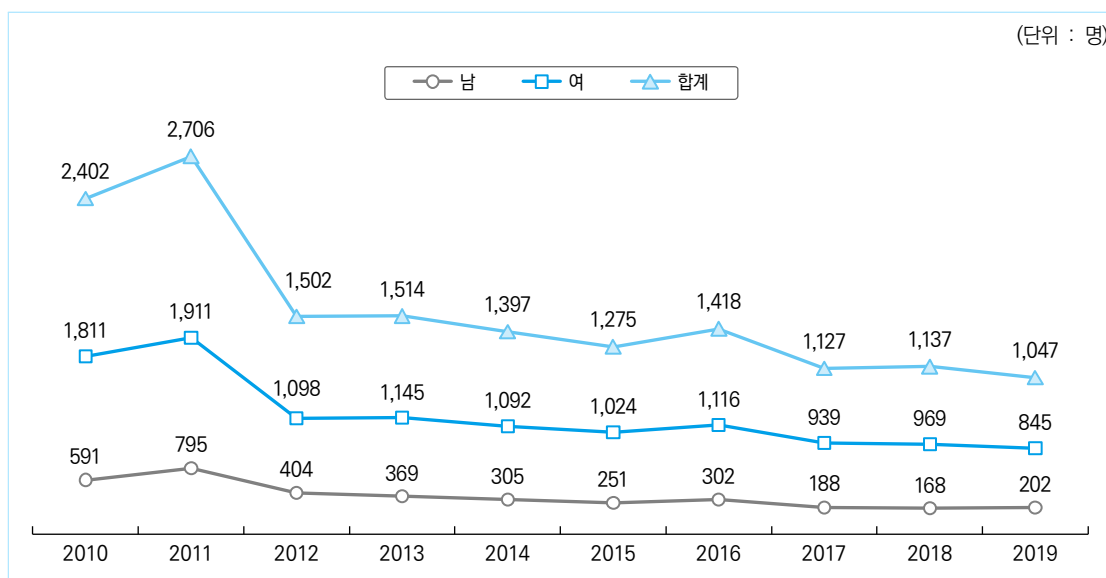
2018년 2차 기본계획(2018~202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협의·조정하여 총괄 추진한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라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주요 현황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3,523명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1천 명대 수준으로 입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 입국자 수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자 수를 추월하여 2019년 말 현재 전체 입국자의 약 72%가 여성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이전 직업은 주로 무직·부양자, 노동자 등으로 직업능력 취약자가 84.9%이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79.6%로 대부분 저학력이다. 다만, 입국 당시의 연령은 20~30대가 전체의 57.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고 교육 요구가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I-43]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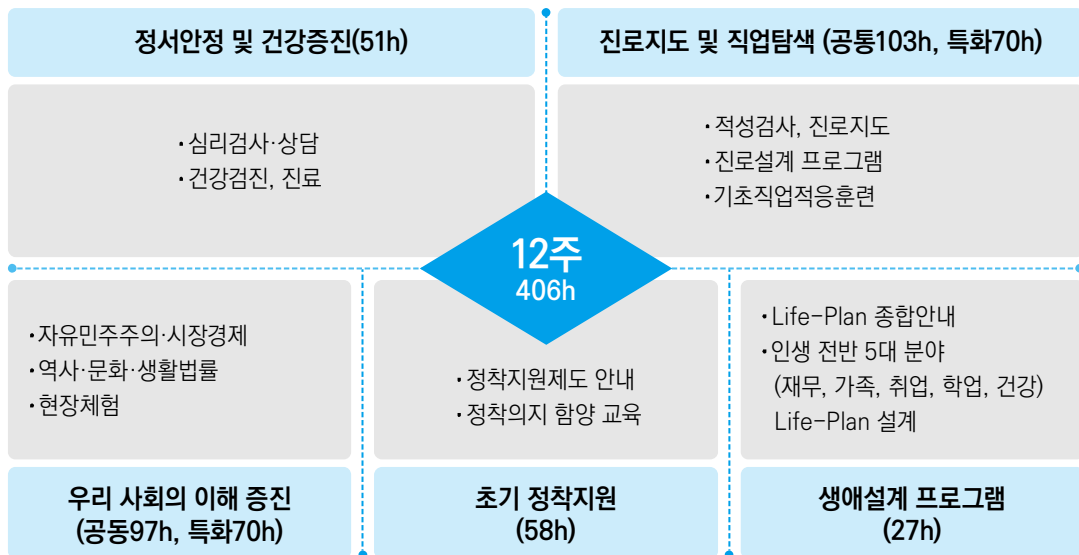
출처: 관계 부처 합동(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행계획.

2) 통일부 하나원 :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 교육,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과 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은 개인별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선택 수강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인데, 주요 과목은 우리말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운전이론, 정착사례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체육·문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기본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 알선 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12주(3개월) 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치면 정해진 거주지에 정착하게 된다.



[그림 II-44]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정규교육과정)

출처: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3) 남북하나재단 : 교육 및 취업 관련 정착지원금 사업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는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100% 면제하고, 사립대는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50%를 보조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 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은 시도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 외로 특례입학을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26〉 사립대학 교육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 인원	2,006	1,934	1,844	1,885	1,889
지급액	4,555	4,216	4,120	4,154	4,329

출처: 남북하나재단(2019). 내부 자료.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북한이탈주민으로 3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본인 근로소득의 30% 이내(10~50만 원)를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까지 정착지원금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27〉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714
중도해지 인원	-	6	47	87	109
만기지급 인원	-	-	-	17	49
정부 지원금	-	373	1,849	3,762	5,497

출처: 남북하나재단(2019). 내부 자료.

4) 하나센터 : 지역적응교육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 지역으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적응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집중교육의 경우 진로 및 취업지원 교육, 사회적응 교육, 정서안정 교육,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을 50시간 실시하고 있다. 지역적응 지원 사업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탈북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진학 지원, 구직자를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그 밖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심리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한 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민교육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128> 하나센터 초기 집중교육 현황

주제 영역		내용	시간
기본 교육 프로 그램	지역사회 이해 및 생활교육	- 경제교육 - 구청, 은행, 마트 등 주요 기관 및 시설 방문	30시간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 취업 욕구 파악 및 상담 - 취업 기본 교육 -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장 방문	
	진학지도	- 지역 내 학교 소개 - 학부모 교육	
	건강 증진 및 개인 역량 강화 교육	- 기본건강관리 교육 - 정신건강 예방교육 - 지역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 및 방문 - 여가활동 안내	
	인생 설계	인생계획서 작성 및 다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20시간

출처: 통일부·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나. 운영 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일반 국민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2019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돌파하였다. 실업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018년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어 일반 국민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표 II-12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현황

(단위: %, 만 원)

내 용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국민 (2019)
경제활동참가율	59.4	57.9	61.2	64.8	62.1	63.3
고용률	54.6	55.0	56.9	60.4	58.2	61.4
실업률	4.8	5.1	7.0	6.9	6.3	3.0
월평균 임금	154.6	162.9	178.7	189.9	204.7	264.3

출처: 관계 부처 합동(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행계획.

또한 사회적 의존도를 보여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정착 초기 6개월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조건 없이 수급하게 되는데, 취업 등 자립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을 탈피하게 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급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20%대의 수급률은 70%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생계급여를 벗어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정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130>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 현황

(단위: %)

내 용	2015	2016	2017	2018	일반 국민 (2018)
생계급여 수급률	25.3	24.4	24.4	23.8	3.4

출처 : e-나라지표

주) 2020년 3월 31일 기준, 2019년도 생계급여 수급률은 미발표

한편 다수의 탈북민은 남한 생활에 비교적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1> 남한 생활 만족도 현황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만족한다	63.0	67.6	73.6	72.5	74.2
보통이다	32.4	28.6	22.7	23.7	23.5
불만족한다	3.4	3.4	3.7	3.8	2.2

출처: 남북하나재단(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주) 2015년 무응답 1.2%, 2016년 무응답 0.4%는 미포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성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를 통해 자립·자활 수준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남한 생활 만족도를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착지원 서비스와 교육, 전국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적응교육의 성과로 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3.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정책목표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들이 일반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는 '생산적 기여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점 추진 과제로 계속해서 추진한다. 둘째, 탈북 청소년 교육은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탈북 학생들의 학업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상위 학교 진학과 자립을 연계한 노력을 경주한다. 셋째, 거주지 밀착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맞춤형 법률 교육·상담을 추진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간 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다섯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담강화 및 생계 지원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여섯째, 따뜻하고 포용적인 통합 지향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주민 간 소통·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 등을 실시한다.

참고 문헌

- 관계 부처 합동(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행계획. 서울: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남북하나재단(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서울: 남북하나재단.

제5절

소결



평생학습사회는 한국사회의 모든 학습자집단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학습자집단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교육소외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상별 평생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부상하는 학습자집단의 현황을 다룸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평생교육백서의 대상별 평생교육의 범주는 다문화, 학부모, 장애인, 여성, 노인 및 중장년, 농어업인, 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분된다. 학습자집단에 초점을 맞춘 범주이므로 대상별 범주는 영역별-기관별 평생교육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으나, 실질적 수혜 대상의 차원에서 조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가령, 노인은 성인기초교육의 주된 학습자층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인학습자집단을 조명하면 ‘고등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학습자층’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8개 범주의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검토는 향후 각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2019년 대상별 평생교육을 보면 기존의 범주에 장애인과 중장년층 평생교육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2018년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2019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추진되었으며, 노년층 교육의 경우 50+재단의 평생교육사업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중장년층 교육과의 연속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대상집단의 평생교육은 전반적으로 예년과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로부터 지역사회 다양성 증진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고, 학부모교육은 국평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해 밥상머리교육,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성 평생교육 역시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이을 수 있는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있고, 농어업인의 평생교육도 2018년의 농촌진흥청에서 설정한 중장기 비전 하에서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군의 평생교육은 청년들이 복무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은 여전히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국가적 비전 속에서 다양한 학습자집단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된 평생교육을 제공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전사회의 집단별 학습의 실태를 제도적으로 조망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결여되어 있는 학습의 영역을 각 집단별로 추적,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군 평생교육은 그 좋은 사례로, 향후 본 장에서는 영역별-기관별 평생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별로 고유한 평생교육의 영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대학 평생교육

제1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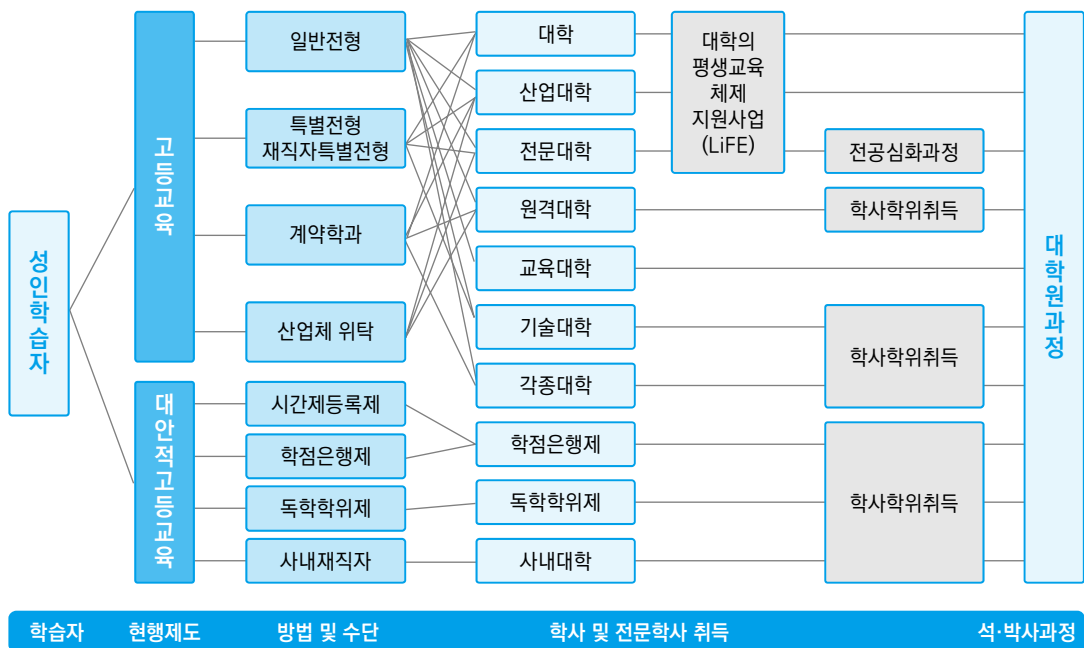
1. 개요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더불어 「평생교육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제정하였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규율하는 조항들을 제정하였다.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형식, 내용, 대상 등 그 특성에 따라 배타적 또는 분절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식화하기 어려운 교육을 제외하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조망하게 되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평생교육은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제는 일반적인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 단계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이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의 급속한 기술 변동이 인간에게 그리고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일의 변화, 즉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최근 OECD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세계의 변화 중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먼저 숙련 주기의 단축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지식이나 숙련의 활용 기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령기의 교육을 바탕으로 생애에 걸쳐 종사하고 퇴직하는 방식은 점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숙련 수요의 양극화 경향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현재의 일자리 중 어느 정도가 위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전일제 노동과는 상이한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안정적 계약 관계가 아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의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고등교육 보편화의 흐름 속에서 학령기 이후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맥락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성인학습자, 직업계고 졸업생 등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적으로도 학령기에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고등교육 수준의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학습자들이 또 다른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인 친화형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조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발표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직무 및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분야에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학위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성인 및 재직자의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 단계의 평생교육 과제들을 과거에 비해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45]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 경로

출처: 김현수 외(2015). NCS 연계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p. 15

최근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졸 재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지원’과 함께 ‘고졸 취업 및 후학습 지원 강화’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인 평생학습의 활성화(국정과제 52) 과제로 이미 구체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 사업과 다양한 제도의 개선·운영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고등교육 단계의 평생교육은 두 가지 제도교육으로서의 결합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다양한 후학습 경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후학습 경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의 확대와 전공심화 과정의 운영,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등 관련 제도와 사업을 통해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표 II-132>와 같이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경로에는 대학 주도의 후학습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 형태의 산업체 위탁교육과 계약학과, 산업체 주도의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개인 주도의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시간제등록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성인학습자 대상 후학습 경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대학 주도 형태의 후학습 경로에 초점을 두어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표 II-132> 대학 중심의 후학습 경로 현황

구 분	제도명	목 적	취득 학위	입학전형	근거 법령
학위 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에게 후진학 기회 제공	전문학사, 학사	정원의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4호
	전공심화 과정	관련분야 산업체경력자 또는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자 후진 학 기회 제공	학사	정원의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제50조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지원	고졸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평 생교육 기회 제공	학사, 비학위과정	정원내/외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자 후진 학 기회 제공	학사, 비학위과정	정원내/외	-

구 분	제도명	목 적	취득 학위	입학전형	근거 법령
	사이버대학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자의 후진학 기회 제공	전문학사, 학·석사	정원내/외	고등교육법 제2조
산학협력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전문학사, 학사(산업대)	정원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계약학과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전문학사, 학·석·박사	정원외 특별전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법 제8조
산업체 주도	기술대학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학교 설립·운영	전문학사, 학사	정원내 일반전형	고등교육법 제55조
	사내대학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전문학사, 학사	정원내 일반전형	평생교육법 제32조
고용부	폴리텍대학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전문학사, 학사	정원내 일반전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개인 주도	학점은행제	학교 밖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학사, 학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학사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경험학습 인정제(RPL)	개인의 자격이나 경험을 통한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내의 학점	-	고등교육법 제23조
	시간제 등록제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자에게 후진학 기회 제공	전문학사, 학사	-	고등교육법 제36조
비학위 과정		대부분의 성인학습자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양 위주의 학점 및 학위 비인정 교육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 평생교육백서, p.293

가. 재직자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재직자의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재직자를 전문가로 양성하며 나아가 국가는 선순환적인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은 2010학년도 3개교를 시작으로 2011학년도에 7개교로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에서 전형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학년도에는 전체 23개교로 증가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대학 수가 크게 급증하여 70개교로 늘어났으며, 2014학년도 87개교,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88개교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19학년도 현재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대학은 100개교로 4년제 대학 74개, 전문대학 26개에서 성인학습자를 모집하고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133>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 규모 추이

(단위: 개교, 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학 수	대학	3	7	20	48	63	69	73	75	73	74
	전문	-	-	3	22	24	19	22	18	21	26
	계	3	7	23	70	87	88	95	93	94	100
모집 인원		265	541	1,027	4,462	5,093	6,223	5,621	6,069	6,267	6,087
입학자 수		183	349	375	1,060	1,348	1,624	1,969	2,532	3,150	3,687
충원율		95.3	68.5	36.5	23.8	26.5	26.1	35.0	41.7	50.1	60.6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대학정보공시자료.

나. 전공심화 과정

전공심화 과정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 분야로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전문대학에서는 동등 학력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 후 산업체 경력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순환 교육체제 및 산학 일체형, 미래형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시행 초기 입학 인원 2,915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신입생의 모집 범위(유형)를 산업체 경력이 없는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전체 14,080명의 규모로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표 II-134>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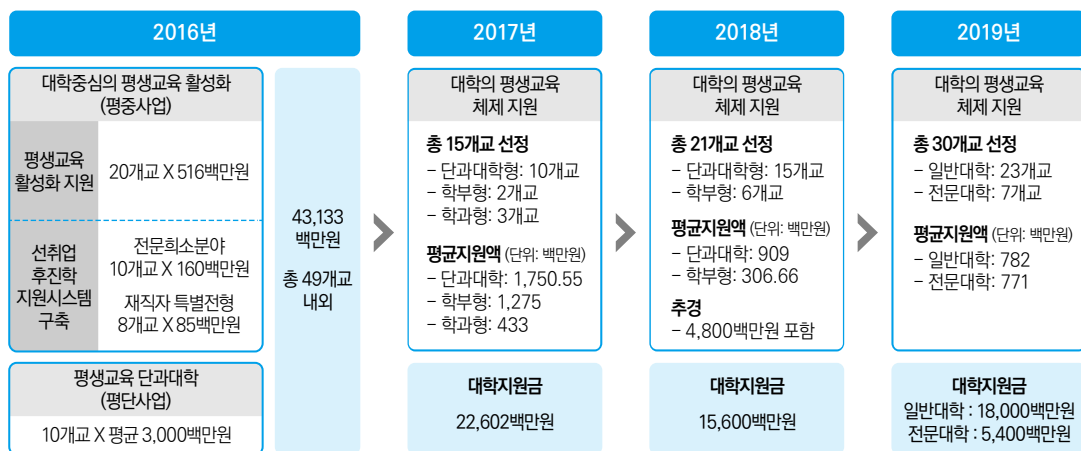
(단위: 개교, 명, %)

연도	산업체 경력 있는 전공심화 과정					연도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 과정					전체 입학 정원 (A+B)
	모집 대학	학과수	모집 정원	입학 인원 (A)	등록률		모집 대학	학과수	모집 정원	입학 인원 (B)	등록률	
2008	65	241	6,645	2,915	43.9	2008	-	-	-	-	-	2,915
2009	75	340	8,931	3,790	42.4	2009	-	-	-	-	-	3,790
2010	83	399	9,715	4,840	49.8	2010	-	-	-	-	-	4,840
2011	84	415	9,910	4,916	49.6	2011	-	-	-	-	-	4,916
2012	84	254	5,608	3,359	59.9	2012	42	178	4,225	3,220	76.2	6,579
2013	74	160	3,529	1,983	56.2	2013	60	318	7,301	5,918	81.1	7,901
2014	64	107	2,318	1,401	60.4	2014	76	401	9,329	7,701	82.5	9,102
2015	53	75	1,641	1,128	68.7	2015	85	487	11,094	9,248	83.4	10,376
2016	40	52	1,210	900	74.4	2016	91	572	12,997	10,500	80.8	11,400
2017	33	42	1,029	758	73.7	2017	95	634	14,120	11,531	81.7	12,289
2018	31	39	997	788	79.0	2018	95	673	14,798	12,554	84.8	13,342
2019	26	33	892	726	81.4	2019	100	719	15,614	13,354	85.5	14,080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9). 대학정보공시자료.

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일반 성인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재직자의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높으나 일·학습 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 내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대학 자율로 대학 내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단과대학 또는 학과 개설, 교육과정 개편, 학사 유연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매년 정부 예산에 의해 책정되므로 재정지원 규모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운영 대학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기준으로 30개 대학(일반대 23개교, 전문대 7개교)에서 108개의 전공, 3,73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46]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운영 규모 추이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iFE 홈페이지.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 교육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제도의 하나로, 정규 대학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대학교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국민의 생애주기 및 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국정 사업 기관인 프라임칼리지 내 과정, 시간제등록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3개 학과과정을 운영 중이며, 2019년 입학자 수는 14,689명, 전 학년의 재적학생 수는 158,033명이다.

〈표 II-13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 규모 추이

(단위: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 수	272,763	272,550	277,372	275,452	268,561	254,652	245,257	227,618	214,347	184,074	171,692	164,325	158,033
입학자 수	32,493	33,725	34,157	31,240	31,619	28,822	29,576	25,406	21,730	18,301	16,835	16,463	14,689

출처: 교육통계서비스-대학통계(2019)

마.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제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대학 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으로 구분된다. 사이버대학은 2018년 기준으로 대학 과정의 경우 18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과정의 경우 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입학자 수는 대학 과정의 경우 29,008명이며, 전문대학 과정의 경우 2,745명이다.

〈표 II-136〉 사이버대학 운영 규모 추이

(단위: 교,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학 수	대학	15	15	16	17	17	17	18	18	18	18	18	18
	전문	2	2	2	2	3	2	2	2	3	3	3	3
	계	17	17	18	19	20	19	20	20	21	21	21	21
입학자 수	대학	12,262	16,403	19,107	26,108	25,889	26,096	14,152	27,356	27,972	28,904	27,434	28,371
	전문	1,947	1,998	2,457	2,350	3,154	3,113	3,102	3,099	3,201	3,053	3,026	2,971
	계	14,209	18,401	21,564	28,458	29,043	29,209	17,254	30,455	31,173	31,957	30,460	31,342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19). 대학통계.

3. 향후 과제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수준의 재교육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대학은 새로운 모습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학령기 학습자의 보편화 단계를 지나 성인 계속교육을 포함하는 보편화 단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학이 계속교육을 하나의 핵심 기능으로 장착하는 한편 대학 외곽에 그것을 전담하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대학의 학위수여 체제가 포괄적인 역량 체계와 연동되는 등 개별 대학 단위를 넘어선 고등교육의 체제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고등·평생학습 체제는 이제 기존 대학과 별도로 구축되지 않으며 대학 자체가 그 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 단계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및 학사 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대학 내·외부의 평생학습 환경과 대학 시스템의 연계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관리 구조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연계 역시 필요하다. 교수자의 연계와 더불어 평생교육원의 학점을 학부 과정의 학점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체제를 개방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 체제의 개방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고등교육 단계의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대학에서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기존 체제를 변환하여 성인학습자들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이루어야 한다. 시·공간의 구분, 학년 및 학제의 구분, 전공·계열의 구분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재검토하고, 여러 연령층이 대학에 진입하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학 후에도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제 등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학사 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대학의 체제 개편과 개방을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취업 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들이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 지역 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등의 선행 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장년 및 고령 인구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로의 변화와 관련한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우리 사회에 공유해야 한다. 그간의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추진된 평생직업교육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학, 후진학 선도 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체제의 개편·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그 과정과 성과를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부 업무보고.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현수 외(2015). NCS 연계 학점은행제 질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박병영·김태준·류기락·이은정·이정우·전보미·조희원(2019).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윤여각(2019). 평생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희수·권인탁·송병국·양병찬·이성엽·백미현(2014).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9). 대학정보공시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대학정보공시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iFE 홈페이지. <http://univ.nile.or.kr/nile/main.do>



제2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1. 개요

학령 인구의 감소, 일과 학습의 병행, 다양한 통로를 통한 학점과 학위 취득, 평생에 걸친 재교육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와 성인학습자의 대학으로의 유입에 주목하면서 정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이라는 의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한다. 2008년부터 추진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 대표로서, 본 사업은 고령화·정보화 시대의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성인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100세 시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적극적 생애 전환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평생학습 성공 경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2017년,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전담·지원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조직 내에 설치하여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및 후학습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 친화형 학사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재)진입 접근성 확대,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학제로의 개편,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개발·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 교육, 조직, 제도와 같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었다. 또한 2018년 사업은 일자리 활성화 관련 선취업 후진학 부문 추경 예산 48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한편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 체계에서 다년도 사업 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업명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명명하며 브랜드화를 시도한다. LiFE 사업은 재정지원 방식을 다년도(2+2) 지원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의 성공적인 계속교육에도 집중하는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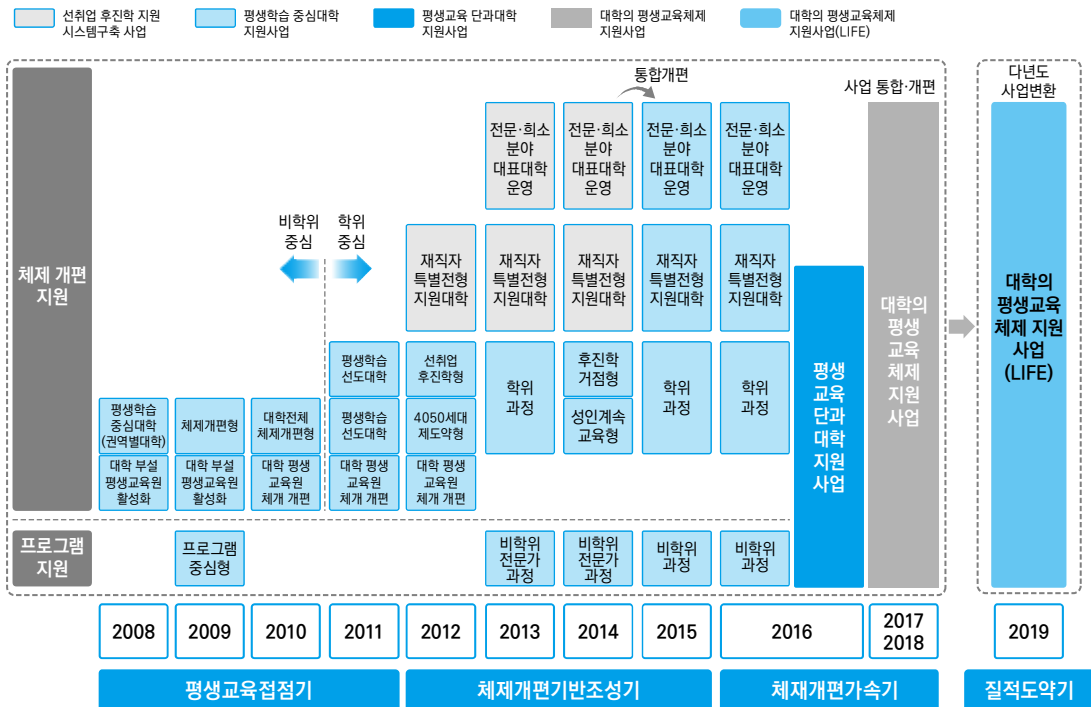
가. 연도별 추진 경과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은 비학위 중심 과정에서 학위 중심 과정으로 전개하였다. 그동안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2008),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2010), 평생교육단과대학 설치(2016),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2017~2019) 등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2008~2011년의 사업은 비학위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주력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위과정 성인학습자의 정원 확보에 집중하였다. 특히 선취업한 재직자의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의 제2, 제3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성인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하였다.

2015년에 들어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전면적인 사업 목표로 내세우면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사업 주요 요소로 포함하게 된다. 한편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도입은 성인학습자를 전담·지원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조직 내에 설치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및 계속학습 지원을 대학 조직 내에 공식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및 전담 조직을 대학 내에 설치함으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재직자·성인학습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회 및 학습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대학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 모델을 설계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추진하였다. 성인학습자를 전담·지원하는 단과대학, 학과 등을 대학 조직 내에 설치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 친화형 학사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후학을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1차적으로 권역별 13개교를 선정하고, 이후 8개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총 21개의 대학에 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후학습 모형을 구축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먼저 재정지원 방식이 단년도 예산 지원 방식에서 다년도 예산 지원 방식(2+2)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의 대학이 LiFE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의 연도별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 -4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표 II -137>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경과

연도	주요 사업 내용 및 성과	예산 (백만 원)
2008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도입 ▪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 학칙 개정 등 추진 체계 수립 및 학습 과정 운영 지원 ▪ (대학부설평생교육원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2,500
2009	□ 교육성과 달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대학부설평생교육원활성화) 소외계층, 미취업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확대	8,108
2010	□ 대학 차원의 체제 개편 추진 ▪ (대학체제개편형) 3년간 지원 원칙 수립에 따른 중장기적 체제 개편 지원 ▪ (평생교육원체제개편형) 대학 본부와 평생교육원의 연계 강화	2,500
2011	□ 평생학습을 위한 특성화 모델 추진 ▪ (평생학습선도대학) 선도대학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우수 모델 확산 ▪ (평생학습중심대학)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학위과정과 연계 가능한 체제 구축 지원 강조	4,040

연도	주요 사업 내용 및 성과	예산 (백만 원)
2012	☐ 성인학습자 유형별 전략 트랙 개설 및 대상 확대 ▪ (대학체제개편형) 학습자 유형에 따른 콘텐츠 및 트랙 설계 지원 ▪ (평생교육원체제개편형) 프로그램 대상자의 다양화 및 확대	5,508
2013	☐ 대학 차원의 체제 개편 가속화 및 신수요 분야 발굴 ▪ (평생학습중심대학) 예산 증대에 따른 정규 학과, 성인학습자의 확대 및 지역 산업체 기반 신수요 발굴 ▪ (비학위전문가과정) 중견 전문인력 대상 고등교육 수준의 질 높은 전문가과정 운영	27,508
2014	☐ 학습자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고도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산업 분야 및 성인학습자 특성별로 후진학 거점형과 성인 계속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지원 ▪ (비학위전문가과정) 시니어들의 취·창업률 향상을 위한 조직적·체계적 학습 지원 강화	10,233
2015	☐ 고졸 재직자·성인학습자 대상 지원사업 통합·개편 ▪ (평생학습중심대학) 고졸 재직자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13,133
2016	☐ 대학 평생학습의 체제 개편 가속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고졸 재직자·성인학습자 대상 학과형 모델, 비학위과정 중점 지원 ▪ (평생교육단과대학) 대학 내 성인 전담 조직(단과대) 설치를 통한 성인 친화적 대학 체제 개편 추진 강화	13,133 30,000
2017	☐ 기존 사업의 통합·개편을 통한 효율적 운영 추진 ▪ 평단사업과 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평생교육 모델 육성	23,132
2018	☐ 대학의 자율성 확대 ▪ 정책유도가산점 폐지 및 컨설팅 방식 개편 등을 통한 대학 자율성 확대 ☐ 후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모집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후학습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 추가 모집 추진(총 8개교 내외)	11,330 4,800
2019	☐ 다년도 사업 체계(2+2)로의 전환 ▪ 다년도 재정지원 방식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 확보 ☐ 전문대학 사업 참여 ▪ 전문대학 사업 참여(7개교)로 지역 내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양적 확대 및 성인학습자 수요 기반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등	24,13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내부 자료.

나.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다년도 사업 체계로 전환되면서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명명되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2억 원 증액된 약 24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하 'LiFE 사업')은 '2+2'라는 다년도 재정지원 방식과 전문대학 신규 진입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를 보인다.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대학 내 지속적 평생교육체제 전환 동력을 확보하고 자생적 작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고,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안정적인 일·학업 병행 및 후학습 지원체계가 취약하였다. 또한 성인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후학습 추진 대학이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확보에 있어서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년도 사업 체계 마련과 전문대학의 사회 참여는 사업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LiFE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지역 수요·산업 분석 기반의 성인학습자의 전담 학위과정 신설·운영을 필수 조건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하고 성인 친화형 대학시스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학습 거점 대학 30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9개교, 충청권 4개교, 대경·강원권 6개교, 동남권 5개교, 호남·제주권 6개교이며, 운영 모델별로는 단과대학형 19개교, 학부형 7개교, 학과형 4개교이다.

<표 II-138>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주요 특징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사업)
• 16,130백만 원	⇒	• 24,130백만 원
• 단년도 재정지원 방식		• 다년도 재정지원 방식(2+2)
• 21개교 선정·지원(일반대학)		• 30개교 선정·지원 (일반대학 23개교/전문대학 7개교)
• 사업 유형별 - 단과대학형: 15개교 - 학과형: 6개교		• 사업 유형별 - 단과대학형: 19개교 - 학부형: 7개교 - 학과형: 4개교
• 권역별 - 수도권: 8개교 - 충청권: 3개교 - 대경·강원권: 3개교 - 동남권: 4개교 - 호남·제주권: 3개교		• 권역별 - 수도권: 9개교 - 충청권: 4개교 - 대경·강원권: 6개교 - 동남권: 5개교 - 호남·제주권: 6개교

각 대학은 대학 자체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대학 내 교수, 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동의를 거쳐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모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성인 전담형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성인학습자의 모집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전담

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직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가 성공적인 후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를 전담으로 케어하는 성인학습지원센터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학습지원센터는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지원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일과 학업의 병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업 방식 운영,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운영 개선 및 성인학습자의 학비 부담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iFE 사업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학습자, 사업 대학(협의체) 등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하고 LiFE 사업 홈페이지(univ.nile.or.kr)를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인 친화형 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대학 협의체에 공동 사업 개발·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홍보, K-MOOC 기반 공동 과목 개발·운영,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선정 대학 및 대학별 운영 학과, 모집 정원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3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현황

(단위: 명)

권역	대학명	모델	운영 학과(학위과정)	모집 인원
수도권	명지대학교	단과대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191
	아주대학교	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106
	한성대학교	단과대	융합행정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 ICT융합디자인학과	118
	동국대학교	단과대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52
	경희대학교	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1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과대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융합전공, 헬스피트니스전공, 문화예술전공, 영어전공, 벤처경영전공	240
	동덕여자대학교	학과	세무회계학과	51
충청권	한밭대학교	단과대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회계세무부동산학과, 창업경영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77
	호서대학교	단과대	안전공학과, 기계ICT공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90
	청운대학교	단과대	뷰티산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창업경영학과, 사회적기업학과	118
	한국교통대학교	단과대	스마트전기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스포츠복지학과, 복지·경영학과	85
강원 대경권	대구한의대학교	단과대	평생교육복지전공, 평생교육경영전공, 산림비즈니스학과, 메디푸드HMR산업학과	100
	가톨릭관동대학교	단과대	언어재활상담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학과	100

권역	대학명	모델	운영 학과(학위과정)	모집 인원
	경일대학교	단과대	스마트산업학부, ICT경영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평생교육건설학과	130
	한라대학교	학부	스포츠·문화예술융합	30
호남 제주권	제주대학교	단과대	건강부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154
	순천대학교	단과대	융합산업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100
	조선대학교	단과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신산업융합학부	140
	전주대학교	단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	120
동남권	영산대학교	단과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계전공학부, 헬스케어학과	150
	부경대학교	단과대	평생교육 상담학과, 공공안전경찰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201
	동명대학교	단과대	복지경영학과, 선명상치유학과, 동양문화학과, 뷰티산업학과	117
	동서대학교	단과대	ICT융합공학부, 사회안전학부, 실버건설학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120
수도권	명지전문대학교	학부	드론공학과, 엔터융합비즈니스과, 뷰티패션융합과, 세무회계융합과,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209
	서정대학교	학부	사회복지상담과, 스마트자동차과	145
강원권	송호대학교	학과	자연건강융합과	36
대경권	성덕대학교	학부	교육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창농융합전공	90
호남권	군장대학교	학부	융합기계시스템과, 스마트농식품과, 실버복지상담과, 패션산업과, 사회적경제과	128
	목포과학대학교	학부	휴먼융합복지과, 건설융합과	120
동남권	동의과학대학교	학부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양조발효과,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100
계	30개교	단과대학형 19개교, 학부형 7개교, 학과형 4개교(총 108개 전공)		3,738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내부 자료.

LiFE 사업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의 대학 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다년도 사업 전환에 따라 대학은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 평생교육체제 전환 비전 및 전략을 공식적으로 프레임화하였고, 성인 학습자의 후진학·후학습 교육 토대 및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 수요 및 산업 분석에 기반하여 성인 친화형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신설된 학과는 반드시 학과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 대학의 신규 진입은 대학별 특성화 강점을 지닌 성인 친화형 학과(계열)를 신설

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고등 평생교육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2019년 LiFE 사업에 참여하는 30개 대학(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은 성인 친화형 전담 학위과정 신설·운영으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재)진입 접근성을 확대 강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학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 개편하였으며,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교수법을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 조직, 제도 영역 등에서 대학의 전반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고령화·정보화 사회에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 교육기관 중심의 후학습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iFE 사업은 재정지원 방식을 다년도로 전환하여 대학의 안정적 사업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대학의 자생력 있는 체질 개선을 유도하였다.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대학 내 지속적 평생교육체제 전환 동력과 자생적 작동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안정적인 일·학업 병행 및 후학습 지원 체계는 근본적인 취약함을 내재하고 있었다. 다년도 사업 체계 전환에 따라 대학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대학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였고, 사업 관리 측면에서 실적 점검 중심의 평가형 성과 관리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중심의 성과 관리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 진입에 집중하는 ‘신입생 충원율’ 뿐만 아니라 후진학자의 계속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중도 탈락률’과 ‘재직 유지율’을 사업 핵심 성과 지표로 개발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사업 대학을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재)진입 접근성을 확대·강화하였다. 2019년 LiFE 사업 참여 대학 30개교는 단과대학형(19개교), 학부형(7개교), 학과형(4개교)이라는 대학 특성 기반 후학습 거점 대학 모형을 구축한 후 지역 내 수요 및 산업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성인 전담 학위과정 신설·운영을 통해 총 108개의 학과와 3,738명의 성인학습자 모집 정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본격적으로 신설·운영한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성과보다 지원 대학 수 면에서 5배, 성인학습자 모집정원 수에서 2.45배 확대된 것이다.

셋째,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학제를 탈피하고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 체계 및 성인친화형 학사·학제 등의 도입과 확대·개편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대학 유형별(일반대학/전문대학)로 구성된 사업 대학 협의체에 고등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과업 발굴 및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의

운영비(일반대학 1억 5천만 원, 전문대학 1억 2백만 원)를 지급함으로써 K-MOOC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공동 홍보, 대학 간 학점 교류, 학습경험인정제(RPL) 도입·시행 등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 내용, 참여자, 사업 현장에 대한 질적 접근을 위한 정책 연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넷째,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며 성인학습자의 학습 지원을 전담하는 ‘성인학습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2019년 LiFE 사업 참여 대학 30개교는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심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교수방법의 도입·운영, 성인학습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지원을 ‘성인학습지원센터’의 핵심 3대 기능으로 설정하고 관련 규정 및 조직 구성, 인력 배치를 시행하였다.

지난 4년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4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사업 주요 성과(2016~201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비 고
대학 수	9	15	21	30	전문대(7개교)
운영 학과 수	42	52	68	108	전문대(22개)
입학 정원	1,549	1,983	2,707	3,738	전문대(828명)
지원 예산	25,535	23,132	16,130	24,130	
신입생 총원율	55	79	83	86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내부 자료.

3. 향후 과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의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 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구조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사업 내용의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

성화 지원사업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다년도 사업 체계에 따른 성과 관리 방안의 재구조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은 먼저 학습자 차원에서는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속에서 일·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대학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인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성과 도출 및 확산을 유도하며, 대학들 간 선의의 경쟁구도 마련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적 평가 중심의 규제·평가형 관리가 아니라 주기적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우수 모델 육성형 '인큐베이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추진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 전환'이라는 어려운 과업 달성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하여 벤치마킹하고 체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 개편 추진 및 성인학습자 지원의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하다. 성인 친화적으로 대학 학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대학 현장에 대한 사례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이해 작업이다. 따라서 성인 친화형 학사 제도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난제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질적 분석과 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학습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사업 설계 및 성과 관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 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내부 자료.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원격대학이다. 당시 설립 목적은 원격교육 방식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국민교육의 수준 향상, 개인의 성장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발전, 국가의 필요에 따른 분야별 인재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동주 외, 2018).

방송대의 주요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방송대는 1982년 서울대학교에서 분리·독립하였고, 1991년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1996년 방송대학TV(OUN)를 개국하였고, 1997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다. 1999년부터 방송대학 위성TV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부터 대학원에 4개 학과를 두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의 교육조직 형태인 학부 과정,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프라임칼리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 부서로 3처(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1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주요 지원 부서로 전국 13개의 지역 대학, 중앙 도서관, 정보전산원, 강의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 그리고 대학의 정책 전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원격교육연구소 등을 두어 방송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개교 이후 지난 47년간 약 69만 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한 방송대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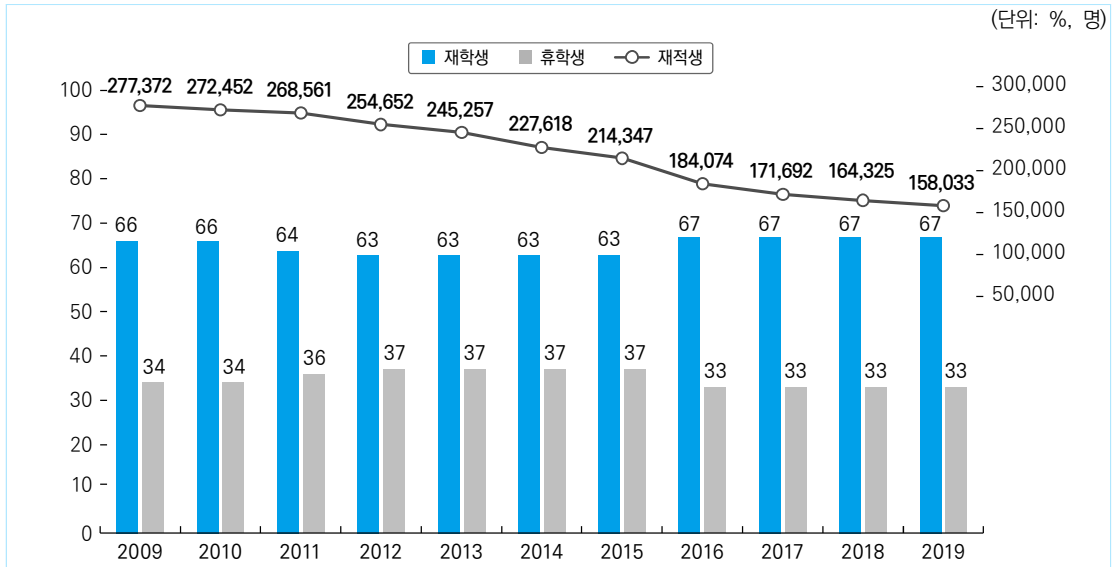
가. 주요 현황

1) 학부 현황

방송대는 학부 과정으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의 4개 단과대학에서 총 2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강의는 온라인(U-KNOU 캠퍼스), 방송대학TV(OUN) 등과 같은 원격교육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원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시 실습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과목을 제외한 상당수의 과목들은 면대면 강의로 과목당 6시간의 '출석 수업'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국에 분포해 있는 13개 지역 대학과 학습센터 및 학습관에서 출석 수업에 참여한다. 지역 대학은 출석 수업뿐만 아니라 기말시험 실시, 수강, 도서관 운영, 학생회 활동,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대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의 원격교육 방식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튜터 제도이다. 원격교육 방식에의 적응과 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튜터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학업 수행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신입생과 2, 3학년 편입생들은 1997년부터 도입된 튜터 제도를 통해 튜터들로부터 학사 제도와 교과목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멘토링 제도이다. 선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재학생들에게 학습경험과 학사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셋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1학점)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목은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정규과목으로 개강하기 약 보름 전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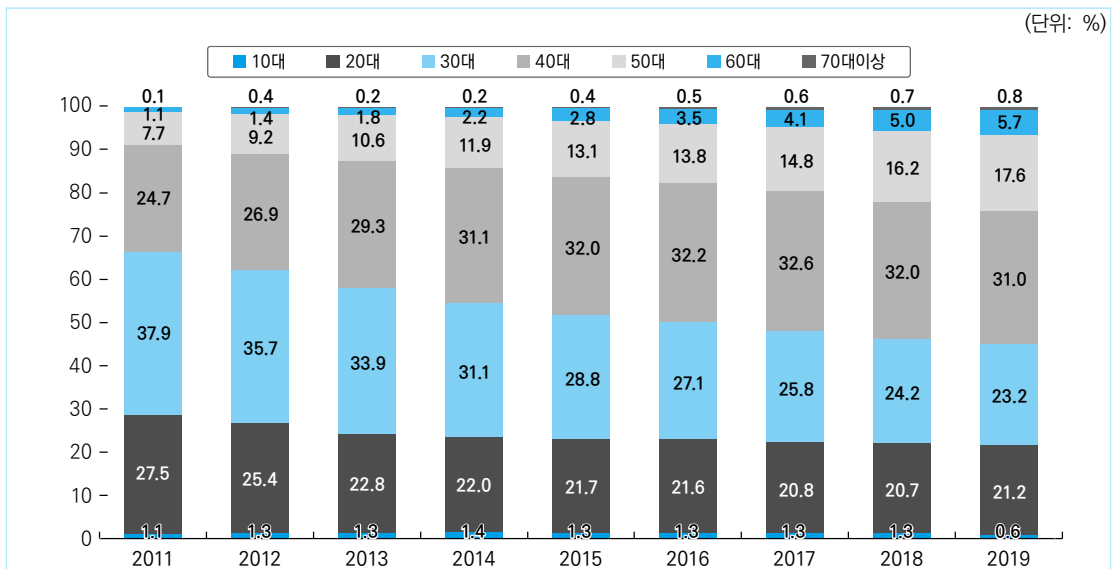
방송대 학부 과정의 학생 수는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약 27만 명이었던 재적생 수는 2019년 약 16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42% 감소하였고([그림 II-48] 참조),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생을 제외한 2019학년도 총 학부 과정의 재적생 수는 155,899명이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그림 II-48] 방송대 연도별 재적생 수(2009~2019년)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9). 2019 통계연보. p. 4

최근 방송대 학부생들의 고연령화와 고학력화는 2019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원격교육연구소(2020)에 따르면, 응답한 재학생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2018년과 비교해 0.7세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줄고, 5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49] 방송대 1학기 재학생의 연령대별 분포(2011~2019년)

출처: 원격교육연구소(2020). 2019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3호. p. 26

또한 고학력화는 재학생의 최종 학력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재학생 실태조사에 응답한 재학생들의 최종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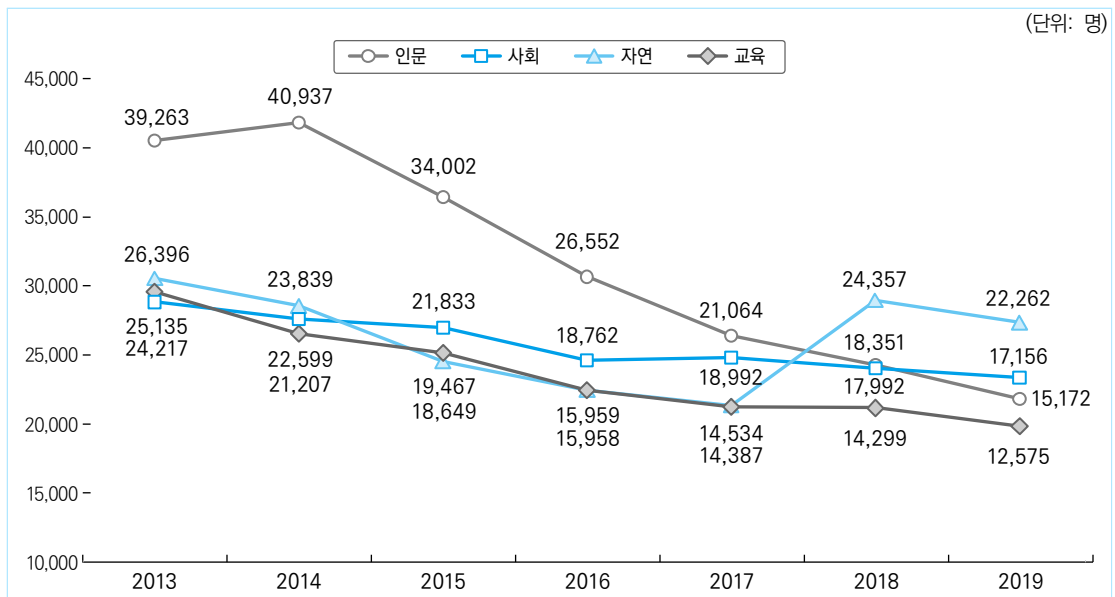
<표 II-141> 방송대 재학생의 최종 학력별 분포 비율(2015~2019년)

(단위: %)

연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2015	49.2	24.8	19.8	6.2
2016	48.2	20.7	23.4	7.7
2017	49.6	22.5	21.7	6.3
2018	45.1	21.5	24.5	8.9
2019	42.2	22.2	26.8	8.8

출처: 원격교육연구소(2020). 2019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3호. p. 30

한편 학과별 지원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성인학습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다. 4개 단과대학 중 전통적으로 지원자가 많았던 인문과학대학과 교육과학대학은 양적으로 여전히 학생 수는 많지만 지원자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지원자 수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단, 2018년도에는 사회과학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면서 지원자 수가 급증한 바 있다.



[그림 II-50] 방송대 단과대학별 지원자 추이(2013~2019년)

출처: 원격교육연구소(2019). IDE 통계분석보고 4호: 2019학년도 방송대 지원자 특성 분석.

학과별로 살펴보면, 2018학년도 대비 지원자 수의 증가율이 큰 학과는 사회과학대학의 미디어영상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관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컴퓨터와 통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과 보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원 현황

방송대 대학원은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원은 19개 학과(모집 정원 805명), 경영대학원은 7개 전공(모집 정원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세미나나 워크숍 등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운영하고 있는데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 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 대체 전공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지원을 위해 학부와 마찬가지로 과목당 1명의 튜터를 배정한다.

방송대 학부 과정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의 학생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학년도의 재적생 수는 2015학년도 대비 4.6% 증가하였고, 대학원 개설 이후 2018년까지 석사학위 취득자는 6,160명으로 매년 약 600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2018년도의 경우 대학원은 529명이, 경영대학원은 79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표 II -142> 방송대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학생 수 추이(2015~2019년)

(단위: 명)

구분	재적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2015	2,622	2,178	449
2016	2,655	2,188	467
2017	2,688	2,228	460
2018	2,718	2,220	498
2019	2,742	2,259	483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9). 2019 통계연보. p. 28

3) 프라임칼리지 현황

‘프라임칼리지(Prime College)’는 2012년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에 새롭게 설치된 교육 조직이다. 대학에서 하나의 교육 조직 내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

정을 운영하는 형태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가 유일하다. 이처럼 프라임칼리지는 정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하나의 교육 조직에서 운영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조직이다. 이를 위해 방송대는 과거 대학의 평생교육원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평생교육과정인 비학위과정과 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은 첨단공학부와 금융서비스학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4개 전공(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회계금융, 서비스 경영)이 개설되어 있다. 방송대의 일반 학부 과정과 다른 점은 우선 학부 과정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은 고졸 학력 이상이며 재직자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방송대 학부 과정이 원격 수업과 함께 면대면의 출석 수업을 포함하고, 기말시험 또한 직접 출석해서 응시해야 하는 것과 달리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프라임칼리지의 2019학년도 재학생 수는 1,651명으로 학생들의 연령대는 방송대 학부 과정 학생들의 연령대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다. 2019학년 재학생의 연령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49.5%, 30대가 27.9%, 40대가 15.7%로 나타나 20대와 30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비학위과정은 학점 과정과 비학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점 과정의 경우, 방송대 학부 과정 학생들이 수강할 경우 총 12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학점 과정의 교과목 수는 총 100과목이며, 여기에 참여한 수강 인원은 8,910명이다. 비학점 과정은 자격 과정을 중심으로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의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프라임칼리지는 ‘평생교육 허브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재직자 기초과정, 사내대학에 공유하는 교양과목,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운영 성과

1) 다양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운영

방송대는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성인들이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접근 경로도 다양화하고 있다. 방송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학습 플랫폼은 U-KNOU 캠퍼스, 방송대학TV(OUN), 그리고 방송대 유튜브 채널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플랫폼은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첫째, 방송대는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원격 강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U-KNOU 캠퍼스'라는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U-KNOU 캠퍼스 접속 현황을 보면 모바일로 접속한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PC보다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U-KNOU 캠퍼스에서는 교수자가 공개를 동의한 과목인 경우 방송대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유료로 강의를 구매하여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무료 공개강좌도 업로드되어 회원가입만 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방송대는 TV 채널도 학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대 TV 채널인 OUN은 방송대에서 라디오 이후 가장 오래된 학습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 케이블TV, IPTV, 위성TV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BS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면 OUN은 방송대 학습자들인 성인들에게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2019년도 이전에는 주로 학부과정의 정규 교과목 강의를 OUN 채널을 통해 방영해 왔는데, 2019년도부터 TV가 연령이 높은 성인들에게 친화적인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평생교육, 교양 함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TV로 방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총 71편의 교육 콘텐츠가 OUN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방송대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대에 교육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TV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II-51] 방송대학TV 홈페이지(<https://oun.knou.ac.kr>) 화면

셋째, 방송대는 또 하나의 학습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 방송대의 유튜브 채널은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학TV’로 2012년에 개설되었고, 방송대는 2019년 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영상은 주제별로 학과별 교과목 강의의 주요 클립 영상을 탑재한 ‘대학 강의’, 주요 학사 제도를 안내하는 ‘방송대 설명서’, 중년층 이상 성인학습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노후&건강’, 방송대와 학과를 소개하는 ‘소개합니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튜브 채널에 방송대와 교과목에 대한 소개,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 등을 짧은 영상으로 탑재하여 방송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II-52]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학TV 유튜브 공식 화면

2) 원격 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 간 협력 확대

방송대는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프라임칼리지 ‘평생교육 허브 과정’은 글자 그대로 방송대가 교육 콘텐츠를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허브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한 U-KNOU 캠퍼스의 학습 플랫폼을 통해 방송대생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접속하여 유·무료의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도부터는 방송대 강의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대학에 콘텐츠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류·협력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U-KNOU

캠퍼스'에 탑재된 63개 교과목을 다른 국립대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고유 접속 URL과 코드를 제공하고, 수강을 완료한 학습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총 6개 국립대학에서 321명이 방송대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양 교과목의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한 것이다. 방송대를 포함해 총 5개 국립대학들이 공동으로 5개의 교양과목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 중 방송대는 2개 과목을 주관하여 개발하였고, 3개 과목은 방송대 교수진이 참여하고 다른 국립대에서 주관하여 개발하였다. 방송대는 기존의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이 모든 과목들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였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a).

3. 향후 과제

방송대는 고등교육기관이며, 고졸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개방형 입학제로 운영되고 있어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을 주된 교육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대는 원격·고등·평생교육의 성격이 중첩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와 성인학습자 특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성인 공교육' 이념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방송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첫째, 방송대는 직업·가정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학업에 대한 충실도를 높여 학업을 지속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대는 졸업 소요 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축소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제도 홍보를 시작으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평가 제도뿐만 아니라 문제 출제와 시험 응시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b).

둘째, 대학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대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주관하고, 강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협력 대학들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019년도에 개발, 제작한 콘텐츠를 참여 대학들이 강의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토대로 하여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격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일반대학과 공유하며, 원격 강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영역에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에듀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b).

셋째,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대는 2019년도에 ‘국제협력단’을 임시 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다. 최근 국제협력단은 방송대의 원격교육 노하우를 원격교육 시행에 관심이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국제원격교육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Open and Distance Education, ICDE) 회원교로 차기 원격대학 총장단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b).

참고 문헌

- 원격교육연구소(2019). IDE 통계분석보고 4호: 2019학년도 방송대 자원자 특성 분석.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원격교육연구소(2020). 2019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3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동주·정혜령·정연희·양유정·김상홍(2018).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9). 2019 통계연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20a). 2019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20b).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절

소결



고등교육 보편화의 흐름 속에서 학령기 이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이 고등교육 혁신의 새로운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출범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전면 개편되면서 전문성 개발과 숙련성 제고를 위한 고등 수준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학 평생교육의 영역과 범주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현행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제도들(독학학위제도, 학점은행제도 등)이 상호 연계되고 있고, 대표적인 원격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성인학습자 재교육을 위한 ‘프라임칼리지(Prime College)’ 신설, 최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학습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학령인구 중심의 대학 학위과정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성인학습자 대상의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제도,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평생교육모델 등이 등장하면서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재직 근로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도입된 이래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서비스 지원 방식 등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사업 모형의 변경은 있었지만, 십여 년간 대학평생교육을 촉진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학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혁신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2019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이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의 대학 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다년도 사업 구조가 도입되면서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4년제 대학만이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LiFE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연계한 대학평생교육체제 구축 전략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전

체 고등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학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의 효과가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과 주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아직은 ‘정원 외 학생 확보’나 ‘재정 확보 전략’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정작 학령인구, 기술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한 전면적인 고등교육 혁신 방향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한계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대한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LiFE 사업이 대학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을 벗어나 ‘미래형 대학혁신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즉 LiFE 사업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전략’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 전략’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에 새롭게 개편된 LiFE 사업이 대학 현장에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LiFE 사업이 각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관리 전략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즉 과거의 실적 평가 중심의 관리 모형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대학 혁신 모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에 대학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독학학위제도, 학점은행제,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계약학과제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요구된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서 각 제도의 효용성과 한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별 강점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간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고등 수준의 평생교육 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LiFE 사업과 긴밀히 연계될 때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혁신적인 고등교육 생태계인 ‘고등 평생학습체제 구축’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2019 평생교육백서

제3부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활동



제1장

평생학습 지원 체제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1. 개요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제도(「평생교육법」 제 23조)로서 모든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제도를 매개하고 융합할 수 있는 상위적 개념의 제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계좌’ 또는 ‘학습계좌’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계좌(account)’의 고유한 의미를 근간으로 훈련 시간(프랑스의 개인활동계좌), 학습비(영국의 학습계좌제, 미국의 평생학습계좌 및 개인훈련계좌),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예금(미국의 개인개발계좌) 등 유무형 경제 자산(지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학습이력 누적·관리와 이를 통한 역량 개발·발굴 및 사회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패스포트[독일(프로필패스), 일본(평생학습패스포트)]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학습비 지원과 개인의 학습이력관리 등을 동시에 구현한 제도(영국의 능력개발계좌제)가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인재개발관리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구좌제(1995), 교육계좌제(2001), 개인학습계좌제(2007), 학습계좌제(2008) 등의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제도를 ‘교육에 필요한 자금융자 자료’로 활용(교육구좌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비 지원(학습계좌제) 및 학습이력관리의 복합 모형이 구상되었다. 2008년에 평생학습계좌제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도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결과 인증, 학습이력 관리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연계 협력 및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습비 지원 정책이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평생학습 결과 인증과 학습이력 누적·관리가 평생학습계좌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도입으로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 누적·관리의 ‘오래된 미래’는 새로운 협업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평생학습 결과 인증과 학습이력 누적·관리의 관점에서 평생학습계좌제의 주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8월에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평생학습계좌제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0년 3월부터는 전국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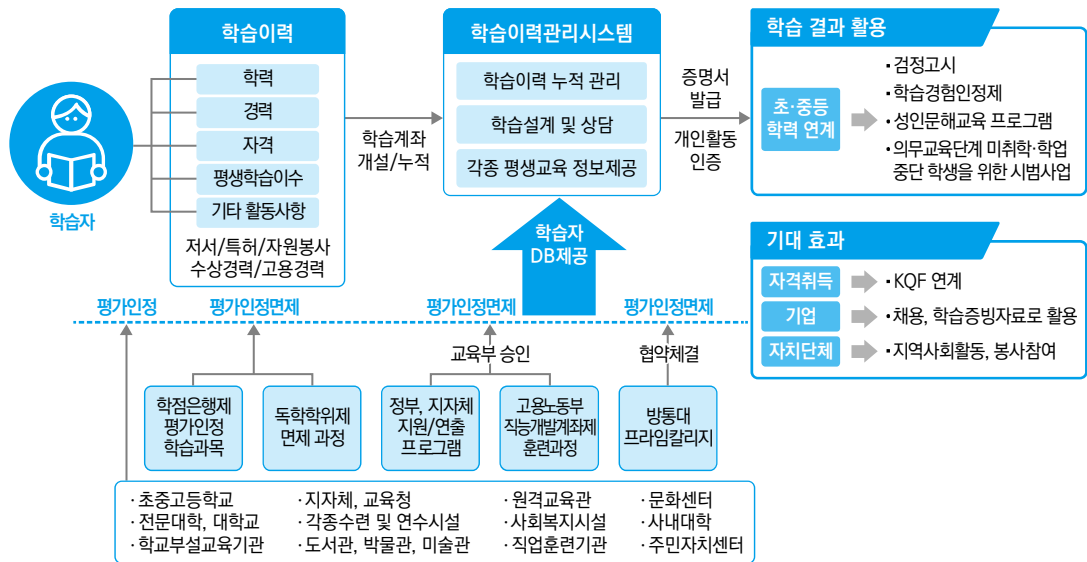
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평생학습이력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사업의 주요 기능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확보,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학습이력 활용 등의 프로세스를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적 차원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표준화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인식 개선 및 협업관계 구축(기관담당자 시스템 구축, 단체계좌 개설) 등에 대한 필요성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현재 사업 운영의 뼈대가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계좌제가 제도 시행 초기(2010. 10.)부터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말 그대로 원하는 국민 모두가 온라인 학습통장을 개설하여 학력, 경력, 자격, 평생학습 이수, 기타 활동 등을 기록하여 자신만의 체계적인 포토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의 학습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재 ‘늘배움’ 홈페이지, ‘정부 24’ 등에서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형태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된 ‘학습기록자료’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평생학습이력증명서는 초·중·등 학력연계 및 학습진로·설계, 신중장년 생애설계, 취·창업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의 쓰임새에 있어서는 특히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역할이 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평가인정’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일정한 질적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사회적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 학력취득 지원, 학습과정 이수자 대상 학습마니포/학습멘토 운영, 평생학습매니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평생학습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이력 누적·관리의 편의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2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제도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습이력 자동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및 학습자 우수 사례 발굴·홍보(홍보대사 운영, 관련 박람회 참여, 브로슈어 배포 등)를 통해 활용 방법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9년은 평생학습계좌제와 늘배움의 통합회원 서비스를 통해 평생교육 ONE-ID³⁸⁾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털케어 서비스를 위한 ONE-STOP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8) 평생교육 ONE-ID란 하나의 ID로 평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통합 ID를 의미하며,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늘배움 서비스에 국한되어 실행되고 있음.



[그림 III-1] 평생학습계좌제 개념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요 추진 사항

- 사업 시작 연도: 2009년
- 대통령 공약 사항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2008. 2.):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발표
 - 대통령 업무보고(2008. 3.):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활성화의 대책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제시
 - 국정과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과제 70.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 평생학습계좌제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2006. 8.)
 - ※ 7개 지역(경기 광명, 이천, 강원 삼척, 충북 단양, 전남 목포, 순천, 경북 칠곡)
 - 2008 지역인재육성활성화(RHRD) 시범사업(2008. 6.~2009. 2.)
 - ※ 3개 지역(순천, 구미·칠곡·군위, 제주)
 - 2008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2008. 9.~2010. 2.)
 - ※ 5개 지역(경기 이천,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신설(2007. 12.) 및 동법 개정 (2008. 10.~2009. 4.)
 - ※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의 학습계좌 등록과정 평가인정 권한 및 취소의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2009. 4. 2010. 12.)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1. 1.)
 ※ 주요 내용: 평가인정 기준 및 취소, 학습계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1. 11.)
- 「평생교육법」 제23조제5항 신설(2013. 12. 30.)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4. 4.)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전국 개통(2010. 10.)
- 전국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2010~)
- 학업 중단자 및 저학력 소외계층을 위한 초·중·고 학력 인정제도 연계(2011~)
 - 초·중·고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 검정고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기초문해교육 학습과정 이수 인정 연계
 - 방송통신중·고 학습경험인정제: 방송통신중·고 졸업학점 인정 연계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범사업): 선택이수 학습시간 인정
- 의무교육단계 학습과정 평가인정 온라인 신청, 평가시스템 개통, 운영(2012)
- 유관 기관·사업과의 학습과정, 학습이력 시스템 연계 추진
 - ※ NEIS(2010), EBSLang(2012),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2012), 중앙교육연수원(2012), 국방부 나라사랑포털(2014), 학부모은누리·늘배움(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2014), 평생교육사 자격·K-MOOC(20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15),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2016), 국립특수교육원(2017), 평생교육바우처(2018), 매치업(2019), 시청자미디어재단(2019), 노사발전재단(2019), 한국산업인력공단(2019), 한국생산성본부(2019) 등 20개 기관
- 학습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제도 내실화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연구 시행(2010~)
 -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다각적 홍보 채널 마련(2012~)
 -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검정고시 연계 평가(2012~)
 -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협약 등(2013~)
 - 정부24를 통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기능 실시(2019~)
 - 평생학습계좌제와 늘배움 통합 ID 구축(201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평생학습계좌 기본계획.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현황

1) 이용자 현황

평생학습계좌제 이용자 현황은 크게 학습계좌 개설자 수, 연령별/직업별 현황, 학습이력 등록 건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 신규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19,1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2019년 학습계좌 개설자 누적 수는 96,994명으로 2010년 977명과 비교해 약 9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부터 평생학습바우처 신청자가 많이 유입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며, 평생교육바우처와의 연계 강화로 향후 이와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 연도별 학습계좌 개설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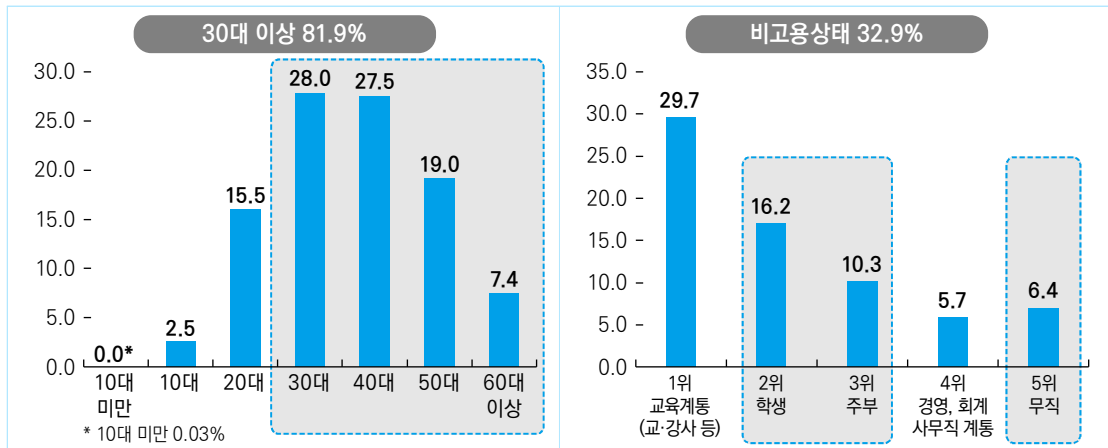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학습계좌 개설	977	1,490	2,153	15,709	11,240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습계좌 개설	14,419	8,055	12,549	11,267	19,13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둘째, 평생학습계좌제 이용자 현황을 연령별, 직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누적된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총 96,994명으로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28.0%)의 학습계좌 개설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7.5%), 50대(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가 전체 학습계좌 개설자의 81.9%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평생학습계좌제가 성인의 평생학습 이력 및 성과 관리 활용, 100세 시대 순환교육체제에 적합한 인재개발관리도구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고용 상태의 경우 교육 계통의 개설자가 29.7%로 가장 많고, 학생, 주부, 무직 등 비고용 상태인 개설자가 약 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III-2] 평생학습계좌제 이용자 연령별·직업별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셋째, 학습이력 등록 현황은 학습계좌의 온라인 시스템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관리 되는 항목인 ‘학력, 자격, 평생학습 이수, 기타(특허, 독서활동, 자원봉사 등)’ 등에 등록된 현황을 나타내며, 2019년 신규 등록된 학습이력 건수는 89,083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이상 증가하여 역대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학습이력 등록 건수도 역시 크게 상승하여 총 357,69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3,651건 대비 약 99배가 증가한 것이다.

<표 III-2> 연도별 학습이력 등록 현황

(단위: 명,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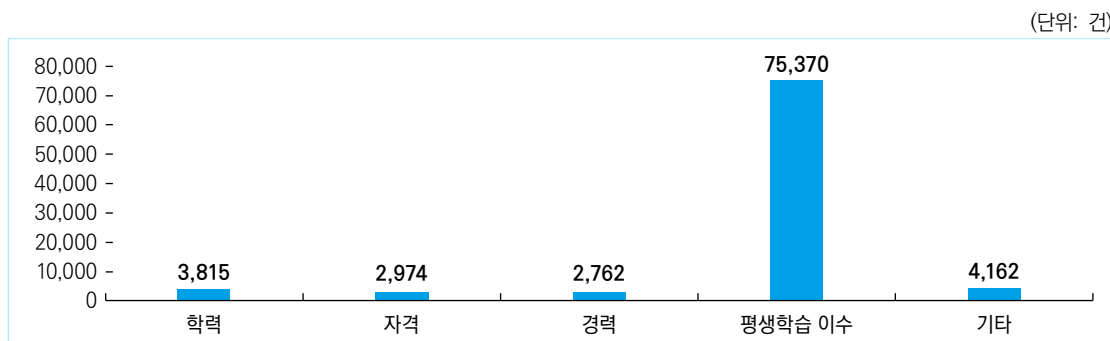
연도	학습이력 등록 합계	구분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 이수	기타 ¹⁾
2015	36,884	4,842	2,857	8,450	13,170	7,565
2016	44,895	2,947	3,483	2,283	30,669	5,513
2017	48,641	3,120	3,017	3,185	32,709	6,610
2018	53,549	3,920	3,142	3,351	37,017	6,119
2019	89,083	3,815	2,974	2,762	75,370	4,16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기타: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및 기고, 특허, 해외경험/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 및 동아리 등

학습자들이 등록한 학습이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평생학습 이수 이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반면에, 그 외 학습이력은 다소 감소하였다. 전체 학습이력 중 평생학습 이수 이력의 등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학력, 자격, 경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 2019년 유형별 학습이력 등록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평생학습 이수 항목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원내 사업 및 제도 연계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25,091건), 학점은행제(17,129건), 늘배움(8,107건) 순으로 학습이력 등록 건수가 많았으며, 원외 연계의 경우, 중앙교육연수원(6,395건), 국립특수교육원(5,116건), 국방부 나랑사랑포털(682건) 순으로 학습이력 등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과정 평가인정 추진 현황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 제도를 수반한다. 평가인정은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학습과정을 국가가 평가인정·관리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학습 선택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06년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중앙 차원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초·중·고 학력취득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평생학습계좌제의 사회적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평가인정은 4개 영역(기초문해교육/학력보완교육/직업능력교육/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각 영역별 평가인정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유형과 유형별 신청 요건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 요건

평가인정 유형	개별 학습과정 단위		전체 학습과정 단위	
	오프라인 학습과정	온라인 학습과정	기관 단위 평가인정	평가면제
신청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유형별 신청 요건	(학습과정) 기간 및 운영 시간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최근 1년 이상, 학습 과정을 연간 45시간 이상 운영한 기관 (학습과정) 차시 또는 운영 사수 요건 충족, 운영 종료한 학습과정	(기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최소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학습과정) 정부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산하·소속 기관) 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유효기간	5년		기관별 상이	

출처: 교육부(2019b).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공고.

한편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록 수는 4,810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가인정된 학습과정단위 학습과정 수와 해당 연도까지 유효한 기관 단위 및 평가면제된 학습과정 중 2019년 운영·등록된 학습과정 수를 더한 값을 의미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3년 3개년 평균값이 약 600개인 반면에, 2013년 시작한 기관 단위 평가인정의 결과가 2014년부터 반영되고, 기관 단위 평가인정이 유지되면서 현재까지 연간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록 수는 4~5천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록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습과정 수	878	433	458	655	3,427	4,708	5,864	5,207	4,583	4,81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3)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누적·관리(증명서 발급 등) 하기 위해 학습이력 관리시스템(<http://www.all.go.kr>)을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개인의 학습이력 누적·관리, 학습이력 진단·설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

학습이력 누적·관리를 위해 등록 가능한 정보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가능 정보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Email 등
학력	학력 사항, 장학 사항 등
경력	근무 경력, 강의 경력 등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 해외자격 등
평생학습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계기관 학습과정, 그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타 활동 사항	수상, 해외경험/어학연수, 논문 및 기고, 독서, 자원봉사활동, 취미 및 동아리 등

출처: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며, 2019년에는 늘배움과의 통합회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평생교육 ONE-ID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평생교육 ONE-ID는 하나의 ID로 평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통합 ID로서,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늘배움 통합회원(2020. 1. 15. 서비스 오픈)에 적용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ONE-ID(통합회원) 서비스는 누구나 늘배움 또는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평생학습계좌제 ‘일반회원’이나 늘배움 ‘간편회원’의 회원가입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핵심 서비스는 두 홈페이지 간 로그인 자동 연동(Single Sign On)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수강 후 학습이력관리 및 평생학습이력증명서 출력 등 ONE-STOP 서비스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내 학습진단·설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합회원과 비통합회원(평생학습계좌제 일반회원 / 늘배움 간편회원)을 위한 서비스는 <표 III-6>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비통합회원도 각 사이트 가입 및 연계 동의를 통해 학습진단·설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단, 늘배움 간편회원의 경우, 늘배움 사이트 내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바로 출력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나, 평생학습계좌제 일반회원 가입 및 연계 동의 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표 III-6〉 회원별 서비스 유형

제공 서비스	평생학습계좌제- 늘배움 통합회원	평생학습계좌제 일반회원 ¹⁾	늘배움 간편회원 ¹⁾
두 홈페이지 간 로그인 자동 연동(SSO)	○	○	○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내 추천 동영상(늘배움) 수강 및 학습 이력 관리	○	○	○
늘배움 홈페이지 내 학습이력관리 (My평생학습 - 나의 학습이력)	○		○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내 학습진단·설계 서비스 이용	○		
늘배움 홈페이지 내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바로 출력	○		

출처: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주1) 늘배움 My평생학습에서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사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단, 자동 연동(SSO, 한 번의 로그인으로 두 홈페이지 간 로그인 자동 연동)의 경우, 두 홈페이지에서 최초 1회 로그인 완료 후 이용 가능

학습이력 진단·설계가 통합회원 고유 서비스로 구축된 이유는 학습설계를 위한 강좌 추천의 경로가 통합회원 학습자별 특성에 따른 늘배움 강좌 이수 이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향후 늘배움의 강좌 분류를 재정비하고,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강좌 연계를 강화하여 학습설계가 고도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교육기관을 위한 관리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교육기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교육기관은 학습과정 및 기관 단위 평가인정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학습과정 (재)개설, 교강사 및 교재의 등록관리, 학습이력 등록 등 학사관리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이력을 자동으로 누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은 학습자 단체계좌³⁹⁾ 개설 지원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제도·사업과의 학습이력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의 자동 누적·관리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다. NEIS(2010)를 시작으로 국방부 나라사랑포털(2014), 평생교육사 자격(2015), 학점은행제(2016) 등 주요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제도와 연계하였고, 고용부 직업능력정보망(HRD-Net)(2017), 한국산업인력공단(2019)에 이르기까지 현재 20개 이상 기관 및 제도(사업)에서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이 자동 연계되어 누적·관리되고 있다. 주요 연계 현황은 다음 〈표 III-7〉과 같다.

39) 학습자의 동의와 위임장을 통해 교육기관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학습자 계좌를 신청·제출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학습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8년에 2,306건, 2019년에 7,559건 등록함.

<표 III-7> 평생학습계좌제 협약 기관 및 제도(사업) 연계 현황

연도	연계 내용
~2014 (7개)	NEIS(초중등학력), EBSlang(학습과정/이력), 중앙교육연수원(학습이력), 늘배움(학습이력), 학부모On누리포털(학습과정/이력), 국방부 나라사랑포털(학습과정/이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습과정/이력)
2015 (3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자격이력),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학습과정/이력), K-MOOC(학습이력)
2016 (3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원연수이력), 학점은행제(학습이력/학위취득정보), 독학학위제(학위취득정보)
2017 (4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보망(HRD-Net)(학습이력), 국립특수교육원(학습이력), 한국저작권위원회(학습이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팟(유사서비스 제공)
2018 (1개)	평생교육바우처(학습과정/학습이력)
2019 (5개)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이력), 생산성본부(자격이력), 매치업(학습이력), 시청자미디어재단(학습이력), 노사발전재단(학습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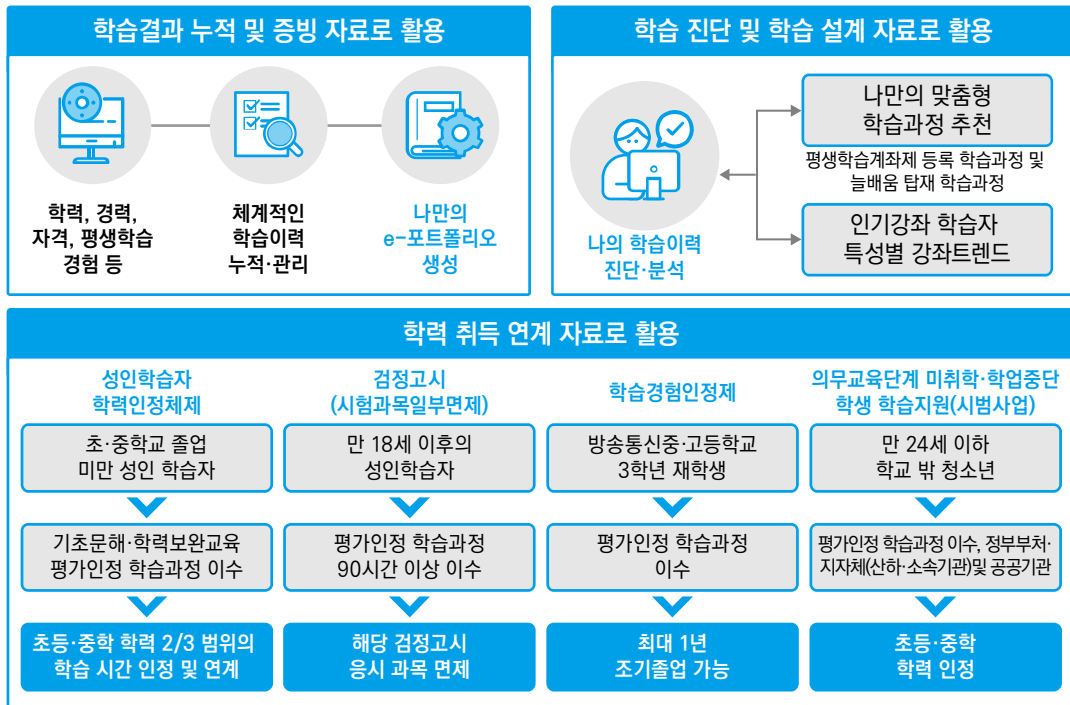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4) 평생학습이력 활용

평생학습이력은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습이력 누적·관리를 통해 학습진로·설계 및 교수·학습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지역적 차원에서는 학습매니저 또는 멘토 양성, 학습마일리지 활용 등과 더불어 지역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재개발관리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제도(사업)적 차원에서는 학력 취득 연계가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제도 구상 초기부터 국민의 학습이력을 누적·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였으며, 그 결과 무엇보다도 초중등 학력 취득과 연계되는 인증경로(학습과정 평가인정)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초중등 학력 연계는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검정고시 과목 일부 면제, 학습경험인정제에 적용되었다. 2019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에서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대한 지정 심의 면제가 이루어져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초등 및 중학 학력 취득을 위한 일부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각 사업 간의 연계 현황은 [그림 III-4]와 같다.



[그림 III-4] 평생학습계좌제 활용 방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평생학습계좌제 홍보 브로슈어.

각 연계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교육 교육과정 이수 인정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3단계 중 2단계까지만 적용되며, 3단계는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둘째, 검정고시 과목 일부 면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일부 과목(국어·영어(초졸 가능)·수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검정고시 과목 면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통한 기타 학력취득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 한 번의 평가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면제 과목의 적합성(수준, 과목 등)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 검정고시 면제 과목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2019년에는 제12차 평생학습 계좌제-검정고시 연계 과목 평가를 통해 568개 학습과정이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셋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 이수 인정의 경우,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해당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해당 학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각 3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최대 1년의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넷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범사업)의 경우,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있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만 24세 이하)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우선적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시범사업이 안정화에 접어들면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나. 주요 성과

2019년은 그야말로 평생학습계좌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한 해였으며 이는 무엇보다 제도 간 ‘연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태생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존재한다.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바우처의 시간차 제도 도입으로 실현되지 못한 연계 작업은 2019년 평생학습바우처 이용자의 평생학습계좌제 개설과 학습이력 등록 건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늘배움과의 연계(통합회원 구축 등)를 통해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건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제도 간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컸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계좌제가 늘배움에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업할 기회(유관 사업 상호 홍보, 연계 기관 대상 사업 설명 등)가 복합적으로 창출되면서 ‘연계’의 중요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도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제도적 ‘사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 부처가 평생교육 유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제도)과의 연계를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부처 및 유관 기관(제도)과의 연계 활성화에 힘입어 평생학습 이용률(학습계좌 개설 수 및 학습이력 등록 건수)이 최고치로 증가하였다. 원내 제도(사업) 연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학습이력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통적인 강자인 학점은행제, 늘배움 등의 순으로 학습이력 등록 건수가 많았다. 특히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높은 유입 건수는 초창기에

이루어 내지 못한 학습비 지원과 학습이력 관리라는 정책적 비전이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되어 다른 형태로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 자체 학습 등록자는 165만 명 이상(2019년 기준)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학습이력 관리하는 학점은행제 학점원 및 학습이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어떤 제도보다도 학습자의 다채로운 학습이력을 누적·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늘배움과의 통합회원 구축은 평생교육 ONE-ID(통합회원)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향후 평생교육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키’나 ‘원패스’ 기능을 하여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관통하고 포섭하는 주요한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외 연계의 경우, 한국 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노사발전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신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특히 자격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 등에 대해 처음 자동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자격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한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데이터 품질관리 향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기본 토대가 크게 향상되었다. 먼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늘배움과 평생교육 ONE-ID 구축 및 이에 따른 통합회원 DB분석을 통해 학습자 특성별(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맞춤형 강좌 추천 기능을 개발하여 학습진로·설계 영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반응형 웹 구축 및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등 주요 기능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여 데이터 오류율 최소화, 안정적 품질 향상 및 유지·보장 등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이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보안정책을 수립, 관리,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데이터 접근성 정책(무료, 오픈 라이선스, 기계판독 가능한 포맷 등) 실현에 적합한 사이트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필수적일 것이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⁴⁰⁾ 개방 및 민관 간 데이터 융합 시 보안의 우수성도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시 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공공데이터 평가품질 1등급을 달성한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 간의 데이터 교류 시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지표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0) AI 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음성, 영상, 이미지 등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셋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평가인정을 안정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10여 년간 실시된 평가인정을 재정립하고, 평가인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해 평가인정 지표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평가인정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담당자용 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단체계좌 개설 지원, 기관별 학습이력 등록 현황 점검⁴¹⁾ 및 신규 평가인정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정고시와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관계관의 인식 제고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검정고시 관계관 협의 참석을 통한 제도 안내 및 개선 사항(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령 하향 조절 등) 등을 공유하였다. 이 외에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통한 학력취득 경로 확장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시범사업)을 통한 학력 취득 연계 경로에 대한 홍보(브로슈어, 사업설명회 등) 등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였다.

넷째,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2015년 이후 재 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평생학습이력생태계 구축방안 마련)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타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학습활동 자료로서의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활용 논의, 자격 분야의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자격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가치 제고와 늘배움과의 통합회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학습이력 관리 및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 공유·확장 등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업무협약(MOU) 기관(금융감독원 고위관리자 대상 교육 등) 및 유관 사업 단체(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연수/K-MOOC 직무 연수 등)의 주요 행사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실제 평생학습계좌제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및 학습자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특화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습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였고, 생애단계별 학습자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활용 사례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우수 사례와 연계해서는 우수 평생교육기관과 우수 학습자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유

41)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후,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미등록한 기관(164개)을 집중 관리하고, '기관의 학습과정 재개설 및 운영률'을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표창(기관 대상) 시 주요 양적지표로 활용하는 등 기관의 학습이력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관 박람회(대한민국 미래교육 나눔한마당 참가 및 정책관 운영,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평생 학습기반 사회공헌 바자회 참가 등)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하나원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를 위한 제도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라 학습자 매뉴얼을 겸한 제도 안내 브로슈어를 새롭게 제작하여 다양한 유관 기관에 배포(신증장년 일자리 박람회, 평생학습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K-MOOC 참여 기관 등)하면서 학습자의 제도 이해와 접근성을 다각도로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향후 과제

2019년은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평생학습계좌제가 국정과제의 뒀안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이력 연계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등의 주요 평생학습 영역을 대상으로 학습이력 연계가 추진, 강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교육부 내 모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되고 누적·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통계 관리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 내 제도(사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 연계에 따르는 인센티브 및 장려책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학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일구어 내면서 타 부처 및 유관 기관(제도/사업)과의 연계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계좌제는 늘배움과의 통합회원(평생교육 ONE-ID)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스마트 평생학습도털케어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바탕으로 학습진로·설계를 고도화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고용노동부(ONE-ID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처가 생애통합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도 삶의 다양한 삶의 영역별,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정보 및 학습지원서비스 구축(돌봄, 학습비 등)에 집중하여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서비스 및 생애동반적 평생학습이력관리체제가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지표 및 활용 개선, 평가인정 기관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가 더 나은 국민 학습역량 인증 경로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고교 학점은행제, 학업중단 학생 증가, 다양한 학습경험의 가치인정 제고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평

생학습계좌제의 학력 인증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를 재정비하고, 평가인정을 통한 학력 수준을 전문대학 수준까지 확장시키는 등 사회적 활용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관해서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되, 기관 단위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방안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하면서 우수 사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 제도(사업)와의 창의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학습비 지원 및 학습마일리지 구축·활용 등 평생학습계좌제 쓰임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관리 및 설계를 통한 선순환적 학습 지원 체제 구축 및 학습비 지원의 효율성 강화, 유관 사업 학습마일리지 통합 체제 및 다양한 사회적 활용 방안(기부, 학습비 지원 등)을 위한 학습재화 순환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평생학습계좌제는 대국민 인재개발관리도구로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9a).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b). 『제1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평가인정』 공고. 세종: 교육부.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활용 사례_평가인정교육기관.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나에게 평생학습계좌제란 무한대다.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www.all.go.kr

제2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1. 개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의 우수 온라인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MOOC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K-MOOC는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형 실현과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열린 고등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총 745개 강의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와 수강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지속 성장 하고 있다.

MOOC는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의(Course)를 의미한다. MOOC는 강의실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고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교수-학생 간 질의 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의 능동적 학습방식과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강의 플랫폼이다. 2019년은 새로운 학습방식 등에 대응하여 MOOC의 운영 방식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이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K-MOOC는 출범 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대학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향후 참여 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교육 혁신 및 교육비 절감을 위한 K-MOOC 구축·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5차에 걸친 국무회의 보고 후 2015년 2월 K-MOOC 시범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4일에는 서울대 등 10개의 무크선도대학을 선정하고 27개 강좌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K-MOOC 시범 서비스는 2015년 10월 개통 이후 약 한 달간 홈페이지 방문이 약 24만 건, 수강 신청자는 약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된 K-MOOC 강좌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중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 단기간에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서비스 개통 이후 무크선도대학 선정, 개별 강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 강좌 선정 등으로 총 745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2019. 12. 기준). 분야별 강좌 수를 살펴보면, 인문 분야 강좌가 201개(27.0%), 사회 분야 191개(25.6%), 공학 분야 165개(22.1%) 등의 순이다. 또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방문 1,205만 건, 회원 가입 50.5만 명, 수강 신청 116.8만 건 등으로 K-MOOC에 대한 개인학습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I-8> 연도별 K-MOOC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건, 명)

구분		2015년(10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예산		2,268	4,018	6,928	7,840	9,734	
참여 대학(기관) 수		10	28	31	18	29	116
강좌 수		27	116	181	186	235	745
학습자 이용 건수	방문	446,832	1,735,710	2,562,074	3,156,621	4,153,246	12,054,483
	회원 가입	34,793	80,232	112,819	129,023	148,298	505,165
	수강 신청 ¹⁾	55,559	126,092	263,756	330,619	392,262	1,168,288
	이수자	2,058	9,447	29,442	41,455	63,550	145,95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청강 건수 포함.

회원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6.2%)를 중심으로 20대 미만(17.5%), 30대(13.1%), 40대(11.9%)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입 회원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2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23.3%)가 많으며, 석·박사학위를 가진 학습자도 10.8%에 달한다.

<표 III-9>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 가입자 수

(단위: 명, %)

연령\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¹⁾	계
20세 미만	2,245 (0.44)	27,994 (5.54)	20,154 (3.99)	985 (0.19)	7,040 (1.39)	2,441 (0.48)	0 (0.00)	27,628 (5.47)	88,487 (17.52)
20세~29세	204 (0.04)	15,440 (3.06)	118,602 (23.48)	4,020 (0.80)	36,036 (7.13)	1,759 (0.35)	228 (0.05)	57,043 (11.29)	233,332 (46.19)
30세~39세	23 (0.00)	47 (0.01)	3,433 (0.68)	2,572 (0.51)	29,985 (5.94)	10,089 (2.00)	1,522 (0.30)	18,253 (3.61)	65,924 (13.05)
40세~49세	24 (0.00)	44 (0.01)	2,997 (0.59)	3,467 (0.69)	22,893 (4.53)	13,021 (2.58)	4,278 (0.85)	13,534 (2.68)	60,258 (11.93)
50세~59세	24 (0.00)	74 (0.01)	2,959 (0.59)	1,868 (0.37)	15,889 (3.15)	10,014 (1.98)	4,765 (0.94)	5,991 (1.19)	41,584 (8.23)
60세 이상	56 (0.01)	89 (0.02)	1,420 (0.28)	626 (0.12)	5,624 (1.11)	3,873 (0.77)	2,573 (0.51)	1,319 (0.26)	15,580 (3.08)
계	2,576 (0.51)	43,688 (8.65)	149,565 (29.61)	13,538 (2.68)	117,467 (23.25)	41,197 (8.16)	13,366 (2.65)	123,768 (24.50)	505,16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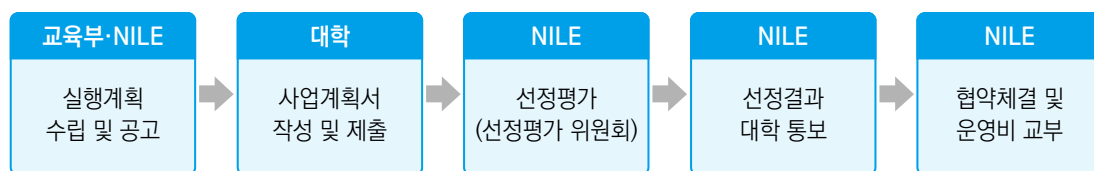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1) 학력-기타는 '기타 형태의 교육을 받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음' 등을 선택하거나 미응답한 회원 가입자 수.

2019년에는 K-MOOC 서비스 고도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양질의 우수 강좌 개발·제공 확대, 강의 질 제고 및 사용자 친화적 학습 서비스 개선, K-MOOC 강좌의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 과제별로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질의 우수 강좌 개발·제공 확대

K-MOOC 사업의 핵심은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우수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연도별 사업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K-MOOC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참여 기관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K-MOOC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기관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참여 기관 선정에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좌의 운영 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강좌 개발을 시작한다. K-MOOC 콘텐츠 개발 지원은 개략적으로 협약 체결, 강좌 개발, 콘텐츠 검수, 강좌 최종 승인 및 운영 준비, 강좌 운영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협약서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의무,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협약 해지 및 변경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강좌 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림 III-5] K-MOOC 참여 기관 선정 절차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4~5개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묶음 강좌를 선정하였다. 개별 강좌는 크게 분야별 강좌와 자율 분야로 나누어지며, 분야 지정 강좌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한국학, 국가 정책 수요 분야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한다. 나머지는 자율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 지정 강좌 외에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강좌 단위로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사회적 수요 및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요구되는 신규 분야의 강좌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강좌 개발을 확대하였다.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묶음 강좌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외 전문인력 양성과정 분야의 4~5개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도록 선정, 개발하였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해당 분야의 실력 및 역량을 향상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양성과정으로서 2019년에 44개 과정(9묶음)을 개발하였다. 특히 산업변화 및 기업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강좌 개발 주체를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2019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공익법인 등이 강좌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결과 신규 235개, 누적 745개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개발 제공하였다.

K-MOOC 국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후 점진적인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 MOOC와의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K-MOOC 강좌를 해외 MOOC 플랫폼 탑재하거나 해외 MOOC 강좌를 K-MOOC 플랫폼에 탑재하는 등 12개 강좌가 상호 교차로 탑재되었다. 이 밖에도 교육부 및 타 부처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MOOC 강좌를 개발하도록 하고,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우수 강좌를 발굴하여 K-MOOC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직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강좌 개발이 확대되었다.

<표 III-10>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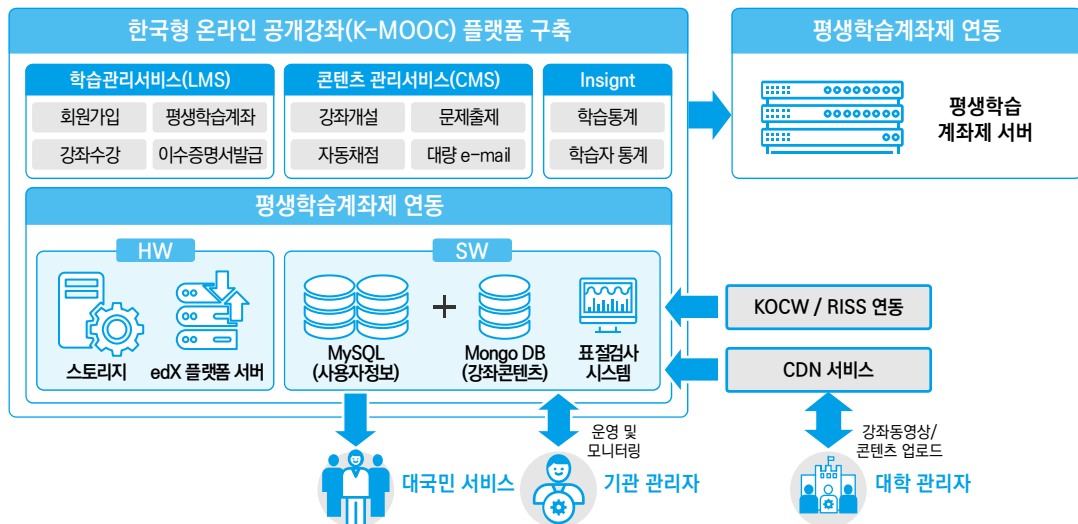
사업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개발 강좌 수(누적)	27	143	324	510	745
참여 기관 수(누적)	10	38	69	87	116
예산	2,268	4,018	6,928	7,840	9,734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주) 연도별 협약체결 기준(협약종료 제외).

나. 강의 질 제고 및 사용자 친화적 학습서비스 개선

K-MOOC 플랫폼은 구축 기간 단축, 초기 서비스 안정화, 향후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콘텐츠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오픈소스인 Open edX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K-MOO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관리자 기능’, 둘째, 강좌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수자 기능’, 셋째, 강좌를 실제로 수강하는 ‘학습자 기능’이다. 2019년에는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강좌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전반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좌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된 기관 관리자 페이지를 개통하고, 학습자의 이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특히 강좌 만족도 점수 공개를 통하여 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시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강좌 소개 페이지 내의 메타 영역 아래에 강좌 만족도 결과를 공개하여 학습자에게 강좌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I-6] K-MOOC 시스템 구성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또한 K-MOOC 강좌 확대에 따라 강좌의 질 제고를 위하여 콘텐츠 품질관리를 내실화하였다. 먼저 위탁기관 내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배치하여 강의 질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 우수 강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연차 평가를 실시하여 10개 강좌에 대한 블루리본을 수여하고, 우수 강좌 교수와 운영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년도 강좌 만족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전면 공개하여 학습자의 강좌 선택의 준거로 제공하였으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수강 학습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강좌 운영 상황을 상시로 점검하였다. 이 밖에도 개선사항의 환류 체계를 마련한 점도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개선의 주요 실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 K-MOOC 강좌의 활용도 제고

K-MOOC 강좌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학점 인정 확대를 추진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2018. 11. 13.) 및 고시(2018. 12. 22.) 개정에 따라 K-MOOC 이수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K-MOOC 학점은행제 과정'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이 결과 11개 강좌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추진하였다. 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기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학습설비에 준하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험 부정 방지, 진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하였다.

한편 K-MOOC 강좌를 수업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학 수업 혁신 지원의 일환으로 K-MOOC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에 대한 우수 사례 수기를 공모하여 표창하였으며, 참여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결과 학점인정 대학 및 과정 수는 40개교, 158개 과정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9개교, 89개 강좌에서 융합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과 일반 기업체의 연수에서 수강자의 상시 학습을 인정하는 등 K-MOOC 강좌 이수 결과를 활용하도록 MOU를 체결하거나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여 기관 연계 강좌 130개를 확보하였다. 전국 초·중·고 교원 직무 연수 활용을 위해 K-MOOC 운영센터를 연수 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3. 향후 과제

2015년 K-MOOC 개통 이후 K-MOOC 강좌 개발 대학 및 강좌 수가 점차 증가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주요 해외 MOOC 운영 기관인 Coursera는 약 3,708여 개의 강좌, edX의 경우 약 2,537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또 K-MOOC 강좌를 활용하는 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성인 재교육,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K-MOOC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K-MOOC 강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K-MOOC 서비스의 정착 방안 및 단계적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 및 강좌의 질 관리, 우수 강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 MOOC와 교류·협력 활성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K-MOOC 구축·운영을 위한 학습분석 방안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9).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공고. 세종: 교육부.

제3절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자율차량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겨남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지식의 생명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더 많은 기술 진보와 지식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만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세라, 유다시티, 미네르바 스쿨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새로운 교육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학습의 결과를 커리어에 활용하는 이러한 교육 행태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산업계와 교육의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방식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새로운 신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다시티의 나노디그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 새롭게 추진된 한국형 나노디그리 사업인 매치업(Match業)이 그것이다. 매치업은 신산업 분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학습자는 이를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매치업 이수증과 직무능력 인증서를 기업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목표	매치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과제	1 운영 분야 및 참여 기관 확대 · 신규 운영 분야 발굴 · 기관 모집 방법 다양화 · 핵심 직무 발굴 및 인증평가 방법 제시	2 학습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학습비 부담 경감 · 매치업 이수 및 인증 활용도 제고 - 학점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 활용 기업 발굴

[그림 III-7] 매치업 사업 개요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매치업(Match業) 운영 기본계획.

나. 추진 경과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은 2017년 7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본 과제는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모델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을 추진할 주관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선정하고, 이후 사업 명칭을 공모하여 정식 명칭으로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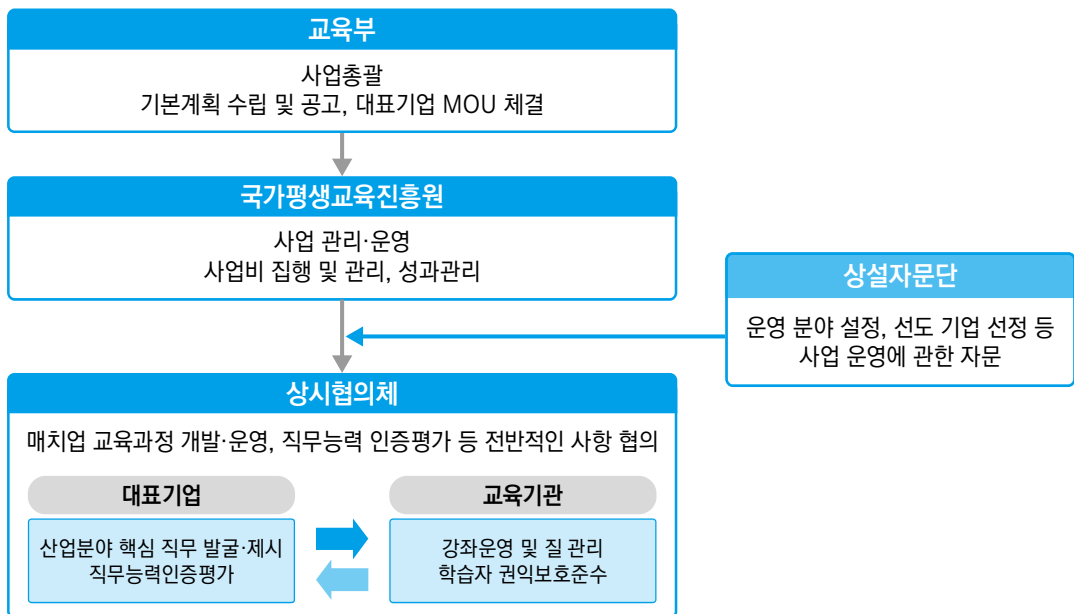
2018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3개 분야를 시작으로, 2019년 스마트팜, 신에너지차 동차, 블록체인 분야의 대표 기업과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6개 분야 24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치업의 활성화와 제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분야 발굴 및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체계

매치업은 교육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 주관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반적인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유연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기업을 선정한다. 대표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핵심 직무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직무능력을 정의하여 제시한다. 또한 대표기업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직접 평가하여 학습한 이수 결과를 인증하며, 직무능력 인증서를 발급한다. 교육기관은 대표기업이 도출한 핵심 직무와 세부직무능력을 바탕으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 개설 및 설계, 운영 방식, 인증평가 시기 및 방법, 교육훈련 연계 방식 등 각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된다.



[그림 III-8] 매치업 추진 체계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매치업(Match업) 운영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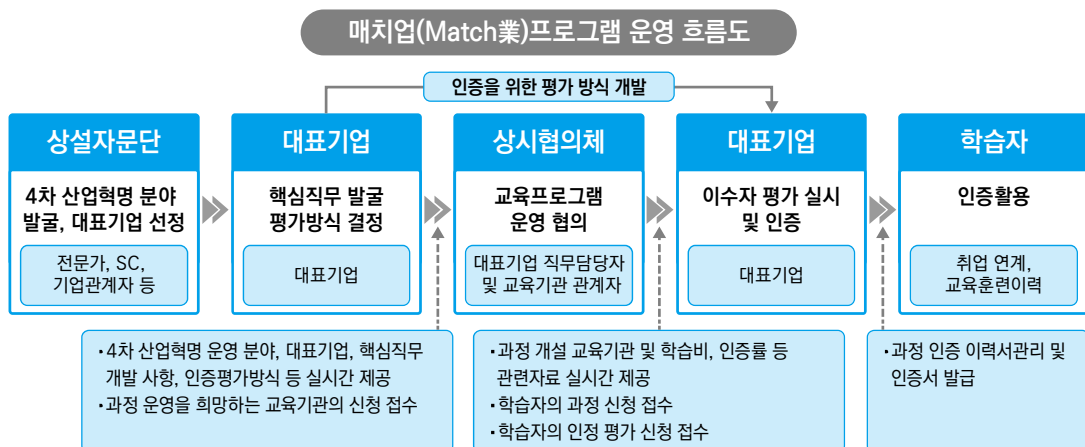
나. 운영 분야 및 참여기관 선정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분야와 이에 수반되는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 분야 전망과 필요 직무의 수준 및 내용, 교육과정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산업, 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상설자문단을 구성, 미래유망 산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다.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분야

가상현실/증강현실, 대체에너지, 드론, 로보틱스,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헬스, 사물인터넷,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엣지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정보보안, 지능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친환경 선박, 클라우드, 하이테크 섬유, 3D 프린팅,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등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은 신청 분야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정심사를 통해 2018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3개 분야에 대한 대표기업을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3개 분야에 대한 대표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대표기업은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대표기업의 핵심 직무 및 인증평가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인증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증평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림 III-9] 매치업 운영 흐름도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매치업(Match業) 운영 기본계획.

또 대표기업이 발굴한 핵심 직무와 세부직무능력 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교육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교육기관에 강좌개발비를 지원하여 강좌 일부를 무료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치업 분야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운영분야	대표기업	교육기관
 인공지능	 KT	·전남대학교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 엑셈
 빅데이터	 엑셈	·고려사이버대학교 ·코리아헤럴드 ·포항공과대학교
 스마트 물류	 하림그룹	·멀티캠퍼스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서울디지털대학교 ·중앙대학교
 스마트팜	 팜한농 LG CNS	·연암대학교
 신에너지 자동차	 HYUNDAI NGV	·현대엔지비
 블록체인	 SK 네트워크스	·한양대학교

[그림 III-10] 분야별 매치업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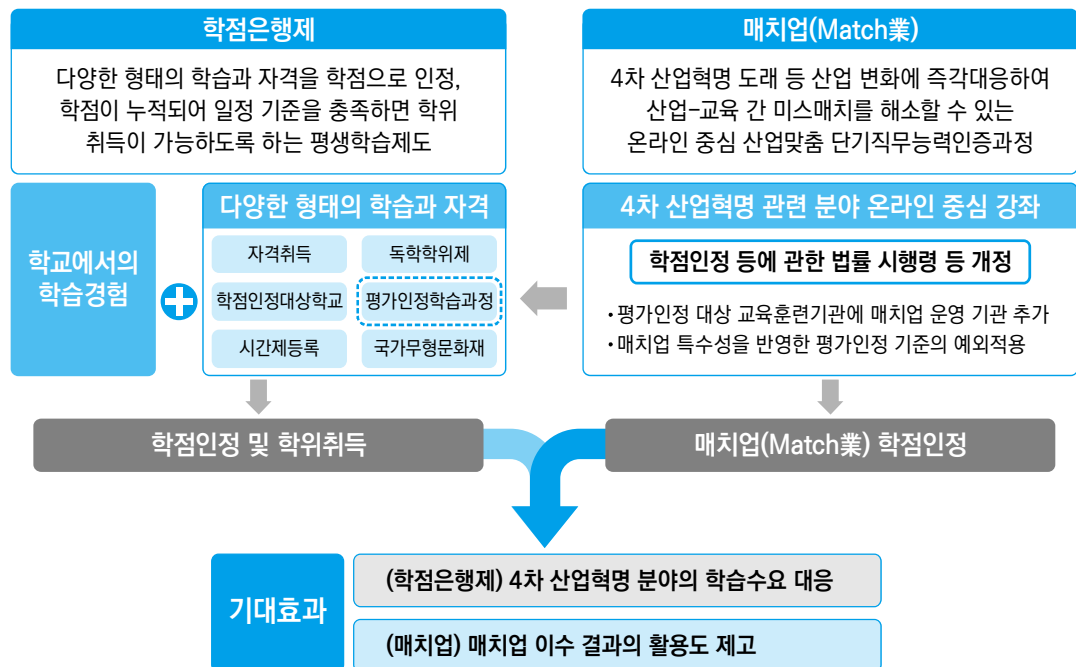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내부 자료.

다.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SNS 홍보, 브로슈어 및 동영상 제작, 유관 박람회 참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매치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성과 확산을 공유함으로써 인지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였고 매치업 이수 결과

등을 채용, 인사 및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매치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림 III-11] 매치업 학점인정 체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내부 자료.

매치업은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와 운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www.matchup.kr)을 구축하였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기관은 개강시기,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성 등 매치업 교육과정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며, 학습자는 매치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정보 검색 및 학습결과 관리, 이수증 및 직무능력인증서 발급 등 학습 편의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자의 수강신청, 이수정보 등을 취합, 관리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매치업 학습결과는 대표기업 및 활용기업에서 채용·승진 가점 부여, 교육시간 인정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활용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매치업 활용기업을 상시 발굴하는 등 이수자 및 인증서 취득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매치업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 교육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콘텐츠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만족도 및 학습자 후기를 공개함으로써 교육과정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학습자의 강좌 선택 및 학습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개발을 유도하여 매치업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려 한다. 매치업 참여 대상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참여자 동기 부여 및 매치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매치업 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사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매치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 간 상호작용 지원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매치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9). 2019년 매치업 운영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a). 매치업(Match業) 내부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b). 2019년 매치업 프로그램 운영 실행계획.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1. 개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여건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원하는 학습을 결정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기계발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 지원이 초·중·고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에 반해, 성인교육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8년에 도입되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 선택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변종임 외, 2020).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 공모를 통해 수상한 학습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며, 평소에 하고 싶었던 학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등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수강하고 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2에 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과 관련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8년 2월 20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7조의 2),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77조의 3)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바우처 운영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8년 4월 26일 평생교육바우처 운영과 세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고시 제2018-153호)을 제정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1>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신청서 서식 및 자격 증빙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규정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형태(전자적·자기적 방법) 및 평생교육이용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대한 이의 신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의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서식 규정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규정
평생교육이용권의 부정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대여 등 부정사용 금지 및 부정사용의심 사안에 대한 신고 등 규정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추진체계 및 절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정책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이용자 선정, 학습 관리, 정산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관리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는 학습자의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원, 바우처 사용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학습자의 출석 현황 및 이수 결과를 관리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2> 평생교육바우처 추진 절차

구분	실행 주체	주요 내용
신청·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인, 교육기관 담당자)	▶ 바우처 지원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 연간 교육계획 입력
신청 서류 검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 확인 등 지원 여부 검토·조사
이용자 선정·결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원 여부 확정 ▶ 선정 결과 통지(SMS, 서면, 전자우편 등)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구분	실행 주체	주요 내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이용자, 금융사	▶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의 실물 카드)에 지원 예정액 전액 지급
교육 신청 및 수강료 결제	이용자	▶ 평생교육기관 등의 강좌 선택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결제
교육 제공 및 이수 결과 입력	사용기관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바우처 사용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운영 ▶ 학습자의 출석 현황 및 이수 결과 관리·보고
사후관리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용기관	▶ 바우처 이용 안내 및 사용 독려 ▶ 교육과정 이수 현황 파악 ▶ 카드 결제 내역 모니터링 ▶ 사용기관 현장 점검
정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사	▶ 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지급 등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선정자 현황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이 신청 가능했지만, 2019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통해 총 8,127명의 신청을 받아 7,325명을 선정·지원하였다. 선정자들은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음악 등 교양까지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낮은 저소득 계층에게 바우처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기 모집·선정을 통하여 이용자의 학습 참여 기간을 최대 확보하였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를 비롯하여 수강 강좌의 재료비·교재비를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II-13>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신청 인원	5,857	8,127
지원 인원	5,361	7,32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49.6%로 2018년에 이어 바우처 선정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서울특별시	1,238	(23.1)	1,495	(20.4)
부산광역시	544	(10.1)	582	(7.9)
대구광역시	339	(6.3)	353	(4.8)
인천광역시	374	(7.0)	690	(9.4)
광주광역시	284	(5.3)	385	(5.3)
대전광역시	177	(3.3)	203	(2.8)
울산광역시	60	(1.1)	90	(1.2)
세종특별자치시	88	(1.6)	64	(0.9)
경기도	891	(16.6)	1,453	(19.8)
강원도	138	(2.6)	210	(2.9)
충청북도	94	(1.8)	94	(1.3)
충청남도	97	(1.8)	153	(2.1)
전라북도	380	(7.1)	562	(7.7)
전라남도	239	(4.5)	271	(3.7)
경상북도	152	(2.8)	215	(2.9)
경상남도	218	(4.1)	440	(6.0)
제주특별자치도	48	(0.9)	65	(0.9)
계	5,361	(100.0)	7,325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다. 사용기관 현황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 정의 중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정하였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직업학원, 사회복지관 등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까지 사용기관 등록을 확대 추진하면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증진하였다. 2019년 현재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전국 1,178개 기관이다. 이는 2018년 610개 기관에서 93.1% 증가된 것이다.

〈표 III-15〉 지역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현황

(2020. 2. 29. 기준 / 단위: 개,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관 수	277	91	71	47	97	20	10	9	242	38	27	19	42	22	39	114	13	1,178
비율	23.5	7.7	6.0	4.0	8.2	1.7	0.9	0.8	20.5	3.2	2.3	1.6	3.6	1.9	3.3	9.7	1.1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내부 자료.

라. 홍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간에 지원 대상자 및 대국민 인지도를 빠르게 상승시켰다. 즉 평생교육바우처 이해관계자인 사용자와 평생교육기관,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 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사용자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에게는 홍보자료 배포, 복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한 주민자치센터·반사회 홍보자료 배포, 안내문자 송부, 사업관련 매뉴얼 및 안내자료 배포를 통하여 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유도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지하철 광고, TV·라디오 홍보, SNS 홍보, 복지 정보 서비스 관련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 성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 등 이미 구축된 평생교육체제를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제·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 유관 사업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학습욕구 충족, 자기개발, 취학 및 취업 관련 활용 사례를 수집하

여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3. 향후 과제

2년간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한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운영 개선이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기관의 개강 시점에 맞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사용기관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학습 편의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참여 및 학습과정 달성도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단계에서 사용 현황 및 교육 의지에 따른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확대이다. 2019년 1,178개의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였지만, 대다수의 사용기관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농산어촌 등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이용자들이 평생교육바우처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사용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및 예산 확대 방안이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용기관의 현황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학습과정 중에 중도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바우처의 예산 확대이다.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는 전년 대비 38.9%가 증가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지원 규모인 5,000여 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0.17%에 불과하다. 평생교육 참여 격차 해소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또한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고 이용자들에게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8).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변종임 외(2020). 평생교육바우처 성과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5절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 개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은 분산된 평생교육 정보와 교육 자료를 하나의 집약적인 네트워킹 체제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고도화된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이다. 늘배움의 출발점은 모든 제약과 장애를 뛰어넘는('beyond'),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와 첨단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와 비형식·무형식 학습의 가치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자원 활용 및 학습 모빌리티 강화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및 학습권 제고 등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당위적 귀결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은 교육자원 공유와 지역학습공동체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발맞추어 지역평생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체제 정립과 더불어 지역평생교육정보와 교육 자료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을 통한 교육평등 실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시적 거리에 들어왔다. 1999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0년에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고, 16개 시도에 23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정되면서 지역교육기관의 운영정보 관리를 위한 평생교육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다. 뒤이어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운영 체계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시도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정보화 시도 단위 실행기구가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으로서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이 명문화되었다. 이후 2011년에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과제인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밀착형 평생교육 학습 및 정보 서비스(현재 늘배움의 우리 동네 기관 및 강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3년에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그 실천 계획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2013)’이 수립되면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제 구축 방안⁴²⁾’(2014)은 늘배움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조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늘배움 서비스가 모바일 앱 서비스⁴³⁾와 함께 제공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 연계를 완료하여, 2019년 현재 지역평생학습정보(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49만여 건을 국가평생학습망으로 포섭함으로써 100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제약과 장애를 뛰어넘는(‘beyond’) 대국민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의 모습이 다져졌다. 또한 2016년에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자 알림, 팝업 알림, 월간 소식지 등에 대한 알람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위치 기반 평생교육기관 정보 안내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2018년부터는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관련 정책 정보, 학술정보 및 평생교육 통계자료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지원서비스 스펙트럼을 확대하였다.

한편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습플랫폼과의 관계 설정은 주요한 논점이 되었으며, 제약과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역시 ‘네트워킹’이 관건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공개학습 동영상 연계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킹하여 2019년에는 48개 기관, 40여만 건의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늘배움의 출발점이었던 ‘beyond’에 대한 노력은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⁴⁴⁾와의 통합회원 서비스를 통해 ‘평생교육 ONE-ID’를 도입하면서 다시 한번 큰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이를 통해 학습정보 검색, 학습수강 및 이력관리, 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가 ONE-STOP으로 제공되어 늘배움 활용도와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될 평생학습포털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2) 특히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제(2014, p. 144)의 세부 목적에 따르면,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시도 및 유관기관에서 생성하는 강좌, 강사,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유통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물론 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학습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의 연계는 늘배움 서비스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3) 처음 서비스 실행 일자 기준으로 설정함.

44) 평생학습계좌제(www.all.go.kr)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표 III-16> 늘배움 주요 추진 경과

2014. 12.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시범 개통,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4개 과정, 30개 차시 개발 ※ 11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등 20개 기관, 31만 강좌 제공
2015. 12.	• 콘텐츠 질 관리 및 서비스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 (강좌) 조회수, 수강평 / (가입자) 유형별, 계좌제 연계 / (콘텐츠) 분류별, 기간별, 제공 기관별, 시도별, 일간 이용 현황 ※ 14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등 34개 기관, 45만 개 강좌 제공
2016. 12.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알람 시스템* 구축 * (문자 알람) 문의, 이벤트, 주요 공지, 신규 콘텐츠 제공 (팝업 알람) 공지사항, 이벤트 / (월간소식지) 뉴스, 인기강좌, 테마강좌, 신규강좌 ※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등 45개 기관, 59만 강좌 제공
2017. 12.	• 근거리 평생교육기관 정보 검색을 위한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 선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57개 기관, 68만 개 강좌 제공
2018. 12.	• 평생교육 학술정보, 통계정보 등 신규 콘텐츠 유형 발굴·구축 *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문조사 결과, 2018.3) 평생교육통계, 평생교육학술정보, 지역 행사 및 공모사업 정보 요청 ※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68개 기관, 83만 개 강좌 제공
2019. 12.	• 평생교육 ONE-ID 통합회원 시스템 구축 및 평생교육정보 정합성 강화 ※ 본인인증확인 정책 도입(휴대전화번호, 아이핀)을 통한 이수 관리,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늘배움) ※ 평생교육정보 자동 수집 솔루션(웹크롤러) 구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2020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 실행계획.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주요 현황

1) 추진체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교육부에서 사업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국가평생교육원은 사업을 위탁받아 주관·시행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평생교육 동영상 강좌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국내외 온라인 콘텐츠와 전국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및 59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특히 2019년 늘배움은 평생학습계좌제와의 단순 연계방식(간편회원의 경우)에 더해서 평생학습계좌제-늘배움 통합회원(ONE-ID) 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림 III-12]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운영 추진체계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 실행계획(변경).

2) 주요 기능 및 현황

늘배움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 정보검색, 온라인 학습, 학습이력 관리로 분류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배움의 고유 기능이자 강점은 평생학습 정보 검색과 온라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 정보는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학술·정책·통계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ON 배움터’와 ‘우리동네 배움터’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특히 우리동네 배움터를 통한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검색을 위치 기반 서비스로 제공하여 학습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온라인 학습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늘배움이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원본 형태 또는 URL연계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은 늘배움에서 개발한 강좌와 자체적으로 강좌를 개발하였으나,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별도로 구축되지 못한 기관이나 단체의 온라인 강좌, 그리고 이미 개발된 온라인 강좌를 URL로 연계하여 강좌 이용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늘배움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평생학습 정보검색 및 온라인 학습 기능 외에 늘배움은 평생학습계좌제와 통합회원 구축을 통해 기존의 단순한 학습이력 관리기능(학습이력담기, 관심강좌 등록, 학습설정 등)을 평생학습계좌제의 고유한 기능인 ‘학습이력 관리, 학습진단·설계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늘배움의 확장된 기능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늘배움’에서 평생학습계좌제의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평생학습계좌제와의 통합회원 서비스의 일환)이 구현되면서 평생교육정보 검색, 학습 수강,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학습진단·설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등의 일련의 평생교육서비스가 ONE-STOP 체제로 구현·확장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 주었다.

늘배움의 주요 현황은 크게 연계 기관 수, 방문자 수, 회원가입자 수, 콘텐츠 제공 수(온오프라인/학술 등), 페이지 뷰 수, 강좌 조회 수, 학습이력담기 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계 기관 수는 늘배움에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한 기관으로, 기관 간 MOU 체결을 맺거나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콘텐츠 단순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관의 수를 말한다. 2019년 누적 연계 기관 수는 총 76개로, 공공기관 35개, 학술기관 2개, 민간기관 11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 8개, 해외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정보 연계 기관 현황은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평생교육정보 연계 기관 현황

연도 (누적 연계 기관 수)	기관명
2014년 (20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부지원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YouTube, TedED, 11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2015년 (34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 한국조폐공사, (주)지에듀컴, (주)휴넷, 현대경제연구원, 스마트교육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14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2016년 (4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립재활원, 국립국어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랜드프로, 인프런,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2017년 (57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검스타트,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ECK교육
2018년 (68개)	국민권익위원회, 통일교육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한국MBTI연구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애니컴(삼성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한국U러닝연합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2019년 (76개)	금융감독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국악원, 한국생산성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사발전재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앞서 개요에서 언급하였듯이, 늘배움에서 제공하는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및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강좌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한 구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2014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를 시작으로 2015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등 3개 지역과 연계되면서 마침내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가 완료되었다.

최근 5년간 늘배움 주요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8> 늘배움 주요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문자 수	107,705	60,667	76,092	175,578	188,308
회원가입자 수	3,256	2,109	2,510	5,316	12,563
콘텐츠 제공 수	453,978	598,411	689,586	837,563	897,249
페이지 뷰 수	473,090	549,118	585,760	1,154,046	1,449,148
강좌 조회 수	92,688	85,788	126,630	268,065	223,061
학습이력담기 수 ¹⁾	1,112	2,506	5,955	6,597	39,82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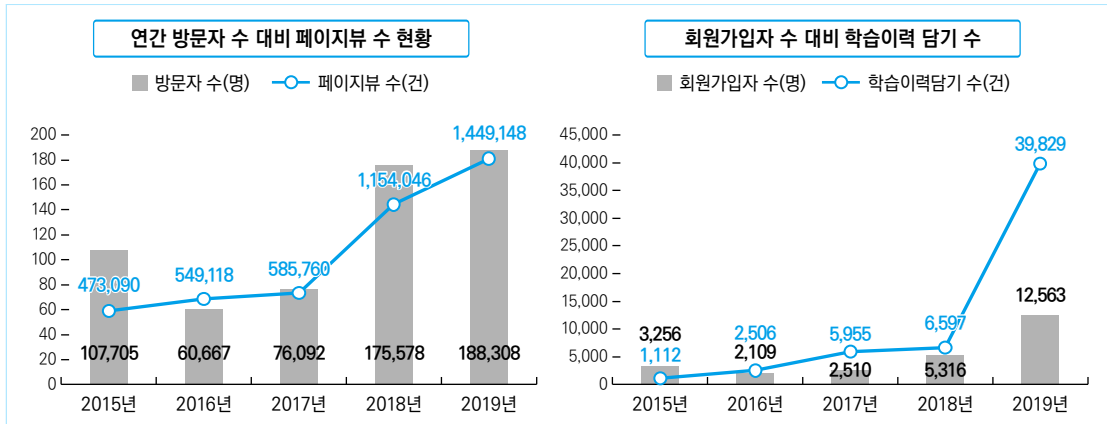
주1) 학습이력담기 수는 차시 기준임.

먼저, 방문자 수와 관련해서는 늘배움은 로그인 없이도 다양한 학습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학습이력 관리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지될 필요가 있다. 늘배움의 방문자 수는 2018년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188,308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12,730건) 상승하였으나, 회원가입자 수는 2019년 12,563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하였다.

콘텐츠 제공 수도 2018년 부터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897,249건으로 전년 대비 1.07배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세부 유형별(연계 기관이나 늘배움이 제공하는 콘텐츠) 누적 집계 수로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기관 정보 33,441건, 오프라인 강좌 정보 461,071건, 온라인 강좌 정보 399,383건, 학술 정보 726건, 통계 정보 2,628건 등으로 나타났다.

페이지 뷰 수는 매 화면 전환(클릭) 수(동영상은 차시별 클릭 포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 부터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늘배움의 페이지 뷰 수는 총 1,449,148건으로 전년 대비 1.25배 이상 상승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강좌 조회 수는 2019년 223,061건으로 전년 대비 약 0.17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부터 20만 건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보이고 있다. 학습이력담기 수는 동영상 강좌 이수 후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여 학습이력담기를 한 수를 의미하여, 2019년에는 39,829건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배움 주요 현황 중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 수/(로그인이 필요한) 회원가입자 수와 학습이력담기 수를 <그림 III-13>에서 비교해 살펴보면, 해마다 방문자 수 대비 페이지 뷰 수, 회원가입자 수 대비 학습이력담기 수가 상승하고 있어 국민 평생학습 도구로서의 늘배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3] 늘배움 주요 이용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나. 운영 성과

2019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운영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계좌제와 통합회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평생교육 ONE-ID 기반을 구축하였다. 평생교육 ONE-ID 기반 구축은 향후 평생교육 분야에 가져올 확장성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서비스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늘배움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기타 교육정보 검색 및 동영상 무료 제공 사이트와의 비차별성 등의 문제가 평생교육 ONE-ID 연계 사이트(평생학습계좌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일부 보완됨에 따라, 늘배움의 강좌검색 및 동영상 학습에 더해, 단순 학습이력담기 수준의 학습이력관리를 뛰어넘는 체계적인 학습이력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진단·설계 서비스를 통해 개인특성별(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분석 및 추천 강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우선 늘배움의 핵심 기능인 검색 기능 고도화를 위해 검색어 자동화 및 인기 검색어 등을 노출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통합회원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계좌제의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및 늘배움 내 '바로' 출력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 및 반응형 웹페이지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늘배움 모바일 웹/앱에서도 '우리동네 기관' 검색을 위한 '위치기반 중심 기능'을 제공하였고, 알림 기능을 구축하여 신규 강좌, 공지사항 등을 등록하였을 때 앱으로 알림이 가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2016년 늘배움 망에 연계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 망은 저장 및 전송 표준에 기반하여 평생교육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왔으나, 관할 시군구와 지역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사용 환경(홈페이지 URL 변경, 사이트 시스템 변경, 개발자 부재 등) 및 정보 의존성(개설, 폐강 등 기관 직접 입력 방식 등) 등으로 인해 시도 담당자가 연계 오류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는 그대로 늘배움의 연계 오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문제가 발생된 3개(울산, 강원, 경북) 시도를 대상으로 자동수집 솔루션(웹크롤러)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 적용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강좌 정보의 오류를 상당 부분 바로잡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콘텐츠 확대·연계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평생교육 콘텐츠의 공공 활용이 강화됨에 따라 콘텐츠 연계 기관 수 및 제공 수, 학습이력담기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28개)의 무료 제공 및 이수증명서 발급(전년 대비 2.7배 상승)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늘배움의 활용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도 콘텐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20-30대) 대상의 이용 확대를 위한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관련 강좌를 3천여 개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만족도 결과(2018년 72.4점 → 2019년 79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였다. 메인 홈페이지에 동영상 학습 수강 소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응원 릴레이)을 만들어 간접 학습 및 상호 학습 경로를 구축하였다. 또한 늘배움의 주요 기능인 검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족/불만족)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검색 기능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늘배움 이용자 대상 인지도(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고객 만족을 위한 다채널(1:1 원격 솔루션, 1:1 문의게시판 등) 민원 창구(2018년 99건 → 2019년 543건)를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에 만전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원과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늘배움의 새로운 역할기대가 창출되었다. 먼저 늘배움은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굿콘텐츠서비스인증’ 기관 대상 홍보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홍보 배너 제작 및 키워드 노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늘배움 관련 ‘키워드 및 배너’를 통한 클릭 수는 총 125,593건,

‘모바일 웹’을 통한 늘배움 사용자 수는 총 66,573명으로 집계되면서 홍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자체 온라인 홍보의 경우 늘배움 공식 블로그 운영 및 개편(2019. 10.) 등을 통한 블로그 방문 및 조회 수가 작년 대비 200배 이상 늘어나면서 온라인 홍보가 빛을 발했다. 이 외에도 업무협약(MOU) 기관(노사발전재단,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유관 박람회 개최 시 상호 홍보, 각종 행사(기관 교육담당자 교육 등) 등에서 늘배움 안내 등을 강화하여 업무협약(MOU)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자의 저변 확대 홍보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협업 기관들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등도 잇따르고 있어 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자원이 지역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늘배움의 새로운 역할기대가 창출되었고, 관련 기관(제도/사업) 간의 브릿지 역할도 수행하게 되면서 늘배움의 역할이 더욱 다채로워진 한 해였다.

3. 향후 과제

향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에서 지속되어야 할, 늘배움이 추구하는 ‘beyond’를 향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의 제공 및 연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품질보증에 보다 힘써야 한다. 즉 기관별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편으로는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현황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질 관리와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자료를 시도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Open API와 웹크롤러 등 다양한 수집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자원 공유방법을 극대화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아우르면서도 지역을 뛰어넘어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늘배움과 평생학습계좌제의 통합회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통합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도털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늘배움의 강점인 평생학습 정보 검색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은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진단·설계와 연계되어 평생학습도털케어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각 유관 기관(제도)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정보 및 학습지원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회원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간편 또는 일반회원 가입보다는 통합회원 가입으로 그 통로를 일원화해야 하고, 평생교육 ONE-ID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사회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2019년 늘배움 이용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정 의무교육 강좌 제공 및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이라는 수요 예측 서비스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는 늘배움의 향후 발전 방향이 이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과 다양한 온라인 학습 유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온라인 학습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평생학습포털로서의 늘배움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늘배움의 서비스는 ‘누구나’를 지향하고 있지만,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수어 및 자막 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지원뿐만 아니라 늘배움에서 향후 제공되는 강좌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업무협약(MOU)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국민 평생학습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관 간 상호 홍보를 다양화(브로슈어, 온라인 홍보, 설명회 등 공동 홍보)하고, 학습콘텐츠 무료 제공 기관의 공개 자원 제공에 대한 신청이나 홍보 경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여 늘배움에게로 향해 있는 새로운 역할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업 활동(공동 포럼 및 행사, 온라인/인쇄 매체 공동 홍보, 소속 기관 홍보 등) 등을 모색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2018 교육정보화백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 실행계획.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늘배움 홈페이지. www.lifelongedu.go.kr

제6절

소결



제1장은 ‘제3부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활동’ 중 한국의 평생학습 지원 체제, 즉 평생학습계좌제, K-MOOC, 매치업,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다루었다. 제1장에서 다룬 평생학습 지원 체제 중 평생학습계좌제는 2009년에 시작되어 평생학습 이력 관리, 평생학습 진단 및 상담, 평생학습프로그램 인증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9년부터는 평생학습 지원 체제 중 ‘늘배움’ 서비스와 통합회원제도를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ONE-STOP 서비스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K-MOOC와 매치업은 온라인과 기업이라는 새로운 학습 영역과 대상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K-MOOC는 대학을 중심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강좌를 공급하고, 2019년에는 3만 명 이상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매치업은 기업과 교육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전문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과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역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학습비 지원을 통한 학습참여 제고가 목적이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하여 2018년에는 5,000 여명, 2019년에는 7,000 여명이 학습비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학습자는 학습비를 활용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을 수강하거나 문화, 예술, 여가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다양하고 분산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에 학습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보뿐 아니라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까지 약 50만 건의 학습정보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공하여 평생학습 정보 및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종합포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로서 평생학습계좌제, K-MOOC, 매치업, 평생교육바우처 그리고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최근 10년 이내에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평생학습 정보, 프로그램, 비용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이었다. 가장 오래된 평생학습계좌제뿐만 아니라 불과 2년 정

도 운영된 매치업과 평생교육바우처도 해마다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고 학습자의 참여도 증가하였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는 학습자가 평생학습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자원과 방법을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정책과 사업이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는 학습정보 제공, 학습 요구 분석, 학습비 지원,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습결과 관리의 평생학습 과정과 단계를 포함하여 지원 체제가 구성되었다. 학습정보 제공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과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학습 요구 분석은 학습계좌제를 통하여 상담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고, 학습비 지원은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의 학습비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과 K-MOOC을 통한 무료 강좌 제공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다. 학습 프로그램 제공은 5개의 평생학습 지원 체제 중 K-MOOC, 매치업,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전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전 국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학습 이력 관리와 지속적 학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학습관리 및 학습결과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학습정보 제공, 학습 요구 분석, 학습비 지원,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습결과 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개인 수준의 평생학습 참여와 관리를 위한 핵심적 체제가 평생학습 지원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지원 체제는 학습자 개개인과 접촉면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학습의 중요 체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평생학습 지원 체제는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나 체제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규모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대상이나 체제의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에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중장기 발전과 사회 요구 반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향후 방향으로는 평생학습 지원 규모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확장이 있다.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기본이 평생학습 공급망 체제라는 점에서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일부 공공기관의 지원 체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늘배움’, K-MOOC, 매치업, 평생학습계좌제 등은 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급받거나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향후에는 민간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정보, 프로그램, 학습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발전시키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미 평생교육바우처나 ‘늘 배움’ 평생학습정보포털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에 노출되는 소외계층 규모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에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는 기존의 소외계층을 확대하는 방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으로도 확대되거나 세분화된 평생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비문해자, 저학력자, 다문화배경 국민 및 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처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19의 확산은 학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온라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0년 대부분의 대학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개발·운영되었고, 이 교육과정을 평생학습 지원 체제에 담아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평생학습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50시간 근무제에 따른 주말 집중형 학습 프로그램 수요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한 가정 내 학습 증가, 6분에서 12분 등 유튜브 형태의 학습 수요 증가, 유튜브 교육자 또는 청소년 교육자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학습동아리나 SNS 등을 활용한 소규모 집단 학습 수요 증가, 네트워크 학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학습계좌제 수요 발생 등과 같이 평생학습 지원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변화는 이미 존재하거나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유연화하고 혁신적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제2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1. 개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이하 '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우수 사례 공유와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하여 2012년 제1회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6년 제5회 경상남도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매해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에 보다 내실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박람회의 운영 방식을 격년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모이는 박람회는 2020년에 개최하고, 1년 차인 2019년은 준비 기간으로 활용(추진 체제 구성, 프로그램 기획, 차기 개최 지자체 선정 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은 제7회 박람회를 준비하는 한 해로, '2020년 공동주관 기관 선정 공고 및 심사'를 통하여 순천시를 차기 개최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 평생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충북(옥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고양), 울산광역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을 운영하였다.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된 평생교육 통합 콘퍼런스인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이 2019년에도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7개 지자체), 차기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순천시)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를 증진하고 학습자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현황

1) 2020년 공동주관 기관 선정

2019년은 제7회 박람회 준비하는 한 해로서 박람회의 공동주관 기관을 선정하였다. 공동주관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순천시가 2018년에 이은 재도전 끝에 차기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역대 박람회 공동주관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의 운영 방식, 격년 개최로의 변경 등은 교육부 기본 계획 단계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기본 계획이 결정되면 세부 사업 내용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립하고, 교육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된다.

2단계는 교육부의 공동주관 기관 선정 공모이다. 선정 공모는 교육부 공고를 통하여 추진되며 일반적으로 3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된다.

3단계는 선정 심사 계획 수립 및 선정 심사이다. 선정 심사 계획은 심사의 기본 방향 설정, 운영 체계 및 평가 절차 마련, 평가 내용 및 방법 설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립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위원 상피제를 도입하고, 기피·제척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1차 서면 심사, 2차 면접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프로그램, 추진 체계 및 전략, 휴먼웨어 및 서비스 3개 평가 항목과, 14개 세부 지표를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최종 선정된 공동주관 기관을 발표한다.

2) 2019년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 운영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발표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이하 ‘정책관’)을 기획·운영하였다. 참여 행사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지역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하는데, 정책관 설치 지역은 시도박람회(축제) 중 운영 장소(정책관 설치가 가능한 개최지 등),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19년에는 충청북도(옥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고양), 울산광역시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책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정책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주민 학습서비스 플랫폼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추진 기구 현황,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배움을 위한 제2의 학습 기회 제공으로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방송중고 개념도 및 주요 통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적 경제 학습체제로 자발적 학습모임 개념, 사회적 경제의 개념, 국내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표방한 ‘매치業’ 사업 소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내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부대 행사로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및 제도 안내,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표 III-19〉 2019년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 운영 현황

지역	운영 일정	장소	연계 행사명	주최/주관
충북	7. 26.~27.	옥천체육관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옥천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세종	10. 12.~13.	세종컨벤션센터	제3회 평생학습 나눔한마당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평생교육진흥원
경기	10. 23.~26.	일산킨텍스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육개발원 등
울산	10. 26.~27.	울산대공원	제7회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울산광역시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3)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2019년 10월 개최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은 개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분야의 성과를 종합하는 통합 콘퍼런스이다. 2019년 평생학습대전은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2019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증서 및 동판 수여식,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선포식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였다. 개막 행사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을 빛낸 평생교육인들의 이야기를 엮은 동영상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공식 행사는 평생학습대상 시상, 신규 도시 증서 및 동판 수여, 제7회 박람회 개최지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20〉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행사명 및 슬로건	• 행사명: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大展) • 슬로건: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14일(월) 13:30~15:30 • 양재aT센터 그랜드홀(5층)
주최 및 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요 내용	• 시각장애인 하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 오프닝 영상 '삶이 빛나는 사람들' •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 •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4) 전국 단위 박람회 사업 추진

박람회는 다음의 5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사무국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주관 기관과의 실무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2단계는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단계이다. 전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전국 평생학습도시, 전국 평생학습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안내를 실시하고,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단계는 전시 프로그램 및 행사의 주제 적합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는 운영 매뉴얼 수립 단계이다. 박람회 개막식 운영 계획 및 행사 전반의 행정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기관(단체)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행사장 구성 및 배치를 확정하고 홍보 계획과 참여 기관(단체)의 지원 물품, 필요 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한다. 이 단계는 박람회 실행 전 마지막 단계로서, 종합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교통 및 숙박 등의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4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사무국 중심으로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행사장을 구성하고 종합 행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현장 상황실에서는 전시·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지원과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종합 안내, 전시장과 행사장

내 시설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며, 교통, 숙박, 식당 등을 관리·운영한다. 박람회 기간에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점검 및 평가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한다.

5단계는 박람회 평가 및 정리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박람회의 발전 방안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는 기관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박람회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단계에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박람회 성과 및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를 실시한다. 결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운영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박람회는 마무리된다.

박람회의 추진 조직은 교육부, 조직 운영의 대표 조직인 운영위원회, 실행 계획 수립 등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국, 유관 기관(단체)로 구성된 후원기관으로 구분되며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III-21〉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교육부	• 기본 계획 수립 • 중앙 단위 홍보 지원 및 박람회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시도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 박람회 참가 협조
운영위원회	• 박람회 조직 운영의 대표 조직으로서 대외 명칭 사용 • 박람회 참여 유관 기관 및 협력 단체 공조 체제 구축 • 박람회 운영 총괄, 사무국 운영 지도·감독 • 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예산 심의·의결 • 박람회 운영 규정, 사무관리 규정, 재무회계 규정 등 심의·의결
사무국	• 박람회 기획·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 • 홍보, 의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 및 인력 지원 • 민간 자문기구 운영, 자원봉사 등 인력 채용·관리, 홍보 등 • 행사 관련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박람회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박람회 결과 보고 •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참여 협조 • 광역·시도 및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등 업무 협조 • 차기 개최지 선정 및 홍보 등
후원기관	• 회원, 회원 기관 및 단체 참여 촉진, 박람회 개최 홍보 지원 등

출처: 교육부(2019).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박람회 추진 절차를 월별로 살펴보면 3~4월(1단계)에는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2단계)에는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립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6월(3단계)에는 홍보 체험관 운영 계획과 참가 신청을 확정하고, 7~8월(4단계)에는 자원봉사 계획 및 설명회 개최,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확정하였다. 9~10월(5단계)에는 세부 실행 계획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11~12월(6단계)에는 결산 및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나. 운영 성과

1) 2019년 주요 성과

2019년은 제7회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해로, 공동주관 기관인 ‘순천시’를 조기 선정하여 내실 있는 박람회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다. 준비의 해 도입에 따라 1차 운영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였고, 박람회 장소 및 예산 확보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준비 기간에는 박람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역 평생교육 추진 체제와 연동한 ‘찾아가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정책관’을 운영하였고, 이는 국정과제 및 국가 평생교육 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전년도보다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 충북, 세종, 경기, 울산 등 4개 지역과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일산 킨텍스)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제관을 설치하고, 고양 및 서울 지역의 9개 평생학습동아리의 지원을 받아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 체험관을 설치·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III-22> 2019년 평생학습박람회 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
2020년 박람회 개최 준비	2020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선정 ⇒ 순천시(생태문화교육원 및 국가정원 일대) - 추진 체제 구성 및 운영(운영위원회), 슬로건 및 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실무 워크숍 운영
2019년 박람회 공동 운영	- 시도 평생학습박람회(축제) 통합 관리 체제 도입: 공동 홍보, 성과 분석, 인근 시도 및 시군구 참여 등 -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및 국가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슬로건 및 주제 선정, 패널 등 설치 디자인 등 → 4개 권역 박람회 참여 ※ (2017년) 3개 권역 → (2019년) 4개 권역
2019년 평생학습대전 개최	평생학습대전 개최(평생교육 통합 콘퍼런스) → 평생학습대상 시상식(20점 수여), 신규 평생학습 동판 수여식(7개 지자체) 등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2) 최근 5년 박람회 주요 성과

박람회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소함에 따라 제4회(2015년)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앙부처 중심의 박람회’로 운영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연계를 통하여 제5회(2016년) 박람회는 거창스포츠파크 등 거창군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제6회(2018년) 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5년간 박람회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구분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
제4회 박람회 (2015)	- 주제: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 - 기간: 2015. 9. 4.(금)~9. 6.(일) <3일간> - 장소: 서울시 코엑스 C HALL - 주최/주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 도시: 서울특별시(참여 기관 242개) - 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
제5회 박람회 (2016)	- 주제: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 - 기간: 2016. 9. 22.(목)~9. 25.(일) <4일간> - 장소: 거창스포츠파크 등 경남 거창군 일원 - 주최/주관: 교육부/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거창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 도시: 거창군(참여 기관 300개) - 후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국립현대미술관, 17개 시도,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거창군의회, 거창교육지원청
제6회 박람회 (2018)	- 주제: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 - 기간: 2018. 10. 25.(목)~10. 27.(토) <3일간> - 장소: 부산 벡스코(2, 3홀) 및 5개 외부 박람회장 - 주최/주관: 교육부/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최 도시: 부산광역시(참여 기관 181개) - 후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17개 시도,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시의회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016, 2018).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3. 향후 과제

축제에서 박람회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예산 축소 및 외부 환경의 변화, 개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에 따라 제6회 박람회부터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지역(지자체) 참여 제고를 위해 2년 주기(격년제)로 개최 방향을 변경하고 지역축제 수준의 행사에서

벗어나 중앙 정부 차원의 평생학습 통합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상황에서 박람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박람회를 평생학습 통합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박람회 기획과 프로그램이 우수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에서 나아가 기업체, 언론사, 국제기구 등과의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양한 참여 주체와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여 평생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박람회 본연의 취지가 살아나고 진정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행사 기간에 박람회 본연의 프로그램과 학습 테마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경제적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람회가 단순히 전국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영향을 주고 산업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개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거듭나야 한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2019).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1. 개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이하 ‘평생학습대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지속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04년에 열린 제1회 평생학습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한국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교육부가 평생학습대상을 주최하면서 평생학습 분야의 유일한 정부 시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13년 국무총리상 승격에 따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 지침 및 시상 부문을 조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기관 차원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기관 추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주요 연혁

- (2004년) ‘평생학습대상’ 출범, 제1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
- (2005년~2011년) 학습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학습자, 교육자, 기관 등 시상 부문을 확대하여 개최(제2~8회)
* 개인(학습자/교육자), 학습동아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 6~7개 부분
- (2012년) 파급력 있는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개인, 기관·단체, 공공’ 3개 분야로 시상 부문을 조정하여 개최
- (2013년) 국무총리상 승격에 따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지침 제정 및 시상 부문 조정
- (2015년) 적극적인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기관 추천제 도입·시행
-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개최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목적은 개인학습자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 및 영역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포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학습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는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 및 평생학습대전과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국가 단위 평생학습문화 촉진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현황

1)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개요

2019년 제16회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관련 평생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였다.

〈표 III-24〉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현황(2016~201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최/주관	• (주최) 교육부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 (주최) 교육부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 (주최) 교육부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 (주최) 교육부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시상 부문 (개인/사업)	• 시상 규모: 11점 ※ 접수 : 141점	• 시상 규모: 19점 ※ 접수 : 170점	• 시상 규모: 21점 ※ 접수 : 148점	• 시상 규모: 20점 ※ 접수 : 102점
후원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장학재단 • KT희망나눔재단 •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평생교육학회
시상 내역	• 대상(국무총리상) 1점 •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점, 사업 부문 3점 • 장려상(주관기관장상) 4점 • 특별상(교문위원장상) 1점	• 대상(국무총리상) 1점 •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점, 사업 부문 3점 • 장려상(주관기관장상) 3점 • 특별상(교문위원장상 등) 9점	• 대상(국무총리상) 1점 •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점, 사업 부문 3점 • 장려상(주관기관장상) 3점 • 특별상(교문위원장상 등) 12점	• 대상(국무총리상) 1점 • 우수상(장관상) 개인 부문 2점, 사업 부문 3점 • 장려상(주관기관장상) 3점 • 특별상(교육위원장상 등) 11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각 추진 체제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최 기관인 교육부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공동주관 기관인 중앙일보에는 기획기사 보도 등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후원기관에서는 특별상 시상 및 관계자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2019년 제16회 평생학습대상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지침(2015. 5. 21.)」에 따라 사업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최고 의결 기구인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선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선정위원회를 위촉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업, 문화,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로 총 7인이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대상선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대상선정위원회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2)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경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지속적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보여 준 개인학습자 또는 교육현장에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성공적으로 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인교육자 및 평생학습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다. 접수 결과, 개인 부문 63건, 사업 부문 39건으로 총 102건이 접수되었다.

<표 III-25> 개인 부문 접수 현황(연령별)

(단위: 건,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신청 수	2	5	19	17	15	4	1	63
비율	3.2	7.9	30.2	26.9	23.8	6.4	1.6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표 III-26> 사업 부문 접수 현황(유형별)

(단위: 건, %)

구분	지자체	공공	교육청	대학교	학교 (초·중·고)	동아리	민간	계
신청 수	18	9	1	6	2	1	2	39
비율	46.2	23.0	2.6	15.4	5.1	2.6	5.1	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019년에는 평생학습대상과 관련된 포스터(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 접수는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평생학습계좌제의 평생학습 이력철 또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개인 수기를, 사업 부문의 경우 공적 요약과 프로젝트 성과 및 활동 사례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와 함께 제출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접수 서류 및 증빙서류(포트폴리오 등)를 기초로 평가지표와 평가 편람에 의한 서면 평가를 통하여 수상 규모의 2배수 내외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27>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 지표

구분		평가 내용
개인 부문	①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新지식에 대한 습득 노력과 학습활동의 지속 정도
	② 자기 계발 및 혁신	경험과 학습을 위한 도전과 노력, 성장 정도
	③ 사회 공헌	학습결과와 활용 및 사회적 공헌 정도
	④ 타인과의 긍정적 영향	해당 사례의 사회적 파급효과 정도
사업 부문	① 사업 목적 및 비전	사업 목적과 비전 설정의 적절성
	② 사업 내용	사업 운영의 공공성, 시행 방법의 효과성
	③ 사회 공헌	학습결과 활용 및 사회 공헌 우수성
	④ 성과 및 가치 창출	사업 성과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창출

출처: 교육부(2019).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선발 공고(제 2019-164호).

2차 심사는 면담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 확인 및 평생교육에의 의지, 성과 등에 대한 확인, 진정성 등을 평가하였다.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수상자를 의결 선정하였으며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대상(국무총리상) 1점, 우수상(교육부장관상) 5점 등 총 20점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였다. 부문별 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8>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부문별 수상 현황(2019)

(단위: 점)

구분	훈격	시상규모	수상자	기관
대상	국무총리상	1	은평시민대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우수상	교육부장관상	2 (개인)	성○○	-
			정○○	-
		3 (사업)	자공공(自共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젝트	충주시 평생학습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경상북도 포항시청
장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2	지역기반 학습거버넌스 : 시흥형 평생학습네트워크	경기도 시흥시청
			탈북학습자 생활정착지원 및 평생학습역량 강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앙일보사장상	1(개인)	이○○	-
	국회교육위원장상	2	성인도 청소년도 함께하는 3up 멘토링 프로그램	고양송암 고등학교
특별상			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1(개인)	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상	1	주민자치와 연계한 작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기도 이천시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상	1	의왕학습레일	경기도 의왕시청
	한국고용정보원장상	1	테크니션스쿨	전라남도 여수시청
	한국교육개발원장상	1	지역사회 수요조사와 환경분석으로 경영 개선	영등포 평생학습관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	1	세대공감 인생레시피: 요리는 감으로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한국장학재단이사장상	1(개인)	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1	배움이 즐거운 학교! 누구에게나 열린 학교!	명인정보 고등학교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상	1	3 in 1 평생학습 패키지로 다시 뛰는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나. 운영 성과

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사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 대상 1점, 우수상 5점(개인 2점, 사업 3점) 등 총 20점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은평시민대학’은 은평구 내 2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 네트워크형 대안 대학으로, 시민을 위한 학습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는 평생학습을 통해 보일러 분야의 전문가(2002년 대한민국 명장)가 되어 정년 후에도 사회 활동에 참여한 평생학습자와 충주열린학교 운영 등 교육 소외계층(문해자, 장애인 등)에게 재능 기부 활동을 한 평생학습자가 선정되었다. 사업 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는 충주시 평생학습관의 ‘자공공(自共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젝트’, 경상북도 포항시의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강원도 횡성군의 ‘형성소망이룸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하여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은평구청은 시민주도의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평생학습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 네트워크형 대안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생학습권 불평등 완화,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 지향 등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관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 사업 운영 체계의 확보이다. 평생학습대상은 2013년 국무총리상 승격 이후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상 부문 조정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대상선정위원회 구성 시 평생교육 및 교육 관련 다양한 기관의 위원을 위촉하여 홍보와 시상 부문 확대 등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대상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우수 사례 시상에 대한 유관 기관장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특별상을 11점 편성하는 등 시상 규모를 확대한 것도 하나의 성과이다.

3. 향후 과제

그동안 16회에 걸쳐 평생학습대상 수상자와 기관을 선정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한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왔다. 다만 향후 보다 발전적인 평생학습대상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생학습대상의 훈격을 승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평생학습대상은 2004년 시상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되어 5년간 시상을 해 왔다. 평생학습대상은 「헌법」제31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사업(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치하하는 국내 유일의 평생학습 분야의 시상이다. 따라서 접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평생학습대상의 성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상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대상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방법을 통한 홍보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평생학습대상은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9).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선발 공고. 세종: 교육부.

제3절

대한민국 문해의 달



1. 개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을 기념하고자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은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경제·문화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2013년 ‘대한민국 문해주간 선포식’을 거쳐 2014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9월에는 17개 광역문해교육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주관으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및 문해의 달 기념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민-관-기업과 협력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범사회적 차원의 문해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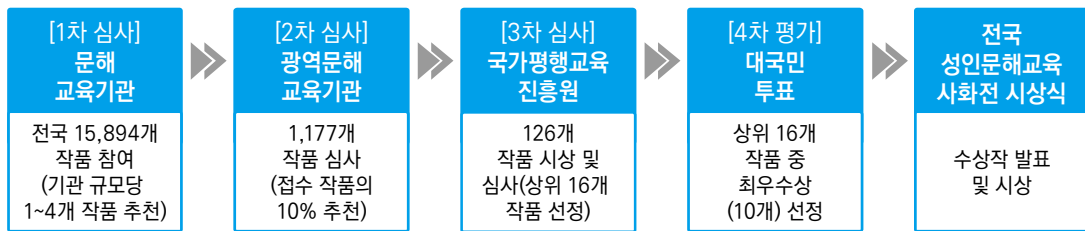
2. 주요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현황

1)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주요 추진 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문해교육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해교육기관은 시화전 참여 학습자의 작품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 접수처(광역문해교육기관)로 추천한다. 광역문해교육기관(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작품의 10%를 선정하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으로 추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학 전문가, 문해교육 전문가로 등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16개 작품 중에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수상작 발표 후에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등을 개최하여 문해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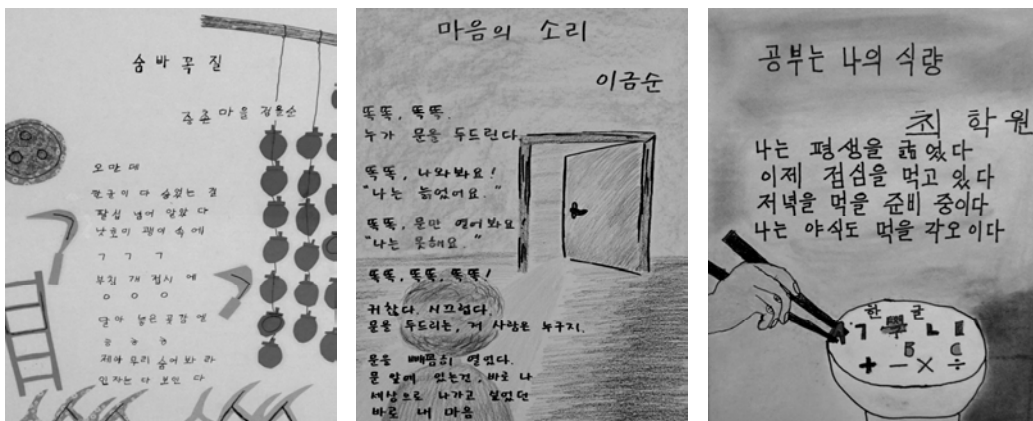


[그림 III-14] 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절차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내부 자료.

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 결과, 전국 15,894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총 122명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0명, 특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한국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40명, 우수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72명이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대국민 투표는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다. 2019년에는 대국민 투표 대상작 16개 작품 중 심사위원회 점수(50%)와 대국민 투표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0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숨바꼭질(정을순)

마음의 소리(이금순)

공부는 나의 식량(최학원)

[그림 III-15] 2019년 제8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작품

2)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대한민국 문해의 달은 매년 테마를 정하고,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문해교육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의 테마는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로, 이는 문해교육을 통해 나의 마음을 글로 쓰고 글과 시를 통해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과 함께 문해 학습자가 그간의 학습 성과를 펼쳐 보이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장이다.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은 2019년 9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화전 수상자 및 문해 학습자, 문해교육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시화전 시상식을 포함하여 문해 학습자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특별공연, 문해교육 홍보대사 위촉, 대국민 투표 최우수상작 시 낭송, 문해 학습자 축하공연, TBN(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부터 추진한 TBN 라디오 공개방송은 2019년에도 시화전 수상자 및 문해교육 정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해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III-29〉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결과(2012~2019년)

연도	일시	장소	참여 규모	비고
2012년	10. 8.(월) 1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0여 명	성인문해교육 포럼 개최
2013년	9. 6.(금) 13:00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300여 명	대한민국 문해주간 선포식 개최
2014년	9. 3.(수) 13:30	세종문화회관 드락	500여 명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2015년	9. 5.(토) 13:40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장(서울 코엑스)	500여 명	
2016년	9. 1.(목) 14: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000여 명	
2017년	9. 2.(토)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여 명	
2018년	9. 12.(수) 14: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000여 명	
2019년	9. 4.(수) 13: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000여 명	



축하공연 공부가 좋다! 인생이 좋다!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



시화전 최우수작 시 낭송

[그림 III-16]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현장

<표 III-30>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 내용
1부	13:30~13:45 15'	[식전영상] EBS, 가시나들, 칠곡가시나들 영상
2부	13:45~14:00 15'	[축하공연] 공부가 좋다! 인생이 좋다! - 사단법인 문화나눔초콜릿
	14:00~14:05 5'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 차미연(MBC) 아나운서
	14:05~14:10 5'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 - 유은혜 장관, 윤여각 원장
	14:10~14:20 10'	환영사 축사 영상 -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이찬열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14:20~14:25 5'	문해교육 홍보대사 위촉 - 배우 문소리
	14:25~14:30 5'	[시 낭송] 대국민 투표 최우수작 '숨바꼭질' - 정윤순(거창군청 문해교실)
	14:30~14:35 5'	문해교육 유공표창 수여 - 유은혜 교육부 장관
	14:35~15:05 30'	우수 작품 시상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특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우수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5:05~15:25 20'	[특별공연] 문해교육 특성화 기관 학습자 합창 - 동하신부 합창단
	15:25~15:30 5'	종합 정리
3부	16:00~17:00 60'	[TBN 라디오 공개방송]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 - 배동성 아나운서

특히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에는 금융·교통·건강·정보 등 협업 기관이 보유한 전문 콘텐츠와 문해교육을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전국문해교육 단체와 협력하여 문해교육 홍보 및 옛날 교복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이 시화전 수상자뿐만 아니라 문해 학습자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표 III-31> 민·관·기업 연계 생활문해교육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연번	부처·기업	주요 운영내용
1	생활문해교육 체험 부스	금융감독원 금융 상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도로교통공단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층 대상 건강 정보 교육 프로그램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활용 프로그램
2	대중과 소통하는 문해교육 참여 부스	전국문해교육단체(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 사업 홍보 및 옛날 교복 체험 프로그램



생활문해교육 체험 부스



전국문해교육단체 홍보 부스



옛날 교복 체험 부스

[그림 III-17] 민-관-기업 연계 생활문해교육 홍보 및 체험 부스 현장

3)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은 나라말이 없는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 전국 311만 명 비문해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문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라디오, TV,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교통방송(TBN)과 연계하여 9월 한 달 동안 3편의 라디오 캠페인(총 30회)을 송출하였다.

나. 운영 성과

2019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운영 성과는 시도 단위의 운영 체계 정착에 따른 지속 가능성 확보, 생활문해교육 체험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 강화,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2012년에 2,490개 작품으로 시작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2019년 15,894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정착하였다. 아울러 17개 시도와 연계하여 기차역, 관공서 등 지역별 시화전을 개최(총 59회)하고, 다양한 문해의 달 연계 기념 행사(24회)를 마련하는 등 문해 학습자가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표 III-32> 2012~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결과

(단위: 점)

연도	대한민국 문해의 달 테마	참여 작품 수	수상 작품 수
2012년	시와 그림으로 희망 쓰기	2,490	72
2013년	문해, 시와 그림으로 행복을 말하다	5,992	106
2014년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	5,561	130
2015년	문해, 꿈을 실현하다	5,684	134
2016년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	4,595	103
2017년	문해, 첫 시작을 열다	10,387	114
2018년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	11,832	124
2019년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	15,894	122
계		62,435	905

<표 III-33> 2012~2019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 전시 및 전국 동시 시화전 개최 결과

연도	일자	장소	전국 동시 개최 행사
2012년	10. 8.(월)~12.(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9곳
2013년	9. 6.(금)~8.(일)	세종문화회관 인근	19곳
2014년	9. 3.(수)~6.(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43곳
2015년	9. 4.(금)~6.(일)	코엑스 1층 동문 로비	30곳
	9. 17.(목)~19.(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2016년	9. 1.(목)~9. 3.(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53곳
2017년	9. 2.(토)/ 9. 27.(수)~9. 29.(금)	국회 의원회관 1, 3층 로비	75곳
2018년	9. 11.(화)~9. 13.(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및 세종로	72곳
2019년	9. 4.(수)~9. 6.(금)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및 세종로	83곳

특히 2019년에는 잠재학습자들의 문해교육 참여 촉진과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금융·교통·건강·정보 등 생활문해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국문해교육 단체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MBC TV 파일럿 예능 ‘가시나들’ 제작 후원, TBN ‘세종대왕의 꿈’ 라디오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주요 언론을 통해 문해의 달 관련 기사 약 950여 건이 보도되었다. 또한 각종 온라인 및 SNS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여 온오프라인, 세대와 지역을 넘어 문해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3. 향후 과제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통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기업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 콘텐츠 및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 유관 기관이 보유한 전문 콘텐츠와 자원을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해 학습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관-기업의 네트워크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협업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기업 협업의 범위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의 달 행사와 연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주제와 작품 형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문해 학습자들의 시화 작품에는 한글을 깨우치면서 글을 알지 못해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시화 작품의 주제를 다양화함으로써, 문해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이 느낀 용기와 희망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등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보며 작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시화뿐만 아니라 한 줄 시 짓기 등 작품 형식을 다양화하여 작품의 영역을 넓히고 학습자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은 문해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문해 학습자들이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이다. 이를 언론 및 대중매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하여 비문해자에게 학습에 대한 용기를 불어일으키고, 국민들에게는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보고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절

소결



2019년에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한민국 문해의 달’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각 사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2019년을 제7회 박람회 준비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통상 박람회는 주관 기관 선정 후 기본 계획 수립,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운영 매뉴얼 수립, 실행, 평가 및 정리의 5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주관 기관 선정 후의 짧고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준비 과정의 업무 부담과 내실과 올림이 있는 박람회 내용 확보의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충분한 박람회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1년 준비 후 다음 해 개최로 방향을 조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19년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차기 박람회의 공동 준비 기관으로 순천시를 조기 선정한 것을 필두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 부문을 설정하였고, 슬로건 및 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 협의회 및 실무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박람회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속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평생학습대상은 신청된 102건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담 심사를 거쳤다.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에 부합되도록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 대상 1점, 우수상 5점(개인 2, 사업 3) 등 총 20점을 선정하였다. 2019년 평생학습대상은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정적 사업 운영 체계를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문해의 달’ 사업은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업 성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9년 9월 ‘문해의 달’을 선포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및 사회·경제·문화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9년 시화전에는 15,894명이 참여하였고,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문해교육 특별시화전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17개 시도와 연계하여 총 59회의 지역별 시화전을 개최하고, 24회의 다양한 문해의 달 연계 기념 행사를 마련하였다. 또한 MBC TV 파일럿 예능 ‘가시나들’ 제작 후원, TBN ‘세종대왕의 꿈’ 라디오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대중매체 홍보를 실시하였고, 주요 언론을 통해 문해의 달 관련 기사 약 950여 건의 보도를 이끌어 냈다.

한편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광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에서 나아가 기업체·언론사·국제기구 등과 다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대상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대상의 훈격이 승격되도록 추진하고, 평생학습대상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상식 홍보, 언론보도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해의 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기업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문해의 달 콘텐츠 및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주제와 작품 형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문화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행태를 말하며, 삶의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현재의 평생학습 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국한하여 짚어 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생성해 나가는 지향을 더불어 두루 공유하여 생성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대상’, ‘문해의 달’에서 제시하는 주제를 융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사업의 상호 관계와 상승효과를 고려하여 전체 틀을 만들고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기획해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살필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다. 이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전파하는지가 평생학습 문화 조성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문자나 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듬고 보태며 기르는 경작형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문화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 내용이 제시될 수 있거나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대상’, ‘문해의 달’ 등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유기적으로 생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9 평생교육백서

제4부

평생교육 전망



한국 평생학습 2020 전망

1. 한국 평생교육 20년의 성장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한국 평생교육의 체제를 갖추는 전환점이었다. 기존의 「사회교육법」(1982년 제정)의 대체 입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당시 5.31교육개혁(1995년)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습계좌제(당시는 학습구좌제)나 학습휴가제도 등의 혁신적 방안들도 규정되었지만 바로 수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년 동안 「평생교육법」은 추가적인 전면 개정(2008년)과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 약자에 대한 조항들로 문해교육이나 장애인평생교육 등이 보강되었고,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일관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교육진흥원-기초자치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가 완성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 평생교육 조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역평생교육진흥 책임을 비롯하여 사업으로 추진되던 ‘평생학습도시’를 법정화하고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강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법적 책무와 권한을 실재화 하자는 의견에 따른 변화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담조직의 정비와 공공 평생교육 시설의 확충(평생학습관 471개), 전문 평생교육사 배치 등 나름대로 체계적 성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 정비로 인해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급격하게 상승(2000년 17.2% → 2019년 43.4%)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도달하고, 평생교육 강좌 수나 학습자 수 등의 양적 참여 확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평생교육의 현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2019년 평생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그 과제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이 직업교육을 포함해서 0.19%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학습정책 20년 동안 이러

한 경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비중이 높으며 시민참여교육은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운영 지역에 있어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편중(71%)이 대단히 심하다. 이는 일반 학교나 대학 교육의 수도권 집중에 더해서 평생학습 기회마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 교육방식은 원격형태의 평생학습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지원체제 사업은 기존의 평생학습계좌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온라인공개강좌 K-MOOC, 산업맞춤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Match業, 평생학습바우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넷째, 기존의 성인문해교육이나 대학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사업 규모 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지역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인지 학습도시 관련 일부 사업 지원에 그치고 있다.

중앙의 평생교육지원사업과 함께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특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인천시)을 비롯해서 문해교육(경북도), 학습큐레이터사업(대구시), 평생학습주간(부산시), 평생학습박람회(강원도, 충청도), 통합포털(충남), 지역특성화 지원(전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향으로 4차 산업혁명(메이커교육)에 대응하는 평생학습(광주시, 울산시)이나 중장년층의 은퇴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생활기술학교(경기도) 및 60+교육센터(경남도), 고학력자들의 지역 연계(부산시), 청년인생설계학교(서울시) 등과 같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상과 영역들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서울시)와 읍면동평생학습센터와 마을배움터(세종시),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제주시), 동네방네 배움툼(전남도), 학습공동체 활성화(대전시), 시민배움터 '다:이룸'(대구시) 등 생활권 학습공간과 틈새학습을 통해서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들이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체계를 고민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공간과 문화, 주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평생교육 현장은 주로 체제론이 지배하여 왔다.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설치를 비롯하여 학습도시 사업, 평생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중심 기관으로서의 평생학습관 설치, 교육 자원의 통합과 네트워크, 전문 인력으로서의 평생교육사 등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시스템의 발전이 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물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더 많은 강좌들과 더 많은 수강생들을 목표로 하여 왔다. 실제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풀뿌리 운동성과 주민의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문화로의 확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 평생교육의 성장과정에서 시민참여란 학습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그쳤다. 더 많은 강좌에 더 많은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했다. 개인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중요하다고 여겨 왔던 것이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시민 참여는 학습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한 시민조직화와 학습과 주민 활동의 선순환성을 요구한다. 이는 사회가 공적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에 이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기 학습을 통한 자기 리더십의 확보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학습을 통한 사회적 실천 활동, 풀뿌리 지역 자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년 동안의 제도화의 성과를 재검토하며 평생학습 문화와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 평생학습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가. 산업 4.0시대의 국가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미래가 불확실해진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직업 소멸, 여가 폭발 등이 미래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산업 4.0의 사회 패러다임은 교육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개발시대의 학교 중심 전통 교육 모델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과 함께,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지는 오래되었다.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 내세우는 다양한 구상들(일터는 학습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도시로, 국가는 지식강국으로)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보면 구호(rhetoric)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은 아동·청소년에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여 왔다. 이를 하연섭(2015)은 초중등교육과 성인교육의 비대칭적 구조의 ‘다이아몬드’형 교육투자 패턴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육단계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유아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 그리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초중등교육에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교육투자 패턴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초중등교육만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이 책임질 영역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학교 교육이 교육의 전부라는 근대적 사고 방식(<학교 = 교육>)의 관행이 오랫동안 교육 정책에 그대

로 투영된 것이다. 미래교육 담론이나 국가 차원의 교육 체제 구상에서도 이러한 관성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현상 유지적 교육체제로는 이러한 격량을 넘어설 수 없다. 기존의 학교교육 체제를 넘어서 노동과 문화, 복지 등의 사회정책들을 가로지르는 개념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 논의나 ‘전 국민 고용기금’ 등에 대응하는 교육 개념으로서 평생학습 정책 개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기존의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을 대치하는 개념이 아닌 통합적 정책 개념으로서 새로운 틀로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전 생애의 다양한 학습 경로들을 구축하여 학력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환승 가능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생애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교육 구상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혁신성을 대폭 제고하여야 하며 생활 공간인 지역에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나. 평생학습도시 : ‘사업’에서 ‘파트너십’으로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생활권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다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변화의 중심적 참여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재정 지원의 단위인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자원의 활용,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협력,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서 지역의 과제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시민의 학습을 소비적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은 지역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과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하나의 ‘도시(city)’라는 공간 개념을 넘어서서 ‘공동체(communitiy)’라는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 정책도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공동체 개발로 그 사업의 성격을 전환하고 있다. 공동체 개발 사업에서 그 핵심 요소는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각 도시들은 경제적, 인구적, 사회적 특성 등 지역적 맥락을 기초로 하여 도시마다 상이한 추진체제와 지역 주체 간 파트너십, 중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학습도시는 참여 전략으로서

지역의 모든 교육 주체와 자원, 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협동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평생학습도시의 현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사업을 늘려가면서 기관·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중복 문제와 비효율적 점검, 안정적 체계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에서 파트너십의 필요성은 한국 평생교육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다.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 및 표준 모델 필요

평생학습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공간으로서 평생학습관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들도 많다. 이렇게 ‘1도시 1평생학습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평생교육 시설 관련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현재와 같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정·위탁·설립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방식은 법·제도적인 측면, 조직과 인력의 측면, 기능과 역할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모든 도시에 평생학습 전달체계가 고르게 설치되어 학습 기회와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 도서관, 청소년 및 문화시설 등도 이 법률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안정적인 지원 아래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확보가 제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평생학습관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1도시 1평생학습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로 제안한다면 광역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규모와 조직, 교육과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이 모델화되어 주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상적 가치에 부합한 것인지 실천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것인지 보다 심도 있는 구상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 이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지역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운영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평생교육 전달체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법적 규정과 연계하여 평생학습관은 지역 단위에서 표준화되어 지자체 공간 규모,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어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 대응한 평생교육 진흥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평생교육 전담 기관으로서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즉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학습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주민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평생학습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평생학습기관·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역을 하나의 평생학습 공동체로 창조해가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라. 시민 학습과 지역 실천의 선순환

최근 시민의 주체적 참여 학습 모델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학습모델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마을 어디에나 숨은 고수가 있다.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 학습은 사람과 마을을 연결한다.”는 이념으로 풀뿌리 주민교육의 씨앗이 다시 키우고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센터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전후해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공유 공간에 학습 공간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형식성을 극복하는 지역화·생활화·운동화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의 평생교육체계는 행정적 체계화에 그쳐서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평생학습센터는 동네라는 생활 공간에서 주민들의 교류 ⇔ 교육 ⇔ 실천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다. 우선 기존의 공간에 프로그램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공간에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다.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과 실천(활동)을 구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의 거점이 된다.

우선 이처럼 공간을 발굴하여 교육과 실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유관 분야와 (공간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주민 각자 개인의 주체성과 실천(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은 단순히 교양과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현안 과제가 교육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실천(활동)과 연계되는 체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주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거점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사업이 검토해야

역량은 인간 역량 전반에 걸친 것일 필요가 있다. ① 기초학습역량(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자해독 프로그램, 학력보완 프로그램 등), ② 기초직업역량(직업 준비 기초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③ 문화역량(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등), ④ 지역참여 역량(시민참여 프로그램, 리더 역량 프로그램,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등) 등이 그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역량은 지역 활동으로 연계되어 '실천'화 된다. 실천(활동)은 마을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된다.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들은 개별 주민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서 시작하여,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집단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다시 마을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봉사, 체험학습, 마을발표회 및 전시회 등과 같은 마을행사로 지역사회 활동으로 확장되고 이 사회적 실천은 다른 차원의 학습경험을 하게 되어 지역사회적 역량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적 실천은 또 하나의 새로운 학습활동으로 주민의 역량을 높여주어 다양한 지역적 과제와 연결된 지역문제해결학습과 실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게 된다.

태초부터 학습은 새로운 환경과 과제에 예민하게 대응해왔던 우리의 DNA이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집단의 역량을 키우는 힘이 함께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제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뷔페식 강좌들을 차리는 것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협동적 학습을 조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활 속 공동의 과제를 학습하는 시민들에게 스며드는 학습력을 어떻게 형성해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넘쳐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평생학습의 방향일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2018).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성과자료집: 서울동네 배움터, 한걸음에 닿는 생활권 밀착학교. 서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수원시평생학습관(2019). 2018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성과집. 경기: 수원시평생학습관.
- 양병찬(2019) 읍면동 평생교육사 배치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회혁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주민자치, 2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양병찬(2018) 한걸음에 닿는 동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과 '사람'- 생활에 뿌리내리는 서울 평생학습의 지역화 실천. 제3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10월 12일. 서울: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
- 채창균, 임언, 손유미, 박동렬, 양병찬, 최일선, 김현수, 류성민(2018). 평생·직업교육분야 미래교육 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세종: 국가교육회의·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2019). 배움터, 사람과 지역을 보듬다-2018 충남 평생교육 공모사업 사례집. 충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 하연섭(2015). 5.31 교육개혁 2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교육개발 2015 SPRING. 충북: 한국교육 개발원.
- 한승희(2019). 현실이 된 미래, 평생학습이 이끄는 교육개혁.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있게 생존할 것인가, 6월 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 평생교육백서

편집위원·집필진

2019 평생교육백서 편집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양병찬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	소장	김창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실장	박선경
	중앙대학교	교수	이희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민승
	가천대학교	교수	채재은
	경북대학교	교수	현영섭

2019 평생교육백서 집필진

영역	내용	집필자	소속
총론		이희수	중앙대학교
제1부 평생교육 개요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전달체제		
	제1절 평생교육 법령 체계	강대중	서울대학교
	제2절 평생교육 법령 변화	강대중	서울대학교
	제3절 평생교육 전달체제	강대중	서울대학교
	제4절 소결	이희수	중앙대학교
	제2장 2019년 평생교육 개요		
	제1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제2절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제3절 평생교육기관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제4절 평생교육 전문인력		
	Ⅰ. 평생교육사	김정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Ⅱ.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교원	신은경	경북대학교
	제5절 평생교육 예산	이범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6절 평생교육 국제교류	임숙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7절 소결	이희수	중앙대학교
제2부 평생교육 일반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제1절 학력보완교육		
	Ⅰ. 초·중·고학력인정제	최돈민	상지대학교
	Ⅱ.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강성국	한국교육개발원
	Ⅲ. 독학학위제	유길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Ⅳ. 학점은행제	이현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성인문해교육	서민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제4절 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김종선	서울자유시민대학
	제5절 시민참여교육	김민호	제주대학교

영역	내용	집필자	소속
제2부 평생교육 일반	제6절 소결	강대중	서울대학교
	제2장 지역별 평생교육		
	제1절 국가-시도평생교육 네트워크	고영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임형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시도진흥원 평생교육	박선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최지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진주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황미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장희영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정미	대구평생교육진흥원
		고은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곽유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이상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김창섭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희정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홍순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김인록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유혜영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미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은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오세정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고영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홍숙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3절 평생학습도시 조성	고영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임형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유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4절 지역학습동아리 활동	고영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5절 소결	박선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영역	내용	집필자	소속
제2부 평생교육 일반	제3장 대상별 평생교육		
	제1절 다문화 평생교육	서헌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학부모 평생교육	김재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장애인 평생교육	오유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4절 기타 평생교육		
	Ⅰ. 여성 평생교육	이상화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Ⅱ. 노인 및 중장년 평생교육	한정란	한서대학교
	Ⅲ. 농어업인 평생교육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Ⅳ. 군 평생교육	박효선	청주대학교
	Ⅴ.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제5절 소결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장 대학 평생교육		
	제1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평생교육	신경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안현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혜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절 소결	채재은	가천대학교
제3부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활동	제1장 평생학습 지원 체제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심명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조재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이정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한규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5절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심명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6절 소결	현영섭	경북대학교
	제2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제1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이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이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대한민국 문해의 달	임두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절 소결	김창엽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
	제4부 평생교육 전망	양병찬	공주대학교

2019 평생교육백서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윤여각
주 소 (04420)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전 화 02-3780-9700
홈페이지 www.nile.or.kr
인쇄처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ISBN 979-11-90726-18-4 93370 (비매품)

본 책자의 PDF 파일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전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